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427-01
연구보고	2013-26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

연구보고 2013-26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

2013. 12.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책임자 : 황순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공동연구자 : 박현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김범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황수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신정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윤재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본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초 록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주요 관건이 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청소년이 무려 70여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수십만 명의 취약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문제 상황과 명확한 정책대상으로서의 정의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취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현황은 자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직업진로와 학업진로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자립지원영역과 더불어 학업지원 영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분리 운영되어 오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해밀)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두드림)을 접목한 효과적인 통합지원모형을 개발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델에 근거하여 대상 선정에서부터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함으로써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유용한 실천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취약청소년의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의 사후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통합모형의 구성안을 도출해 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취약청소년에 자립지원, 학업지원, 외국사례, 선행 모형이론 등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두드림·해밀사업 현장전문가 8인의 포커스그룹 운영을 통해 3차례에 걸쳐 통합모형 구성과 절차, 통합모형 내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내용 구성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하였다. 아울러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 326명 대상으로 두드림·해밀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두드림·해밀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방안 전반에 대해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모형 기초 구성안을 도출하여 학계 및 정부부처 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 연구과제로 통합모형 내의 사후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다. 개발과정은 우선,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인터뷰, 취약 청소년 심층면접, 현장 실무자 전화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후적응 프로그램 기초 안을 완성하였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2회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사후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최종 통합모형의 구조적 틀은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각 구성요소들은 대상(Client), 목표(Goal),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모형의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과 지원대상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만 13~20세의 학업중단청소년, 학업중단 숙려대상 학생, 보호·복지·교정시설 보호 및 퇴소 청소년이다. 후자는 CYS-Net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으로서 만 13~24세의 경제적·가정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해당된다.

둘째, 통합모형의 목표는 “취약청소년의 학업복귀·사회진입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며, 하위목표는 ①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진입을 강화한다, ②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동기를 강화하여 학업복귀를 촉진한다로 규정하였다.

셋째, 투입요소에는 인력, 예산, 시설이 해당되는데, 인력은 시기별(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운영기관의 역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실무자 1인당 50명 수준의 적정 사례관리가 유지될 수 있는 인력 수가 필요하다. 예산은 다른 유사 정책사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혜자 1인당 투입비용 100만원의 예산규모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점진적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시설은 시도 모형 300m², 시군구 모형 150m²의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전용공간이 필요하며, 상담실, 학습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활동요소는 직접서비스와 운영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사후관리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교육연수, 자원개발 및 연계, 홍보, 컨설팅, 기타 활성화사업이 해당된다.

다섯째, 산출요소는 사례발굴 수, 서비스 수혜인원, 프로그램 참여횟수, 상담건수, 개별지원건수, 사례관리건수를 지표로 하는 직접지원 실적과 자원연계 및 홍보, 교

육횟수, 교육참여 인원수를 지표로 하는 운영지원 실적으로 구분된다. 여섯째, 성과 요소는 자립준비수준 향상 또는 학업동기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단기성과,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기성과, 사회진입 또는 학업복귀 후 6개월 이상 적응상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장기성과로 각각 구분된다.

사후적응 프로그램은 3회기의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선택 가능한 체험활동 정보 소개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1회기는 목표성취에 대한 축하와 성공경험 강화하기(행복파티), 2회기는 장애물 극복을 위한 대처기술 익히기(꿈너머), 3회기는 미션수행을 통한 자기주도성 배양하기(우리가 만드는 FOB)로 구성하였다.

본 통합모형 개발로 그동안 양분되어 운영되던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해밀)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두드림)이 통합적으로 융화되어 더욱 일관성있고 체계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사후적응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성공경험을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I. 서 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
- 2. 연구의 과제4

II. 이론적 배경 | 5

- 1. 취약청소년의 개념5
- 2. 취약청소년 자립지원8
- 3. 취약청소년 학업지원23
- 4. 모형 이론33

III.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 과정 | 38

- 1. 모형 개발 절차38
- 2.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39
- 3. 취약청소년 설문 조사53
- 4. 취약청소년 심층 면접69
- 5. 전문가 델파이 조사81
- 6. 분석내용 요약 및 시사점100
- 7. 전문가 자문102

IV.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 108

- 1. 대상108
- 2. 목표111
- 3. 투입114
- 4. 활동127
- 5. 산출146
- 6. 성과147

**V. 사후적응 프로그램 개발 | 150**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150
2. 사후적응 프로그램 구성 안	155
3. 전문가 자문	157
4. 시범운영	158
5. 시범운영 결과	160
6. 최종 사후적응 프로그램	166

VI. 결 론 | 169

1. 요약	169
2. 논의 및 제언	172

참고문헌 | 177**부 록 | 189**



Ⅰ 표

표 1. 취약청소년의 조작적 정의 및 규모	7
표 2. 부처별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13
표 3. 자립지원 관련 시설(기관) 현황	17
표 4. 해외 자립지원 현황	20
표 5.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지원 관련 법규	26
표 6.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	27
표 7. 해외 학업지원 현황	31
표 8.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형의 정의	35
표 9.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현황	40
표 10. 현장전문가 포커스 집단 인터뷰 질문 내용	41
표 11. 두드림·해밀 업무분장 안	48
표 12. 취약청소년 설문조사 내용	54
표 13. 취약청소년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	55
표 14. 학업중단 시기	56
표 15. 학업중단 기간	57
표 16.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	57
표 17. 받고 있는 서비스 종류	58
표 18.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58
표 19. 앞으로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59
표 20. 도움이 된 서비스	61
표 21. 축소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62
표 22.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63
표 23. 서비스 과정 중 불편 사항	65



표 24. 환경적인 불편 사항	66
표 25. 추천 여부	66
표 26. 심층 면접 대상자 현황	70
표 27. 심층 면접 질문 내용	71
표 28. 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분포	83
표 29. 델파이 조사 과정	84
표 30. 1차 델파이 조사 내용	85
표 31. 전체 조사 분석내용 및 요약	100
표 32. 전문가 자문 1차 질문 내용	103
표 33. 전문가 자문 1차 내용	104
표 34. 전문가 자문 2차 질문 내용	104
표 35. 전문가 자문 2차 내용	106
표 36. 적합 대상 조사결과 비교	110
표 37. 통합모형 서비스 대상 요약	111
표 38. 취약청소년 지원 목표 비교	112
표 39. 통합모형 목표 요약	114
표 40. 전담인력 수 필요 의견 비교	115
표 41. 두드림·해밀 사례관리 현황(2012년)	116
표 42. 타 사업간 사례관리 인원 비교(실무자 1인당)	117
표 43. 통합모형 인력구성 및 역할 요약(시·도)	120
표 44. 통합모형 인력구성 및 역할 요약(시·군·구)	122
표 45. 1인당 투입 비용 비교	123
표 46. 예산편성 필요 항목 비교	124
표 47. 통합모형 예산 규모 및 편성항목 요약	125
표 48. 통합모형 시설 설치기준 요약	127



표 49. 통합모형 프로그램 제공 요약	131
표 50. 유사 정책사업 사례관리 비교(2013년 기준)	133
표 51. 통합모형 사례관리 요약	135
표 52. 통합모형 사후관리 요약	137
표 53. 통합모형 컨설팅 표준절차 요약	141
표 54. 통합모형 컨설팅 필수 지도항목(예시)	142
표 55. 통합모형 운영지원 요약	143
표 56. 통합모형 활동(Activity)의 지역별/시기별 차이 요약	145
표 57. 통합모형 산출 요약	147
표 58. 통합모형 성과 요약	149
표 59.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 사후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153
표 60. 취약청소년 심층면접 중 사후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154
표 61. 현장실무자 인터뷰 내용	154
표 62. 사후적응 프로그램 최종(안)	156
표 63.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57
표 64. 시범운영 대상자 현황	159
표 65. 시범운영 회기평가 질문지	160
표 66. 시범운영 회기별 프로그램 만족도	160
표 67. 사후적응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	165
표 68. 사후적응 프로그램 최종안	167



I 그림

그림 1. 2007-2009 CYS-Net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요구 현황	25
그림 2.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의 유형	28
그림 3.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조적 틀	37
그림 4. 통합모형 개발 절차	39
그림 5.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기존 대상 및 적합 여부	43
그림 6. 두드림·해밀 서비스 흐름도 제시안	128
그림 7. 통합모형 프로그램 제공 흐름도 제시안	130
그림 8. 사후적응 프로그램 개발 절차	150
그림 9. 통합모형 논리모델	171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세기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다.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Becker도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가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교육을 잘 받은 질 좋은 인적자본(노동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강순희, 윤석천, 박성준, 2011).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시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¹⁾은 1983년 처음으로 대체출산율²⁾(2.1명) 이하로 떨어지고, 청소년 인구도 2000년 전체 인구의 24.5%에서 향후 2030년에는 13.7%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청소년들은 양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주요 관건이 된다(홍봉선, 남미애, 2010).

하지만 제대로 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청소년이 무려 70여만 명³⁾에 이른다. 따라서 수십만 명의 취약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문제 상황과 명확한 정책대상으로서의 정의가 필요하다. 취약청소년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노경란, 김미경, 변정현, 오성욱, 이호남, 전연진 외, 2008; 변숙영, 이수경, 이종범, 2009; 윤철경, 이해연, 서정아, 윤경원, 김영한, 백혜정 외, 2005; 이인숙, 2004; Aday, 1993; The serve America Act, 2009)과 국내 법적 근거들(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 4호; 아동복지법 제3조 4호; 국무총리훈령 제545호 제2조)을 종합해보면, 취약성의 판단기준으로 교육수준, 경제적 형편, 취업능력, 가정환경, 기타 개인·환경적 위험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으며, 학문적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규필,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규필(2013)이 정의한 바와 같이,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함.
2) 대체출산율은 합계출산율 수준이 2.1명으로 지속되면 정지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함.
3) 취약청소년 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청소년 301,000명(청소년백서, 2011), 시설보호 17,119명(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0),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그룹홈 청소년 19,813명

수 있는 청소년을 취약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취약청소년 유형을 빈곤가정의 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복지·교정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퇴소한 청소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Erikson의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로서 분명한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워 각자 원하는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며 진로·직업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취약청소년들은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고 학업으로부터 단절되어 신체·심리·사회적인 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보이고 있어 성인기로의 원활한 자립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역기능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고 단절된 학업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전문기관의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시의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취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자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직업진로와 학업진로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립지원 영역은 위 두 가지 영역 외에도 다양한 영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자립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무형의 기술과 유형의 기술((Maluccio, Krieger, & Pine, 1990; Mech, 1994), 자원관리기술과 자기관리기술 또는 기본기술(신혜령, 2001; Cook, 1986)로 구분하여 제시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조규필(2013)이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실증조사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도출한 7가지 자립준비영역(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기보호, 학업관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립지원서비스들은 직업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교육지원, 생활지원 영역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는 가출이나 청소년비행, 빈곤, 실업, 사회부적응 등 취약청소년이 처한 문제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금명자, 2008; 김경준, 정익중, 김지혜, 류명화, 2006; 김순규, 2004; 김지혜, 안치민, 2006; 대검찰청, 2012; 박창남, 김희진, 김선업, 2001; 배영태, 2003;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 허영준, 김재호, 2007; 손순용, 2005; 표갑수, 1993; Sweeten, 2006) 학업지원 영역은 학령기에 있는 취약청소년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취약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자립지원영역과 더불어 학업지원 영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모형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실시된 연구로는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2010)의 취약청소년 자립지원모형 개발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 가출, 학업중단의 3가지 취약청소년 유형별로 자립지원에 필요한 9가지 서비스 영역을 3~5 단계로 구분하여 표준화된 서비스 체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실천적 적용가능성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즉, 취약청소년 유형별 표준화된 모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규모와 현실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지난 2012년 8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업중단 등의 취약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두드림'과 2011년부터 추진되어 온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 '해밀'이 2013년에 '두드림·해밀' 사업으로 통합되어 전국 5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물리적인 통합 수준으로 구체적인 실천모형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분리 운영되어 오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해밀)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두드림)을 접목한 효과적인 통합지원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방법은 실천적 연구 성격으로서의 연구방향을 갖고,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델에 근거하여 대상 선정에서부터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함으로써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유용한 실천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통합모형 운영시 부족한 영역으로 제기되었던 사후적응 프로그램을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함께 개발함으로써 통합모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약청소년 대상의 양적조사와 심층면접, 현장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며, 문헌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이론적 근거와 현실에 부합된 전문적 지원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시범적인 수준으로 운영되어 오던 취약청소년 지원사업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보다 많은 취약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과제

본 연구는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되어 온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해밀)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두드림)을 접목한 통합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통합모형은 두드림·해밀 사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취약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을 개발한다.
- 추가적으로,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⁴⁾에 성공한 취약청소년들의 학업지속 및 사회적응을 위한 사후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사회진입'은 일반적으로 '사회진출'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음의 2가지 이유로 사회진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①'사회진출'은 사회 쪽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사례관리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고 더 이상 돌봄이 없다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사회진입'은 사회쪽으로 '들어간다'는 시작의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음. ②'학업복귀'는 학업 쪽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반해, '사회진출'은 '나가는' 개념으로서 용어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음.

II. 이론적 배경

1. 취약청소년의 개념

가. 취약청소년 용어 정의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학문적 용어로 개념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책대상화 할 경우에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고(김화순, 2006; 조규필, 2013),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취약성의 개념으로 몇 가지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연령(16-21세의 저연령), 거주지역(도시빈민가, 침체지역), 교육수준(학교중퇴, 미진학), 취업상태(실업, 저임금노동), 가정형편(저소득, 결손)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데(노경란 외, 2008), 이러한 취약성의 판단기준에 따라 취약청소년을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취약청소년의 개념을 조규필(2013)이 정의한 바대로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청소년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은 학교부적응이나 가사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빈곤가정의 청소년, 가출 청소년, 가정해체 및 청소년 비행 등으로 복지·보호·교정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퇴소한 청소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나. 취약청소년의 유형

취약청소년을 집단유형별로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사망, 전학 이외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이유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다(표갑수, 1993; 황창순, 1996; Good, 1973).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유형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업중단 전의 자발성 여부와 학업중단 후의 적응형태, 학업중단으로 초래되는 결과의 맥락으로 분류하고 있다(황순길, 정현주, 김범구, 양대희, 이은경, 2012). 그 중 자기탐구형(박현선, 2003)이나 진학형(이숙영, 남상인,

1997), 유능한 중퇴자(Morrow, 1986)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자발적 유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추병식, 2003), 문제가 되는 대상은 학교부적응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비자발적 학업중단 유형이다(박현선, 2003).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여러 관점에서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만, 연구 주제의 맥락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진로목표에 초점을 두고 분류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시설보호 및 퇴소 청소년 역시 자립에 많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신혜령, 2001; 조규필, 2013).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시설보호 대상을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보호·지원하고 있는 아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아동청소년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이지만 가정해체나 학대 및 방임, 청소년 비행 등으로 가정 외 보호서비스(out-of-home child care)를 제공하는 청소년쉼터,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셋째, 취약청소년 중에서도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 가출청소년이다(조규필, 2013). 최근 청소년 가출의 특징은 저연령화, 반복가출, 장기가출의 현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데(국가청소년위원회, 2007a; 배문조, 전귀연, 2002; 정정은, 2008),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개인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정혜경, 권혜진, 2001), 사회적으로도 비행 및 범죄 피해,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특히 가출의 반복성과 장기화 현상은 가정이 더 이상 보호와 양육의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조건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보다는 사회복귀 및 자립을 돕는 형태로의 변화(국가청소년위원회, 2007)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정복귀가 필요한 일시적 가출청소년(Runaway)과 시설보호 청소년과 유사한 성격의 보호체계 청소년(System Youth)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을 국가차원의 학업 및 자립지원이 시급한 가출청소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넷째,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구별할 때 빈곤가정의 청소년을 들 수 있다(조규필, 2013). 빈곤청소년은 일차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20%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소년인 경우를 말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은 가구적 차원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빈곤계층이라 할지라도 가구적 차원에서는 빈곤가구가 아닐 개연성이 있다(노대명, 최병두, 조명래, 류정순, 2006). 아울러 사회적 발달과 사회적 균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상대적 빈곤계층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노혁, 2004) 비수급 소득빈곤층 가정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들은 빈곤문제로 인해 신체, 심리, 사회, 인지, 감정 등 모든 발달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허남순, 오정수, 홍순혜, 김혜란, 박은미, 정익중, 2005), 체계적인 진로지도 받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이시연, 박은미, 2009) 스스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고 있어 성공적인 자립이행에 어려움이 많다(조규필, 2013).

이상과 같이, 취약청소년의 범주에 속한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보호 및 퇴소 청소년, 빈곤 청소년 각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청소년의 규모는 각 유형의 취약성이 중복적으로 혼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만약 취약청소년 수의 중복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할 경우 과대 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중복률을 고려한 실태 파악 연구가 없어 정확한 취약청소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추정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표 1과 같이 각 대상유형 간의 중복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취약청소년 규모를 추산해보면, 전체 약 76만여 명에 달한다.

표 1. 취약청소년의 조작적 정의 및 규모

취약집단	정 의	규모
학업중단 청소년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사망, 전학 이외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이유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76,589명 ¹⁾
가출청소년	가정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보호자나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되었거나(Homeless Youth),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버려졌거나(Throwaway), 장기가출 등으로 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청소년(Street Youth)	23,427명 ²⁾
시설보호 및 퇴소청소년	가정해체나 비행문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을 떠나 보호·복지·교정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퇴소한 청소년	19,420명 ³⁾
빈곤청소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 빈곤층 가정의 청소년	643,627명 ⁴⁾
계		763,063명

-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 (2011)
- 2)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2012)
- 3) 법무부 「소년보호통계」 (2010), 보건복지부 「이동복지시설현황」 (2011), 여성가족부 「2010년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평가」 (2010.12), 2011 보건복지백서 (2011),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2010)
- 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1), 수급가정 청소년기(10-19세) 273,627명과 보건복지부 「2010년 빈곤실태조사」의 차상위계층 185만명(3.82%)의 청소년인구비율 20%를 적용한 37만명을 합산하여 추산.

2.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가. 자립관련 특성

(1) 자립의 개념

취약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자립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生界)를 유지함’, ‘업매임이 없이 스스로의 지위(地位)에 섬’을 뜻해 독립성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지만, 청소년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들(노혁, 2006; 신혜령, 2001; Maluccio et al., 1990)에서는 독립성의 개념과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성의 의미도 강조되고 있다. 즉 ‘자립이란 개별적 독립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상태’(신혜령, 2001)로서 자립의 개념에 독립성과 관계성이라는 대비적 개념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립은 ‘정당한 지위를 갖는 사회 일원으로서 상호보완적인 대인관계 유지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원활용을 통해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상태’(조규필, 2013)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립의 의미는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Powell(1963)은 청소년기의 자립적 과업으로 설명한 바 있다(Powell, 1963; 박용순, 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조규필(2013)이 정의한 바와 같이, 청소년 자립의 개념을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기의 자립적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자립준비 과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취약청소년의 자립관련 특성

취약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자립관련 특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심리·정서적 어려움(박은선, 2004; 신혜령, 2001; 오승환, 2006;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회, 이현진 외, 2011), 자립에 대한 동기와 목표의식 결여(노혁, 2004; 신혜령, 2001; 오승환, 2006; 이시연, 2005; Mech, 1994), 불안정한 주거(Dworsky, 2005), 저학력이나 학력단절(Barth, 1990; Freundlich & Avery, 2006; Mech, 1994; Trout, Hagaman, Casey, Reid, & Epstein,

2008), 직업진로 정보 부족(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노혁, 2004; 이용교, 2006; 전경숙, 2005), 사회성 결여(김희성, 2002; 배주미 외, 2010; 이용교, 2006; Nollan, Wolf, Ansell, Burn, Barr, Copeland et al., 2000; Pasztor, Clarren, Timmberlake, & Bayless, 1986), 일상생활기술 부족(박은선, 2004; 신혜령, 2001), 경제관념 희박(국민은행연구소, 2000; 권미화, 이기춘, 2000; 김지혜, 2005; 최순중, 2005; 홍은실, 2005; Baron & Hartnagel, 2002) 등 사회진출 및 자립을 어렵게 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인기로의 자립이행 과정에 있는 취약청소년의 경우 원만한 사회진출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립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정의 돌봄이 취약한 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김희성, 2002; 박은선, 2005; 손혜옥, 최외선, 이미옥, 2008; 신혜령, 2000; Cook, 1986; Iglehart, 1994; Maluccio, et al., 1990). 아울러 자립준비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제시되었는데(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김희성, 2002; 신혜령, 2000; Cook, 1986; Nollan et al., 2000; Pasztor, et al., 1986), 최근 조규필(2013)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립준비 영역을 종합하여 7가지 영역(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기 보호, 학업관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취약청소년 스스로 필수 자립준비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전문기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취약청소년 자립지원현황

(1) 정부 차원의 지원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지원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직업지원 영역

직업 및 취업과 관련된 지원은 자립지원 영역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로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취업성공패키

지, 취업사관학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등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1단계) → 의욕·능력증진(2단계) →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취약청소년인 경우 만15~24세까지 대상이 되며 취약계층의 개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둘째, 고용촉진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한해 최대 860만원까지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된다.

셋째, 취업사관학교는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만15~24세 청소년에게 특정 직업기술을 습득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숙형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와 숙식을 무료로 지원하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인센티브로 제공되며 수료 후에는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② 주거지원 영역

특정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 밖으로 독립해야 할 상황에 처한 취약청소년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주거문제이다. 주거지원은 주로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국토교통부 산하의 LH공사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거나 범죄피해자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있다.

둘째, LH공사의 주거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나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등에 대해 전세주택 무이자 지원을 하거나, 영구임대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하거나, LH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임대하여 수혜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임대나 매입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도모 및 자활을 돕고 있다.

③ 경제적 지원

취약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고용노동부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나 취업사관학교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에게 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등에게 사회진출 시 필요한 학자금이나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성격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기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9~18세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생계비와 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만으로는 실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기타 연료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④ 교육지원

교육부의 경우,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주로 학교 전담부서 및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주관하여 제공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의 자녀나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60~9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할 소재지 내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퇴소자를 대상으로 대학입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규모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00~500만원, 또는 입학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⑤ 생활관리 등의 자립준비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50개소에 지원하는 두드림·해밀 사업이 대표적인 자립준비 지원사업이다. 두드림·해밀은 만 15~24세의 학업중단 및 시설보호 등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3과정(자립동기 강화, 자립기술 습득, 사회진출 지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과 검정고시 지원 및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등의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

(해밀)을 지원하고 있다. 즉 진로목표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한 대상은 우선 학업복귀를 목표로 지원하지만 직업을 통해 사회진출을 원할 경우 7가지 영역(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사회적 기술, 주거생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의 체계적인 자립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자립지원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이 사회진출시 학자금이나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이다. 기본 적립은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매월 3만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3만원씩 1:1 매칭펀드방식으로 적립된다.

표 2. 부처별 취약청소년 지원지원 현황

부처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	지원범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64세 (※취약청소년의 경우는 만15세~만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최대 20만원 2단계: 최대 월284,000원 취업수당: 최대 10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정 프로그램 이수한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지원액 : 720~860만원
	취업사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각종 심리검사 및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전문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과 필요한 기술을 익혀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위기 청소년 (15~24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 숙식 제공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 지원대상자에게 국민임대·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 인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임주로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좌 기본 매칭적립은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1 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만18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매칭적립 지원 : 월 3만원씩 1:1 매칭 추가적립 : 후원자 등에 의해 최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까지 적립 가능
	월세 및 장학금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가 되어 정상적으로 시설퇴소시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 및 사례관리를 통한 초기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퇴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세금(1인 최대 40만원)

부처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	지원범위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출산 전후 산모의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 지원 자립이 필요한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전설정·직업진로발견·경제관리·자립생활기술·직업현장체험·사회진출 등을 통해 실제적인 자립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하 산모 25세미만 청소년 한부모 만 15~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연 154만원 이내 자격증 취득비, 검정고시 지원비 등 사회진출 시 필요 경비 지원
	두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교육 및 맞춤형 진로교육과 직업훈련 등 진로지원 프로그램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입국청소년과 북한이탈청소년 	
	레인보우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해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기초적인 생계비·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계비·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 중 보건의료·주거·복지·법률·교육·취업·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 중 보건의료·주거·복지·법률·교육·취업·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구도교통부	내공사 주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공사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전세주택지원, 영구임대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복지시설 퇴소자, 미혼모,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주택 지원: 국민주택규모(85㎡:25평) 이하 주택 무이자 지원, 만20세까지 5회 연장 가능 영구임대 지원 :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 내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임대하여 저렴하게 임대(시세의 30% 수준)

부처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	지원범위
교육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복지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전담부서 및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협약된 민간기업 등 	
	범정부 희망찾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자립에 필요한 입학금과 생활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관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금, 생활자금 지원
지법지치단체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침체와 불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과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자활청소년(실직자 가정포함) 근로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지급액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무한돌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만으로는 실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공시지가 기준)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세가지 모두 충족 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기타(언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 기요금 등)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진학시 대학입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의 대학입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입학금 100~전액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있음)

(2) 자립지원 관련 인프라

국내 주요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적으로 8종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3 참조). 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양육시설은 전국 242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15,000여명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시설 당 1명씩 배치되어 입소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복지부 산하 자립생활관은 전국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퇴소 및 기초수급가정의 청소년에게 일정기간 숙소제공 및 정서적 상담 등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을 돕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 11,622개소의 위탁가정을 돕기 위해 중앙 1개소 및 전국 1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청소년그룹홈은 탈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해 5~7인의 아동을 가정형태로 보호·양육하는 시설로서 전국에 348개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나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전국에 92개소(단기 49, 중장기 30)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업중단 및 시설퇴소 등 취약청소년의 학업복귀나 자립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 50개소에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사회적응과 자활을 돕기 위해 전국 28개소의 자활센터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보호공단 산하 자립생활관은 소년원 출소자를 대상으로 무료숙식제공 및 학업연계, 취업활동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전국에 8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표 3. 자립지원 관련 시설(기관) 현황

부처	시설종류	운영 법적 근거	주요 프로그램	현황	대상자/인원
보건 복지부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 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전국 242개소	15,313명
	자립생활관	아동복지법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퇴소 후 일정기간 숙소 제공 및 정서적 상담, 자립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 	전국 12개소	만 18~25세 시설퇴소, 기초수급가정 청소년/ 249명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 	중앙 1개소 전국 17개소	11,622개(가정 수)
	아동청소년그룹홈	아동복지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방식 	348세대 (법적지원세대)	해체가정아동/ 가정당 5~7인
	청소년자활지원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바른 진로 의식 및 직업관 확립 동아리 활동 지원 취업 전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진로, 취업, 가족지원, 문화, 기타) 	전국 28개소	차상위계층 자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홍보, 민간협력사업 추진, 선도프로그램 개발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생활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가정·사회복귀, 중장기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전국 92개소 (단기 : 49개소 중장기 : 30개소)	가출청소년
여성 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드림·해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준비프로그램 : 자립동기강화과정, 자립기술훈련과정, 사회진입 도약과정 학업복귀 동기강화, 학습능력향상 등 	전국 50개소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 17,000명
법무부	법무부 보호공단 산하 자립생활관 (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로숙식제공, 학업연계지원, 취업활동지원, 현장체험지원, 재능기부자연계지원 	전국 8개소	소년원 출소자/ 최대 126명

(3) 해외 자립지원 현황

취약청소년에 대한 선진국의 자립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립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문헌조사를 통해 해외의 대표적인 자립지원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Chafee Independence 프로그램과 Jobcorps 있다. 전자는 미국의 위탁보호 자립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에 따라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이 성인기로의 원활한 자립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8-21세의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의료보호(medicaid)의 연장, 자산의 한도를 1만불까지 확대, 사회보장법에 따른 서비스 지속 제공,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준비 훈련,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인센티브 추가 지원금 지원, 자립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측정을 포함한다. 잡코프는 최소 16~24세의 위기청소년에게 진로발달 및 취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은 8개월간 기숙사에 거주하며 4단계(입학, 진로준비기간, 진로발달기간, 직업전환기간)에 걸쳐 경력관리와 자립생활 성공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익힌다.

영국은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Learning and skills Act 2000에 근거하여 설립된 '커넥션즈(Connexions)'가 있다. 커넥션즈에서는 13~19세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안내,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장애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직접서비스는 영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커넥션즈에서 수행하는데, 다수의 PA(Personal Advisor)가 청소년에게 일대일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교육이 끝난 뒤에도 추적시스템을 통해 NEET청소년에게 취업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6~21세 요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 및 보호서비스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Young People Leaving Care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청소년에게 라이프 코치를 배정하여 서비스 종료 이전에 요구진단을 실시하고 진로계획을 수립하며 매 6개월마다 지원계획을 수정하는 것이다.

독일은 대규모 시설 중심의 시스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소규모의 전문화된 그룹홈 체제로 변화되면서 그 대표적인 시설로서 하임(Heimerziehung)이 등장하였다. 하임은 원래 2차 대전 후 전쟁고아를 위한 고아원이었으나 현재는 고아는 거의 없고, 학업중단, 양육갈등, 가출, 범죄, 정신장애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기숙형 대안치료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800개소에 이른다. 보통 8~10명의 아동청소년을 4명의 전문지도자가 상근하며 문제 해결 및 자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배주미 외, 2010).

일본의 경우에는 1977년 아동복지법의 대대적인 개정에 따라 관점이 ‘보호’에서 ‘자립지원’으로 전환되었다(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경희, 2008). 자립지원 대상은 시설아동과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NEET)으로 나누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년실업의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액션 플랜(Action Plan)이 있다(김미숙, 2009). 액션플랜은 기업실습과 직업훈련을 혼합한 실무·교육인재양성 시스템, 지역청소년 서포트 스테이션, 청년자립합숙, 잡카페의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밖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돕기 위한 리빙케어(Leaving Care)와 자립원조홈 프로그램이 있다(배주미 외, 2010).

한편, 캐나다는 인적자원개발부(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를 중추로, ‘청소년 고용전략’을 통해 취업을 준비중인 청소년의 직업훈련 기회와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적절한 직업을 갖도록 경험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대표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기 청소년 지원반’과 Youth Pathways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는 교육청소년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에서 청소년들이 적절한 직업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전환기청소년지원반(Youth Pathways Action Plan Taskforce)을 발족시키고, 호주교육평등센터(Australian Center for Equity through Education:ACEE)에서 청소년 당면문제와 해결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전경숙, 2005). 이 프로그램은 크게 현황 파악(tracking), 멘토링(mentoring), 서비스 알선(brokering), 개별 지도(case management)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Youth Pathways 프로그램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12학년에 상급학교나 직업학교, 혹은 직업의 세계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사회 또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성공적 진입을 돕기 위해 일대일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4. 해외 자립지원 현황

국가	프로그램명	대상	목적 및 서비스내용	관련법(부처)
미국	Chafee Independence Program	18-21세 시설보호 청소년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에게 자립전환기 21세까지 자립지원을 통해 안정된 사회 적응을 도움 · 의료보호(medicaid) 서비스 연장 · 자산의 한도를 1천불에서 1만불까지 확대 · 사회보장법의 복지서비스 지속 제공 · 입양부모 대상 교육 및 자립준비 훈련 ·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 자립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Job Corps	16-24세 위기 청소년	위기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기숙생활방식 평균 8개월 거주 · 아웃리치와 입학, 진로준비기간, 진로 발달기간, 직업전환기간의 4단계 지원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Educational Training Voucher (ETV)	21세이하 위탁보호 청소년	고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제공 · 21세까지 의료보호 혜택 지원 · 1년에 5000달러까지 대학이나 직업교육 비용 지원 · 방세 및 식비 지원 · 개인별 자립준비사정과 사례계획서비스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Preparing Adolescents for Young Adulthood (PAYA)	위탁보호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일상생활기술 훈련(5모듈) ① 경제, 주거, 식생활 관리 ② 자기관리, 건강, 안전, 의사결정 ③ 교육, 구직, 직업유지 ④ 주택, 교통, 지역사회자원, 법, 여가 ⑤ 부모교육(성, 출산, 의사결정, 임신, 아동 발달, 아동안전, 건강관리, 교육 및 진로설계)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Life Skills Training Program (LST)	16-21세 위탁보호 및 보호관찰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획득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킴 · Los Angeles 의 19개 지역대학에서 주 2회 3시간 참여하는 5주간의 교육과정 · 교육, 취업, 일상생활기술, 선택과 결정 및 생존기술, 대인·사회성 기술 등의 과정으로 구성	California Child Welfare Services
	Transitional Living Project (TLP)	16-21세 가출/노숙 청소년	가출 및 노숙청소년의 장기적인 자립 지원 · 기관실무자의 지도 하에 Transitional Living Home에 거주하며 생활기술습득, 직업훈련, 최대 21개월 주거 지원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Youth Build	16-24세 저소득층 청소년	청소년 문제해결과 저소득지역의 주거, 교육, 취업, 범죄 예방, 리더십 발전 · 건설 현장 실습과 대안학교 수업 병행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Baltimore Youth Opportunities Program (YO)	16-22세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	일상생활기술 수업 및 현장에서의 직업 기술훈련 진행 · 청소년에게 Employment Advocate가 배정 · 직업기술훈련과 일 중심 학습의 혼합 · 매주 배운 일상생활기술을 직업경험, 인턴십을 통해 적용, · 주 30시간의 유급근로, 사례관리자가 튜터링	Youth Opportunity Grant

국가	프로그램명	대상	목적 및 서비스내용	관련법(부처)
영국	Connexions	13-19세 위기 청소년	청소년의 원활한 성인기로의 전환 · 지역Connexions에서 서비스 수행 · 다수의 PA(personal Advisor)가 청소년 에게 일대일 접촉 · 직업연결 서비스와 멘토링 제공 · 학교교육이 끝난 뒤에도 추적시스템을 통 해 NEET청소년에게 취업기술 훈련 제공	Learning and Skills Act (2000)
	Young People Leaving Care in Scotland	16-21세 요보호 청소년	양육 및 보호 서비스 종료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자립지원 제공. · 라이프코치 배정 · 서비스 종료 이전에 요구진단 실시 · 진로계획 및 수정 · 최소 매 6개월마다 계획 수정	Children Leaving Care Act
	Young People Leaving Care in Westminster	15-18세 시설보호 아동, 18-21세 관리시스템 종결아동	청소년의 독립생활으로 전환 지원 · 사회복지사 10명, 커넥션담당자 3명, 주거지 원담당자 2명과 관리자로 구성된 팀 운영 · 1년에 3회 주거문제, 예산 세우기, 독립 기술훈련 등 10주 프로그램 제공	Children Leaving Care Act
독일	하임 (Heimerziehung)	20세미만 위기 청소년	소규모, 주거형 대안치료교육시설 · 전국 4,800개소 설치 · 평균 8명의 아동청소년을 4명의 전문지도 가가 담당하는 그룹홈 시스템 · 지역병원과 연계-주 2회 개인상담 · 그룹홈 통한 자기조절능력 습득 지도	아동청소년 지원법 (KinderJugend Hilfe Gesetz)
일본	리빙케어 (Leaving Care)	시설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의 퇴소 후 자립 준비 · 일상생활분야전반의 사회기술의 습득 · 직원과의 인간관계 맺기	아동복지법
	자립원조홈	15-20세 시설퇴소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주거서비스 · 기숙생활 통한 취업지도 및 일상생활 및 직장 적응 상담	아동자립생활 원조사업
	일본판 dual system	NEET 청소년 및 청년	학교교육을 마친 후 직업생활 연결이 용 이하도록 기술향상 도모 · 기업실습과 직업훈련 혼합 ·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유료전문과정, 직 업능력개발촉진센터 4개월 무료과정	액션플랜 (NEET 청소년 대상 정책)
	청년자립합숙	NEET 청소년 및 성인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능력의 습득 및 노동의식 고취 · 20명의 참가자가 3개월 간 합숙을 통 해 생활훈련, 직장체험, 자원봉사체험 ·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습	액션플랜 (NEET 청소년 대상 정책)
	job cafe	NEET 청소년 및 청년	프리터 및 일반청년의 취업지원 거점 ·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 실시 · 직업 및 능력개발, 창업지원정보제공, 직장체험,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	액션플랜 (NEET 청소년 대상 정책)

국가	프로그램명	대상	목적 및 서비스내용	관련법(부처)
	지역청년 support station	NEET 청소년 및 청년	NEET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 기본적인 능력양성, 직업의식 고취, 사회적응 훈련, 상담지원사업, 직업의식개발사업, 코디네이터사업, 아웃리치 요소 포함	액션플랜 (NEET 청소년 대상 정책)
캐나다	청소년 고용전략	취업대상 청소년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으로 성인기에 필요한 직업능력 배양 · 숙련도 제고, 경력증진, 하계직업경험	인적자원 개발부
호주	전환기 청소년 지원반	전환기 청소년	청소년 당면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 4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 현황파악, 멘토링, 서비스알선, 개별지도	교육 청소년부
	Youth Pathways	12학년 학생	상급학교 진학 또는 직업 전환 지원 · 일대일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목표성취 지원 · 학교→사회, 학교→직장으로 성공적 진입 위한 지원제공	

라. 시사점

국내외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정책과 프로그램 현황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자립지원 영역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정책은 주로 고용지원, 주거지원, 자립정착금이나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의 대상에게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교육지원, 생활관리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의지, 사회적 기술, 자기보호, 학업관리 등의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지원시설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경우 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의 성격상 기능중심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에 취약청소년 지원정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지원 정보가 부족한 취약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와 같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처별 차별없이 대상자에게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융합행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방향이라고 하겠다.

셋째, 해외 선진국의 자립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①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지원 : 보호체계를 떠나는 요보호청소년에 대해 일상생활관리, 주거, 직업, 학업, 건강, 경제관리, 사회적기술 등 다양한 자립준비 영역에 대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 18~22세 전후의 시설이나 위탁보호 종결 또는 성인기로의 사회진출 단계에 있는 자립전환기 청소년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립전환기 안정적인 사회진출 및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다양한 전문인력의 다학제적 접근 : 자립준비 과정에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효과적인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라이프 코치, PA(Personal Advisor), Employment Advocater, 심리치료전문가 등이 운영되고 있다. ④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평가 : 다양한 자립지원 영역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성 측정을 위한 증거기반실천(EBP: Evidence Based Practice)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국내 자립지원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점, 18세 이후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는 점, 자립지원 인력의 전문화가 미약하다는 점, 프로그램 평가의 과학화가 걸음마 단계라는 점 등에서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진모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3. 취약청소년 학업지원

가출, 시설보호, 빈곤 등의 문제를 지닌 취약청소년은 학업문제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가출청소년 중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39.4%임에 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60.6%나 된다(김지혜, 안치민, 2006). 다른 보고에서도 가출청소년 중 52.7%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유서구, 최은영, 2012), 가출청소년 중 절반이상이 학업중단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출청소년들 중 50~60%가 반복된 가출로 인해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김경준 외, 2006). 아울러 가출청소년은 교육에 대한 욕구는 잠재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 여건 및 기회가 박탈되어 있음(김지혜, 안치민, 2005)을 감안할 때, 가출과 학업중단과의 높은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비행문제와 학업중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행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은 범 죄율, 체포율, 수감율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weeten, 2006). 학업중단에 대한 판별분석 연구에서도 비행행동, 부적절한

성행동, 불량 교우관계 등의 부적응적 태도가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영태, 2003), 중도탈락을 고려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음주, 흡연, 가출, 성관계, 약물흡입, 자살충동, 범죄경험 등 비행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창남 외, 2001). 실제로 2013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범죄청소년 중 학업중단청소년 수는 17,680명으로 누적 학업중단청소년 수 278,260명(윤철경, 2013) 중 6.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학생의 범죄율 0.72%보다 무려 8.82배나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비행과 학업중단과의 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그룹홈 등 원가정 외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취약청소년은 학업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규필, 2013; Festinger, 1983; Trout, et al., 2008). 실제로 미국의 위탁보호 청소년의 위탁보호 종결시 학력을 보면 37~60%(Burley & Halpern, 2001), 혹은 58%(Mech, 1994), 34%(워싱턴 보건사회서비스국) 만이 고졸학력이나 GED를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undlich & Avery, 2006 재인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학력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시설퇴소자 771명 중 고졸이하는 56.9%, 대학진학은 43.1%로 대학진학율은 일반인(8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2011). 이처럼 시설보호 청소년의 학업문제 또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욕구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2010; 이경상, 조혜영, 2005). 이를 살펴보면, 윤철경(2010)은 41.5%,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45.3%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준비계획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범구와 조아미(2013)는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준비를 위해 학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취약청소년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학업중단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취약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 관련 논의는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업관련 특성

학업중단청소년들은 비록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

다(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CYS-Net 종합 정보망 통계를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2007-2009년 사이 3년간 CYS-Net을 이용한 학업중단청소년의 서비스 지원요구 사항 중 학업지원이 연평균 779건씩 증가하여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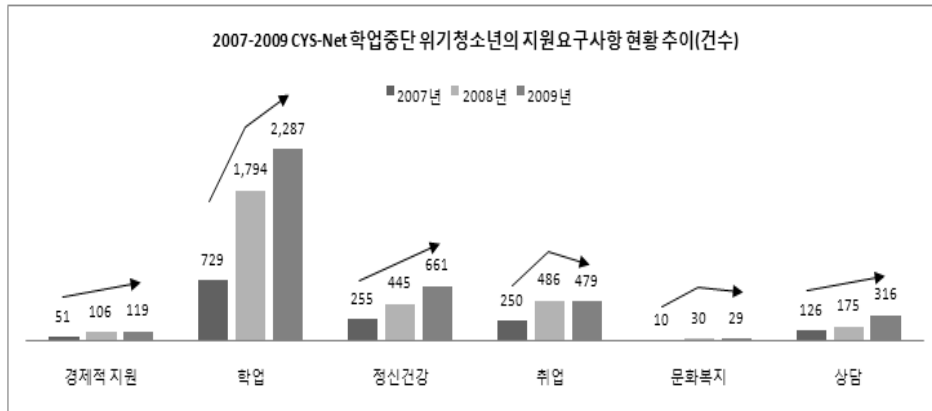


그림 1. 2007-2009 CYS-Net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요구 현황

* 출처 :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2010)

하지만 이들이 갖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학업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닌 학업 관련한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 관련하여 자아개념이 낮고,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하며, 지적수준이 낮고,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으며 학업성취 수준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강석영, 양은주, 방나미, 2011; 배영태, 2003; 서우석 외, 2007; 신현숙, 구본용, 2002;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유진이, 2009;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아울러,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며,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하여 지각된 진로장애 수준이 높다(강석영 외, 2011; 양미진 외, 2007; 황선미, 신현숙, 2007).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학습에 자신감을 잃고 학교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결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게 된다. 학교를 떠나고 초기 몇 개월 동안은 일시적인 자유로움을 만끽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특히 학력단절로 인한 취업장벽에 부딪히면서 다시금 학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조규필 외, 2011). 이 경우 학업중단청소년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어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며(이혜숙,

서은정, 2010), 현재의 부적응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변화의지를 갖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관심을 갖게 된다(김범구, 2013).

나. 취약청소년 학업지원 현황

(1) 법적·정책적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는 표 5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의, 지원 근거 및 체력검사, 건강진단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는 특별지원 대상 중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에 대해 물품 또는 금전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고교육법 제60조3항(대안학교)에는 대안학교의 정의,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학업중단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5.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지원 관련 법규

법규	내 용		
청소년복지지원법	· 17조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 14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초·중·고교육법	· 60조 3 : 대안학교		
지방자치단체 조례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경기 성남시 · 경기 부천시	· 경기 안양시 · 경기 하남시 · 서울 강동구 · 울산 동구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원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지원 사업 두드림·해밀’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전국의 50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발굴하고, 전문가의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을 통

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바라는 검정고시 학력 취득, 복교, 대안학교 입학 등의 학업복귀와 직업훈련, 취업역량 강화 등 건강한 성인기로의 준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진로미결정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설정을 돕고 있다.

또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다. 여기에서는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가구의 소득 일정액에 따라 지원이 상이하나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소외자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만 18세 이하의 교육소의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자재 및 교재 구입, 시설 개선비 등의 교육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중이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대안교육 기관 종사자 연수지원, 대안교과개발 및 운영지원, 학교밖 청소년 발굴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해당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표 6.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

지원정책	지원내용
두드림·해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청소년의 발굴 • 검정고시 준비 • 개인상담, 집단상담 • 학습지원 • 체험활동(대학탐방 등) • 대안캠프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금 및 수업료(대안학교 포함) • 교과서 구입비 • 검정고시 학원비
교육예산 지원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미인가 교육시설 예산 지원
학교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 서울, 광주 • 학업중단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 대안교육지원 • 학업중단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 •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2) 민간의 지원

민간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김성기(2013)의 연구를 참고로하여 유형화하면 그림 2와 같다.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안은 대안교육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여부에 따라 인정(인가) 대학학교, 비인정(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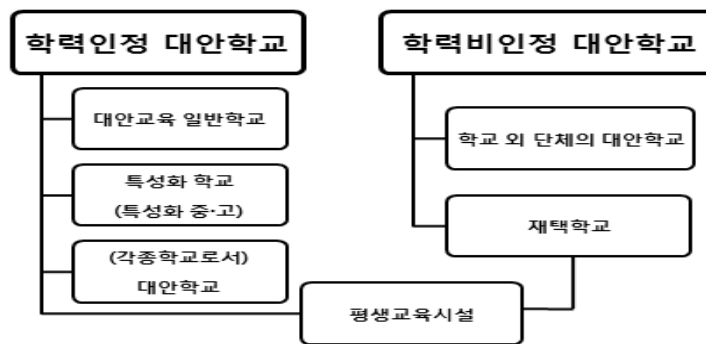


그림 2.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의 유형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살펴보면 대안교육분야의 특성화학교로는 현재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24개교가 있으며 특성화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화 방안에 따라 전인교육, 인성교육, 체험위주의 교육, 신앙교육, 기초교육, 자연현장 실습, 노작교육, 생태학적 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둘째로 각종 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가 법정화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7개 시도에 19개교(공립 5개교, 사립 14개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로 인가받기 어려워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은 경우도 있어 등록금 현황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나 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을 볼 수 있다(김성기, 2013).

학력비인정 대안학교를 살펴보면, 첫째,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은 전국에 56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둘째, 학교 외 단체의 대안학교가 있다. 이러한 단체의 대안학교로 우선,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등 공립시설의 일정 공간에서 '대안학교' 사업을 펼

치는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하자작업장학교, 스스로넷미디어스쿨 등이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서울시의 학교밖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현장은 29개 학교가 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평생교육시설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며,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 94개가 운영되고 있다(김성기, 2013). 그 밖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민간교육시설 10개소, 방과 후 교육기관 10개소, 그룹홈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다. 해외 학업지원 현황

미국의 경우, 학업중단 및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Youth Build, CEPS, YO, M&M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뉴욕시의 청소년발전위원회(Youth Development Institute)에 의해 시작된 CEPS (Community Education Pathway to Success)는 고등학교 학위취득, 학업기술훈련 등 학업중단청소년들에 대한 학업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에 시작되어, 뉴욕의 Bronx, Manhattan, Brooklyn 등의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CEPS는 읽기 능력이나 수학 능력이 낮은 16세~24세까지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며, 청소년 발달, 사회적 지지, 진로관련 서비스의 통합을 추구한다(배주미 외, 2010). 교육훈련 바우처(ETV)를 통해 1년에 5000달러까지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유스빌드(Youth build)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업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김범구, 2013). 유스빌드는 16세~24세까지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6개월~24개월 동안 전일제로 일하면서 고등학교 학위 취득이나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미국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리더십 교육, 주택건설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스빌드에 참여한 학생 중 대부분이 학업중단청소년으로, 현재 46개주에서 273개 유스빌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매년 10,0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볼티모어의 YO 프로그램(Baltimore Youth Opportunities Program:YO)은 학업중단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취업,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김범구, 2013).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의 예방 및 학교복귀지원법(Dropout Prevention and Recovery Act)을 통해, 학교 단위 학생의 동기부여 및 유지 프로그램(School-Based Pupil Motivation and Maintenance: M&M)을 진행하고 있다(김성기, 2012).

영국의 경우 비치크로프트 스쿨(Beachcroft school)은 11세~16세의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회능력개발을 통해 주요 교육시스템에 재적응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서비스는 두 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리큘럼 1에서는 읽기, 쓰기 학습을 하고, 커리큘럼 2는 영어, 수학, 과학과 대학입학시험(SATS)을 교육한다(City of Westminster).

독일은 '계속교육법'을 근거로 대부분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길모퉁이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퇴학이나 제적 위기학생을 포함한 14세 이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준비하거나 교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인 국민대학에 학교졸업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일본은 학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도쿄슈레(Tokyo Shure)가 있다(김범구, 2013). 도쿄슈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정진주, 이지영, 임재한, 2008), 장기결석자, 제도권 학교 부적응자, 기존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 치유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석, 시간표, 과제, 체험학습 등 모든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대안대학으로 도쿄슈레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김범구, 2013; 맹영임, 김민, 200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취약청소년 학업지원 현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배주미 외, 2010).

표 7. 해외 학업지원 현황

국가	프로그램명	대상	목적 및 서비스내용	관련법(부처)
미국	Educational Training Voucher (ETV)	21세 이하 위탁보호 청소년	고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제공 · 1년에 5천달러까지 대학 학비 또는 직업교육비 지원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Youth Build	16-24세 저소득층 청소년	청소년 문제해결과 저소득지역의 주거, 교육, 취업, 범죄예방, 리더십 발전 · 건설현장 실습과 대안학교에서의 수업 병행 · 대안학교: GED, 고등학교 학위취득을 위한 학습지도 (학업중단청소년 90%이상)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ARRA)
	Community Education Pathway to Success(CEPS)	16-24세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읽기훈련과 산수훈련 교육과정 · 3가지 혼합모델 : 청소년발달 원칙, 철저한 교수, 구조화된 학생지지	NY Youth Development Institute
	Baltimore Youth Opportunities Program (YO)	16-22세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	고등교육기관 진학 지원 · 일상생활기술 수업 및 현장에서의 직업기술훈련 진행 · 각 청소년에게 Employment Advocate 배정	Youth Opportunity Grant
	M&M 캘리포니아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청소년	학교단위 동기부여 및 유지 · 학업중단청소년 발견 및 욕구충족 · 제도권 교육 연계	Dropout Prevention and Recovery Act
영국	Beachcroft School	11-16세 학업중단 청소년	연령에 따른 차등 교육 실시, 잠재력 발휘 및 학업복귀 장려 차등 커리큘럼 시행 · 1과정 : 읽기, 쓰기수업 · 2과정 : 영어, 수학, 과학 대입시험 (SATS) 교육	Westminster
	Connexions	13-19세 위기청소년	· 교육부 주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체제 구축 · 학업중단자 발생시 '재적응 심사위원회' 구성 : 해당 청소년의 복귀 프로그램 제공	Learning and Skills Act (2000)
독일	길모퉁이 프로젝트	14세 이상 퇴학/제적위기, 학업중단	사회적인 자격을 갖추어 직장생활을 준비하거나 교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계속교육법
일본	Tokyo Shure (도쿄슈레)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교육철학 하에 모든 것을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학교 · 자기주도적 교육 과정운영 · 홈스쿨링 지원 · 대학운영	민간운영

라. 시사점

취약계층 청소년과 학업중단은 상호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비행을 하고 있는 시설보호 청소년 및 경제적 취약성 또한 학업중단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비록 학교를 그만두었으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범구, 2013; 김현국, 강명숙, 권기승, 김성기, 이현정, 채효정, 2011; 윤철경, 2010), 이에 대한 준비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업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는 자칫 달성해야 할 목적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및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단계가 전개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한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원에 대한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지원과 취업준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예가 많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원 프로그램은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학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취약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약이 따른다. 이에, 좀 더 통합적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및 민간 기관의 원활한 연계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김범구, 2013; 배주미 외, 2010).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부적응적 생활태도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 변화의 경험을 위해 전문 거주형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10일간의 기숙형 대안캠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이나 생활태도 변화, 자존감 향상 등의 역할을 완수하기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전문 거주형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김범구, 2013).

끝으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학업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 및 안정감을 갖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모형 이론

본 연구에서 통합모형 개발에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2013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는 취약청소년 학업 및 자립 지원사업(두드림·해밀)은 이전에는 두드림과 해밀사업으로 나뉘어져 운영되어 왔다.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를 돕고자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두드림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로 여러 부처를 거쳐 추진되어 오면서 당초 개발 당시의 프로그램 목표와 정책대상이 조금씩 수정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나 현장 실무자 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더구나 2011년부터 시작된 학업중단청소년 학업지원사업 '해밀'이 2013년에 '두드림'과 통합되면서 학업과 자립의 두 가지 진로 궤적을 동시에 희망하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사업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두드림해밀 사업은 매년 수십억원의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명확한 성과관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되어야만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정부정책이나 사업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에 따라 종래의 투입·과정 중심의 업무관리 방식에서 성과 달성도를 중시하는 결과 지향적 관리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문종열, 2007). 즉, 지금까지 평가해 온 방식은 목표 대비 실적 분석이라는 간단한 진도분석으로 깊은 방법론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았으나(노화준, 2006), 점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평가방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투입에서 성과까지의 인과론적 과정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두드림·해밀 통합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두드림해밀 사업의 대상, 목표, 투입, 활동, 산출, 성과의 전 과정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실무자와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간의 명확한 인식의 공유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우선 프로그램 이론(program theory)과 논리모형(logic model)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프로그램 이론은 프로그램의 작동에 대한 암묵적 가정이며,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이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시각이며, 둘째는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형은 같다는 견해이고, 셋째는 양자를 대상-수단의 관계가 아니라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김동립, 이삼열,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입장 가운데 첫 번째 주장에 비중을 두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론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논리모형이 제시될 수 있지만 논리모형이 프로그램 이론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반면 논리모형은 반드시 그 자체가 프로그램 이론이거나 프로그램 이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이석민, 2011).

프로그램 이론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여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가정이며(Bickman, 1987; Chen, 1990; Donaldson, 2003), 이러한 생각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김지혜, 2004),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인 인과관계의 고리를 개념화하는데 초점을 둔 수단과 목적 간의 위계이며(Patton, 1997), 프로그램의 투입과 그로부터 예상되는 성과를 묶어주는 인과론적 연결고리에 관한 설명이다(Weiss, 1995). 프로그램 이론은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 관심을 갖는 과정이론(process theory)과 프로그램의 활동이 의도한 효과를 유발시켰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심을 갖는 영향이론으로 구분된다(Rossi, Freeman, & Lipsey, 1999). 전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처치되어 어떤 결과가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적 이론 또는 처방적 이론과 유사한 개념이며, 후자는 프로그램과 의도한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연결, 중재, 조절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인과적/기술적 이론과 유사하다(Chen, 1990). 또 거시적, 미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이론을 설명한 Shadish(1987)에 따르면, 거시적 이론은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프로그램 내외부의 사회적, 정치적, 조직적, 경제적 환경들에 대한 서술이며, 미시적 이론은 프로그램의 본질, 기능,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보았다.

논리모형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또는 개입의 근본적인 논리를 묘사한 단순화된 도해(graphic display)로서(Renger & Titcomb, 2002),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획(planning), 설계(design), 관리,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자 핵심이

며, 논리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은 사고의 방법 또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Taylor-Powell, Jones, & Henert, 2003). 또한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구성요소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Bickman, 1987; Kaplan & Garrett, 2005; W.K.Kellogg Foundation, 2004). 즉, 논리모형은 자원, 활동, 의도된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인 셈이다(McLaughlin & Jordan, 1999; Renger & Titcomb, 2002). 논리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자원, 활동, 산출, 결과로 구분되는 도표나 경로모형 형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McLaughlin & Jordan, 2004; W. K. Kellogg Foundation, 2004). 이러한 시각적 형태는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대화를 촉진하는 도구로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프로그램 이론을 구축하는데 활용하였다(김지혜, 2005; Cooksy et al., 2001; Julian, Jones, & Deyo, 1995; Savas, Fleming, & Bolig, 1998; Solomon, 2002). 논리모형은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나 모금재단 등에서 재원의 투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틀(evaluation framework)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형의 주요 정의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김동립, 이삼열, 2011).

표 8.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형의 정의

프로그램 이론	논리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의도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고 현상을 잘 반영하는 모델(Bickman, 1987) •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요구되는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이러한 목표와 영향이 어떻게 야기되는지에 대한 진출(Chen, 1990) •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즉 처치를 통해 상황이 개선되는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일련의 명제들(Lipsey, 1993) • 왜,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Weiss, 1995) • 프로그램이 어떻게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적 틀(Donaldson,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자원, 활동, 결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표현하는 체계적이고 시각적인 방법(W. K. Kellogg Foundation, 2004) •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결과, 활동과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가정을 표현하는 흐름도(Wholey, 2004) • 프로그램의 자원, 활동, 결과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한 프로그램 저변의 이론과 가정을 나타내는 시각적 표현(Kaplan & Garrett, 2005) • 프로그램 저변의 변화이론을 기술하기 위한 수단(Frechting, 2007)

* 출처: 김동립, 이삼열(2011)

이와 같은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형의 유용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였는데, 이를 김동립, 이삼열(2011)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조, 구성요소, 목표 달성의 논리를 가시화함으로써 관계자들이 공통된 인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전체 과정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둘째, 프로그램의 핵심적 목표와 평가지표를 인식하고 이론과 실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학습의 장이 되며 구조적 문제의 발견 및 보정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 자체의 평가나 개선 외에도 사회과학적 지식 축적에 기여한다.

나.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적용

논리모형은 일반적으로 평가모형에 자주 활용되지만, 서비스 표적집단과 목표를 명료화하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의도한 목표가 활동을 통해 산출되는 원리를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모형 개발에 사용되기도 한다(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 조규필,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을 토대로 통합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이론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프로그램 목표 간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한눈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사업으로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두드림·해밀사업에 대한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두드림·해밀 통합모형에 대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조적 틀은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기본 구성요소는 유사하기 때문에 김지혜 등(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 조규필, 2006), 이석민(2011), 문종열(2007)이 제시한 모형을 재구성하여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석민(2011)이 제시한 모형 구성요소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통합모형에 적용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대상 및 체계조건으로서 통합모형의 대상과 지역사회자원 환경, 관련 법규 등이 어떠한지 기술하는 단계이다. 둘째, 투입(Inputs)은 프로그램 자원으로서 실무인력, 자원봉사자, 시설 및 장비, 연계자원 등을 포함한다. 셋째, 활동(Activity)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개입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변화의 과정으로

서 프로그램 활동, 상담, 사례관리, 교육훈련, 통합정보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넷째, 산출(output)은 프로그램 등 개입활동의 가시적 성과로서 사례발굴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서비스건수, 홍보건수, 교육건수, 교육참여 수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 성과(outcomes)는 프로그램 실행이나 서비스 개입으로 얻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로서 초기성과, 중간성과, 장기성과로 나뉜다. 단기적 성과는 개입을 통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인식, 지식, 기술, 태도, 열망, 동기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간적 성과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며 행위, 의사결정, 정책, 사회적 행동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 장기적 성과는 실제적 이익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살펴 본 결과 통합모형 개발에 필요한 몇 가지 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두드림과 해밀사업을 검토하여, 현장의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이끌어 내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이론을 구축함으로써 활동과 결과 간의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밝히고 프로그램을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안된 프로그램의 원리와 가정에 대해 논리모형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과 모형의 통합을 이끌어냄으로써 두드림·해밀 통합모형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시된 구조적 틀에 따라 수집된 청소년의 요구와 현장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조화하여 시의적절 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 절차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개발을 통해 두드림·해밀사업의 운영체계 모형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부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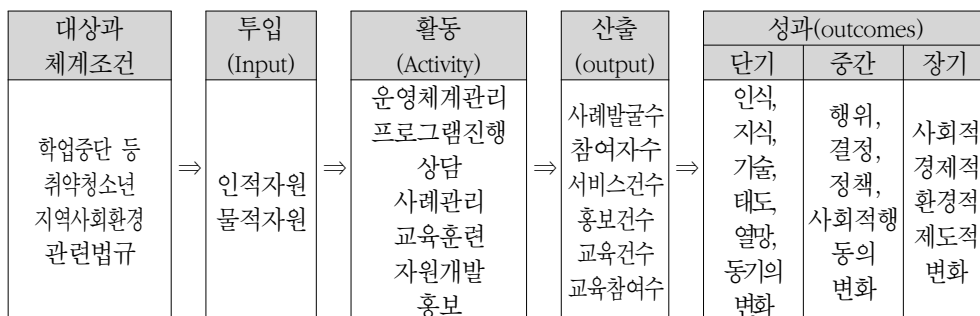


그림 3.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조적 틀

Ⅲ.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 과정

1. 모형 개발 절차

본 연구의 통합모형 개발은 취약청소년의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현장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 위치에 있는 학계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천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통합모형 개발에 적용한 프로그램 논리모델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국내외의 취약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학업지원 사례 등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현장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모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취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양적·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적의 서비스 제공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아울러 수집된 현장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결과를 예측하기에 유용한 델파이 조사(노승용, 2006)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재 통합모형 운영 시 부족한 영역으로 제기되었던 사후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명확한 설명을 위해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통합모형 기초 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기초 안에 대해 학계 및 정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함으로써 최종 통합모형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 개발절차는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각 조사방법별로 조사대상, 조사절차, 조사내용, 조사결과 등은 다음의 각 절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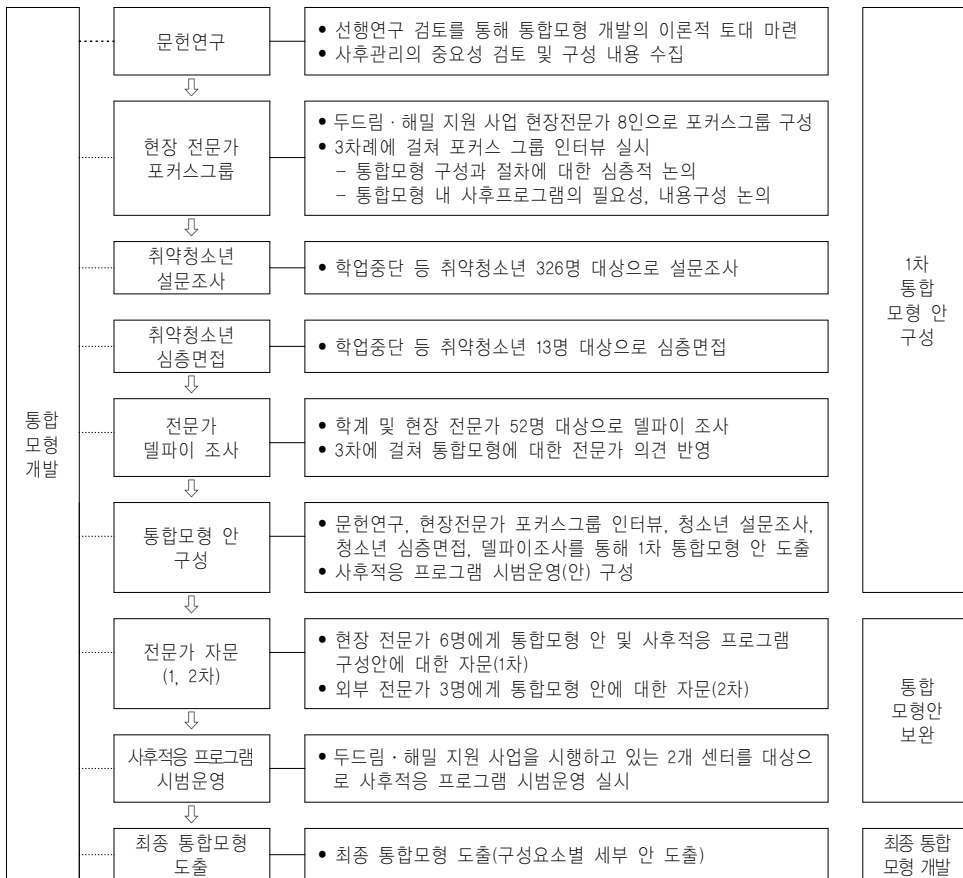


그림 4. 통합모형 개발 절차

2.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목적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을 위하여 경험적 기초자료를 얻고자 취약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은 현장전문가들이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경험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통합 모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나. 대상 및 내용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경력 5년 이상인 현장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정은 1차가 2013년 3월 말, 2차가 4월 말, 3차는 2013년 5월 말에 진행되었으며, 매 차수 인터뷰 시간은 약 180분이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표 9에 제시되었다. 현장 전문가의 성별로는 남자 2명, 여자가 6명이었으며, 나이는 30대가 3명, 40대가 3명, 50대가 2명이었다. 평균 경력은 9.5년이었으며, 학력은 석사 졸업 이상이었다.

표 9.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현황

구분	성별	나이	경력	지역	직위	학력
1	여	40대	7년	전남	팀장	박사수료
2	여	30대	8년	대구	팀장	석사졸
3	여	40대	9년	경기	팀장	석사졸
4	여	50대	9년	부산	부소장	석사졸
5	여	30대	10년	경기	부장	박사과정
6	여	30대	7년	경남	상담원	석사졸
7	남	50대	20년	경북	부장	박사졸
8	남	40대	6년	강원	팀장	석사졸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사용한 질문내용들은 본 연구에서 통합모형 개발의 이론적 기반에 사용한 프로그램 논리모델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즉, 논리모델의 구성 요소들로서 통합모형에 필요한 서비스 대상,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 대한 내용을 질문으로 구성된 ‘모형 구성과 절차’를 포함하였으며, 기관 내부의 직·간접서비스 외에도 외부 자원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계’ 관련 질문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현재의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재의 서비스 대상, 욕구, 애로 및 개선사항을 선행질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도출된 질문내용은 다음의 표 10에 제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시작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녹음 및 연구결과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 구조화된 질문 문항에 따라 포커스 그룹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의 답변 중 보다 구체화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질문을 하여 의미에 혼돈이 없도록 하였으며, 인터뷰가 종료된 직후에는

연구자간 인터뷰 진행내용과 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각각의 연구진이 축어록의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를 범주화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진술의 요약을 합의하여 기록하였다.

표 10. 현장전문가 포커스 집단 인터뷰 질문 내용

구분	질문내용
기본 사항	1. 선생님의 전공, 학위, 경력, 현재 근무처, 현재 센터 근무경력, 관련분야 연수 등을 말씀해 주세요.(자기소개)
	2. 지금 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수혜자 욕구	3. 지금 현재 서비스 대상은 적절한가요?
	4. 현재 사업 수혜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애로 및 개선 사항	5.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 한계는 무엇인가요?
	6.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개선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정부 정책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사업이 확장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모형 구성과 절차	7. 통합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대상, 성과목표, 서비스내용 및 절차 등)
	8. 통합 모형의 투입요소(input)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인력의 규모, 서비스 콘텐츠, 예산규모, 공간, 환경분석 등
	9. 서비스 제공 절차(throughout)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0. 서비스의 결과(output)는 무엇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서비스 00회, 서비스 수혜 인원 00명)
	11. 서비스의 궁극적인 성과(outcome)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학업복귀, 취업, 자립준비도 향상 등)
연계	12. 사업연계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사업연계 시 연계기관(예: 학교, 교육청, 보호관찰소 등)과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 사업연계 시 연계의 내용과 규모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연계기관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13. 사업연계 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위해 더 노력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다. 인터뷰 결과

(1) 서비스 대상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에 대한 논의결과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기존의 두드림·해밀 서비스 제공 대상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분되었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또래친구의 입소문이나 검정고시 학원, 혹은 CYS-Net의 연계기관 소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교정시설 청소년으로 소년원 출소 예정자,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중에 의뢰된 청소년이 해당된다. 셋째, 보호시설 청소년으로 중장기 및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 미혼모시설에서 생활하는 십대미혼모,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성매매피해청소년, 공동생활가정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이 해당된다. 넷째, 복지시설 청소년으로 현재 시설퇴소를 앞두고 있거나 시설퇴소 청소년이 해당된다. 다섯째, 교육시설 청소년으로 현재 학교 재학 중이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이거나 전문계고에서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 해당된다. 기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원 등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자립생활관,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참여하는 대상이다.

이 중 앞으로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부처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정책대상은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데 전체적인 의견 일치가 있었다. 다만 가정의 돌봄이 취약하여 보호체계에서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청소년의 경우, 연령 제한 등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준비없는 사회진출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 대상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별작업을 통해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소년원 출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인 청소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대상자 중 자립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중 희망자, 기타 학교상담사가 장기결석이나 학업중단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의뢰한 재학생도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적합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원변동이 잦은 일시쉼터나 단기쉼터의 가출청소년은 적합하지 않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단체로 의뢰되는 청소년이나 전문계고 등 학교에서 단체로 의뢰되는 청소년은 참여 동기가 거의 없어 서비스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요한 건, 어떤 소속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자립준비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제대로 선별하여 참여시키는 것이다.

기존 대상
① 학업중단 : 개인(또래 입소문), 검정고시학원
② 교정시설 : 소년원 출소, 보호관찰, 수강명령
③ 보호시설 : 청소년쉼터(증장기/단기), 미혼모시설,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④ 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⑤ 교육시설 : 학교부적응, 대안학교(비인가), 전문계고
⑥ 기타 : 자립생활관, 평생교육시설



적합 대상	부적합 대상
① 학업중단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변동이 잦은 일시/단기 쉼터의 가출청소년 • 보호관찰소에서 단체로 의뢰된 수강명령 청소년(참여동기 부족) • 전문계고 등 학교에서 단체로 의뢰된 경우
② 출소 예정인 소년원 청소년	
③ 사회진출 예정인 보육시설의 청소년(만 18세에 퇴소)	
④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이 선별하여 의뢰한 경우(특히, 수강명령보다는 보호관찰 대상이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적합)	
⑤ 보육시설이나 소년원을 퇴소한 자립생활관 청소년 중 서비스 희망자	
⑥ 학교상담사가 부적응 학생을 선별한 경우(장기결석, 학업중단 고위험군)	

그림 5.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기존 대상 및 적합 여부

(2) 수혜자 욕구

지금까지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한 수혜자들의 요구사항들은 물질적 지원과 비물질적 지원으로 나뉘볼 수 있다.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물질적인 지원이었다. 예컨대, 검정고시 준비나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비나 교재비,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비, 면접준비 관련 이·미용비나 신발 구입비, 사진촬영비, 치아 치료 및 임신 진료 등의 의료비,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활동비 등의 지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비물질적 지원으로는 심리·정서적 상담, 학력취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결,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이 있었으며, 부모의 경우 자녀의 여가시간에 대한 관리 욕구도 있었는데 이는 주로 실무자의 전문성이나 관심을 기울여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대부분이었다.

(3)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 수행 시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이 대상자, 운영관리, 기관연계의 3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첫째, 대상자 측면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접촉 자체가 어려운데다가 집단으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었다. 취약청소년의 경우 대상자의 특성상 학력취득이나 취업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실적, 예산, 인력, 센터 간 협업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실적문제는 장기적인 사례관리 대상에 대해 투여되는 시간·노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점, 두드림 서비스의 사회진출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예산문제는 시군구 센터의 경우 사회진출 비용이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인력문제는 사례관리 대상 수와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실무자 수가 부족하여 타 직원들과의 업무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필요시 청소년 동반자가 사례관리에 참여하지만 3개월이라는 서비스 기간의 제약과 센터에 상주해 있는 않은 데 따른 공간적 제약이 협력에 걸림돌이 되었다. 센터 간의 협업문제는 광범위한 지역을 맡고 있는 도센터의 경우 시군구센터들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연계 측면에서는 연계기관의 종류가 대상자를 의뢰해 오는 시설·기관(쉼터, 보육원, 학교 등)과 두드림·해밀에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취업처, 학원 등)으로 나뉘지는데, 연계의 성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반응의 수준은 연계 자체에 부정적인 경우, 연계에 소극적인 경우, 연계는 하였지만 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반응수준이 달랐다. 연계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의 보호시설 중에 일부가 연계 시 서비스의 중복에 따른 영역 침해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기관·시설 내의 자체 일정 조정이 어렵거나 연계에 따른 도움정도가 크지 않다고 여기거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계 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의사소통 부족의 문제, 사례관리 시 소속기관·시설의 기대와 이용청소년의 기대 차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개입의 문제, 개입에 따른 결과의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림·해밀에서 서비스 연계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주로 두드림에서 취업을 통해 사회진입을 지원할 때 의뢰 청소년이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두드림·해밀에 대한 취업처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어 추가적인 취업 연계가 곤란해지기도 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연계 시에는 일선 학교에서 숙려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으며, 숙려제 상담 이후 교육청에서 사후 결과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대상자, 운영관리, 연계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첫째, 대상 관련해서는 두드림·해밀 서비스의 주 대상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학업중단이 아닐지라도 CYS-Net을 통해 발견되는 위기청소년 중에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자립준비나 학업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도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을 명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상 연령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해밀 서비스 대상자 연령은 만 13~24세이지만 자립준비를 위한 두드림 서비스 대상은 만 15세~24세로 하한 연령의 차이가 있는데, 두드림 대상의 하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연령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드림 서비스의 경우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구체적인 자립준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중1~2 연령대의 저연령 청소년에게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다른 진로교육 성격의 여러 프로그램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예산, 인력, 서비스 지역에 관한 개선의견이 있었다. 예산은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진출 및 학업복귀와 관련된 직접 지원비(검정고시 지원비, 구직 시 면접 준비비 등)의 비중을 늘려야 하며, 특히 실무자 1인당 사례관리 대상이 과다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두드림·해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센터의 경우 두드림·해밀 미 실시 지역이 많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 서비스 제공의 역할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연계관련해서는 연계할 상대 기관에 대한 두드림·해밀 서비스 홍보 강화, 연계시설의 센터 운영위원 위촉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및 협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두드림·해밀 서비스 외에 센터 내의 타 서비스와 연결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될 만하다. 예컨대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동반자나 멘토링 등의 서비스와 연결하면 참여태도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예정)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교육부(교육청)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4) 통합모형의 구조적 틀

본 연구의 통합모형 개발 방향은 프로그램 이론에 근거한 논리모형을 전체적인 통합모형의 구조적 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논리모형은 대상, 목표,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형 운영에 따른 행정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해 포커스그룹 참여자의 집중적인 논의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입요소 (Input)

투입요소에는 예산, 인력,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시설 등이 포함된다. 첫째, 예산요소에는 기존의 프로그램비와 운영비 외에 사업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공과금 등 시설유지비, 컴퓨터, 책상 등의 전담인력 사무비품 등)가 추가 배정되어야 한다. 직접지원비 성격의 사회진출 및 학업복귀 지원비(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 지원비 등)는 단가가 커서 충분한 배정이 어렵지만 사업의 성과를 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비이므로 증액이 요구된다.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자가 몰리게 되는 유인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두드림·해밀도 이와 같은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현행 예산구조상 충분한 배정이 어려울 경우 특별지원청소년 지원금을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문화활동비(동아리 활동비 포함)의 경우 후순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참여집단 간의 응집력을 높이고 소속감을 갖게 하여 참여자들의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효과를 준다는 면에서 필수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동아리 지원사업이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외부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드림·해밀 예산이 CYS-Net 예산과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처럼 두드림·해밀 예산이 별도로 운영될 경우 행정적 비효율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면에서는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넘지 않으면서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전체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부분에서는 지역에 따라 연중 일부 기간만 인력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사례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수의 인력을 운영하는 게 현실이다. 이 경우 잦은 이직으로 참여 청소년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인적자원의 전문적인 경험 축적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두드림·해밀의 특성상 심각한 인적 인프라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연중 12개월을 상근할 수 있는 전담인력 운용이 필요하며, 광역시도의 경우 최소 5명, 기초 시군구지역의 경우 최소 3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운영인력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시도센터의 경우 전담인력 5명이 기존처럼 해밀과 두드림의 업무를 구분하여 맡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해밀과 두드림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프로그램 운영, 상담(숙려제 상담 포함), 사례관리 등 공통 업무를 분담하고 세부적인 행정만 분리해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기본과정에 두드림, 해밀 각 1명씩 2명, 심화과정에 마찬가지로 두드림, 해밀 각 1명씩 2명, 두드림·해밀 총괄 1명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나머지 행정업무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센터별 관리자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구의 경우 두드림과 해밀 각 1명씩 맡고 두드림·해밀 사업 총괄 담당 1명으로 최소 3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두드림, 해밀사업은 대상자 발굴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개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과 홍보, 자원연계, 예산 회계업무 등 기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들은 센터 내에서 담당하며, 사례관리 등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에 초점을 뒀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의 CYS-Net 운영체제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두드림·해밀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가 함께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전공분야는 업무의 속성상 상담과 복지적인 측면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에 상담 및 사회복지 전공자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부족한 영역에 대해 상담교육이나 연계망 구축에 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표 11. 두드림·해밀 업무분장 안

지역	프로그램	업무분장			계
		기본과정	심화과정	총괄	
시도	두드림	1	1	1	5
	해밀	1	1		
시군구	두드림	1		1	3
	해밀	1			
공통		행정업무 : 회계, 공문서 업무 등 별도 배분			

셋째,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가 필요하다. 예컨대 개별적인 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셀프리더십, 복교적응, 대인관계기술 등 참여대상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복학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복학을 원치 않아 복학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입이 가능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존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불충분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특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 진로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사전단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두드림·해밀에 오기 전에 학업 또는 직업 진로방향에 대해 이미 결정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아이라도 한 두 번의 상담이나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전 프로그램(예, 셀프리더십 등)으로도 충분히 진로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목표 성취 후 적응 프로그램은 좀 더 보강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사후적응 프로그램, 검정고시 합격 후 개입프로그램, 복학이나 취직 후 적응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상에 따라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므로 중앙 차원에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기 보다는 지역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두드림·해밀 운영체계상에도 체험활동 또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역 자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사회 자원을 추가로 개발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부지역에서 기업이나 공적

기관과의 모범적인 연계 사례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민간기업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 매월 33만원의 진로지원비를 지원하여 검정고시 준비 및 자격증 취득 경비로 사용하게 하는 등 직접지원비 재원을 확보한 모범적 사례가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Wee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명단을 넘겨받아 두드림·해밀 서비스 연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원비 등의 지원을 위해 도와 협력하여 조례를 만들어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연계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한된 공적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두드림·해밀 운영시설은 규모와 용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도 두드림·해밀의 경우 전체 규모는 300평방미터(m²)가 적당하다. 필수 공간으로는 상담실, 학습실(검정고시, 기초학습 등), 프로그램실(25명 기준), 다목적실(직업 체험, 자격증 훈련, 정보검색 등), 사무실(시도 5명, 시군구 3명 기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기존에 시도 두드림 교육장에는 직업체험실이 별도 설치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상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 마련보다는 직업체험 장비의 보관 및 필요시 실습공간, 정보검색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별 공간의 면적은 별도로 지정하기 보다는 전체 면적 내에서 지역별로 자율적인 면적 배분이 가능하다. 시군구 두드림·해밀의 경우 시도 두드림·해밀 면적의 1/2 수준인 150평방미터(m²)는 마련되어야 하며 필수 공간은 사무실 인원만 3명으로 축소된 것 외에 시도 두드림·해밀과 동일하나 여건상 시설확보가 곤란할 경우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을 공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학습실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상시 머물며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② 서비스 과정/활동 (Activity)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결과, 서비스 과정은 사전 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서비스 결과, 사후관리의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정리되었다. 기존 서비스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서비스단계의 단순화와 모듈식 접근'이다. 즉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프로그램인 3단계 과정의 '두드림'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사업인 '해밀'이 통합 운영되면서 여러 단계의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던 서비스 과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단계의 흐름이 1→2→3단계의 순차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에 즉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두드림과 해밀의 각 단계를 혼합·재구성하여 초기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본과정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화과정으로 단순화하며, 집단 참여를 거부하는 대상은 개인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한 서비스 과정별로 살펴보면 첫째, 사전과정에서는 본격적인 서비스로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목표를 정하는 단계로서 초기면접이나 별도의 입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업진로 또는 직업진로의 두 트랙으로 나뉘어져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지만, 일부 진로미결정 대상에 대해서는 진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래 진로미결정 대상의 진로결정 프로그램 개발이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로 기획되었기에 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나 실제로 찾아오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업복귀나 자립준비의 목표를 갖고 오며, 그렇지 않은 참여자도 초기면접이나 1~2회의 상담으로 서비스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문 프로그램 개발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단지 일부 지역에서 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과 같은 사전준비 성격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기초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첫 단계로서 아직 확고하지 않은 학업·자립 동기를 강화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학업복귀, 사회진출의 두 가지 진로트랙 중 한 가지를 선택한 참여자에 대해 각각 학업복귀 동기 강화 프로그램(나내매)과 자립 동기강화 프로그램(두드림1)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집단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은 대신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학업복귀나 자립준비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 두드림의 경우 자립동기 강화과정(두드림1)이 필수과정이었으나 집단참여가 라포형성이나 또래 간의 긍정적인 역동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여자들이 중도탈락 등 집단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보였기 때문에 개별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기초과정은 필수로 하되 부득이 집단 참여가 곤란한 대상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인상담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심화과정은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단계로서 개별 진로목표에 따라 학업복귀를 희망하는 대상은 해밀, 자립준비를 희망하는 대상은 두드림에 참여하되 개별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학업중단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동시에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해밀과 두드림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③ 서비스 결과 (output)

서비스 결과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산출실적(output)으로서 서비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다. 두드림·해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필요최소한의 실적만이 목표치로 제시되고 그 이상은 옵션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대표적인 산출실적은 현재와 같은 서비스 수혜인원, 서비스 건수이다. 수혜인원은 실인원이며, 1인당 평균서비스 건수는 개인별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빈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의미있는 산출실적이다. 서비스 연계나 홍보실적 등 사업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연계서비스 건수, 연계기관 수, 홍보 건수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별도의 옵션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필요시 지역별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이 역시 질적인 서비스 결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서비스 성과 (outcome)

두드림·해밀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1년 단위의 사업성격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이다. 여기서 학업복귀란 정규학교로의 복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정고시 합격, 대안학교 입학 등 학업을 지속하는 상태로 나아간 경우를 포함한 개념이다. 사회진입은 단순히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안정된 사회인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십대 청소년이 대부분인 두드림·해밀 사업의 특성상 처음 사회로 나가 정착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의 도약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즉 단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이나 직업훈련과정에 들어간 경우, 혹은 직업기술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인턴십이나 실습 등의 직장체험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대상자들이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취약청소년인 점을 감안할 때 사

회진입 성과는 발달적 관점에서 교육적 접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차 완전한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의할 점은 앞의 직장체험 성과는 두드림 2과정에 있는 단회성 직업체험이나 실물경제체험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최소 1주일 이상 참여한 경우로 차별화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성과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학업복귀 성과는 결과가 분명한데 사회진입 성과는 일반적으로 취업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취업이라는 성과는 십대 위주의 자립지원정책이 추진되는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목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자립준비도 척도를 통해 평가된 자립준비율 향상을 단기적 성과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 또한 가시적 성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추후 성과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5) 지역사회 연계

연계서비스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로 구분된다. 먼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주요 연계기관들로서 보호관찰소, 교육청 및 학교, CYS-Net의 학교지원단, 아동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이 제시되었다. 보호관찰소는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 사례발굴의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측에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경과통보서 요구 등 과도한 행정업무를 요청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균형있는 업무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센터나 무한돌봄센터에서는 빈곤가정의 취약청소년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데 주로 현금과 같은 현물지원에만 관심이 있어 예산책정 시 부담되는 면이 있었다. 학교나 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발굴 경로가 되고 있지만 명단 제공 등 협력적인 면에서 지역 편차가 있다. 수범사례로 경북지역의 경우 교육청에서 Wee센터로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을 의뢰할 때 작성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퇴 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학생정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어 동의한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을 합법적으로 넘겨받고 있다. 이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동하여 학업중단청소년 명단을 열람하는 방안보다 현실적이고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동복지시설도 퇴소예정인 입소청소년 발굴경로 중 하나인데 보통 집단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아 그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치 않는 아이도 섞여 있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연계기관들로서 고용센터, 잡월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바우처 사업 등이 제시되었다. 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고용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청소년 연계 시 유용한데 일부지역에서는 중복서비스 문제로 두드림에 참여한 대상을 6개월간 이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서를 받아 오면 위기청소년으로 인정되어 취업 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주고 있어 센터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취약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들에 대해 추천서 제공 외에 학업중단 서비스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서비스 대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노동부의 청소년직업체험관 ‘잡월드’는 다양한 직업체험시설을 갖추어 두드림·해밀 참여 청소년에게 무료 체험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별 1종의 직업체험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체험을 원할 경우 자부담이 요구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예술 소외 청소년에게 문화적 소양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5개 센터에서 연계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LH공사 연계로 시설되소아동에게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업중단이나 쉼터의 가출청소년 등 두드림·해밀 대상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추가적인 자원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가운데 취약계층 자녀에게 학습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주로 기초수급 가정의 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취약청소년 설문 조사

가. 목적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과 상담을 받고 있는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앞으로 지원 받고 싶은 서비스,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참여한 후 생긴 변화, 서비스 과정 중 불편한 사항 등을 탐색하여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통합 모형 개발 시 주요한 구성 요소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5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32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을 제외한 326명이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조사 문항은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하였고, 전반적 조사 항목은 표 12에 제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2. 취약청소년 설문조사 내용

조사영역	문항별 세부 내용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 태어난 연도 / 현재 거주지 / 경제수준 / 학년
학업중단에 대한 사항	학교를 그만 둔 시기 / 학교를 그만 둔 기간 /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법적 처벌 경험	법적 처벌 경험 유무 / 처벌받은 내용 / 처벌 유형
두드림·해밀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 두드림·해밀 서비스 외 받고 있는 서비스 /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 축소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 긍정적인 변화 /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 / 진로 방향 / 서비스의 불편 사항 / 환경적인 불편함 / 추천 여부

설문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326명 중 남자청소년이 181명(55.5%), 여자청소년이 145명(44.5%)이 참여하였고, 태어난 연도는 1995년도가 113명(3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996년이 100명(30.7%)으로써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현재 거주지는 자기 집이 241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 경제 수준은 '중'이라는 응답이 193명(59.2%), '하'라는 응답이 117명(35.9%)순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학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가 242명(7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33명(10.1%)으로 많았다.

표 13. 취약청소년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

변인	구분	명(%)
성별	남	181(55.5%)
	여	145(44.5%)
	소계	326 (100.0%)
태어난 연도	1990년	3(0.9%)
	1991년	1(0.3%)
	1992년	7(2.1%)
	1993년	6(1.8%)
	1994년	31(9.5%)
	1995년	113(34.7%)
	1996년	100(30.7%)
	1997년	41(12.6%)
	1998년	18(5.5%)
	1999년	6(1.8%)
	소계	326 (100.0%)
현재 거주지	자기 집	241(73.9%)
	조부모 집	12(3.7%)
	친척 집	6(1.8%)
	형제자매 집	0(0.0%)
	청소년쉼터	32(9.8%)
	그룹홈	1(0.3%)
	아동복지시설(보육원)	6(1.8%)
	소년원	0(0.0%)
	미혼모시설	5(1.5%)
	자립생활관	4(1.2%)
	혼자 지냄	10(3.1%)
	기타	8(2.5%)
	무응답	1(0.3%)
	소계	326 (100.0%)
가정경제 수준	상	15(4.6%)
	중	193(59.2%)
	하	117(35.9%)
	무응답	1(0.3%)
	소계	326 (100.0%)
재학 중인 학년	중학교 1학년	0(0.0%)
	중학교 2학년	6(1.8%)
	중학교 3학년	9(2.8%)
	고등학교 1학년	13(4.0%)
	고등학교 2학년	23(7.1%)
	고등학교 3학년	33(10.1%)
	학교를 그만둔 상태	242(74.2%)
	소계	326 (100.0%)

다. 자료 분석

취약청소년 설문조사의 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순위형 다중응답 분석을 사용하였다.

라. 취약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취약청소년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교를 그만 둔 시기, 학교를 그만 둔 기간, 학교를 그만 둔 이유, 법적 처벌 경험 유무, 처벌받은 내용, 처벌 유형,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두드림·해밀 서비스 외 받고 있는 서비스,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축소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긍정적인 변화,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 진로 방향, 서비스의 불편 사항, 환경적인 불편함, 추천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앞서 재학 중인 학년을 조사한 결과, 242명의 청소년들이 현재 학업중단 상태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시기를 살펴본 결과가 표 14와 같다.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45.9%)에 가장 학업중단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19.8%로 높았다.

표 14. 학업중단 시기

구분	남	여	계
초등학교 때	1(0.4%)	2(0.8%)	3(1.2%)
중학교 1학년	13(5.4%)	7(2.9%)	20(8.3%)
중학교 2학년	12(5.0%)	17(7.0%)	29(12.0%)
중학교 3학년	10(4.1%)	13(5.4%)	23(9.5%)
고등학교 1학년	59(24.4%)	52(21.5%)	111(45.9%)
고등학교 2학년	27(11.2%)	21(8.7%)	48(19.8%)
고등학교 3학년	6(2.5%)	2(0.8%)	8(3.3%)
소계	128(52.9%)	114(47.1%)	242(100.0%)
χ^2	8.47		

학업중단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학업중단 기간)을 살펴본 결과(표 15), 13~24개월이 77명으로 31.8%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12개월 사이가 76명으로 31.4%의 비율을 보였다. 즉, 학업중단 기간이 2년 이하인 청소년들이 63.2%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업중단 기간

구분	남	여	계
1~12개월	37(15.3%)	39(16.1%)	76(31.4%)
13~24개월	41(16.9%)	36(14.9%)	77(31.8%)
25~36개월	25(10.3%)	25(10.3%)	50(20.7%)
37~48개월	12(5.0%)	7(2.9%)	19(7.9%)
49개월 이상	13(5.4%)	7(2.9%)	20(8.3%)
소계	128(52.9%)	114(47.1%)	242(100.0%)
χ^2	62.82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 3가지를 순서대로 표시한 결과(부록 표 1), 1순위가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이고, 2순위가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이며, 3순위는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였다.

법적 처벌 경험은 '없다'가 196명으로 60.1%를 차지하였고, '있다'가 130명으로 39.9%를 차지하였다(표 16). 남녀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

구분	남	여	계
없다	91(27.9%)	105(32.2%)	196(60.1%)
있다	90(27.6%)	40(12.3%)	130(39.9%)
소계	181(55.5%)	145(44.5%)	326(100.0%)
χ^2	16.46***		

$p < .001$

법적 처벌 경험이 있는 1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벌받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부록 표 2), 처벌받은 내용 중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절도가 많았다. 또한 법적 처벌 경험이 있는 1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벌 유형을 살펴본 결과(부록 표 3), '수감명령'을 받은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이 많았다.

두드림·해밀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17), 두

드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 151명(4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두드림·해밀을 모두 받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04명(31.9%)으로 많았다.

표 17. 받고 있는 서비스 종류

구분	남	여	계
두드림	86(26.4%)	65(19.9%)	151(46.3%)
해밀	43(13.2%)	28(8.6%)	71(21.8%)
두드림·해밀 모두	52(16.0%)	52(16.0%)	104(31.9%)
소계	181(55.5%)	145(44.5%)	326(100.0%)
χ^2	2.14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를 살펴본 결과(표 18), 기관(학교, 쉼터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68명(5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1명(15.6%)으로 많았다.

표 18.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구분	남	여	계
인터넷을 통해	2(0.6%)	2(0.6%)	4(1.2%)
홍보물을 통해	8(2.5%)	4(1.2%)	12(3.7%)
친구를 통해	20(6.1%)	23(7.1%)	43(13.2%)
전화(1388 등)를 통해	5(1.5%)	2(0.6%)	7(2.1%)
부모나 친지를 통해	19(5.8%)	14(4.3%)	33(10.1%)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28(8.6%)	23(7.1%)	51(15.6%) (2)
기관(학교, 쉼터 등)을 통해	95(29.1%)	73(22.4%)	168(51.5%) (1)
기타	4(1.2%)	4(1.2%)	8(2.5%)
소계	181(55.5%)	145(44.5%)	326(100.0%)
χ^2	3.02		

두드림·해밀 서비스 외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부록 표 4),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167명(65.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1명(15.8%)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드림·해밀 서비스 외 타 기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부록 표 5), 검정고시 지원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심리·정서적 지원, 취업정보 제공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는 표 19와 같다. 서비스별로 순위를 살펴보면, 두드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받고 싶은 1순위는 '취업정보 제공'이었고, 2순위 '심리·정서적 지원(상담 등)', 3순위 '자립정착금 지원'이었다. 해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받고 싶은 1순위는 '검정고시 지원', 2순위 '학업정보(복학 절차, 학원정보 등) 제공', 3순위 '공부방법 지도'였다.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모두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받고 싶은 1순위는 '취업정보 제공', 2순위는 '자립정착금 지원', 3순위 '검정고시 지원'이었다.

표 19. 앞으로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두드림	심리·정서적 지원(상담 등)	28×3=84	3×2=6	7×1=7	97 (2)
	학업 정보(복학 절차, 학원정보 등) 제공	16×3=48	10×2=20	1×1=1	69
	검정고시 지원	19×3=57	9×2=18	3×1=3	78
	공부 방법 지도	7×3=21	14×2=28	13×1=13	62
	자립정착금 지원	22×3=66	7×2=14	5×1=5	85 (3)
	의료 지원	6×3=18	2×2=4	2×1=2	24
	주거 지원	7×3=21	11×2=22	7×1=7	50
	법률 지원	4×3=12	4×2=8	2×1=2	22
	급식비 지원	0×3=0	5×2=10	1×1=1	11
	학비 지원	6×3=18	18×2=36	18×1=18	72
	취업 정보 제공	14×3=42	34×2=68	16×1=16	126 (1)
	직업 훈련	7×3=21	12×2=24	33×1=33	78
	구직기술 지원	3×3=9	1×2=2	12×1=12	23
	기타	1×3=3	0×2=0	1×1=1	4
	무응답	11	21	30	

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해 밀	심리·정서적 지원(상담 등)	12×3=36	3×2=6	6×1=6	48
	학업 정보(복학 절차, 학원정보 등) 제공	10×3=30	11×2=22	4×1=4	56 (2)
	검정고시 지원	29×3=87	12×2=24	7×1=7	118 (1)
	공부 방법 지도	4×3=12	13×2=26	11×1=11	49 (3)
	자립정착금 지원	3×3=9	3×2=6	1×1=1	16
	의료 지원	0×3=0	0×2=0	1×1=1	1
	주거 지원	3×3=9	1×2=2	3×1=3	14
	법률 지원	0×3=0	0×2=0	0×1=0	0
	급식비 지원	0×3=0	0×2=0	1×1=1	1
	학비 지원	0×3=0	1×2=2	5×1=5	7
	취업 정보 제공	4×3=12	12×2=24	6×1=6	42
	직업 훈련	5×3=15	7×2=14	10×1=10	39
	구직기술 지원	1×3=3	1×2=2	6×1=6	11
	기타	0×3=0	3×2=6	0×1=0	6
무응답	0	4	10	14	
두 드 림 · 해 밀	심리·정서적 지원(상담 등)	10×3=30	2×2=4	6×1=6	40
	학업 정보(복학 절차, 학원정보 등) 제공	7×3=21	8×2=16	4×1=4	41
	검정고시 지원	22×3=66	4×2=8	4×1=4	78 (3)
	공부 방법 지도	3×3=9	11×2=22	5×1=5	36
	자립정착금 지원	21×3=63	8×2=16	2×1=2	81 (2)
	의료 지원	2×3=6	6×2=12	2×1=2	20
	주거 지원	5×3=15	9×2=18	6×1=6	39
	법률 지원	0×3=0	0×2=0	2×1=2	2
	급식비 지원	1×3=3	1×2=2	3×1=3	8
	학비 지원	8×3=24	6×2=12	11×1=11	47
	취업 정보 제공	13×3=39	20×2=40	7×1=7	86 (1)
	직업 훈련	7×3=21	7×2=14	16×1=16	51
	구직기술 지원	1×3=3	4×2=8	10×1=10	21
	기타	0×3=0	0×2=0	0×1=0	0
무응답	4	18	26	1,244	
빈도		151	71	104	326

* 가중치 3,2,1 적용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 서비스를 나타낸 것은 표 20과 같다. 두드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 1순위는 '1과정(자립동기 강화)'이었고, 2순위 '개인상담', 3순위 '2과정(직업체험)'이었다. 해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도움이 된 1순위는 '개인상담', 2순위 '학습지도(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등)', 3순위 '검정고시 지원(학원비, 교재비)'이었다.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모두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도움이 된 1순위는 두드림 '개인상담', 2순위는 '학습지도(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등)', 3순위 해밀 '개인상담'이었다.

표 20. 도움이 된 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무니킴	무니킴 프로그램	개인상담	46×3=138	10×2=20	3×1=3	161 (2)		
		1과정(자립동기 강화)	40×3=120	22×2=44	3×1=3	167 (1)		
		2과정(직업체험)	14×3=42	29×2=58	4×1=4	104 (3)		
		2과정(뽀뽀비즈)	4×3=12	4×2=8	4×1=4	24		
		2과정(진로종합캠프)	5×3=15	6×2=12	4×1=4	31		
		3과정(직업훈련)	6×3=18	19×2=38	19×1=19	75		
		3과정(자격취득 지원)	5×3=15	8×2=16	18×1=18	49		
		3과정(취업)	3×3=9	3×2=6	20×1=20	35		
		무응답	28	50	76			
빈도			151					
해밀	해밀 프로그램	개인상담	30×3=90	6×2=12	6×1=6	108 (1)		
		학업동기 프로그램(나내매)	6×3=18	6×2=12	3×1=3	33		
		학습클리닉	3×3=9	6×2=12	5×1=5	26		
		학습지도(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등)	10×3=30	14×2=28	10×1=10	68 (2)		
		체험(문화, 대학탐방 등)	3×3=9	9×2=18	5×1=5	32		
		검정고시 지원(학원비, 교재비)	8×3=24	13×2=26	14×1=14	64 (3)		
		무응답	11	17	28			
		빈도	71					
무니킴·해밀	무니킴 프로그램	개인상담	23×3=69	6×2=12	2×1=2	83 (1)		
		1과정(자립동기 강화)	11×3=33	7×2=14	4×1=4	51		
		2과정(직업체험)	6×3=18	10×2=20	5×1=5	43		
		2과정(뽀뽀비즈)	7×3=21	2×2=4	4×1=4	29		
		2과정(진로종합캠프)	4×3=12	8×2=16	2×1=2	30		
		3과정(직업훈련)	2×3=6	3×2=6	4×1=4	16		
		3과정(자격취득 지원)	6×3=18	12×2=24	6×1=6	48		
		3과정(취업)	1×3=3	1×2=2	2×1=2	7		
		해밀	해밀 프로그램	개인상담	11×3=33	10×2=20	9×1=9	62 (3)
				학업동기 프로그램(나내매)	3×3=9	4×2=8	1×1=1	18
학습클리닉	3×3=9			6×2=12	4×1=4	25		
학습지도(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등)	13×3=39			13×2=26	16×1=16	73 (2)		
체험(문화, 대학탐방 등)	3×3=9			7×2=14	8×1=8	31		
검정고시 지원(학원비, 교재비)	9×3=27			7×2=14	20×1=20	61		
무응답	2			8	17			
빈도			104					

* 가중치 3,2,1 적용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 중 축소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드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41.1%가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고, 기타에 응답한 비율도 15.2%로 높게 나타났다. 무응답이나 기타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축소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밀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과 두드림과 해밀 모두 받고 있는 청소년들 역시 무응답과 기타의 응답율이 높았다. 두드림과 해밀의 프로그램 중에서 축소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두드림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은 2과정(뽀뽀비즈)을, 해밀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은 학업동기 프로그램(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을, 두드림과 해밀 모두 받는 청소년들은 2과정(뽀뽀비즈)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표 21. 축소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구분		남	여	계
두드림	개인상담	12(7.9%)	2(1.3%)	14(9.3%)
	1과정 (자립동기 강화)	8(5.3%)	5(3.3%)	13(8.6%)
	2과정 (직업체험)	1(0.7%)	0(0.0%)	1(0.7%)
	2과정 (뽀뽀비즈)	14(9.3%)	6(4.0%)	20(13.2%) (1)
	2과정 (진로종합캠프)	6(4.0%)	5(3.3%)	11(7.3%)
	3과정 (직업훈련)	2(1.3%)	1(0.7%)	3(2.0%)
	3과정 (자격취득 지원)	0(0.0%)	1(0.7%)	1(0.7%)
	3과정 (취업)	2(1.3%)	1(0.7%)	3(2.0%)
	기타	12(7.9%)	11(7.3%)	23(15.2%)
	무응답	29(19.2%)	33(21.9%)	62(41.1%)
소계		86	65	151
χ^2			15.5	
해밀	개인상담	3(4.2%)	2(2.8%)	5(7.0%)
	학업동기 프로그램(나내매)	10(14.1%)	3(4.2%)	13(18.3%) (1)
	학습클리닉	5(7.0%)	3(4.2%)	8(11.3%)
	학습지도(인터넷강의, 학습멘토 등)	0(0.0%)	0(0.0%)	0(0.0%)
	체험 (문화, 대학 탐방 등)	1(1.4%)	0(0.0%)	1(1.4%)
	검정고시 지원 (학원비, 교재비)	2(2.8%)	0(0.0%)	2(2.8%)
	기타	10(14.1%)	12(16.9%)	22(31.0%)
	무응답	12(16.9%)	8(11.3%)	20(28.2%)
소계		43	28	71
χ^2			8.5	

구분		남	여	계
두드림·해밀	개인상담	4(3.8%)	4(3.8%)	8(7.7%)
	1과정 (자립동기 강화)	5(4.8%)	5(4.8%)	10(9.6%)
	2과정 (직업체험)	2(1.9%)	0(0.0%)	2(1.9%)
	2과정 (뽀뽀비즈)	7(6.7%)	5(4.8%)	12(11.5%) (1)
	2과정 (진로종합캠프)	2(1.9%)	1(1.0%)	3(2.9%)
	3과정 (직업훈련)	1(1.0%)	1(1.0%)	2(1.9%)
	3과정 (자격취득 지원)	0(0.0%)	0(0.0%)	0(0.0%)
	3과정 (취업)	2(1.9%)	0(0.0%)	2(1.9%)
	개인상담	1(1.0%)	3(2.9%)	4(3.8%)
	학업동기 프로그램(나내매)	2(1.9%)	2(1.9%)	4(3.8%)
해밀	학습클리닉	1(1.0%)	0(0.0%)	1(1.0%)
	학습지도 (인터넷강의, 학습멘토 등)	4(3.8%)	1(1.0%)	5(4.8%)
	체험 (문화, 대학 탐방 등)	0(0.0%)	4(3.8%)	4(3.8%)
	검정고시 지원 (학원비, 교재비)	0(0.0%)	1(1.0%)	1(1.0%)
	기타	13(12.5%)	9(8.7%)	22(21.2%)
	무응답	8(7.7%)	16(15.4%)	24(23.1%)
	소계	52	52	104
χ^2		16.9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추가되었으면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드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 해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 두드림·해밀 서비스 받은 청소년들 모두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불규칙한 생활태도를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 22.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구분		남	여	계
두드림	불규칙한 생활태도 개선 프로그램	21(13.9%)	9(6.0%)	30(19.9%) (2)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4(2.6%)	2(1.3%)	6(4.0%)
	진로결정 프로그램	27(17.9%)	29(19.2%)	56(37.1%) (1)
	갈등해결 프로그램	8(5.3%)	6(4.0%)	14(9.3%)
	부모 참여 프로그램	1(0.7%)	3(2.0%)	4(2.6%)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6(4.0%)	2(1.3%)	8(5.3%)
	금연, 금주 등 건강 프로그램	10(6.6%)	8(5.3%)	18(11.9%) (3)
	기타	6(4.0%)	3(2.0%)	9(6.0%)
	무응답	3(2.0%)	3(2.0%)	6(4.0%)
	소계	86	65	151
χ^2		7.27		

	구분	남	여	계
해 밀	불규칙한 생활태도 개선 프로그램	7(9.9%)	4(5.6%)	11(15.5%) (2)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3(4.2%)	3(4.2%)	6(8.5%)
	진로결정 프로그램	22(31.0%)	9(12.7%)	31(43.7%) (1)
	갈등해결 프로그램	2(2.8%)	2(2.8%)	4(5.6%)
	부모 참여 프로그램	1(1.4%)	1(1.4%)	2(2.8%)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2(2.8%)	0(0.0%)	2(2.8%)
	금연, 금주 등 건강 프로그램	3(4.2%)	5(7.0%)	8(11.3%) (3)
	기타	1(1.4%)	2(2.8%)	3(4.2%)
	무응답	2(2.8%)	2(2.8%)	4(5.6%)
	소계	43	28	71
	χ^2		6.21	
두 드 림 · 해 밀	불규칙한 생활태도 개선 프로그램	17(16.3%)	12(11.5%)	29(27.9%) (2)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1(1.0%)	2(1.9%)	3(2.9%)
	진로결정 프로그램	18(17.3%)	19(18.3%)	37(35.6%) (1)
	갈등해결 프로그램	1(1.0%)	6(5.8%)	7(6.7%)
	부모 참여 프로그램	2(1.9%)	2(1.9%)	4(3.8%)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1(1.0%)	1(1.0%)	2(1.9%)
	금연, 금주 등 건강 프로그램	6(5.8%)	6(5.8%)	12(11.5%) (3)
	기타	4(3.8%)	1(1.0%)	5(4.8%)
	무응답	2(1.9%)	3(2.9%)	5(4.8%)
	소계	52	52	104
	χ^2		6.79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참여한 후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서비스별로 순위를 살펴보면(부록 표 6), 두드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생긴 긍정적인 변화는 ‘무응답’ 제외 시 1순위는 ‘미래의 진로결정’이었으며, 2순위가 ‘자립동기 향상’이었고, 3순위가 ‘학습동기 향상’이었다. 해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생긴 긍정적인 변화는 무응답 제외 시, 1순위는 ‘자립동기 향상’이었으며, 2순위가 ‘심리·정서적 도움’이었고, 3순위는 ‘미래의 진로결정’이었다.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모두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1순위는 ‘학습동기 향상’이었고, 2순위는 ‘미래의 진로결정’이었으며, 3순위는 ‘심리·정서적 도움’이었다.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부에 대한 흥미’라고 응답(36.8%)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부에 대한 집중력’(22.1%)과 ‘자기 관리 하는 방법’(14.4%)이라고 응답하였다(부록 표 7).

청소년들이 현재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진로방향을 서비스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부록 표 8), 두드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28.5%가 ‘취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은 ‘취업’이 가장 높

은 비율인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합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밀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은 63.4%가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드림과 해밀 모두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41.3%가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21.2%로 '취업'이었으며, '취업과 학업 병행'도 13.5%로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 과정 중 불편했던 사항(표 23)으로, 63명(19.3%)이 '기타'에 응답하였는데, 기타를 선택한 이유로는 불편사항이 없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59명(18.1%)이 '프로그램 전후에 평가하는 것이 많다'에 응답하였고, 53명(16.3%)은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겹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23. 서비스 과정 중 불편 사항

구분	남	여	계
신청과정이 어렵다	8(2.5%)	3(0.9%)	11(3.4%)
프로그램 전후 평가 하는 것이 많다	29(8.9%)	30(9.2%)	59(18.1%) (2)
참여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23(7.1%)	9(2.8%)	32(9.8%)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겹다	27(8.3%)	26(8.0%)	53(16.3%) (3)
진행자 선생님과 대화·상담의 기회가 없었다	13(4.0%)	11(3.4%)	24(7.4%)
집단으로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4(7.4%)	22(6.7%)	46(14.1%)
기타 (없다)	35(10.7%)	28(8.6%)	63(19.3%) (1)
무응답	22(6.7%)	16(4.9%)	38(11.7%)
소계	181(55.5%)	145(44.5%)	326(100.0%)
χ^2	6.52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경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표 24), 기타와 무응답이 162명(49.7%)이 되었다. 기타에 대한 반응으로는 대부분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불편함 중에는 '처음에 센터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반응이 59명(18.1%)으로 가장 높았다.

표 24. 환경적인 불편 사항

구분	남	여	계
처음에 센터를 찾기가 어려웠다	36(11.0%)	23(7.1%)	59(18.1%) (2)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좁다	12(3.7%)	14(4.3%)	26(8.0%)
센터 주변 소음으로 너무 시끄럽다	15(4.6%)	9(2.8%)	24(7.4%)
센터에 오면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다	19(5.8%)	7(2.1%)	26(8.0%)
기자재가 부족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2(3.7%)	3(0.9%)	15(4.6%)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없거나 좁다	5(1.5%)	9(2.8%)	14(4.3%)
기타 (없다)	42(12.9%)	48(14.7%)	90(27.6%) (1)
무응답	40(12.3%)	32(9.8%)	72(22.1%)
소계	181(55.5%)	145(44.5%)	326(100.0%)
χ^2		14.09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25), 246명(75.5%)의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추천해 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1명(3.4%)이었다.

표 25. 추천 여부

구분	남	여	계
예	131(40.2%)	115(35.3%)	246(75.5%) (1)
아니오	6(1.8%)	5(1.5%)	11(3.4%)
모르겠다	41(12.6%)	23(7.1%)	64(19.6%)
무응답	3(0.9%)	2(0.6%)	5(1.5%)
소계	181(55.5%)	145(44.5%)	326(100.0%)
χ^2		2.45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추천해 주고 싶다고 응답한 246명이 추천 이유를 순서대로 표시한 결과(부록 표 9), 1순위가 '취업에 도움되는 정보와 방법을 알려줘서'였고, 2순위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줘서'였으며, 3순위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였다.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추천해 주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11명이 비추천 이유로, 1순위가 '프로그램 과정이 지겨워서'였다(부록 표 10).

마. 취약청소년 설문조사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두드림·해밀 서비스 받고 있는 남녀 청소년 3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앞으로 지원 받고 싶은 서비스,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참여한 후 생긴 변화, 서비스

과정 중 불편한 사항 등을 탐색한 설문조사 결과가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를 학교, 컴퓨터, 보호관찰소 등 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인터넷이나 홍보물, 전화(1388)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발굴이 현재는 기관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두드림·해밀 서비스의 홍보가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앞으로 받고 싶은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는 검정고시 지원과 취업정보 제공이었다. 이는 현재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검정고시 지원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력 취득과 취업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모형의 콘텐츠를 구성할 때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두드림·해밀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로 개인상담과 학습지도, 검정고시 지원이 많았고, 반면 절반 가까운 청소년들이 축소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체로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 받고 싶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검정고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두드림·해밀 서비스가 학력 취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향후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불규칙한 생활태도를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을 꼽았는데, 이는 향후 통합 모형의 콘텐츠에서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생활태도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보강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특히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참여한 후 청소년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 중 미래의 진로결정과 학습동기 향상, 심리·정서적 도움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미래의 진로결정은 청소년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과 동시에 향후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안에도 들어가 있어,

두드림·해밀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현재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도와주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청소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집중력이라고 하였다.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에는 학교 재학 시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었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반면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방법 부재나 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으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공부에 대한 흥미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진로 방향으로 꿈꾸는 검정고시 합격과 취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두드림·해밀 서비스 과정 중 불편했던 사항으로 프로그램 전후에 평가하는 것을 불편해 하였으며, 프로그램 시간이 길어 다소 지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특성 상 적는 내용이 많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부족해지는 것을 반영한다. 즉, 청소년들은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프로그램 전후에 평가하는 시간을 줄이고 프로그램이 지루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덟째, 두드림·해밀 서비스의 환경적 불편함으로, 청소년들은 대부분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처음에 센터를 찾기 어려웠다는 반응과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공부를 위해 수시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이며, 휴식 공간 또한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다. 두드림 서비스의 경우 지킴 상 공간을 확보할 것을 명시를 해 놓아서 두드림존이라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해밀 서비스의 경우에는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두드림·해밀 서비스의 통합 모형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공부에 증진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취약청소년 심층 면접

가. 목적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과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서비스를 받을 때의 생각과 느낌, 초기에 힘들었던 점,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자신에게 생긴 변화,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와 더 보강해야 할 서비스 등을 탐색하여 통합 모형 개발 시 주요한 구성 요소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 대상 및 내용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받고자 2013년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두드림·해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드림·해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상담센터의 현장실무자들에게 두드림·해밀 서비스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추천을 의뢰하였다. 이 중 최종적으로 면접에 동의한 대상자는 13명으로서, 남자 6명, 여자 7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19.2세였다. 연구대상자의 학업중단 시기는 고1 시기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고2 시기가 3명으로 많았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녹음에 대한 내용을 동의를 받았고, 면접 후 소정의 답례품(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심층면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층 면접 질문 내용은 사전에 연구진이 함께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심층 면접의 결과는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분야의 박사 4인과 석사 3인이 내용분석을 하였다. 심층 면접 후 면접 내용은 모두 축어록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미있는 문장을 추출하여 비슷한 항목으로 분류한 후 다시 하위영역과 상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진들은 3차례에 걸쳐 면접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합의과정을 거쳐 내용 분석을 완성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표 26과 같다.

표 26. 심층 면접 대상자 현황

구분	성별	나이	가족관계	현재 상황	중단 시기	이용 기간
1	남	19세	부모, 누나와 살고 있음	학업중단, 4월 중졸 검정고시 합격	중3	1년
2	여	19세	아빠와 남동생과 살고 있음 (부모이혼)	전문계 고3		5개월
3	남	19세	아빠, 누나, 할머니(부모 이혼)	학업중단, 8월 고졸 검정고시 준비	고1	7개월
4	남	19세	아빠와 살고 있음 (부모 이혼)	학업중단, 고졸 검정고시 합격	고1	1년 5개월
5	여	20세	엄마, 오빠와 살고 있음(부모 이혼)	학업중단, 고졸 검정고시 합격	고2	1년 7개월
6	여	19세	엄마와 살고 있음(부모이혼)	학업중단, 8월 고졸 검정고시 준비	고2	9개월
7	남	20세	부모, 누나와 살고 있음	학업중단, 4월에 고졸검정고시 합격	고2	11개월
8	여	19세	할머니 고모, 고종사촌과 살고 있음 모 가출, 모 사망, **자립생활관에서 살고 있음	학업중단, 4월에 고졸 검정고시 합격	중2	1년 4개월
9	남	19세	부 가출, 모 사망, **자립생활관에서 살고 있음	학업중단, 검정고시 합격 후 **대 재학	중2	2년
10	여	19세	부모, 오빠와 살고 있음	학업중단, 커피습 취업 예정, 검정고시 합격	고1	2년
11	남	23세	엄마, 동생과 살고 있음 부모이혼	학업중단 검정고시 합격	초3	2년
12	여	17세	부모, 오빠와 살고 있음	학업중단 검정고시 합격	중2	1년
13	여	18세	부모, 동생이 있고, 부모와의 불화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음	학업중단, 8월 고졸 검정고시 준비	고1	6개월

다. 심층 면접 질문 내용

심층 면접 질문 내용은 표 27과 같다. 질문은 크게 두드림·해밀 서비스 참여 계기, 두드림·해밀 서비스의 초기 경험, 두드림·해밀서비스 경험, 향후 계획으로 나뉘어 질문이 이루어졌다.

표 27. 심층 면접 질문 내용

구분	내용
I. 두드림·해밀 서비스 참여 계기	1.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상황, 가족상황, 학교상황, 또래상황 등)
II. 두드림·해밀 서비스의 초기 경험	1. 두드림·해밀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받았고, 지금 받고 있나요? 2. 처음에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 3. 처음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4.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III. 두드림·해밀 서비스 경험	1. 두드림·해밀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2.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3. 두드림·해밀 서비스 참여 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4.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두드림·해밀 서비스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7. 두드림·해밀 서비스에서 더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8. 만약 자신이 두드림·해밀 담당 선생님이라면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나요?
IV. 향후	1. 앞으로 자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과 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 심층 면접 결과 요약

두드림·해밀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심층 분석 결과는 크게 두드림·해밀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초기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대한 느낌과 생각, 초기에 힘들었던 점, 초기에 힘들었지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이유,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가장 도움이 된 이유, 현재 도움을 받고 싶은 서비스, 서비스 참여 후 생긴 변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서비스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 만약 센터선생님이라면, 목표,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류되었다.

(1) 두드림·해밀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로는 가족(엄마, 오빠, 누나)나 친구를 통해서, 기관(지역아동센터, 쉼터, 고용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청소년수련관, 동사무소,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상담경험이 있어 이미 센터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를 그만둔 후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다 등이었다.

“누나 회사에 상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만날 집에만 있으니까 와서도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나봐요. 그래서 상담을 한 번 해보자 그러서 찾아 본 게 여기 여기였어요.” (청소년 1)

“작년 11월 말에 쉼터에서 입소했었는데 입소하면 상담하잖아요. 학교 안다니다니깐 어떻게 할 건지, 검정고시 준비하고 싶다니깐 1층에 센터 있다면서 국가에서 기관에서 하는 거라 그 선생님이 서비스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신청해서 도움 받게 되었어요.” (청소년 5)

(2)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개인 상황에서는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자신을 보고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남에게 무시 받고 싶지 않아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고 정신이 들어서 등이었다. 가정상황에서는 가정 상황이 어려워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집에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알아서 돈을 벌고 싶어서 등이었고, 또래상황에서는 비슷한 애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서비스를 같이 받는 친구가 있어서 등이었다.

“제가 지금 취업을 하려니까 자격증이 더 많이 필요해서. 특히 여상이니까. 컴퓨터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데 없어서 그거를 공부해야 하고...” (청소년 3)

“그냥 친구들이랑 일상 이렇게 놀듯이 놀았는데 교복입고 딱 학교를 지나가는 친구가 있는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청소년 12)

(3) 초기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대한 느낌과 생각

초기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생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었는데 호기심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 뭔가 해보는 것이 좋았으며, 착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재미있겠다 싶었고 많이 설레었다 등이었다.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으로, 학교와 배우는 게 비슷하다고 느낌, 이렇게까지 잘 해주고 많이 해주나 의심을 했다 등이었다.

“제가요.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좀 망설였었는데요. 00 선생님이 추천해주셔서 갖고.. 한 번 해보고 싶고 해서. 실제로 참여해보니까 제일 어려워했던 것 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7)

“여기서도 하는 것을 공부방에서 두드림센터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게 두세번되는데. 그때마다 다했어요. 근데 좀 지겨웠어요.” (청소년 3)

(4) 초기에 힘들었던 점

초기에 힘들었던 점으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싫었고, 애들과 친하지 않아서 적응이 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이 지겹거나 재미가 없었고, 처음에 검정고시를 공부할 때 어려움이 많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센터에 오기가 힘들었다 등이었다.

“저 한번 만나면 바로 다 친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예요. 근데 애들을 너무 많이 모르니까. 한두명이면 친해지는데... 좀 어색했어요.” (청소년 10)

“제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센터에 오려니까.. 힘들고.. 그랬어요.” (청소년 13)

(5) 초기에 힘들었지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이유

초기에 힘들었지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이유로는, 마음의 변화로써,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으니까 재미가 있어서, 이대로 포기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이었

으며, 센터선생님이 끈질기게 해보자는 말을 하고 챙겨주어서, 가족에게 미안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좋아서, 나보다 못하는 애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을 보고 난 후 등이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학교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느낌을 받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네, 오기가 생기죠. 한번 했는데, 이대로 포기 하면 안 되겠다 항상 포기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어나고 가고.” (청소년 10)

“딱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통 자퇴하고 나면 거의 집에서 일하고, 그냥 간간히 애들 만나고 그러면.. 거의 딱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학교같은 느낌도 들고, 막 또래애들도 있으니까 덜 외로운 편이고 사람 만나는게 좋으니까.. 그게 좋았던거 같아요.” (청소년 2)

(6)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로는 직업정보, 적성검사, 직업체험, 자격증 공부, 학습클리닉, 성장캠프, 스마트 교실, 개인상담, 직업상담, 뽀뽀비즈였다.

“성장캠프를 갔었는데, 재미 있었어요..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구요.” (청소년 8)

(7) 가장 도움이 된 이유

가장 도움이 된 이유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서 새롭게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체험의 폭이 넓어져서,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어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였다.

“일대일 과외가 필요하면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청소년 12)

“음.. 몰랐던 거. 직업같은거에.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는 게 많잖아요. 색다른 직업도 알려주고. 그리고 직업정보랑 적성검사가 제일 도움이 되었어요.” (청소년 3)

(8) 현재 도움을 받고 싶은 서비스

현재 도움을 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직업이나 대학에 대한 구체적 정보, 지속적인 개인상담과 대학생 멘토 지원 등이었다.

“제 꿈이 직업군인데 그 쪽에 아직 알아볼 수있는 정보라든가 근로 그런 정보 같은 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이 알면 제가 갈 때 준비도 할 수 있고.”
(청소년 5)

“몇 달 지나면 수능준비도 해야되고 이 학교를 나왔다고 공부를 안할 수가 없더라 고요. 검정고시는 이렇게 요령껏하면 점수가 나오긴 하는데 수능은 좀 다른 경우잖 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 할거같아요.” (청소년 8)

(9) 서비스 참여 후 생긴 변화

서비스 참여 후 생긴 변화로는, 인지적·정서적인 변화로,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활발해졌고,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다. 꿈과 목표가 생겼고,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지는 등 대인관계에 변화가 생겼고, 생활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쌤들이랑 같이 막 점심시간에 같이 밥먹고 선생님들이 밥사주고 그러면서 뭔가 그 래도 철이 좀 든거 같아요. 살짝 그런 거 같아요. 생각같은 거 가치관 비슷한 것들. 제가 봐도 좀 어리거나 그런 사람들 술먹는 거 별로 보기 안좋고.” (청소년 2)

“저처럼 꿈이 생기고 노력하는 거. 옛날에 아예 책도 안봤는데 지금 책읽고 청소년 책도 읽고 옛날에는 운동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청소년 5)

(10)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서, 센터 선생님들이 챙겨주고 도움을 주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

게 되어서, 애들과 친해지고 친구가 생겨서라고 하였다.

“정말 여기 오면 뭔가 편해지고 우리집 같아요. 선생님들도 맨날 다 챙겨주고 얘기하고 그러다보면 이것저것 얘기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속 얘기도 하고..” (청소년 4)

“혼자 살 때나 아니면 가족이 같이 살 때 제가 남자잖아요. 가장이니깐 제가 먹여 살려야 하니깐 미래의 힘을 길러야해요.” (청소년 5)

(11)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는 멘토나 조연자, 친구, 정보, 주변 상황이 변하는 것, 자신이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센터에 신경써주는 선생님들 계시고 멘토 선생님들이 있으니깐 그러니깐 이런 선생님들이 저를 계속 신경써주고 도와주니깐 이런 서비스가 많이 있었음 좋겠어요. 많이 있으면 제가 혜택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으면 제가 많은 걸 알게 되고...” (청소년 5)

“표현력을 좀 기르는 것!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극배우를 하려면 감정표현도 풍부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 6)

(12) 서비스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

서비스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불편했고, 프로그램 진행이 불편하였으며,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센터 위치의 불편과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불편했다고 하였다.

“사회하고 경제에도 관심이 있었고 계속 하다보니까 다음 단계 교육에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받고싶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고 무조건 참석하게...” (청소년 8)

“전에는 큰방이랑 작은 방 두개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방이 없어졌고, 큰 방하고 설

저지방. 거기서 공부해요 저희....공부하기가 불편하죠. 공부할 때 싱크대 이쪽으로 가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겨울에.” (청소년 10)

(13) 보강되어야 할 서비스

보강되어야 할 서비스로는,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의 현실에 맞는 성공사례, 검정고시 합격 후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서는 프로그램을 할 때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겠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친해지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센터에서 교통비, 간식, 점심 등 물질적인 지원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보강되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정말 제가 느낀거는요. 애가 하고싶은 꿈이 있을 거잖아요. 애들마다.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를 수 있는지. 성공사례 이런 거? 그런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청소년 3)

“선생님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도 연장자나 좀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들끼리 진솔한 얘기같은거? 잘 될수있을진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래도 서로 마음열고 서로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본 적 있었어요.” (청소년 2)

(14) 만약 센터선생님이라면

자신이 만약 센터선생님이라면 정서적 지지를 해 주는 선생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선생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였다.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이제 상담자로서의 조언을 좀 많이 해 주고 싶어요.” (청소년 12)

“같이 활동도 해보고 싶고 같이... 어디를 놀러가서 막 인솔해주는 선생님도 해보고 싶고요 검정고시를 어떻게 요령껏 합격을 할까.. 이런거.” (청소년 9)

(15) 목표

목표로는 취업, 대학진학, 취업과 학업 병행이 있었다.

“글 쓰는 게 다 좋은데요 그래서 뭘 할까가 지금 고민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소설을 할까 기사를 쓸까 기자 같은 걸 해볼까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 9)

“그 학교가 미용예술과가 있어요. 그거 배우려고요.” (청소년 11)

(16)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목표를 위해 자신이 노력해야 할 것은 너무 헤이해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격증을 따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으며, 센터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는 직업을 알아봐 주는 것, 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 등이었다.

“저는 당연히 꿈을 위해 공부도 그쪽에 대한 지식 쌓고 거기애다 자격증, 아니면 그쪽으로 가려면 아르바이트도 조건이 있듯이 직업군인 조건에 맞춰서 하고 싶어요.” (청소년 2)

“저는 일단 내가 정말 하고 싶은게 뭔지를 저 스스로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해야되는 거 있잖아요. 공부나 수능이나 그런 것도 준비하면서 내가 뭘 해야될지 고민을...” (청소년 9)

마. 취약청소년 심층 면접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두드림·해밀 서비스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남녀 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두드림·해밀 서비스의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초기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대한 느낌과 생각, 초기에 힘들었던 점, 초기에 힘들었지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이유,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가장 도움이 된 이유, 현재 도움을 받고 싶은 서비스, 서비스 참여 후 생긴 변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서비스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 보장

되어야 할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 결과가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는 이미 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서비스에 대해 알려줘서 오는 경우가 있었고, 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선생님이 센터를 소개해줘서 오게 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본 경우도 있었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센터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게 된 청소년도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주로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이미 자신이 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의해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에서 발굴경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정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발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할 청소년 발굴 시, 좀 더 적극적인 센터의 발굴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검정고시를 혼자서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아서나 직업이나 진로를 알고 싶어서 오게 되었다는 개인적 상황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 빨리 돈을 벌고 싶었다는 가정적 상황,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애들이 있을 것 같고 친구가 서비스를 받아서 오게 되었다는 또래 상황이 있었다.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렵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검정고시 학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따라서 두드림·해밀 서비스의 대상인 청소년들은 대부분 개인적, 가정적, 또래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 모형 개발 시 두드림·해밀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처음에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받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모르는 다른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에 서먹함을 느꼈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비슷한 청소년들을 보면 매우 움츠러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미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이 지겹거나 재미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두드림·해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넷째,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포기하면 안되겠다는 새로운 의지가 생겼고, 혼자 지냈던 과거와는 달리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미래를 위해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합격의 기쁨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초기에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센터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챙겨주면서 좋은 조언과 같이 해보자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계속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센터 선생님들이 보람을 갖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진로를 찾고, 검정고시 공부나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애초 두드림·해밀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취업이나 학업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자립심과 자존감이 커졌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의지와 오기가 생겼으며, 친구가 생기고, 생활방식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뀌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무기력하게만 지내던 자신에게 꿈과 목표가 생기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에게 두드림·해밀 서비스가 가져다 준 변화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곱째, 청소년들은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을 보고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면에서, 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이 답답했고 게임 프로그램들이 흥미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시설 및 기자재 면에서는 공부방, 교재, 기자재가 부족한 것이 불편했다고 하였으며, 센터의 위치가 집과 멀어 이용하기에 힘들었으며, 선생님들이 너무 바쁜 것이 불편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통합 모형에서는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자재와 교재를 구비하도록 명시하여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이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덟째, 청소년들이 두드림·해밀 서비스에서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 면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검정고시 합격 후 취업반이나 수능대비반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번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했으며,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지금도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좀 더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진로나 직업상담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통합 모형에서는 검정고시 합격 후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경청하는 프로그램 진행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전문가나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전문가들은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이 취약청소년의 자립 및 학업지원 방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통합 모형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구상하기 위하여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립 및 학업지원 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탐색이 어려울 때,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주관적·직관적 방법이다(노승용, 2006). 델파이 조사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교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환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방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에 필요한 구성요소로 활용하였다.

나. 연구대상

본 연구의 델파이 1차 조사를 위해 선정된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은 총 100명이었다. 우선 학계전문가들은 취약청소년에 관련된 이해도가 높고, 취약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력이 있거나 이전에 현장에서 취약청소년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장 혹은 담당 팀장이 선정되었다.

100명의 현장전문가에게 1차 델파이 조사를 이메일로 발송한 결과 총 52명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4명(26.9%), 여자가 38명(73.1%)이 참여하였고, 연령별로는 41세에서 45세 사이가 14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6세에서 50세 사이가 11명(21.2%)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박사 졸업이 20명(38.5%)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은 교육학 19명(36.5%)과 사회복지학 18명(34.6%)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센터 근무 경력 혹은 연구경력은 10년 이상이 26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델파이 조사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해 3종류의 조사도구가 제작되는데, 첫 번째는 델파이 1차 조사 질문지로서, 취약청소년의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취약청소년의 개념, 범위, 대상, 성과에 대한 의견을 자유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델파이 2차 조사 질문지로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통합하여 제작하였다. 1차 의견을 영역으로 나누고, 각 문항에서 나타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점: 매우 동의함)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델파이 3차 조사 질문지로서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각 문항의 평균 및 사분위범위를 제시하

여 현장전문가들의 최종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차 조사 질문지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에 2차 조사 결과 나타난 평균을 제시하고, 사분위범위를 리커트 척도 상에 음영으로 표시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분포를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28. 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분포

변인	구분	명(%)
성별	남	14(26.9%)
	여	38(73.1%)
	소계	52(100.0%)
연령	25세-30세	5(9.6%)
	31세-35세	8(15.4%)
	36세-40세	5(9.6%)
	41세-45세	14(26.9%)
	46세-50세	11(21.2%)
	51세-55세	6(11.5%)
	56세-60세	3(5.8%)
	61세 이상	0(0.0%)
소계	52(100.0%)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4(7.7%)
	대학원 석사과정 중	3(5.8%)
	대학원 석사졸업	19(36.5%)
	대학원 박사과정 중	6(11.5%)
	대학원 박사 졸업	20(38.5%)
	소계	52(100.0%)
전공	교육학	19(36.5%)
	심리학	8(15.4%)
	사회복지학	18(34.6%)
	아동학	2(3.8%)
	청소년 학	3(5.8%)
	기타	2(3.8%)
	소계	52(100.0%)
경력	1년 미만	2(3.8%)
	1년 이상-3년 미만	1(1.9%)
	3년 이상-5년 미만	7(13.5%)
	5년 이상-7년 미만	8(15.4%)
	7년 이상-10년 미만	8(15.4%)
	10년 이상	26(50.0%)
소계	52(100.0%)	

1차, 2차,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현장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졌고, 다시 이메일 답장을 통해 의견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델파이 조사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응답률은 표 29에 제시하였다.

표 29. 델파이 조사 과정

구분	조사기간	내 용	배포 형태	표집 인원	응답 인원	응답률
제1차 델파이	2013. 5. 31-6. 11	개방형 질문형태의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e-mail	100명	52명	52%
제2차 델파이	2013. 6. 19-6. 26	1차 델파이 조사결과로 나온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e-mail	52명	48명	92.3%
제3차 델파이	2013. 7. 2-7.10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기초한 최종의견 수집	e-mail	48명	48명	100%

라. 자료분석

본 연구의 1, 2, 3차 델파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600여개의 의견이 나왔으며, 비슷한 의견끼리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총 141개의 의견을 도출하였다. 141개의 의견들을 유사한 영역이나 항목으로 분류하여 총 18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2차 설문 결과는 5점 리커트 상에 나타난 응답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에는 SPSS 12.0버전이 활용되었다. 셋째, 3차 설문 역시 2차 설문 자료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회수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기술통계치를 SPSS 12.0 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 연구결과

1, 2,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총 52명의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6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의견이 수집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나타난 각 의견은 통합, 분류 과정을 거쳐 1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48명의 현장전문가들은 1차 조사를 기초로 만들어

진 18개 영역의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고, 의견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8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한 3차 조사 결과, 각 의견에 대한 표준편차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자립지원 방안에 관해 높은 합의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현장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총 600여개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비슷한 내용을 합치고 수정한 결과, 표 30과 같이 최종 141개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청소년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취약청소년의 안전한 노동권 보장, 취약청소년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공간 지원 및 시설 확보, 진학 및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 경제적 지원, 멘토링 서비스 도입, 취약청소년에 대한 홍보, 학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스마트 교실 활성화, 취업프로그램 활성화, 심리 및 부모상담 제공,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청소년 자립의 개념, 청소년 자립의 범위, 청소년 자립의 대상, 청소년 자립의 성과에 관한 의견으로 나뉘었다.

표 30. 1차 델파이 조사 내용

영역	내용
1)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청소년 발생 시 등록제를 마련하고,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및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독립된 전문 기관이 필요하며,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취약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과 조직을 청소년부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부처 간 취약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조율되고 가장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기관이 필요하다. 취약청소년을 위한 심리, 학업, 경제, 주거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중복되는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 사회진출 지원 부분에서 유사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 및 전략이 필요하다. 취약청소년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요구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과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영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의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 인력충원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사례관리자나 멘토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상시 수퍼비전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 두드림과 해밀의 예산이 통합되어야 한다. • 직업훈련 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3) 취약청소년의 안전한 노동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청년인턴 제도처럼 청소년 채용 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과 혜택, 관리가 필요하다. •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중앙부처에서 지정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 취업, 아르바이트 네트워크 및 안정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취약청소년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청소년이 자립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기업 등과의 다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학업중단 및 취약청소년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보를 동의를 득한 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정보 공유를 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1388청소년 지원단 및 CYS-Net 지역연계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 취약청소년의 조기 발견, 예방체계,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학교에서 취약 혹은 학업중단 징후 학생 발견 시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학업중단청소년만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필요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5) 공간 지원 및 시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쉼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공간 및 시설확보에 대한 강제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기숙형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집단프로그램,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이 필요하다.
6) 진학 및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으로도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취약청소년이 학력인정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전학이나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쉽게 복교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복교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다. • 학교 수업 대체 및 위탁 교육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7)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곤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취약청소년들에게 기술을 배우거나 대학을 진학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 자립을 위한 생활비(전세나 월세보증금)를 무이자로 지원해야 한다.

영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교재,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공연관람, 문화체험 등 취약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 •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비 지원,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8) 멘토링 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까지 심리적 멘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대학생 연계 기초학습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 학습 멘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취약청소년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지해주는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 상담능력을 갖춘 멘토-멘티 제도가 필요하다. • 직업인 재능 기부를 통한 멘토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9) 취약청소년에 대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 • 취약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10) 학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스마트 교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업능력 회복 및 검정고시, 학교 복귀,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한 학업 관련 상담, 학습 지도, 학업 경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 YC처럼 찾아가는 1대1형식의 개인별 맞춤형 학업지원이 필요하다. • 검정고시 학습관련 교구재를 다양한 레벨에 맞춰 공동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 교실(검정고시)확대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학교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켜야한다. • 스마트 교실의 인력 충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매뉴얼 마련 등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 자격증 취득, 사회진출, 검정고시 합격, 복교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제도권 교과 학습의 보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프로그램을 제공(미디어 교육, 환경교육, 복지교육, 윤리교육, 생활교육 등)할 필요가 있다.
11) 취업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직업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 청소년 자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생활환경(가정 등)과 지역사회 자원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직업활동 경험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이 직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 충분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12) 심리 및 부모상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및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 및 개입, 삶의 태도 및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재정립하기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 가족과의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 학업중단 청소년과 부모가 같이 하는 캠프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제, 부모교육 이수제가 필요하다.

영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정체감, 유능성, 동기향상, 자기관리 역량, 또래관계 향상 능력 및 의사소통 훈련 등이 필요하다. • 취약청소년에게 인문학 및 철학 교육,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13)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숙려제의 상담 권고를 강제 사항으로 변경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되기 전 단계에 정책적 개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학업중단 숙려제가 상담프로그램 및 이후 학교 밖 생활적응 프로그램까지 한 세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 현재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화를 마련해야 한다. • 학업중단 숙려제 활성화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4)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p>〈시도센터의 역할과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례수 퍼비전을 실시한다. • 수요자 요구조사, 학업중단청소년 실태조사,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쉼터퇴소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 시도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한다. • 시군구 센터에 대한 컨설팅, 자문과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시도의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상자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 각 지역에서 협약을 맺기 어려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 중앙과 지역 간 실적이나 성과, 계획 등을 점검하고 통합하여 보고하고 각 지역 간, 중앙과 지역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 시도는 전체 시군구를 관장하고 시군구의 다양한 자원 연계와 예산, 조례,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자문, 지도, 지원을 한다. •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p>〈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취약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 및 개입을 한다. • 프로그램 활용과 평가를 한다. • 취약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한다. • 지역사회 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인근 센터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한다. • 취약청소년들의 발굴 및 소규모 집단의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 외부로부터 단위사업을 지원받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중점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새로운 현장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 시·도센터 사업홍보 지원,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 기록 및 발표기회, 프로그램 교구재를 개발한다. • 지역 취약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군·구의 특수여건을 시·도 정책 입안에 반영한다. • 사업진행 시 지역사회의 특성, 해당센터의 여건상 지침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보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 지역사회 모형을 지역 내 취약청소년들에게 적용해보고 그 모델을 평가해보는 역할을 감당한다.

영역	내용
	<p>〈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의 차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건이 다르고 현 상황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협력관계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 지역별 서비스 자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모델 운영이 필요하다.
15) 청소년 자립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은 완성적 개념보다는 발달단계 및 성장과업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 기능중심의 직업준비가 아니라, 취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진정한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가치관 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 실제적인 취업보다는 자립 준비 혹은 진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 청소년 자립은 개별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하며 ‘능력’과 ‘의지’를 함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청소년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 청소년 자립은 아동기와 청년기의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청소년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삶의 목표와 계획을 갖는 것이다.
16) 청소년 자립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는 일반적 자립의 개념과 동일하되 대상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청소년이 충분히 생각하여 일상생활과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을 포함한다. •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선택에서의 자율성, 의사결정능력, 직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는 것이다. • 자립 동기 강화와 장애에 닥칠 시련이나 실패에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의지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 가치관 확립, 진로상담을 통한 진로동기 및 적성과 소질의 확인, 자립 준비 프로그램(두드림), 학업준비 등을 하는 것이다. • 일상생활 기술부터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학업 및 일과관리를 포함한다.
17) 청소년 자립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에서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9세 이상에서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한다. • 14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으로 한다. • 만 14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 만 16세에서 만 22세 청소년으로 한다. • 만 13세에서 만 21세까지 청소년으로 한다. • 자립이행 과정에 있는 심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학업중단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전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한다. • 학업중단 청소년 및 경제적, 가정적, 환경적 취약한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영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3년 이내의 청소년으로서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부모의 지원(부모가 없거나)이 전무하거나 있어도 정상적인 부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시스템에 들어온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입시교육 위주의 제도권 교육 안에서 학업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8) 청소년 자립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 직업훈련, 취업이 해당된다. • 정규교육 재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대학진학이다. • 취약청소년들이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이다. • 사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후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해 수급급여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가 되는 것이다. • 청소년의 자신감 상승, 만족도, 도전의식, 성취감 등 개인 내적인 것이 성과이다. • 자립 개념 확립, 지역 사회 일꾼으로서 역할 수행과 역량 강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다. • 정신건강의 향상,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것,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하는 것이다. •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 유지, 삶에 대한 선택과 책임성 인식을 갖는 것이다. • 구체적 자립 기술 및 학력을 취하는 것이다. • 진로모색, 자기성찰과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다. • 진로성숙도 향상, 학업동기 향상, 기초직업능력을 습득 하는 것이다. •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과정), 상대방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상태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과이다. • 사전사후 검사 척도, 소감문, 사례관리 기록지 등의 내용들이 성과이다.

(2) 2·3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통합하여 설문지 형태로 제작하여 의견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3차 델파이 조사 또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의 평균과 사분위범위를 제시하여 최종의견을 수렴하였다. 2, 3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①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향후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02~4.48이었고, 3차는 3.79~4.75였다. 또한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58~1.10,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44~1.01이었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각 의견에 대해 합의 해가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약청소년을 위한 심리, 학업, 경제, 주거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정책 마련(4.75), 부처 간 취약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조율되고 가장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기관 필요(4.60), 지역사회 내 중복되는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 통합(4.54), 사회진출 지원 부분에서 유사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 및 전략 필요(4.46), 취약청소년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요구조사 진행 필요(4.56), 취약청소년 발생 시 등록제를 마련하고,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원 및 정보시스템을 일원화 필요(4.27)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② 청소년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청소년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13~4.77이었고, 3차는 4.25~4.94였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43~.86,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24~.62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확보(4.94), 전담인력의 급여 현실화 등 처우개선 필요(4.94),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과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4.69), 사례관리자나 멘토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 필요(4.54), 직업훈련 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 증액(4.50)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③ 취약청소년의 안전한 노동권 보장

취약청소년의 안전한 노동권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38~4.46이었고, 3차는 4.44~4.63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58~.71,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49~.53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중앙부처에서 지정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 고용의 안정성 확보(4.63), 지역사회 취업, 아르바이트 네트워크 및 안정망 마련(4.60), 청년인턴 제도처럼 청소년 채용 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과 혜택, 관리 필요(4.54),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 필요(4.44)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④ 취약청소년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취약청소년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33~4.43이었고, 3차는 4.48~4.73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49~.74,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45~.65였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약청소년이 자립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기업 등과의 다양한 연계 시스템 구축(4.73), 학교에서 취약 혹은 학업중단 징후 학생 발견 시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 필요(4.73), 학업중단 및 취약청소년 발굴시스템 구축 및 강화(4.67),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보를 동의를 득한 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정보 공유를 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4.65)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⑤ 공간 지원 및 시설 확보

공간 지원 및 시설 확보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06~4.63이었고, 3차는 3.96~4.71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87~.94,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46~.87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집단프로그램,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상설 공간 필요(4.71), 공간 및 시설확보에 대한 강제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4.42),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기숙형 시설 확보(4.29),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쉼터 제공(3.96)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⑥ 진학 및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

진학 및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42~4.38이었고, 3차는 3.08~4.60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69~1.15,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4~.87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높게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

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교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필요(4.60), 학교 수업 대체 및 위탁 교육의 활성화 정책 필요(4.44), 전 학이나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쉽게 복교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4.40)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⑦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75~4.29이었고, 3차는 3.42~4.33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65~1.00,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4~.89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와 3차 델파이 조사의 평균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검정고시 교재,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4.33), 공연관람, 문화체험 등 취약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 필요(4.29), 취약청소년들에게 기술을 배우거나 대학을 진학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필요(4.27),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비 지원,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 필요(4.02)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⑧ 멘토링 서비스 도입

멘토링 서비스 도입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19~4.40이었고, 3차는 4.25~4.46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54~.77,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0~.56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담능력을 갖춘 멘토-멘티 제도가 필요(4.46), 직업인 재능 기부를 통한 멘토풀 구축(4.42), 취약청소년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지해주는 멘토링 서비스 필요(4.38), 자립지원까지 심리적 멘토 제도 도입(4.35), 학습 멘토에 대한 지원(4.33), 대학생 연계 기초학습 멘토링 서비스 필요(4.25)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⑨ 취약청소년에 대한 홍보

취약청소년에 대한 홍보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69~4.40이었고, 3차는 4.52~4.65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76~.84,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8~.70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두

드림·해밀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4.65), 취약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74)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⑩ 학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스마트 교실 활성화

학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스마트 교실 활성화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83~4.46이었고, 3차는 3.56~4.44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62~.97,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0~.87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으나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학업능력 회복 및 검정고시, 학교 복귀,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한 학업 관련 상담, 학습 지도, 학업 경비 지원(4.44), 자격증 취득, 사회진출, 검정고시 합격, 복교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4.35), 스마트 교실의 인력 충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매뉴얼 마련 등 질적 향상(4.29), 스마트 교실(검정고시)확대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학교 프로그램과 차별화(4.21), 제도권 교과 학습의 보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프로그램 제공(미디어 교육, 환경교육, 복지교육, 윤리교육, 생활교육 등)(4.04)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⑪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29~4.54이었고, 3차는 4.44~4.56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58~.69,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0~.64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 중단 이전에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필요(4.56),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직업활동 경험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기회 제공(4.54), 청소년들이 직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 충분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54),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직업 커리큘럼 필요(4.50)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⑫ 심리 및 부모상담 제공

심리 및 부모상담 제공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08~4.58이

었고, 3차는 3.90~4.58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55~.96,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0~.88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와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큰 차이는 없었으나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기 및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 및 개입, 삶의 태도 및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재정립하기 위한 심리 상담 필요(4.58), 가족과의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상담 필요(4.56), 자아 정체감, 유능성, 동기향상, 자기관리 역량, 또래관계 향상 능력 및 의사소통 훈련 등이 필요(4.54),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4.50)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⑬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21~4.52이었고, 3차는 4.19~4.77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55~.97,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42~.84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화 마련(4.77), 학업중단 숙려제의 상담 권고를 강제 사항으로 변경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되기 전 단계에 정책적 개입을 전국적으로 시행(4.65), 학업중단 숙려제가 상담프로그램 및 이후 학교 밖 생활적응 프로그램까지 한 세트로 운영(4.50), 학업중단 숙려제 활성화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체출을 의무화(4.19)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⑭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시·도센터의 역할과 기능)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 시·도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98~4.42이었고, 3차는 3.63~4.58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58~.92,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0~.79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고,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례 수퍼비전 실시(4.58), 각 지역에서 협약을 맺기 어려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마련(4.54), 시·도의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상자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 기능 수행(4.50), 수요자 요구

조사, 학업중단청소년 실태조사,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쉼터퇴소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4.46)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⑮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88~4.42이었고, 3차는 3.52~4.58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56~.94,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49~.68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고,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약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4.58), 개별 취약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 및 개입(4.56), 사업진행 시 지역사회 특성, 해당센터의 여건상 지침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보완을 위한 의견 제시(4.56), 취약청소년들의 발굴 및 소규모 집단의 사례관리 담당(4.54), 지역사회 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인근 센터들과의 인적, 물질 교류(4.48)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⑯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의 차별화)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 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의 차별화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2.48~3.88이었고, 3차는 2.63~4.06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1.10~1.13,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79~.79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서비스 자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모델 운영(4.06)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⑰ 청소년 자립의 개념

청소년 자립의 개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35~4.48이었고, 3차는 3.35~4.63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54~1.12,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0~.82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능중심의 직업준비가 아니라, 취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진

정한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가치관 등을 확립(4.63), 자립은 완성적 개념보다는 발달단계 및 성장과업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과정(4.50), 청소년 자립은 개별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하며 ‘능력’과 ‘의지’를 함양하는 일련의 과정(4.50)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⑱ 청소년 자립의 범위

청소년 자립의 범위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90~4.33이었고, 3차는 3.81~4.50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60~.78,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49~.57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고,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선택에서의 자율성, 의사결정능력, 직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는 것(4.50), 일상생활 기술부터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학업 및 일과관리(4.48),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을 포함(4.38), 가치관 확립, 진로상담을 통한 진로동기 및 적성과 소질의 확인, 자립준비 프로그램(두드림), 학업준비 등을 하는 것(4.38)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⑲ 청소년 자립의 대상

청소년 자립의 대상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2.65~3.83이었고, 3차는 2.17~3.98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82~1.22,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60~.93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와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및 경제적, 가정적, 환경적 취약한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범죄 청소년을 대상(3.98), 학업중단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3.69), 만 14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를 대상(3.33)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⑳ 청소년 자립의 성과

청소년 자립의 성과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42~4.15이었고,

3차는 3.42~4.52이었다. 2차 표준 편차 분포는 .64~1.09, 3차 표준 편차 분포는 .54~.86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3차 델파이 조사 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 유지, 삶에 대한 선택과 책임성 인식을 갖는 것(4.52), 정신건강의 향상,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것,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하는 것(4.44),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과정), 상대방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상태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4.38), 자격취득, 직업훈련, 취업(4.33), 정규교육 재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대학진학(4.33), 청소년의 자신감 상승, 만족도, 도전의식, 성취감 등 개인 내적인 것(4.33)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바.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시사점

델파이 전문가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141개의 문항에 대해 대부분 5점 척도의 4점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져 전문가들은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학업지원에 대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과 학업지원에 대한 기존 정책이나 서비스가 아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있고, 서비스 지원을 받는 취약청소년의 숫자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 내용이 미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도출된 18개의 항목을 나누어 보면 크게 정책적 내용, 구체적 서비스, 시·도와 시·군·구 역할과 기능, 자립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적 내용으로는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책강화(통합정책 마련,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중심 기관 필요,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일원화 등),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안전한 노동권 보장,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공간 지원 및 시설 확보, 진학과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서비스 관련 내용으로는, 멘토링 서비스, 학업지원 프로그램과 스마트 교실 활성화,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심리 및 부모상담 제공,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시·도와 시·군·구 역할과 기능에서, 시·도센터의 역할은 전체 시·군·구를 관장하고 다양한 자원연계와 예산 등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왔고, 시·군·구센터는 직접적인 상담과 개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립 내용으로는 자립의 개념, 자립 범위, 대상, 성과를 제안하였다. 이것을 통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학업지원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특히 동의수준이 4.6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는, 취약청소년을 위한 심리, 학업, 경제, 주거지원을 총괄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4.71), 전담인력의 고용안정화(4.67),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확보(4.77), 전담인력의 급여현실화와 처우개선(4.75), 학교, 기업 등과 연계 시스템 구축(4.63),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설 공간 필요(4.63),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의 국가적인 홍보(4.63)였다. 이는 취약청소년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두드림·해밀지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취약청소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연계시스템 그리고 취약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높은 항목들은 취약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범부처와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항상 접하는 공간과 인력에 대한 개선을 나타내는 항목이어서 높은 동의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의 차별화와 청소년 자립의 대상에 들어있는 문항들 중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건이 다르고 현 상황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협력관계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항목은 2, 3차 모두 평균 2점대로서, 전문가로부터 큰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는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되어 운영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전문가들 대부분은 취약청소년을 위한 자립 및 학업지원 정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범부처간 연계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는 단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사업에 의한 지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예산 및 정책, 인력 및 공간,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갖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시·도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나 사례수퍼비전 실시, 기업체와의 연계업무, 지역자원 개발과 자원관리, 요구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는 직접적인 상담 및 개입, 취약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인근 센터들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을 수행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은 현재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도와 시·

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보여진다.

6. 분석내용 요약 및 시사점

위에서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 연구를 위한 다양한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실시된 조사는 총 4가지로,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청소년 설문조사, 학업중단청소년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 조사이며, 조사 대상은 현장전문가 8명,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326명, 학업중단 청소년 13명, 학계 및 현장전문가 52명이다.

표 31. 전체 조사 분석내용 및 요약

구분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청소년 설문조사	학업중단청소년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	내용 분석	설문조사	내용 분석	내용분석
대상	8명	326명	13명	52명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센터, 보호관찰소 등 기관을 통해 발굴 - 진학 및 학력취득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정보제공(검정고시, 취업 등) - 심리·정서적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 가족참여 프로그램 필요/취업정보 제공 - 검정고시 합격 후 혹은 두드림 과정 이수 후 프로그램 개설 필요 -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 -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예산부족 -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강화 필요 - 센터의 공간 지원 및 확보 필요 -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도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차원에서 홍보(FGI) - 국가차원에서 홍보(델파이 조사) - 자립성과는 학업복귀와 사회진입(FGI) - 능동적인 삶 유지, 삶에 대한 선택과 책임성 인식을 갖는 것(델파이 조사) 			

전체 4개의 조사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학교, 센터, 보호관찰소 등 기관을 통해 발굴이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은 진학 및 학력취득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정보제공(검정고시, 취업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정서적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특히 가족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직업 등을 알 수 있는 취업정보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 후 혹은 두드림 과정 이수 후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센터 직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예산부족과 센터의 공간 지

원 및 확보 필요성을 아쉬움으로 표출하였다.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강화와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홍보 부분에서 현장전문가 FGI에서는 센터 차원의 홍보를 이야기했다면,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립성과에서 현장전문가 FGI에서는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제시한 반면,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다양한 의견 중 능동적인 삶 유지, 삶에 대한 선택과 책임성 인식을 갖는 것이라는 항목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논리모델의 구조적 틀에 기반하여 서비스 대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서비스 절차와 방법, 서비스 성과, 그리고 행정지원 등에 관해 구체화된 통합모형을 개발·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검토는 물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수혜대상 청소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집·검토하여 전국 두드림·해밀 운영지역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모형 개발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통합모형에 적합한 서비스대상은 안전망에서 이탈된 학업중단 청소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차순위로 교정·보호·복지시설 등의 보호체계를 떠날 예정인 취약청소년,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대상이 된다.

둘째, 서비스의 목표는 개인별 학업 및 자립준비라는 두 가지 진로(two track) 목표에 따라 각각 학업복귀, 사회진입을 단기적 성과로 보아야 한다. 학업복귀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에 복학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진입은 취업, 직업기술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과정 진입, 인턴십 등 자립이행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자립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중장기적 성과는 지속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과정은 투입 → 서비스 활동 → 산출 → 성과 → 피드백을 통한 환류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각 과정은 합의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투입대비 산출에 따른 서비스 효율성(efficiency)과 산출량 대비 성과에 따른 효과성(effectiveness)이 평가단계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양질의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이 제시되었

다. 이는 수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내용과 이 용편의 방안이 도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방향은 검정고시와 취업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습동기 향상, 미래의 진로결정, 자립동기 향상, 심리·정서적 안정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할 점도 확인되었는데,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참신한 교구재 및 진행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불규칙한 생활태도 개선, 금연 금주 등의 건강관리, 진로결정에 도움 되는 프로그램, 검정고시 합격 후 수능대비반 개설 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집단 프로그램 외에 개별 접근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단순한 정보제공 외에도 참여자들과의 진솔한 고민 나눔의 장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실무자의 격려와 관심이 중도탈락하지 않는 중요 이유가 되고 있어 실무자의 개인상담 역량강화는 물론 안정적 신분보장을 통한 장기 근무의 필요성이 더 한층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환경적으로도 참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전용 학습공간 마련 등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 및 기자재의 보강이 요구되었다.

7. 전문가 자문

전문가의 자문은 문헌고찰 및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도출된 통합모형 기초 안에 대해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자문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합모형 1차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통합모형이 개발되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미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시도와 시군구 운영기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통합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차 자문은 실천적 타당성이 검토된 통합모형 2차안에 대해 학계 및 정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합모형의 이론적 타당성과 정책 반영상의 현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계 전문가는 사업모형 개발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통합모형의 각 단계별 구성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으며, 정부 관련 전문가는 정책적으로 반영 시 재원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여 추후 운영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문가의 자문 대상과 질문내용 및 결

과는 다음 단락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전문가 자문 1차

통합 모형 1차 구성안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경력 5년 이상이면서 석사 학위 이상인 현장전문가 6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자문 시기는 9월 초였으며, 자문방법은 현장전문가들이 같이 모인 FGI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전문가 자문 1차 질문 내용

구분	질문내용
역할과 기능	- 통합 모형의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가?
조직 규모	- 통합 모형의 시도 및 시군구의 인력은 어떠한가? - 통합 모형의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은 어떠한가? - 통합 모형의 시도 및 시군구의 시설은 어떠한가?
서비스 내용	- 시도 및 시군구의 서비스 내용은 어떠한가? - 시도 및 시군구의 서비스 성과는 어떠한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가?

전문가 1차 자문 결과는 표 33과 같다. 먼저, '역할과 기능'의 서비스 제공에서 시도 센터의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의 사례관리 및 수퍼비전의 진행 속도를 3개, 6개, 9개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고, 컨설팅 부분에서 시도 과도기의 컨설팅 진행 속도를 5개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의 시기가 실제로는 더 빠를 것 같고, 성과관리 영역을 추가하면 좋겠다고,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의 역할과 기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표시하고, 실적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사업의 설치 수를 늘이는 것보다 역할과 기능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조직 규모'의 인력에서 두드림·해밀 업무 분장을 두드림·해밀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시기별로 분류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도 인력은 6-6-7명, 시군구 인력은 4-5-6명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시설에서는 통합 모형에 두드림·해밀 전용공간 설치를 언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내용'의 서비스 성과에서는 성과로써 '사회진입'과 '사회진출' 중에 '사회진입'이라는 용어가 두드림·해밀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3. 전문가 자문 1차 내용

구분	자문내용	
역할과 기능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의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의 사례관리 및 수퍼비전의 진행 속도를 3개, 6개, 9개로 표시하는 게 좋겠음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과도기의 컨설팅 진행 속도를 5개로 표시하는 게 좋겠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의 시기가 실제로는 더 빠를 것 같음 성과관리 영역을 추가하면 좋겠음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의 역할과 기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표시하면 좋겠음 실적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음 사업의 설치 수를 늘이는 것보다 역할과 기능측면이 더 중요함
조직 규모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해밀 업무 분장을 두드림·해밀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시기별로 분류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음 시도 인력은 6-6-7명, 시군구 인력은 4-5-6명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음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해밀 전용공간 설치를 언급할 것
서비스 내용	서비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로써 '사회진입' 과 '사회진출' 중에 '사회진입' 이라는 용어가 두드림·해밀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 좋은 것 같음

나. 전문가 자문 2차

전문가 1차 자문 내용에 근거하여 통합모형 2차 구성안을 도출한 후, 통합 모형 2차 구성안에 대하여 학계 및 정부 관련 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받았다. 학계 전문가 2명은 청소년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이면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물을 발표한 경험이 있으며 두드림·해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 관련 전문가 1명은 정부의 두드림·해밀 사업 총괄자로서 통합모형 개발 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관계자였다. 자문 시기는 10월 초였으며, 자문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서문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전문가 자문 2차 질문 내용

구분	질문내용
대상 및 목표	통합 모형의 대상 및 목표는 어떠한가?
투입	통합 모형의 인력, 예산, 시설, 조직운영은 어떠한가?
활동	통합 모형의 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교육 연수, 연구 개발, 자원 개발 연계, 홍보, 컨설팅, 기타 사업 활성화, 사후관리는 어떠한가?
산출	통합 모형의 산출은 어떠한가?
성과	통합 모형의 단기, 중기, 장기 성과는 어떠한가?

전문가 2차 자문 결과는 표 35와 같다. 첫째, '대상 및 목표'에서 전문가 1은 대상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고, 목표를 세분화하여 하위목표를 좀 더 구체적

으로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2는 두드림 및 해밀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 집단으로 학업중단 및 학업중단 숙려대상 학생 보호/복지/교정시설 보호 및 퇴소 청소년으로 하고, 지원대상 집단으로는 경제적 가정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중 청소년 동반자 등 CYS-Net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목표 영역에서 두드림과 해밀사업의 공동목표를 우선 제시하되, 하위목표로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첫째와 둘째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 3은 '사회진입'이라는 용어 정의가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투입'에서 전문가 1은 인력이 향후 시도와 시군구 기능 및 역할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시도의 경우, 기능 전환이 수반된다면 상당한 준비와 노력 및 정밀한 계획 수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미래 투입 예산의 예측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2는 예산영역에서 청소년 1인당 투입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로 올리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해 가급적 많은 비교사례를 설정할 것과 시설영역에서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분담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시설의 용도가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 다소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 3은 시군구센터의 적정인원을 3명은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소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관계 증진, 문화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은 적절해 보인다고 하였다.

셋째, '활동'에서 전문가 1은 연구 개발, 자원개발 연계, 홍보 등은 시도와 시군구의 차이가 없어 보이니 설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 2는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이란 목표에 따라 투 트랙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동기를 강화하는 단계로 설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모든 단계에서 대상집단 간 단계별 접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육연수와 연구개발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 직무로 묶되, 시도차원에서 사업담당인력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연수에 한해서만 담당케 하고, 연구개발은 시도단위의 업무로 삼는 것으로 조정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 3은 초기면접을 학업진로, 직업진로, 진로미결정의 분류가 적절해 보이며, 기초 과정을 필수로 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진로에 따라 심화과정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산출'에서 전문가 1은 청소년, 인력, 조직 차원 등으로 구분해서 확인하면 좋겠다고, 투입 관련 산출 확인 요소 추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 2는 시도 및 시군구별 산출을 각각 나누되, 현재 언급한 사례발굴 수가 시군구에서 하는 사례발굴의 수와 동일한 의미라면 일정기간 내 제한된 산출지표로 삼아야 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 시도 내 모든 시군구의 사례발굴의 수를 합한 값이라면, 당연히 시도 내 산출지표에는 서비스 수혜 총인원수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성과'에서 전문가 1은 단기, 중기, 장기 구별은 적절하나 누적인지 분절인지, 그리고 구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기에서 학업복귀 인원수, 사회진입 인원수는 세분화가 필요하고, 이외 정성적 확인요소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 2는 각각의 단위에서 성과수준을 측정/평가하는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가될 필요가 있고, 각각의 척도에서 전체 대상자들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몇 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적정 성과관리수준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표 35. 전문가 자문 2차 내용

구분	전문가	자문 내용
대상 및 목표	전문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목표를 세분화하여 하위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했으면 함
	전문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드림 및 해밀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집단으로는 학업중단 및 학업중단 숙려대상 학생 보호/복지/교정시설 보호 및 퇴소 청소년으로 하고, 지원대상 집단으로는 경제적 가정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중 청소년동반자 등 CYS-Net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목표: 두드림과 해밀사업의 공동목표를 우선 제시하되, 하위목표로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첫째와 둘째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전문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입'이라는 용어 정의가 적절해 보임
투입	전문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향후 시도와 시군구 기능 및 역할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시도의 경우, 기능 전환이 수반된다면 상당한 준비와 노력 및 정밀한 계획 수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예산: 현재 투입되는 예산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 미래 투입 예산의 예측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으면 함
	전문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에서 2018년을 안정기의 기점으로 삼으면서 이후의 시기 모두를 안정기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음 • 시도단위(광역)의 팀원역할과 시군구단위(기초)의 역할을 초기부터 나누어 구안하되, 시도는 시군구 지원 및 조정의 역할, 그리고 시군구가 하기 어려운 총괄적 역할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시군구는 단위사업 실행 및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	전문가	자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청소년 1인당 투입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로 올리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해 가급적 많은 비교사례를 설정 시설: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분담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시설의 용도가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 다소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음
	전문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센터의 적정인원을 3명으로 책정하였으나,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 고려 청소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관계 증진, 문화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은 적절해 보임
	전문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활동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통합 측면에서 변화된 '내용' 중심으로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함 연구 개발, 자원개발 연계, 홍보 등은 시도와 시군구의 차이가 없어 보임. 설명 방식도 변화가 필요함
활동	전문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을 단계별로 사전과정-기초과정-심화과정으로 두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견이 없음.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이란 목표에 따라 두 트랙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동기를 강화하는 단계로 설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화과정 역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함. 교육연수: 교육연수는 연구개발과 함께 묶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 직무로 묶되, 시도차원에서 사업담당인력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연수에 한해서만 담당케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임 연구개발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 업무로 하되, 일부 연구개발의 경우(즉, 실태조사에 한해) 시도단위의 업무로 삼는 것으로 조정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전문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면접을 학업진로, 직업진로, 진로미결정의 분류가 적절해 보임 기초 과정을 필수로 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진로에 따라 심화과정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좋겠음
	전문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인력, 조직 차원 등으로 구분해서 확인했으면 함 투입 관련 산출 확인 요소 추가 필요함 근거 제시가 좀 더 요구됨
산출	전문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및 시군구별 산출을 각각 나누되, 현재 언급한 사례발굴 수가 시군구에서 하는 사례발굴의 수와 동일한 의미라면 일정기간 내 제한된 산출지표로 삼아야 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 시도 내 모든 시군구의 사례발굴의 수를 합한 값이라면, 당연히 시도 내 산출지표에는 서비스 수혜 총인원수로 들어가야 함
	전문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중기, 장기 구별은 적절함. 다만, 누적인지 분절인지? 구분 기준은? 중기: 학업복귀 인원수, 사회진입 인원수는 세분화가 필요하고, 이외 정성적 확인요소 고려했으면 함 통합모형의 성과와 기존 운영 사업의 성과는 동일한 것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측면을 고려했는지? 통합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성과	전문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각의 단위에서 성과수준을 측정/평가하는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좀 더 부가될 필요가 있고(특히 장기), 각 단위 성과관리의 적정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각각의 척도에서 전체 대상자들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몇 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적정 성과관리수준인지를 제시할 필요
	전문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중기, 장기 구별은 적절함. 다만, 누적인지 분절인지? 구분 기준은? 중기: 학업복귀 인원수, 사회진입 인원수는 세분화가 필요하고, 이외 정성적 확인요소 고려했으면 함 통합모형의 성과와 기존 운영 사업의 성과는 동일한 것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측면을 고려했는지? 통합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IV.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본 통합모형의 구조적 틀은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 요소들은 대상(Client), 목표(Goal),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소들이 통합모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취약청소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 자문, 타 유사 정책사업 검토 등을 거쳐 이론과 실천의 핵심 요소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통합모형의 각 요소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Client)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거나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청소년이 70여 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명확한 정책대상으로서의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취약청소년으로 정의하고, 통합모형의 대상을 '우선지원대상'과 '지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위 연구별 논의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문헌연구에서는 본 통합모형의 대상인 취약청소년에 대해 학업중단 청소년, 빈곤가정의 청소년, 시설보호 및 퇴소 청소년, 가출청소년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었다(노경란 외, 2008; 변숙영, 이수경, 이종범, 2009; 윤철경, 이해연, 서정아, 윤경원, 김영한, 백혜정, 이봉주, 양미진, 2005; 이인숙, 2004; 조규필, 2013; Aday, 1993; The serve America Act, 2009).

둘째, 관련 법규들을 살펴보면, 취약 아동·청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제49조 2항), 학업중단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4호),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5호)이다.

연령은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9~24세로 18~24세는 중복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 보호·복지·교정 시설 청소년, 기타 CYS-Net에서 연계된 취약청소년을 사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기존의 두드림 프로그램 매뉴얼과 해밀 프로그램 매뉴얼(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학업중단청소년 유형별 상담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교정시설 입소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한국사회 부적응 청소년이다. 연령은 해밀 대상의 경우 중·고교 연령대인 만13~18세, 두드림 대상은 중학교 3학년 부터 포함하여 만15~24세로 한정하고 있다.

넷째,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두드림·해밀 사업에 적합한 대상은 학업중단 청소년, 출소 예정인 소년원 청소년, 사회진입 예정인 보육시설의 청소년(만 18세에 퇴소),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이 선별하여 의뢰한 보호관찰청소년(특히, 수강명령보다는 보호관찰 대상이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적합), 보육시설이나 소년원을 퇴소한 자립생활관 청소년 중 서비스 희망자, 학교상담사가 선별하여 의뢰한 부적응 학생(장기결석, 학업중단 고위험군)이 제시되었다. 반면, 부적합 대상으로는 학업중단 외에 인원변동이 잦은 일시/단기 쉼터의 가출청소년, 보호관찰소에서 단체로 의뢰된 수강명령 청소년(참여동기 부족), 전문계고 등 학교에서 단체로 의뢰된 청소년으로 제시되었다.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복귀나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두드림·해밀사업의 목적에 동기가 부합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경제적·가정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보호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범죄 청소년이 적합한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은 만 14~24세, 만 14~19세의 청소년이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표 36과 같이 학업중단청소년, 보호/복지/교정시설 보호 및 퇴소 청소년은 모두 공통적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가출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보호시설과 교정시설의 범

주에 포함된다. 학교부적응 청소년 중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가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공식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통합모형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CYS-Net에 연계된 청소년 가운데 가정적·경제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자립준비가 필요한 경우 두드림·해밀 통합지원 서비스가 필요시 된다. 나머지 빈곤 청소년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수혜대상이거나 복지 인프라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대안학교 청소년 역시 이미 대안학교로 학업복귀한 상태이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과 같은 한국사회부적응 청소년은 이주배경지원재단 등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대상의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기에 통합모형의 대상에 넣지 않았다. 다만, 별도 CYS-Net을 통해 의뢰된 경우에 한해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표 36. 적합 대상 조사결과 비교

대상구분	문헌 연구	관련 법규	여성가족부 지침	프로그램 매뉴얼	포커스 그룹	델파이 조사
학업중단 청소년	✓	✓	✓	✓	✓	✓
시설 보호/퇴소 청소년 (교정/보호/복지)	✓	✓	✓	✓	✓	✓
가출 청소년	✓	✓	✓	✓		✓
비행 청소년	✓			✓		✓
학교부적응(숙려대상 포함)				✓	✓	
대안학교 청소년				✓		
빈곤가정 청소년		✓				
가정적·경제적·환경적 취약청소년(CYS-Net 연계)			✓			✓
한국사회 부적응(다문화/중도입국)				✓		✓

이상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통합모형의 적합한 대상은 다음과 같이 우선지원대상과 지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지원대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대상 학생, 보호·복지·교정시설 보호 및 퇴소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시설에는 가출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보호관찰소, 소년원, 자립생활관이 해당되며, 그 외 가정 외 보호체계도 포함된다. 그 다음 지원대상은 청소년동반자 등의 CYS-Net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

가운데 경제적·가정적·환경적으로 취약하여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연령범위를 제시하면,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해밀 프로그램의 경우, 중학교 이상의 연령대인 만13세 부터 포함되며, 사회진입을 목표로 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 두드림의 경우, 아직은 자립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중학교 1~2학년의 저연령대를 제외하고, 인문계와 실업계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중학교 3학년 이상의 연령대인 만 15세부터 20세까지 연령대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실제로 2012년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1세 이상은 2.0%에 불과해 대부분 20세 이하였다. 하지만 가정의 돌봄 부족으로 학업 및 자립역량이 부족한 21~24세 사이 청소년도 차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통합모형의 서비스 대상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표 37. 통합모형 서비스 대상 요약

구분	서비스 대상	연령*
우선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대상 학생 • 보호·복지·교정시설 보호 및 퇴소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보호시설) -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자립생활관(복지시설) - 보호관찰소, 소년원(교정시설) - 기타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만13~20세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S-Net 체계를 통해 연계된 청소년 중 경제적·가정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4세

* 주. 연령범위는 해밀은 만13세 이상, 두드림은 만15세 이상 해당

2. 목표 (Goal)

본 통합모형의 목표에 관한 논의를 위해 문헌연구와 기존 운영지침,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매뉴얼, 전문가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자립적인 삶'이 강조되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청소년이 발달 및 성장과업을 준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확립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두드림·해밀’ 운영지침에서는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며, 학업 중도탈락 방지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취약청소년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매뉴얼에서는 미래의 꿈과 비전에 대한 동기와 열망을 갖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며, 자기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기술과 자기관리능력과 자원활용능력, 자기관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해밀 프로그램 매뉴얼에서는 학업복귀 및 학업지속을 위한 개입이 강조되었으며,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38에 제시하였다.

표 38. 취약청소년 지원 목표 비교

목표 예시	문헌연구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델파이 조사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	✓			✓
성공적인 사회진출		✓	✓	
학업 중도탈락 방지 및 학업복귀		✓	✓	
자립역량강화		✓	✓	
미래목표 동기화			✓	✓
자신에게 맞는 직업 찾기			✓	
구직기술 및 대인관계 기술 습득			✓	
일상생활기술 습득			✓	
성공적인 미래 준비			✓	✓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내적 자기관리능력 배양			✓	✓
학습동기 향상			✓	
학습 자신감 및 의지 향상			✓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연구의 논의들을 종합하였으며, 아울러 본 연구가 두드

림과 해밀사업의 통합모형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공동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학계 전문가의 지문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모형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취약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하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돌봄이 취약한 청소년의 자립동기를 강화하고, 자립준비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돕는다.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자립의지를 고취한다.
-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갖고 자기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진로직업역량을 강화한다.
- 올바른 경제관념을 고취시킴으로써 경제적 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주거관리 및 일상생활기술을 습득한다.
-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해결 방법을 익혀 사회적 기술을 향상한다.
-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힌다.

둘째,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동기를 강화하여 학업복귀를 촉진한다. 학업복귀란 단지 정규학교 복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이 단절된 상태에서 학업동기를 갖고 어떤 형태이든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업동기를 강화한다.
-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익힌다.
- 학업복귀 상황을 예측하고 어려움 발생 시의 대처기술을 연마한다.
- 성공경험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

표 39. 통합모형 목표 요약

구분	목표내용
공동목표	취약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위목표1	가정의 돌봄이 취약한 청소년의 자립동기를 강화하고, 자립준비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돕는다.
세부목표①	자립의지 함양
세부목표②	진로직업역량 강화
세부목표③	경제적 관리능력 향상
세부목표④	주거관리 및 일상생활 기술 습득
세부목표⑤	사회적 기술 습득
세부목표⑥	신체적·심리적 자기관리능력 배양
하위목표2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동기를 강화하여 학업복귀를 촉진한다.
세부목표①	학업동기 강화
세부목표②	효과적인 학습방법 습득
세부목표③	학업지속을 위한 위기 대처기술 습득
세부목표④	학업역량을 위한 자기효능감 향상

3. 투입 (Input)

본 통합모형의 투입 요소에는 인력, 예산, 시설, 조직운영이 포함된다. 다만, 현재 두드림·해밀이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별로 분포 정도에 따라 투입 요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의 논의 끝에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로 나누어 투입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도기는 두드림·해밀이 전국센터 중 1/3 설치된 시기(2014년~2015년), 도약기는 두드림·해밀이 전국센터 중 2/3 설치된 시기(2016년~2017년), 안정기는 두드림·해밀이 전국센터의 90% 이상 설치된 시기(2018년 이후)로 보고 인력, 예산, 시설, 조직운영 차원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력

인력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3대 관리요소¹⁾ 중 조직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그러므로 통합모형에서 이상적으로 제시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인력구성과 인력

1) 3대 관리요소는 재정, 물자, 인력임(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131)

운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인력현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살펴보았으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구성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아울러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전문가 전화이조사 및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력수에 대해서는 2013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두드림·해밀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광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명 이상, 기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명 이상을 두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인력운용에 자율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무영역이 불분명하여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이나 역할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업무구분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실무자의 업무과중과 임시직 신분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참여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의 손실은 장기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두드림·해밀사업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연중 12개월을 상근할 수 있는 전담인력 운용이 필요하며, 전담인력 수는 다양한 업무수행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광역시·도의 경우 최소 5명, 기초 시군구의 경우 최소 3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차례의 자문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시기별(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지역별(시도, 시군구) 인력 배치에 변화가 필요하므로 시도 인력은 6-7명, 시군구는 4-5-6명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40과 같다.

표 40. 전담인력 수 필요 의견 비교

구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현장전문가 FGI	전문가 자문
시도	5명 이상	최소 5명	과도기 6명 도약기 6명 안정기 7명
시군구	2명 이상	최소 3명	과도기 4명 도약기 5명 안정기 6명

2012년 두드림·해밀사업의 사례관리 인원현황을 살펴보면(표 41 참조), 49개소의 두드림에서 연간 실인원 9,380명, 16개소의 해밀에서 2,314명에게 각각 서비스를 제

공하여 전체 11,694명을 사례관리하였다. 이를 전국의 전담인력 113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인원은 103.5명이다.

표 41. 두드림·해밀 사례관리 현황 (2012년)

구분	산출근거	인원(명)
연간 서비스 참여 청소년 수 (실인원)	두드림 9,380명+해밀 2,314	11,694
전담인력	(16개소×5명)+(33개소×1명)	113
센터당 평균 인력 수	113명÷49개소	2.3
실무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수	11,694명÷113명	103.5

* 출처 : 두드림 결과보고집(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 결과보고집(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두드림·해밀 사례관리 수가 적정한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와 국내 타 사업들과 비교해보았다(표 42 참조). 사례관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1인당 15~50사례(Rothman, Sagar, 1998)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20사례가 넘어가면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 결과가 훨씬 줄어들게 되며(Harris, Bergman, 1987), 35사례 이상이 되면 예방적이기보다는 반응적이게 되어 독립과 능력부여를 용이하도록 돕기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을 해주기 시작한다(Intalgiata, Baker, 1983). 그러므로 30사례 이하를 주장한 권진숙, 박지영(2012)은 커피씨 분류 방식, 즉, 어차피 못 쓰는 알맹이, 그냥 두어도 좋은 알맹이, 약간 손보면 될 알맹이로 분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례를 점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유사 사업들의 사례관리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에서는 가구단위로 사례관리하고 있는데 1인당 20가구를 담당하고 있으며(경기도 무한돌봄센터, 2012), 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지역마다 전담사례관리 인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6명의 실무자가 300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50사례를 맡고 있다(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2013).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는 1명의 전일제 동반자가 12명의 청소년을 맡고 있는데, 서비스 기간이 3개월이므로 연간으로 따져보면 4차에 걸쳐 48명을 사례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 타 사업들은 15~50사례가 적정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비슷한 수준의 사례 수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두드림·해밀의 실무자들은 적정 사례 수보다

2배 이상의 과도한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한 3가지 사업의 경우, 정해진 대상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반면, 두드림·해밀은 정원이 없고 정해진 기간도 없기 때문이다. 즉,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진입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Drop-out) 돌아오는 경우, 인원 제한없이 계속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드림·해밀사업 전담인력의 사례관리 시스템 운용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점은 적정 사례관리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서 지적한 바대로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두드림·해밀의 사례관리 인원은 실무자 1인당 50명으로 제한하고, 50명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사례관리자를 늘려야 한다.

표 42. 타 사업간 사례관리 인원 비교(실무자 1인당)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동반자	두드림해밀
20가구	50명 (300명÷6명=50명)	48명 (12명×연4차=48명)	103.5명

다음으로 전담인력의 역할에 대해 규정해보고자 전문가 자문, 청소년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조사, 두드림·해밀 업무분석자료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문가들은 기존에 나뉘어져 있던 두드림사업과 해밀사업이 통합된다면 업무분장이 따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인력관리 측면이 거론되었는데, 자립 및 학업 지원 전문가 양성, 고용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전담인력의 급여 현실화 등 처우 개선, 인력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실무자들의 역할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를 살펴본 결과, 실무자들은 청소년들이 초기에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서비스에 연결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복귀를 원하는 대상에게는 일대일 학습지도를 해주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주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버팀목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처럼 실무자의 존재감은 “차마 선생님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선생님들이 좋고 센터가 마치 우리집 같아서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는 표현

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는 피드백도 있었는데 그만큼 사례관리 여력의 한계를 짐작케 한다.

한편, 201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두드림과 해밀 실무자의 업무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프로그램 진행 및 사례관리 등의 직접 서비스 외에도 대상자 발굴, 사업홍보, 자원연계, 예산관리, 행정처리 등의 간접서비스와 행정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통합모형의 인력구성과 역할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제시하였다.

- 두드림과 해밀 업무의 경계없이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 시기별(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역할의 변화를 고려한다.
- 지역별(시도, 시군구) 역할의 차이를 고려한다.
- 개별적인 핵심업무를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합모형의 인력구성 및 운용안을 제시하면, 시도 통합모형에서는 현재의 과도한 사례관리 수를 조정하여 적정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도기에는 현재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과도기에서 안정기로 넘어가면서 직접 서비스의 역할은 감소하는 반면, 시군구 지원 기능이 확대되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이 신규로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6명에서 7명으로 증원이 필요하다. 즉,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에 정원은 6명 → 6명 → 7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구 통합모형에서는 과도한 사례관리 외에 별도의 운영지원 및 행정운업을 병행하기에는 현재의 2명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합모형 운영을 위해서는 과도기에 4명으로 증원하고, 이후 직접서비스의 기능이 시군구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도약기, 안정기에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에 정원은 4명 → 5명 → 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기별로 시도 및 시군구 통합모형의 세부적인 인력운용안을 살펴보면, 시도의 경우(표 43), 과도기에 팀장은 두드림·해밀 실무총괄, 나머지 5명의 팀원은 사전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스마트교실 운영, 사회진입 지원서비스를 각각 핵심업무로 관리한다. 이때 각 담당자는 핵심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되 각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 및 사

례관리 등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참여한다. 개인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팀장(두드림·해밀 실무총괄) :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등의 직접서비스, 직원 교육연수, 시군구 지역 컨설팅, 대외업무 등의 사업 운영지원, 그리고 예산관리 및 각종 보고서 등의 행정운영사항을 총괄한다.
- 팀원1(사전과정 관리) : 사례발굴 및 유형별(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목표설정 및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관리하여 참여자들이 기초과정에 순조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핵심업무 외 사업설명회 개최나 언론보도 등의 홍보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팀원2(기초과정 관리) : 기초과정의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배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반을 관리한다. 부가적으로 자체 인력 및 시군구 인력의 교육연수 실무를 관리한다.
- 팀원3(심화과정 관리) : 심화과정의 특화프로그램이나 체험과정, 캠프 등을 주관하며, 이와 관련된 강사배정 및 체험기관 풀을 구축·운영한다.
- 팀원4(스마트교실 운영) : 검정고시 준비 및 기초학습 증진을 위한 스마트교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검정고시 강의교실 운영, 학습지도 강사나 일대일 멘토를 양성·운영, 대학탐방이나 문화적 소양을 위한 체험활동을 주관한다.
- 팀원5(사회진입 지원) : 취업이나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의 사회진입을 원하는 참여자를 위해 다양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나 취업사관학교 의뢰, 자격취득과정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및 공적기관 등의 다양한 후원개발 및 서비스 자원을 개발한다.

표 43. 통합모형 인력구성 및 역할 요약(시·도)

지역	인력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시 도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해밀 총괄〉 • 직접서비스(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총괄) • 운영지원(대외업무, 교육연수, 시군구 컨설팅) • 행정운영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해밀 총괄〉 • 좌 동 ※ 직접서비스 다소 감소 ※ 시군구 지원업무 다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해밀 총괄〉 • 좌 동 • 슈퍼비전 • 연구개발 ※ 직접서비스 대부분 감소 ※ 시군구 지원업무 대폭 증가
	팀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과정 관리〉 • 사례발굴, 사례접수, 유형별(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지원계획수립 • 사업홍보 • 회계업무 •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과정 관리〉 • 좌 동 ※ 사례발굴 등 다소 감소 ※ 시군구 전체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과정 관리〉 • 좌 동 ※ 사례발굴 등 감소 ※ 시군구 전체 홍보 강화
	팀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정 관리〉 •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기초과정 운영지원(강사배정,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연수 관리 •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정 관리〉 • 좌 동 ※ 기초과정 운영 다소 감소 ※ 시군구 교육연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정 관리〉 • 좌 동 ※ 기초과정 운영 대폭 감소 ※ 시군구 교육연수 대폭 증가
	팀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과정 관리〉 • 학업지원 특화프로그램(학습클리닉 등) • 자립기술습득 과정(직업체험, 실물경제체험) • 성장캠프, 진로종합캠프 • 직업인/직업체험 풀 구축 •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과정 관리〉 • 좌 동 ※ 심화과정 운영 다소 감소 ※ 시군구 직업인/직업체험 풀 구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과정 관리〉 • 좌 동 ※ 심화과정 운영 대폭 감소 ※ 시군구 직업인/직업체험 풀 지원 확대
	팀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교실 운영〉 • 검정고시 준비반, 기초학습반 운영 • 학습지도 멘토링 •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교실 운영〉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진입 지원〉 • 좌 동
	팀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진입 지원〉 • 취업/직업훈련 연계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자원개발 •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진입 지원〉 • 좌 동 ※ 시군구 자원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진입 지원〉 • 좌 동 ※ 시군구 자원 공유 확대
	팀원 6			
정원		6명	6명	7명

도약기에는 기본적으로 과도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되, 시군구 두드림·해밀 운영기관 증가에 따른 시군구 지원업무 증가 및 직접서비스의 일부 감소를 위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컨설팅, 홍보, 교육연수, 직업체험풀 구축, 자원개발 등의

업무는 시군구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로 일부 전환되며, 직접서비스에 관련된 사례발굴,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운영, 사례관리 등은 일부 감소된다.

안정기에는 직접서비스의 비중은 최소화되면서 시군구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도약기의 업무 중에서 지역 홍보, 교육연수, 직업체험플, 연계자원의 공유 등의 업무는 시군구 운영기관을 위해 대폭 확대되며, 지역 실무자에 대한 수퍼비전, 지역실태조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재 개정 업무가 새롭게 추가된다.

시군구의 경우(표 44), 과도기에는 시도에 비해 서비스 지역과 대상이 적어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됨에 따라, 팀장의 역할은 시도와 유사하나, 팀원1은 사전과정과 기초 과정을 모두 관리하고, 팀원2는 사회진입 서비스를 포함하여 심화과정을 관리하며, 나머지 팀원3은 시도와 마찬가지로 스마트교실 운영을 맡는다. 도약기에는 사회진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팀원 1명을 증원하여 사회진입 지원업무를 별도 관리한다. 안정기에는 점차 직접서비스 성과목표가 증가됨에 따라 사례발굴 및 유형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팀원 1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사전과정을 별도 관리한다. 아울러 시군구 지역 내의 직업체험플을 구축하여 심화과정을 강화한다. 팀장은 자체 인력 증가에 따른 자체 교육연수 업무를 강화한다.

표 44. 통합모형 인력구성 및 역할 요약(시·군·구)

지역	인력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시 군 구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해밀 총괄〉 • 직접서비스(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총괄) • 운영지원(수퍼비전, 대외업무) • 행정운영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해밀 총괄〉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해밀 총괄〉 • 좌 동 • 자체 교육연수
	팀원 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과정 관리〉 • 사례발굴, 사례접수, 유형별(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지원계획수립 • 사업홍보 • 사례관리 ※ 사례발굴 등 증가
	팀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정 관리〉 • 사례발굴 •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기초과정 운영지원 (강사배정,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홍보 •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정 관리〉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정 관리〉 •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기초과정 운영지원 (강사배분, 프로그램 운영 등) • 사례관리 ※ 기초과정 참여대상 증가
	팀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과정 관리〉 • 학업지원 특화프로그램 (학습클리닉 등) • 자립기술습득 과정 (직업체험, 실물경제체험) • 사회진입(취업/직업훈련 연계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과정 관리〉 • 학업지원 특화프로그램 (학습클리닉 등) • 자립기술습득 과정 (직업체험, 실물경제체험) • 사례관리 ※ 심화과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과정 관리〉 • 학업지원 특화프로그램 (학습클리닉 등) • 자립기술습득 과정 (직업체험, 실물경제체험) • 직업인/직업체험 풀 구축 • 사례관리
	팀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교실 운영〉 •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 • 기초학습반 운영 • 학습지도 멘토링 •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교실 운영〉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교실 운영〉 • 좌 동
	팀원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진입 지원〉 • 취업/직업훈련 연계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사례관리 ※ 사회진입 성과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진입 지원〉 • 좌 동
정원		4명	5명	6명

나. 예산

예산은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3대 관리요소 중 하나로서 두드림·해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력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모형의 적정 예산 규모와 예산항목을 제시하고자, 정부 유사 정책사업들과의 투입예산을 비교해보았으며, 현장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청소년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조사, 학계 전

문가 자문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2012년 두드림·해밀사업의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시도 두드림·해밀 운영기관 1개소당 183백만원씩, 시군구는 1개소당 30백만원씩 지원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중앙 지원예산 368백원을 포함하여 전국 49개소 전체 예산은 42.8억이 투입되었으며, 11,694명에게 두드림·해밀 서비스가 제공되어 1인당 366,500원이 사용되었다. 과연 이러한 예산규모는 적절한 수준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표 45와 같이, 정부 유사 정책사업들과 비교해본 결과,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75.6% 수준, 드림스타트 사업의 43% 수준,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25.7% 수준이었으며, 비교 사업들의 1인당 평균비용(1,073,600원)의 34.1% 수준에 불과했다. 만약, 산술적으로 비교사업들의 1인당 평균 투입예산과 동일한 예산규모를 유지하려면 현재 예산보다 192.7% 증액된 125.5억을 투입하거나, 서비스 인원을 현재보다 65.9% 축소하여 3,987명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각 사업별 성과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정책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예산 증액없이 더 이상 두드림·해밀 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늘리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반증해주고 있다.

표 45. 1인당 투입 비용 비교

구분	서비스 인원	전체 예산	1인당 비용	상대비교
두드림·해밀1)	11,694명	42.8억	366,500원	1.0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2)	292,989명	1,422억	485,000원	1.32
방과후아카데미3)	8,200명	154.7억	1,885,000원	5.14
드림스타트4)	54,300명	462억	850,800원	2.32

1) 2012년 두드림, 해밀 사업결과보고집(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2) 201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현황(한국교육개발원, 2013)

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3.19)

다음으로, 적절한 예산항목 편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표 46),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에서는 기존 지침에 명시된 예산항목 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항목을 제시하였는데,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 공과금 등의 시설유지비, 전담인력 사무용 비품구입비, 동아리활동 및 문화활동비 등이 추가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현재의 지침상 시도는 총 예산의 65%, 시군구는 7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전담인력의 근

무경력이 쌓이더라도 기준 이상 인건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최소한 매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3% 내외)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소년 심층면접에서는 교통비, 간식 및 점심 식비, 학원비 등을 희망했다.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는 기술습득 및 대학진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전·월세 등의 자립생활비 무이자 지원, 검정고시 지원비, 문화체험비, 교통비 및 식비,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직접 지원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두드림과 해밀 예산의 통합, 자립기금 조성을 제안하였다.

표 46. 예산편성 필요 항목 비교

예산항목		여성가족부 지침	실무자 FGI	청소년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
인건비	인건비	●	●		●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	●		
	문화활동비	●	●		●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		●		
	교통비, 간식비, 점심값	●		●	●
	자립생활지원 기금				●
운영비	직접지원비(학원비, 직업 훈련비, 경제적 지원 등)	●	●	●	●
	관리운영비(시설유지비, 공과금, 비품구입비 등)		●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본 통합모형에서는 예산규모와 편성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총 예산 규모는 청소년 1인당 투입비용을 100만원까지 점진적 증액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2.7배 수준으로 타 유사사업의 1인당 평균 투입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산항목은 크게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지원비, 사업추진에 따른 교육훈련비, 홍보비 등의 기본사업비, 여비 및 비품구입 등에 관련된 운영비로 구분된다. 세부 예산편성 항목은 다음의 표 47에 제시하였다.

표 47. 통합모형 예산 규모 및 편성항목 요약

구분		제시안	비고
총 예산 규모		•청소년 1인당 투입비용 100만원 수준까지 점진적 증액	•현재의 2.7배
인건비	인건비	•매년 공무원 수준의 임금 상승률 반영	•3% 내외
서비스 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초/심화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비용 (주/보조 진행자 강사비, 캠프 등 숙박비, 인턴십 지원비, 외부 프로그램진행시 교통비 등)	
	문화활동비	•문화적 소양에 필요한 문화체험비 반영	
	교통비, 식비	•경제형편이 어려운 대상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반영	•별도 증빙서류(기관장 소견 등) 보관
	직접지원비	•검정고시 학원비, 자격증 취득 지원비 등 직접지원비 성격의 예산비중 확대	
	자립생활 지원비	•자립정착금, 장학금 등의 기금 확보	•특별지원금 활용, 민간재단 연계 등
기본 사업비	교육훈련비	•직원 직무교육 및 전문화교육 관련 예산 반영	
	수퍼비전비	•외부 전문가 초빙 수퍼비전비 반영	
	기초조사 연구비	•지역 실태조사, 프로그램개발비 반영	•안정기에 반영
	홍보비	•홍보물 제작, 사업설명회 등 반영	
	연계협력비	•자원개발, 협력회의비, 자문회의비 등 반영	
	교·구재 구입 및 제작비	•프로그램 개정, 추가 구입시 반영	
	인쇄비	•보고서, 책자 등 반영	
운영비	시설유지비	•공과금 등 두드림·해밀 시설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유지비 반영	
	비품관리비	•초기 전담인력 채용시 업무용 비품구입비 반영 •비품 노후 등에 따른 수선비 반영	•PC, 책상 등
	소모성 물품 등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비 반영	
	기타 운영비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우편발송비, 수수료 등 반영	

다. 시설

통합모형의 시설 설치기준 제시를 위해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청소년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결과를 검토해보았다. 먼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는 별도의 전용공간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별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적 근거(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항)를 참고하여 시설용도별 세부 설치기준, 전용면적, 시설 입지 관련 사항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에서는 시도 모델의 시설규모는 각각 300m²가 적당하며, 시군구 모델은 1/2 수준인 150m²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필수공간으로는 상담실, 프로그램실(25명기준), 학습실(검정고시 준비 등), 다목적실(직업체험, 자격증 훈련, 정보검색 등),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시군구의 경우 시설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을 공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설문조사 결과, 처음 센터를 이용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선호하였고, 공부나 휴식을 위한 전용공간을 희망했다. 심층면접에서는 난방시설이 취약해 겨울에 춥고,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도 공히 전용공간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시설 설치기준이 달리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한 결과, 다음의 표 48과 같이 시도와 시군구 모형을 구분하여 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시도 통합모형의 경우, 시설면적은 300평방미터(m²)가 적당하다. 필수 시설공간은 상담실, 학습실(검정고시, 기초학습 등), 프로그램실(25명 기준), 다목적실(직업체험, 자격증 훈련, 정보검색 등), 사무실(7명 기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기존에 시도 두드림 교육장에는 직업체험실이 별도 설치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상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 마련보다는 직업체험 장비의 보관 및 필요시 실습공간, 정보검색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별 공간의 면적은 별도로 지정하기 보다는 전체 면적 내에서 지역별로 자율적인 면적 배분이 가능하다.

시군구 통합모형의 경우, 시도 면적의 1/2 수준인 150평방미터(m²)는 마련되어야 한다. 필수 시설공간은 사무실 공간이 6명 기준으로 작은 것 외에 시도 모형과 동일하나, 여건상 시설확보가 곤란할 경우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을 공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표 48. 통합모형 시설 설치기준 요약

구분	시도 모형	시군구 모형	
시설면적	• 300m ²	• 150m ²	
시설 공간	상담실	• 초기면접, 진로상담, 심리검사 등	• 좌동
	학습실	• 검정고시 대비반, 기초학습반	• 좌동
	프로그램실	• 25명 기준	• 좌동
	다목적실	• 직업체험 설비, 정보검색실, 휴식공간	※ 공동 활용 가능
	사무실	• 7명 기준	• 6명 기준
조건	위치	• 교통편 등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가급적 상담복지센터 내 위치	
	설비	• 냉난방시설, 출퇴근기록기, 학업·직업관련 전시물	
	전용공간	• 센터 내 시설과 별도의 상설 전용공간 필요	

4. 활동 (Activity)

본 통합모형의 활동(Activity)은 직접서비스와 운영지원으로 구분된다. 직접서비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사후관리가 있다. 운영지원은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운영지원활동으로서 직원 교육연수, 연구개발, 자원개발·연계, 홍보, 컨설팅, 기타 활성화사업이 해당된다. 다음의 그림 6은 활동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도식화한 것으로 5단계(대상자 의뢰, 사례발견, 개입, 결과,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유관부처의 연계를 포함한 정책적 환경과 통합모형 서비스 과정을 입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대상자 의뢰단계에서는 교육부 학업중단숙려제 연계를 통해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의뢰받고, 복지부 산하의 복지시설 연계를 통해 시설보호 및 퇴소청소년을 의뢰받는다. 사례발견 단계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CYS-Net, 1388, 사이버상담, 보호시설(쉼터 등), 그리고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한 사례발견이 이루어진다. 개입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두드림·해밀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유관부처의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결과단계에서는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의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목표를 성취한 청소년의 사후적응을 돕기 위해 사후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면상담, SNS 등을 통한 적응상태 모니터링, 현장방문, 자조모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다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프로그램 제공

통합모형의 활동(Activity) 단계에서 프로그램 제공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청소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2013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서는 6단계(발굴, 서비스 계획수립, 기본과정, 심화과정, 결과, 사후관리)의 두드림·해밀 서비스 지원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핵심적인 프로그램 제공 단계인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학업복귀 또는 자립준비 2개의 진로궤적으로 나뉘어져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청소년의 진로목표 수정시 두 궤적 간에 교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에서는 서비스 과정을 사전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서비스결과, 사후관리의 5단계로 나누되,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단순화하며, 사후적용 지원을 위해 사후적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설문조사결과,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로 개인상담과 학습지도(인터넷 강의, 학습멘토 등)를 꼽았으며, 진로결정, 생활태도 개선에 관한 프로그램이 추가되기를 원했다. 심층면접에서는 동기부여, 자기 현실에 맞는 성공사례를 다룬 프로그램이 보완되기를 희망했으며, 검정고시 합격 후 개입프로그램을 원했다. 현재 프로그램 중에서는 직업정보 제공, 학습지원 멘토 연결,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가 증가되기를 원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사후적용 프로그램, 진로결정, 직업체험, 학습지원 멘토 연결, 스마트교실 운영, 가족개입, 생활태도 개선 및 심리치료 관련 개인상담, 자기유능감,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제공 과정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제공은 5단계(사전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결과, 사후관리과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사전과정에서는 신청자의 개별사정을 통해 3가지 유형(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진로미결정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 목표를 정한다. 이때, 진로미결정형은 진로 목표 동기화 상담을 통해 진로결정을 돕는다. 단, 진로미결정 상태라 할지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기초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기초과정에서는 유형별(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학업복귀 동기강화 프로그램(나내매) 또는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두드림1)을 필수과정으로 참여한다. 단, 집단참여를 거부하는 대상에 한해 진로목표 동기화 상담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 심화과정에서는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 구분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한다.
- 결과는 단기성과(자립준비수준 향상, 학업동기 강화), 중기성과(학업복귀, 사회진입), 장기성과(학업복귀, 사회진입 후 6개월 이상 적응유지)로 구분한다.
- 사후관리과정에서는 기존의 개별 사후관리 외에 개인목표 달성자 중 희망 시 사후적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제시한 통합모형의 프로그램 제공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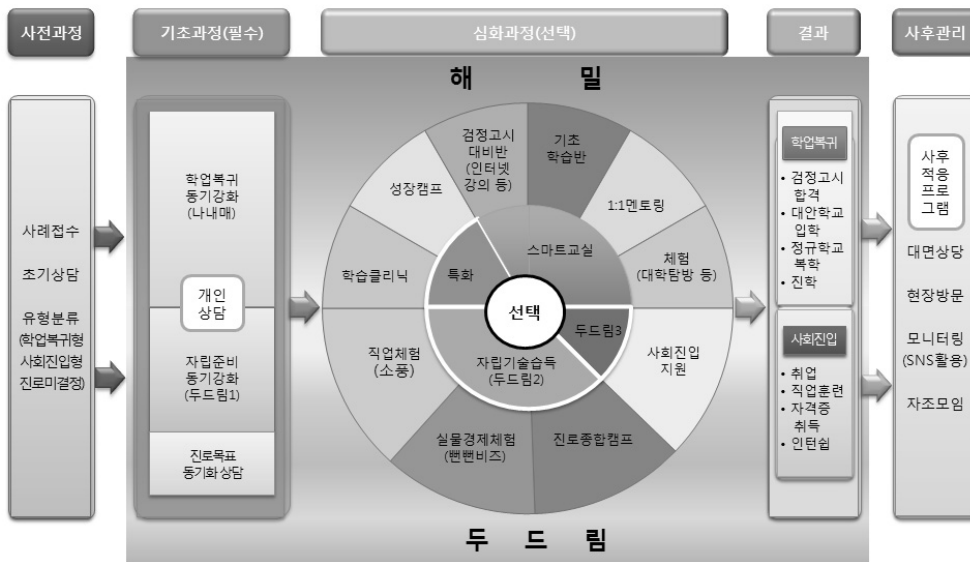


그림 7. 통합모형 프로그램 제공 흐름도 제시안

요컨대, 통합모형에서는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프로그램 ‘두드림’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사업인 ‘해밀’을 통합하여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던 서비스 과정을 수혜자 중심으로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두드림과 해밀의 각 단계를 혼합·재구성하여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초과정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두드림

과 해밀의 경계없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며, 집단 참여를 거부하는 대상은 개인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이다. 통합모형의 프로그램 제공과정에 대한 개편 전·후의 차이는 다음의 표 49에 제시하였다.

표 49. 통합모형 프로그램 제공 요약

과정	개편 전	개편 후
사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가지 유형분류 : 학업복귀형, 자립준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가지 유형분류 : 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진로미결정형
기초과정 (필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복귀형 : 나내매¹⁾ 또는 개인상담 참여 ※ 개인상담 대상 : 집단프로그램 거부자 자립준비형 : 두드림1과정²⁾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복귀형 : 나내매 또는 개인상담 사회진입형 : 두드림1 또는 개인상담 ※ 개인상담 대상 : 집단프로그램 부적응 청소년 진로미결정형 : 진로목표 동기화 상담 실시 후 나내매 또는 두드림1 참여
심화과정 (선택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복귀형 : 해밀(스마트교실 등) 내에서만 참여 자립준비형 : 두드림2과정³⁾, 3과정⁴⁾ 내에서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밀, 두드림 구분없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 가능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중기, 장기 분류 없음. 학업복귀 : 검정고시합격, 대안학교 입학, 정규학교 복학 사회진출 : 취업, 인턴십, 직업훈련, 자격 취득(학교재적용 포함), 대학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성과(자립준비수준 향상, 학업동기 강화), 중기성과(사회진입, 학업복귀), 장기성과(6개월 이상 적응유지) 분류 학업복귀 : 정규학교 복학, 검정고시합격, 대안학교/방송통신학교 입학, 상급학교 진학 사회진입 : 취업, 인턴십, 직업훈련, 자격 취득(학교재적용 포함), 대학진학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상담, SNS 모니터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상담, SNS 모니터링 등 사후적용 프로그램 참여(본인희망)

- 1) 나내매는 '나는 내인생의 매니저'라는 학업복귀 동기강화 프로그램으로서, 분노조절, 스트레스 대처훈련, 자기표현 향상 등 12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두드림 1단계 프로그램은 자립동기 강화를 위해 진로목표 동기화, 경제마인드 형성, 직업세계 이해, 구직기술향상, 자립생활준비 제고, 진로설계 구체화 등 6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3) 두드림2과정은 자립기술습득 과정으로 직업체험(소·풍: 소중한 직업풍경 속으로), 실물경제체험(뽀뽀비즈), 진로종합캠프 등의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됨.
- 4) 두드림3과정은 사회진출도약 과정으로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자격증취득 등을 위한 개별지원이 이루어짐.

나. 사례 관리

사례관리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NASW, 1984)의 정의에 따르면, 사례관리는 '각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본 통합모형에서는 개별 서비스 지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모형의 사례관리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자, 표 50과 같이 유사 정책사업들 간의 사례관리 형태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사례관리 모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본 통합모형은 서비스 범위에 따른 분류 중 기초상담 및 조언, 서비스 및 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기본형' 사례관리 모델(황성철, 1995)에 가깝고, 연계형태 측면에서 사회부적응 대상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적 개입을 강조하는 '임상적' 사례관리 모델(Rapp & Kirsthardt, 1996)과 유사하다. 사례관리 목표는 타 사업들이 고위기 문제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전인적 발달 등 포괄적인 개입목표를 갖는 반면 본 통합모형의 목표는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닌다. 민간과 공공의 사례관리 공조형태를 보면 본 무한돌봄센터와 드림스타트는 운영체계 참여인력 구조상 공공과 민간의 협력형태인 반면 청소년동반자와 본 통합모형은 공무원의 간접적인 참여형태인 준공공과 민간의 협력 형태이다. 사례관리 대상은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9~24세 고위기청소년, 무한돌봄센터는 취약위기 가구, 드림스타트는 0~12세 취약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통합모형은 15~24세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례유형 구분은 청소년동반자는 보호요인 고, 저와 위험요인 고, 저 여부에 따라 8유형으로 구분되며, 무한돌봄센터는 긴급사례와 집중사례를 사례관리 가구로 관리하고 공공연계와 단순의뢰사례를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된다. 드림스타트는 위기사정을 통해 고위기, 중위기, 저위기로 구분하며, 본 통합모형에서는 진로목표 유형에 따라 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진로미결정형으로 구분된다. 가족에 대한 개입은 타 사업에서 일부 개입하거나 적극 개입하는 반면 통합모형은 대부분 취약청소년에 국한하여 이루어진다. 사정도구는 타 사업에서는 4~10영역의 위험·보호요인, 욕구조사, 위기도조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합모형에서는 가족력, 참여경위, 비행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사정기록지와 7영역의 자립준비도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표 50. 유사 정책사업 사례관리 비교(2013년 기준)

구분	청소년동반자 ¹⁾	무한돌봄 ²⁾	드림스타트 ³⁾	두드림해밀 통합모형
사례관리 모델	기본형, 조정모델, 임상적 모델	전달체계로서의 통합모델	연계중심의 중개모델	기본형, 임상적 모델
목표	고위기 문제 개선	취약·위기가구의 삶의 질 향상	아동발달영역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의 전인적 발달	학업복귀, 사회진입
민/관 공조	준공공+민간	공공+민간	공공+민간	준공공+민간
운영체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일제/시간제	시도 / 시군구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솔루션위원회	한국보육교육진흥원, 드림스타트센터 서비스 수행기관, 후원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드림해밀
기관수 (인력수)	125개소 985명 (전일제 151, 시간제 834)	95개소 (센터당 3명)	211개소 (센터당 6명)	50개소 (시도 5명, 시군구 2명)
대상	9~24세 고위기 청소년	취약위기 가구	0~12세 취약아동 및 부모	15~24세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
유형구분	보호요인 고 / 위험요인 고 보호요인 고 / 위험요인 저 보호요인 저 / 위험요인 고 보호요인 저 / 위험요인 저	사례관리 가구 (긴급/집중사례) 서비스연계가구 (공공연계/단순의뢰)	고위기, 중위기, 저위기	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진로미결정형
사례관리 수	1인당 12사례(전일제) 1인당 6사례(시간제)	1인당 20가구	1인당 50사례	1인당 103.5사례
서비스형태	준공공/민간 서비스 제공, 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 조정,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	준공공/민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
가족개입	일부 개입 (부모상담, 자원정보 제공 등)	적극 개입	적극 개입	개입 없음
사정도구	위험요인, 보호요인 분석지 (4영역)	요구조사표 (10영역)	위기도 조사지 (9영역)	통합사정기록지 자립준비도 (7영역)

- 1) 2011년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한국청소년상담원)
- 2) 2013년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경기도무한돌봄센터)
- 3)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다음으로 사례관리의 적용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여성가족부 운영지침과 포커스그룹, 청소년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는 사례관리 시의 행정적 절차에 관해 간단히 제시되어 있다. 즉, 사례관리 시 청소년 개별, 가정, 학교 등 사정을 통한 공식/비공식 자원을 파악하고, 개별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며, 진로목표 설정을 위한 사례관정회의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장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학업중단 속

려제를 통해 의뢰되어 온 청소년이 숙려제 상담 이후 교육청에서 사후 결과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사후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사례관리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해볼 수 있었는데, 센터선생님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알아봐주거나, 직업기술을 익히기 위한 학원을 연결해주기 원했으며, 진로상담을 통해 계속 의욕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기를 희망했다.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는 상시 수퍼비전 체계 구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사례관리자의 인적관리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통합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측면에서 사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례관리 모델은 기본형과 임상적 모델을 지향한다. 사례관리수는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해 50명 내외가 적정하다. 사례관리자 상담자, 교육자, 협력자, 정보제공자, 연결자, 옹호자의 역할을 한다. 사례관리 서비스 내용은 사례발견, 사정, 개별서비스 계획수립,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 공식/비공식 자원연계,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서비스 이력관리 등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²⁾ 활용, 수시/종결 평가, 사후관리 등이다. 서비스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개인목표 성취시 까지 계속 연장가능하다. 사례관리자는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최소 분기 1회 이상 수퍼비전이나 연수교육에 참여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51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사례관리는 시도와 시군구 통합모형의 시기별 차이를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 모형의 경우, 과도기에는 시군구 운영기관 외 관할지역 전반의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비중이 크다. 도약기에는 점차 사례관리 관할지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안정기로 접어들면 직접 사례관리의 역할이 최소화되면서 관할 시군구 지역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원 연계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구 모형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퍼비전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시군구 모형의 경우, 과도기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며, 도약기에는 사례관리 대상이 청소년에서 가족까지 확대·강화되며, 안정기에는 시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수퍼비전 체계에 참여하며 전문적 개입을 강화하게 된다.

2) 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개발·운영중이며, 2013년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www.dodreamhaemil.kr) 하여 현재 두드림·해밀 참여방법, 검정고시 정보, 자원연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표 51. 통합모형 사례관리 요약

구분	제안	세부내용
사례관리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형 사례관리 • 임상적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적 상담, 교육적 개입 • 기초상담, 지역 자원/서비스 연계
적정 사례관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분류 : 긴급관리, 집중관리, 일반관리 (※ 커피씨 분류방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관리대상 :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대상으로서 특별상황 발생시 집중적인 개입 - 집중관리대상 : 집중개입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주1회 빈번한 개입 - 일반관리대상 : 그냥 두어도 잘 적응해나가는 대상으로서 월1회 정례적 개입
사례관리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가지 역할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교육자, 협력자, 정보제공자, 연결자, 옹호자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S-Net 발견체계 활용 : 1388전화, 청소년동반자 등 • 학업중단 숙려제 연계 : 학교, 교육청 연계 • 개인, 가족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선정 : 우선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식/비공식 자원 파악 : 가족, 지인, 상담기관 등 • 자립준비도 사전검사, 학업성취 수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목표유형 판정 : 학업복귀, 사회진입, 진로미결정 • 서비스 내용 및 기간, 담당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진로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지지, 조언, 진로정보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복귀형 : 학업동기 강화, 학습클리닉, 검정고시 지원, 복교정보 제공(스마트교실 운영 등) • 사회진입형 : 자립동기 강화, 자립기술습득,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진로미결정형 : 진로목표 동기화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비공식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상담기관, 정부기관 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청 연계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 자퇴시 서비스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서비스정보 제공 • 서비스 이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점검 및 수정 : 수시/종결시 • 자립준비도 사후검사 : 종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적응상태 모니터링(SNS 등 활용) • 대면상담 및 매체상담 • 사후관리 프로그램 : 희망자
서비스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성취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 1년 (목표 성취시까지 연장 가능)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적 슈퍼비전 • 지역 사례 관계자간 Case Conference • 사례관리 전문화 교육 • 지역특성화 역량강화 교육

다. 사후관리

통합모형의 사후관리 방향은 여성가족부 지침과 연구진 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개별목표 성취 후 학업복귀 유지 및 자립준비수준 향상 유지를 6개월 간 사후관리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조모임, 청소년동반자 연계, 부모상담, 멘토링 지원, 고용주 면담, 근로관련 상담 등 센터 사정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진의 논의결과 사후관리 목표는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 후 6개월 간 적응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 대상, 서비스 내용도 추가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후관리 대상은 진로목표(학업복귀, 사회진입)를 성취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학업복귀 청소년, 사회진입 청소년, 그리고 공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복귀 청소년의 경우, 학교교사나 학교 상담교사 등과 학교적응에 관한 협력 사례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학습능력 부족으로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업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필요시 부산지역의 복교학생 대상 '학교로 가는 길' 프로그램 사례와 같이 구조화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둘째, 사회진입 청소년의 경우, 취업 시 직장적응을 돕기 위한 고용주 면담, 직업훈련중인 청소년은 직업교육장을 방문하여 동료나 지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적응을 도울 수 있다. 근로 중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청소년 근로자로서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공통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후적응 프로그램 '꿈다짐'을 활용하여 사후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한 적응상태 점검, 정서적 지지 등을 위한 대면상담, 대학생이나 직장선배 등의 멘토 연결, 취업이나 학업복귀 청소년 간의 지지모임 결성, 고위기 상황 시 청소년동반자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사후적응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청소년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조사 시 별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사회진입에 성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 개인 진로목표 성취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별도의 연구과제로 사후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 52. 통합모형 사후관리 요약

구분	제안	세부내용	
대상	• 학업복귀 청소년	• 검정고시합격, 정규교육, 대안교육, 상급학교 진학자	
	• 사회진입 청소년	• 취업,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대학진학자	
기간	• 6개월	• 진로목표(학업복귀, 사회진입) 성취 후 6개월간 적응상태 유지 시까지	
서비스	학업복귀	• 협력 사례관리	• 학교교사, 학교상담교사 등과 협력
		• 학업상담	• 학습부진, 학습자신감 상실 등에 따른 학교부적응 예방
		• 학교적응 프로그램	• 복학 시 재적응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과 연계 ※ 사례 : 부산시 '학교로 가는길'
	사회진입	• 고용주 면담	• 취업시 고용주 또는 동료 면담
		• 직업교육장 방문	• 직업훈련 입교 시 현장방문 격려
		• 근로권 교육	• 근로권 피해 예방
	공통	• 사후적응 프로그램 (꿈다짐)	• 진로목표 달성자 대상 격려 및 적응 지원 ※ '꿈다짐' 프로그램 세부내용 별첨
		• 모니터링	• SNS, 이메일, 전화 등의 매체를 통한 적응상태 점검
		• 대면상담	• 정서적 지지, 목표수정 등에 대한 내방 또는 현장방문 상담
		• 개별 멘토링	• 대학생이나 선배 직장인 등을 멘토로 연결
		• 지지모임	• 동료 간 지지모임 구성 지원
	• 청소년동반자 연계	• 고위기 상황 시 청소년동반자 연계	

라. 운영지원

운영지원 활동은 청소년에 대한 직접 서비스 외에 통합모형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으로서 실무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 자원개발 및 연계, 홍보, 현장 컨설팅, 기타 활성화사업을 말한다. 각 운영지원 활동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

본 통합모형의 성패는 참여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무자들의 전문역량에 의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실무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연수 과정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1) 전문인력 양성과정 :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매뉴얼 활용교육으로서 두드림 3종(1단계 기본과정, 특성화과

정, 두드림 2단계 과정)과 해밀 3종(나내매, 맞춤형 학습클리닉, 이루다)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활용교육이 있다. 추가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에 추가된다. (2)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 두드림·해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 과정으로서, 두드림·해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수법,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3) 보수교육 과정 : 두드림·해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과정으로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실무자 대상으로 이러닝 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시기별 교육연수의 주관은 통합모형 운영기관의 역량과 준비수준에 따라 중앙 차원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모형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도기 때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경우 시도모형에서 담당하며, 나머지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 도약기에는 시도 모형의 교육연수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두드림·해밀 전문인력 양성과정 외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보수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시도 및 시군구 실무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안정기 때는 시도 모형의 경우 더욱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시군구 모형의 경우 해당 지역 두드림·해밀 사업 실정에 맞는 교육연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2) 연구·개발

연구·개발 영역은 지금까지 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맡아 왔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자체적으로 지역의 수요자 요구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에서 요구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출해냄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시기별로 연구·개발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과도기 때는 기존의 시도 모형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실태조사 등을 정비하고, 시군구 모형과 어떻게 협력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것인지 준비하는 시기이다. 도약기 때 시도 모형은 기존의 시도 내 두드림·해밀 사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군구 모형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안정기 때는 다양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필

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발전시키는 작업을 한다. 시군구 모형에서는 시군구 내 두드림·해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실태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시도에 건의하며, 시도와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3) 자원개발·연계

자원개발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영역으로서 중앙과 지역 간에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전국 기반의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민·관의 자원을 개발·연계하며, 시도 및 시군구 모형에서는 지역 기반의 자원을 개발·연계한다.

시도 및 시군구 모형별 시기에 따른 역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도 모형의 자원개발·연계는 시도 전역을 대상으로 두드림·해밀 사업을 위해 활용가능한 지역 자원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기 때 시도 모형은 많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조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로 자원을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도약기 때 시도 모형은 실제로 시도 전역에서 개발 가능한 자원들을 찾아 협약을 맺고 이를 시군구 모형과 협의하여 활용한다. 안정기 때는 지속적인 지역 자원 개발과 함께 지역에서 협약을 맺기 어려운 자원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중점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새로운 현장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시군구 모형과 협력하여 자원 개발을 위한 연합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을 발굴한다.

시군구 모형의 자원개발·연계는 시군구 지역 내에 한정하여 자원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과도기와 도약기 때 시군구 모형은 소극적인 자원 개발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역 자원을 찾고 연계에 힘쓴다. 안정기 때는 지속적인 자원 개발뿐 아니라 지역 사회 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인근 시군구 센터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자원 개발에 노력한다.

(4) 홍보

본 통합모형에서의 홍보는 두드림·해밀 사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통해 수혜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영역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중앙 차원의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지역 통합모형에서는 지역 홍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시도 및 시군구 모형별 시기에 따른 역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도 모형의 홍보는 시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두드림·해밀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다. 과도기 때 시도 모형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홍보 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시도 전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도약기 때는 시도 전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두드림·해밀 사업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안정기 때는 시도민들이 두드림·해밀 사업을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홍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강화한다.

시군구 모형의 두드림·해밀 사업의 홍보의 기능은 시도와 비슷하고, 두드림·해밀 사업을 해당 지역 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시군구의 홍보는 시도의 홍보와는 달리, 비교적 좁은 지역의 홍보이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인적 자원을 활용한 홍보도 가능하다. 과도기와 도약기 때 시군구 모형에서는 시도 모형의 사업 홍보를 지원하면서 지역 내의 홍보를 한다. 안정기 때는 시도 모형과의 협력 홍보와 아울러 어떻게 홍보를 했을 때 지역에서 두드림·해밀 사업의 인지도가 높아지는지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를 실시한다.

(5) 컨설팅

컨설팅은 법적 근거³⁾에 따라 시도 통합모형에서 시군구 통합모형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 지도·지원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12년까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지역센터에 대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직접 실시해왔으나, 센터 수의 지속 증가에 따른 컨설팅 효율화와 시도 통합모형의 시군구 통합모형 지도·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도 중심의 컨설팅 운영체제로 개편하게 되었다. 다만, 정부의 정책방향 제시 및 구체적인 컨설팅 방법을 시도 통합모형에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사전에 시도 통합모형을 대상으로 통합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컨설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

3)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역 센터에 대한 지도·지원 역할(제22조 1항 6호)과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지도·지원 역할(제29조 2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현조사와 사업결과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컨설팅 절차와 필수 컨설팅 항목을 도출하여 다음의 표 53에 제시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컨설팅 절차를 종합하면 조사(Scouting), 착수(Entry), 진단(Diagnosis), 계획(Action Planning), 행동(Action), 평가(Evaluation), 종료(Termination)의 7단계로 나누어진다(이의준, 1999; Margerison & Charles, 1988; Kolb & Frohman, 1970; Milan, 1996). 이를 본 통합모형에 적용하여 시도의 시군구 통합모형 컨설팅 표준절차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 통합모형 컨설팅 표준절차 요약

단계	일반절차	표준절차 (제안)	내 용	담당	
				시도	시군구
사전 단계	-	기획	• 연간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	
	조사 (Scouting)	일정조정	• 지역별 일정조정, 담당자 배정	✓	
	착수 (Entry)	공문발송	• 컨설팅 안내(시기, 방문자 등)	✓	
	진단 (Diagnosi s)	정보수집	• 자료수집, 의견수렴		✓
		진단	• 자료분석	✓	
계획 (Action Planning)	지도계획	• 해당 지역 컨설팅 자료 작성	✓		
실행 단계	행동 (Action)	분석자료 발표	• 현장분석 내용 발표	✓	
		분석자료 피드백 토의	• 분석자료에 대한 현장의 피드백 • 분석자료와 피드백 내용에 대한 토의	✓	✓
		평가 (Evaluation)	평가	• 컨설팅 내용에 대한 평가	✓
	사후 단계	종료 (Termination)	컨설팅 결과 및 조치계획 공유	• 컨설팅 결과 송부(시도) • 조치계획 송부(시군구)	✓
모니터링			• 조치계획 이행여부 점검(시도) • 조치계획 이행여부 제출(시군구)	✓	✓
종합정리			• 컨설팅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방법은 현장방문 컨설팅과 매체 컨설팅으로 나뉘지는데, 현장방문시 필수 컨설팅 지도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환경, 서비스 대상, 예산관리, 인력관리, 성과관리, 홍보, 자원연계, 문제해결, 추후계획 등 9가지로 구분된다. 세부 지도항목에 대한 예시는 다음의 표 54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모형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매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표 54. 통합모형 컨설팅 필수 지도항목(예시)

항목	점 검 내 용
사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 사업 환경은 어떠한가? • 센터 내의 협조체계는 원활한가? • 운영기관의 특성(타 기관과 차별성)은 어떠한가?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대상은 적절한가? •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은 없는가?
예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 증빙서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예산 집행율은 적절한가?
인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담당자의 자격요건과 역량은 어떠한가? • 사업담당자의 업무배정과 업무량은 적절한가?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질적 성과의 진도율은 어떠한가? • 실적 입력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 근거자료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 실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 우수사례를 잘 관리해 나가고 있는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홍보 우수사례는 있는가?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들을 어떻게 발굴/연계하고 있는가? • 추가로 연계 확대 필요한 기관(단체)는?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사업발전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은?
추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은 사업기관 사업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 향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통합모형에서 시기에 따른 컨설팅 역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도기 때는 사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의 시도모형을 대상으로 한 중앙 차원의 통합컨설팅 교육에 참여하여 정부의 사업추진방향과 컨설팅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시도 모형에서 시군구 모형에 대해 앞의 필수 지도항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군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때 필요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배석을 요청하여 필요한 정보나 유의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도약기 때는 중앙 차원의 통합컨설팅을 받은 후 시도 모형이 독립적으로 시군구 모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안정기 때는 자체적인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모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시 간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역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기타 활성화 사업

기타 활성화사업 영역은 시도와 시군구 모형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간담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회의, 혹은 자원연계를 위한 연합행사 등을 말한다. 이 업무는 주로 시도 모형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며,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로 진행될수록 시도 모형의 역할이 많아진다.

이상의 운영지원 활동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55와 같다.

표 55. 통합모형 운영지원 요약

구분	제안	세부내용
교육연수	• 전문인력 양성	• 주관 : 시도 모형 • 참여대상 : 시도 및 시군구 두드림·해밀 실무자 및 강사 인력 • 내용 :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방법
	• 전문지도자 양성	• 주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참여기준 : 두드림·해밀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자 중 1년 이상 프로그램 운영경력이 있는 자 • 자격 : 두드림·해밀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 내용 : 강의기술, 사례관리, 운영노하우 등
	• 보수교육	• 주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참여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두드림·해밀 실무자 및 강사인력 • 내용 : 전문성 증진을 위한 재교육(이러닝 포함)
연구개발	• 지역 실태조사 •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시도 모형 주관으로 시도 전역에 대한 조사, 연구 • 시군구 모형에서는 협력 지원
자원개발·연계	• 민·관 자원 개발 • 지역 내 자원 공유	• 내용 : 장학금, 자립기금, 재능기부 등 • 시도 모형 중심으로 개발하여 시도 내 시군구 운영기관들과 공유
홍보	• 신문, 방송, 인터넷	• 내용 : 사례발굴, 서비스안내, 성공사례 등에 대한 지역 신문, 방송, 인터넷 홍보 • 시도 모형 중심으로 지역 전체적인 홍보 지원
컨설팅	• 현장방문 컨설팅 • 매체 컨설팅	• 시도 모형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지역 내 시군구 모형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 수시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매체 컨설팅
기타 활성화사업	• 간담회, 워크숍 등	• 시도 모형 주관으로 시군구 모형과 연합하여 공동 캠프, 사업활성화 간담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추진

마. 통합모형의 활동(Activity) 단계 종합

활동(Activity) 단계는 시기별(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시도와 시군구 모형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제공과 사례관리 등의 직접 서비스는 과도기에서 안정기로 접어들수록 시도 모형의 비중이 감소하고 시군구 모형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사례관리를 위한 수퍼비전 체계는 과도기에 시도 모형에서 거의 운영되지 않지만 도약기 준비과정을 거쳐 안정기에 비중이 증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다음으로, 간접지원 형태의 운영지원은 교육연수, 연구개발, 컨설팅의 경우 시도 모형에서 과도기에 비중이 적지만 안정기로 접어들수록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자원개발이나 홍보의 경우 시도 모형에서 과도기에 시도 자체의 업무비중이 크지만 안정기로 갈수록 시도 전역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56과 같다.

표 56. 통합모형 활동(Activity)의 지역별/시기별 차이 요약

활동 구분	시도/ 시군구	활동 내용	업무 비중*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직접서비스	시도	•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	▲▲▲▲▲▲▲▲	▲▲▲▲▲▲▲▲	▲▲▲▲▲▲▲▲
	시군구	•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	▲▲▲▲▲▲▲▲	▲▲▲▲▲▲▲▲	▲▲▲▲▲▲▲▲
사례관리	시도	• 개별 서비스 제공	▲▲▲▲▲▲▲▲	▲▲▲▲▲▲▲▲	▲▲▲▲▲▲▲▲
	시군구	• 수퍼비전 체계 운영	▲▲▲▲▲▲▲▲	▲▲▲▲▲▲▲▲	▲▲▲▲▲▲▲▲
교육연수	시도	• 개별 서비스 제공	▲▲▲▲▲▲▲▲	▲▲▲▲▲▲▲▲	▲▲▲▲▲▲▲▲
	시군구	• 수퍼비전 체계 참여	▲▲▲▲▲▲▲▲	▲▲▲▲▲▲▲▲	▲▲▲▲▲▲▲▲
연구개발	시도	• 두드림·해밀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	▲▲▲▲▲▲▲▲
	시군구	•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운영	▲▲▲▲▲▲▲▲	▲▲▲▲▲▲▲▲	▲▲▲▲▲▲▲▲
자원개발연계	시도	• 두드림·해밀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	▲▲▲▲▲▲▲▲	▲▲▲▲▲▲▲▲	▲▲▲▲▲▲▲▲
	시군구	•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운영	▲▲▲▲▲▲▲▲	▲▲▲▲▲▲▲▲	▲▲▲▲▲▲▲▲
홍보	시도	• 지역 실태조사,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	▲▲▲▲▲▲▲▲
	시군구	• 시도 연구 협조	▲▲▲▲▲▲▲▲	▲▲▲▲▲▲▲▲	▲▲▲▲▲▲▲▲
컨설팅	시도	• 시도모형 자체 활용 자원 개발	▲▲▲▲▲▲▲▲	▲▲▲▲▲▲▲▲	▲▲▲▲▲▲▲▲
	시군구	• 지도지역 전체 활용 자원 Pool 구축, 연계	▲▲▲▲▲▲▲▲	▲▲▲▲▲▲▲▲	▲▲▲▲▲▲▲▲
컨설팅	시도	• 시군구 모형 자체 활용 자원 개발	▲▲▲▲▲▲▲▲	▲▲▲▲▲▲▲▲	▲▲▲▲▲▲▲▲
	시군구	• 지도지역 전체 연계 자원 Pool 활용	▲▲▲▲▲▲▲▲	▲▲▲▲▲▲▲▲	▲▲▲▲▲▲▲▲
컨설팅	시도	• 시도모형 자체 홍보	▲▲▲▲▲▲▲▲	▲▲▲▲▲▲▲▲	▲▲▲▲▲▲▲▲
	시군구	• 시도지역 전체사업 홍보	▲▲▲▲▲▲▲▲	▲▲▲▲▲▲▲▲	▲▲▲▲▲▲▲▲
컨설팅	시도	• 시군구모형 자체 홍보	▲▲▲▲▲▲▲▲	▲▲▲▲▲▲▲▲	▲▲▲▲▲▲▲▲
	시군구	• 시도지역 전체사업 홍보 지원	▲▲▲▲▲▲▲▲	▲▲▲▲▲▲▲▲	▲▲▲▲▲▲▲▲
컨설팅	시도	• 시군구모형에 대한 컨설팅	▲▲▲▲▲▲▲▲	▲▲▲▲▲▲▲▲	▲▲▲▲▲▲▲▲
	시군구	• 컨설팅 참여	▲▲▲▲▲▲▲▲	▲▲▲▲▲▲▲▲	▲▲▲▲▲▲▲▲

* 주. 화살표의 길이는 업무비중을 나타냄

5. 산출 (Output)

시도 및 시군구 모형의 산출 내용을 시기별(과도기, 도약기, 안정기)로 직접서비스와 운영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57과 같다. 먼저, 시도 모형의 경우, 과도기 때 직접서비스 영역에서는 기존의 산출내용과 비슷하게 시도 모형의 사례발굴 수, 서비스 수혜인원 수로 하였으며, 운영지원 영역에서는 산출 내용이 없다. 도약기 때 직접서비스 영역에서는 시도 모형의 사례 발굴 수, 시도 센터의 서비스 수혜인원 수와 서비스 건수(프로그램 횟수, 상담 건수, 개별지원 건수), 시도 전체의 자원연계 수와 홍보 건수가 포함 된다. 안정기 때 직접서비스 영역에서는 두드림·해밀 사업을 시행한 시군구 모형의 발굴 인원수를 모두 합친 수, 시도 전체의 서비스 수혜인원 수, 시도 전체 1인당 사례관리수, 시도 전체 서비스 건수가 포함된다. 운영지원 영역에서는 시도 전체의 교육 횟수와 교육 참여 인원수,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한 자원연계 수, 홍보건수가 해당된다. 교육횟수는 두드림·해밀 사업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실무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횟수를 말하며, 교육참여 수는 교육에 참여한 실무자 수를 말한다.

다음으로, 시군구 모형의 산출 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과도기 때 직접서비스 영역에서 시군구 내에서 두드림·해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굴한 인원수와 서비스 수혜인원 수를 산출로 잡았고, 운영지원 영역에서는 시도 모형과 마찬가지로 산출 내용이 없다. 도약기 때 직접서비스 영역에서는 시군구 모형의 사례 발굴 수, 시군구 모형의 서비스 수혜인원 수와 서비스 건수(프로그램 횟수, 상담 건수, 개별지원 건수)가 포함된다. 또한 운영지원 영역에서 시군구 모형의 자원연계 수와 홍보 건수가 포함된다. 안정기 때 직접서비스 영역에서는 시군구 모형의 사례발굴 수, 서비스 수혜인원 수, 시군구 모형의 1인당 사례관리 수, 서비스 건수가 포함된다. 운영지원 영역에서는 시군구 모형의 교육 참여 횟수, 교육 참여 수, 시군구 모형의 자원연계 수, 홍보 건수가 포함된다.

표 57. 통합모형 산출 요약

지역	구분	산출 내용		
		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시도	직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사례발굴 수 • 시도 서비스 수혜 인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사례발굴 수 • 시도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시도 서비스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전체 사례발굴 수 • 시도 전체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시도 전체 1인당 사례관리 수 • 시도 전체 서비스 건수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전체 자원연계 수 • 시도 전체 홍보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전체 교육 횟수 • 시도 전체 교육참여 인원수 • 시도 전체 자원연계 수 • 시도 전체 홍보 건수
시군구	직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례발굴 수 • 시군구 서비스 수혜인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례발굴 수 • 시군구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시군구 서비스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례발굴 수 • 시군구 서비스 수혜인원 수 • 시군구 1인당 사례관리 수 • 시군구 서비스 건수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자원연계 수 • 시군구 홍보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교육 참여 횟수 • 시군구 교육참여 수 • 시군구 자원연계 수 • 시군구 홍보 건수

6. 성과 (Outcome)

통합모형의 성과는 단기, 중기, 장기 성과로 구분된다. 두드림·해밀 사업은 성격상 1년 단위의 사업이 아니라 최소 3년 이내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단기, 중기, 장기 성과의 구분 기준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였다. 단기 성과로 제시된 자립준비 수준과 학업동기 강화는 1년 사이의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며, 중기 성과는 두드림·해밀 사업 서비스의 결과로써 사회진입과 학업복귀 인원수를 말한다. 중기 성과의 경우,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에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포함된 성과이다. 장기 성과는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후 6개월 이상 적응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써, 중기 성과를 거둔 청소년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사후관리 노력으로 학교나 직장 등에 들어가서 잘 적응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모형의 성과를 단기, 중기, 장기 성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

성과는 개입을 통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인식, 지식, 기술, 태도, 열망, 동기 등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본 모형에서는 자립준비 수준 향상과 학업동기 강화로 보았다. 자립준비 수준 향상은 자립준비도 검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혜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의 향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업동기 강화는 학업동기 척도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혜 청소년의 학업동기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자립준비도는 모두 7가지 자립준비 영역(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일상생활 관리, 사회적 기술, 자기보호, 학업관리)별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요인 5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업동기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무동기)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화정도는 자립준비도와 학업동기 척도의 사전검사 대비 사후 검사 평균이 10% 이상이 향상되었을 경우를 일컫는다.

중기 성과는 행동의 변화, 즉 행위, 의사결정, 정책, 사회적 행동 등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본 모형에서는 사회진입과 학업복귀로 보았다. 사회진입은 단순히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안정된 사회인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십대 청소년이 대부분인 두드림·해밀 사업의 특성상 처음 사회로 나가 정착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의 도약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 직업훈련과정에 들어간 경우, 혹은 직업기술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인턴십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학업복귀란 정규학교로의 복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정고시 합격, 대안학교 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을 지속하는 상태로 나아간 경우를 포함한 개념이다.

장기 성과는 실제적 이익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므로, 사회적으로 청소년중단자의 학업복귀율이 증가하거나, 청소년의 고용 증가나 실업률의 감소, 비행과 연성성이 높은 학업중단청소년의 범죄율 감소 등이 지표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장기간이 소요되는 성과측정상의 제한과 두드림·해밀 사업의 영향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본 모형에서 장기 성과는 수혜 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후 6개월 이상 적응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취약청소년은 부적응적 특성상 사회진입이나 학업복귀 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적응 상태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통해 최소 6개월 이상 적응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 성과로 보았다. 장기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두드림·해밀 사업 담당자들은 사회진입이나 학업복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적응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적응정도를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항목 중 5개 이상이 '예'로 표시되면 적응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표 58. 통합모형 성과 요약

성과목표	단기성과	중기성과	장기성과
사회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수준 향상 (자립준비도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입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취업프로그램 연계) - 직업훈련과정 입학 - 자격증 취득 - 인턴십 참여 - 대학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입/학업복귀 후 6개월 이상 적응상태 유지
학업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동기 강화 (학업동기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복귀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정규학교 복학 - 대안학교 입학 - 상급학교 진학 	

V. 사후적응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사후적응 프로그램은 문헌연구,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인터뷰, 취약청소년 심층면접, 현장 전화인터뷰를 근거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최종 사후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그림 8과 같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현장 전화인터뷰 과정에서는 현재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사후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또한 청소년들 역시 심층면접 과정에서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의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들은 사후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중도탈락의 우려가 높아, 취약청소년들을 센터로 다시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취약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3차례 실시하였다. 또한 취약청소년 심층면접과 현장 실무자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후적응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반영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일차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사후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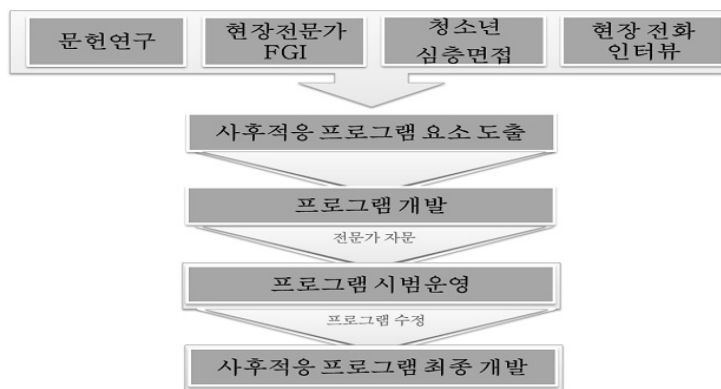


그림 8. 사후적응 프로그램 개발 절차

가. 문헌연구

학업중단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등 성공적인 목표달성 이후에도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하고 개인적·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후관리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중도탈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오혜영 외(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이정실, 2011)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상 낮은 자아존중감, 무기력함, 의사소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후적응 프로그램은 두드림·해밀 사업의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첫째,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및 학교 재입학, 편입학의 복학을 하는 학업복귀 청소년이고, 둘째는 직업훈련, 취업 등의 사회진입을 하는 청소년이다.

학업중단 이후 학업복귀라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들은 학업에 복귀하여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학업복귀를 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성공가능성도 낮다(김지혜, 안치민, 2006; 이경상, 조혜영, 2005). 실제로 학업복귀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적응의 어려움과 개인적·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내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다시 학업을 포기하기가 쉽다(Franklin, 1992). 이를 살펴보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합격이후 바로 복학이나 진학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고졸검정고시 학력취득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또 다른 도전과제가 주어진다.

또한, 복교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와 협의하여 복교시기를 고려해야 하는 관계로 서비스 개입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공백기간에 재탈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복학을 한 이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려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어린 동급생들과 함께 다녀야 하는 창피함, 학업중단 이후 나타난 생활습관 변화의 어려움, 선생님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오혜영 외, 2011). 또한, 조규필 외(2011)는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김범구, 조아미(2013)가 제시한 복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진입과 관련해 취약청소년 대부분의 취업형태가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일용직에 국한되어 취업안정성이 떨어지며 정규직이라도 근로환경, 시간,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원하는 직업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기홍, 2003; 고용노동부, 2012). 또한, 학업중단 이후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노출되며 상대적으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 박창남, 2004). 가출청소년 또한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살펴보면 가출청소년 중 임금체벌과 장시간 근로경험의 비율은 각각 34.7%, 25.6%로 학생 청소년 연구인 25.4%, 15.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김지혜, 2005). 이는 동일한 청소년이라도 집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노동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부당 대우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전경숙(2006)은 가출을 경험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은 임금을 받거나, 장기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전문성을 갖기 어려워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적인 만족과 성취감을 얻기 힘들어 일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 후에도 개인의 취약성,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중도탈락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나.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사후적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은 표 59와 같다. 사후적용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시,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두드림·해밀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의 1차적인 성과목표 달성에 대해 다수의 사람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고려할 때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 요소, 목표달성에 따른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사후적용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센터의 현장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지역실무자들이 옵션형태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

양 차원에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충분히 수정·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59.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 사후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인터뷰 차수	FGI 인터뷰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달성이후 청소년들이 센터에 잘 오지 않아 관리가 어려워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구조화되지만 회기는 길지 않은 프로그램 · 새로운 목표달성을 위한 셀프리더십, 복교적응, 대인관계기술 프로그램 필요 ·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발생으로 인해 수학여행과 같은 흥미있는 프로그램 필요 · 다양한 체험활동 및 무료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필요 · 직업체험, 직장체험, 대학탐방 등 지역별 프로그램 정비 및 정보제공 필요 · 검정고시 이후 청소년모집이 어려우므로 유인가 높은 재미있는 프로그램 필요 · 성취축하 및 졸업식과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 · 기존의 수동적인 프로그램 참여에서 벗어나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 구성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 목표성취를 축하하기 위한 졸업식, 수료식 개념의 파티 운영 필요 · 이때, 센터관계자, 지역후원자, 가족, 지인 등의 참석 하에 지지 및 지원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문화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주도적 경험의 폭 확대 및 자신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필요 · 복교 후 학교적응 및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필요 · 취업 연계 후 중도탈락율을 낮출 수 있는 사회기술향상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응 프로그램 필요 · 검정고시 이후 기존 목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목표재설정 관련 프로그램 필요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이후 공백 기간에 활용가능한 적절한 프로그램 필요 · 재미와 외부활동 체험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필요 · 검정고시 이후 지역별 운영프로그램 정보공유 및 활용 확대 필요 · 바우처 등 무료 프로그램 서비스 활용방안 제공 ·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센터관계자가 선별할 수 있는 조정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필요

다. 취약청소년 심층면접

취약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에서 사후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는 표 60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합격이후 관리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적응 프로그램 내용으로 현재 두드림·해밀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목표달성에 대한 축하파티, 성공적인 목표달성 이후 새로운 목표에 대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취약청소년 현실에 맞는 성공사례의 구성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운영방법으로 다수의 흥미요소를 포함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취약청소년 심층면접 중 사후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구분	내용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이후 관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목표달성에 대한 축하파티 - 새로운 목표를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우리의 현실에 맞는 성공사례를 이야기 해주는 것 - 흥미요소를 고려한 프로그램

라. 현장 실무자 전화인터뷰

취약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두드림·해밀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후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는 표 61과 같다.

센터에서 사후적응 프로그램으로 졸업식의 실시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학업복귀라는 목표성취 후, 진로미결정 상황이 나타나는 청소년들이 있으므로 새로운 목표수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정례화,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진학·체험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61. 현장실무자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현장 실무자 인터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이후 새로운 목표관리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사후적응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이나 대학 탐방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으나, 단순한 체험활동에 그쳐, 새로운 목표와 관련된 조망 필요 - 센터에서 사후적응 프로그램으로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우 반응이 좋으며 이를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진학지도를 원하는 청소년이 많아 두드림해밀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대학에 대한 자료검색 노하우 제공 필요 -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나, 적은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실무자가 검정고시 이후에 수월하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공 요구

마. 시사점

전문가 포커스 그룹과 청소년 심층면접 및 현장실무자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적응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1차 목표 달성 이후 실시됨으로, 1차 목표 달성에 대한 축하를 통해 성취감을 제고하고 유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1차 목표 달성 이후 새로운 목표에 대한 수립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탐색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목표 달성 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관계로 참여율 및 청소년의 주체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개발하되, 흥미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지역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정보들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2. 사후적응 프로그램 구성 안

문헌연구, 전문가 포커스 그룹, 청소년 심층면접 및 현장 전화조사를 통해 3회기의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정보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 62와 같다. 1회기는 '행복파티'로 구성하였으며,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이라는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들을 위한 축하자리이다. 이러한 축하의식에서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 극복한 계기 등을 소개한다. 또한,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선배들에게 노하우를 듣고, 청소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더 큰 성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한다. 1회기는 청소년들의 유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회기는 '꿈너머'로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 목표를 달성한 이후, 이전 목표와의 비교, 또 다른 새로운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연습해보며, 자신 스스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3회기는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로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미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현장성을 고려한 미션주제, 일정, 장소 등을 수립하되, 이러한 미션수립 과정에서 청소년들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제하며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미션활동일에 대한 점검사항 및 활동평가 내용을 구성하였다. '플러스 드림'은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정보 및 이용가능한 체험활동 정보로 진로 및 직업체험, 직업훈련, 대학탐방, 바우처의 4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표 62. 사후적응 프로그램 최종(안)

구분	회기명	주제	목표 및 내용
1회기	행복 파티	성공적 결과 달성 축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파티 및 성공적 결과달성 축하 정소년들이 참여하여 선물과 축하를 나누는 자리
		성공경험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노하우 공유 목표성취 과정에서의 경험발표 및 공유, 학업복귀 및 자립의지를 새롭게 다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준비청소년 대상 질의 응답
		새로운 나를 응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축하해주기 새로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마음가짐 발표 및 참여자들의 응원 메세지
2회기	꿈너머	워밍업	몸풀기 게임
		꿈너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목표 수립 및 실천계획 발표 과거의 꿈 점검 새로운 목표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
		사회적응기술 향상 및 갈등상황 관리능력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극장 목표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 예측 및 대처방안모색 재미있는 동영상을 통해 상황 재연
		다짐의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다! 00야 10년 후 나에게 전하는말
3회기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	워밍업	팀웍다지자
		미션수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가이드 미션계획을 직접 수립해봄으로써 또래와의 의견조율,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 증진
		청소년주도 미션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만드는 미션 재미있게 흥미로운 미션 계획 만들기 졸업여행(소풍, 봉사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미션 수행 미션계획을 직접 수립해봄으로써 또래와의 의견조율,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 증진
		활동평가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 계획 수립 경험 나누기 미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평가
		미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활동의 수월성 강화 실제적인 미션활동일에 점검해야 할 사항 미션활동 평가
플러스 드림	진로 및 직업체험	하자센터 직업체험, 상상이룸센터, 상상팡팡센터, 인천문예전문학교, 서강전문학교 일일체험 학교, 한국영상대 체험캠프	
	직업훈련	취업프로그램(고용노동부) 청년취업 인턴제(고용노동부) 청년창업인턴제(고용노동부)	
	대학탐방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교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바우처	문화이용권 나눔티켓(공연나눔-사랑티켓)	

3. 전문가 자문

사후적응 프로그램 구성 안에 대해 2013년 9월 6일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3과 같다.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만족한 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구성 안에 따라 지역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즉,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개발된 프로그램 중 지역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각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학진학 및 취업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박람회의 내용의 추가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후적응 프로그램 구성내용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1회기 ‘행복파티’는 청소년 뿐 아니라 센터 관계자, 가족, 지인, 지역 내 후원자를 모두 초청하여 지역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홍보에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회기 ‘꿈너머’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플러스 드림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하고 두드림·해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수집이 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이용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 공유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선택을 폭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63.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부여 · 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 공유 · 전국에서 대학진학, 취업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박람회가 개최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안내 · 성취 축하 시, 지역후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홍보 및 후원자 확대방안으로 활용 · 1회기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간 청소년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응원했던 센터관계자, 가족, 지인 및 후원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축하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음 · 2회기의 새로운 목표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 구성 필요 · 전국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의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다양화 모색

4. 시범운영

가. 지도자 교육

지도자 교육은 효과적인 취약청소년 대상 상담,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의 오랜 경험이 있는 두드림·해밀 사업 운영기관 및 실무자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두드림·해밀 사업을 6년 이상 운영하고,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실무자가 있는 기관으로써, 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곳을 선정하였다. 교육은 2013년 9월 11일에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설명하였고, 프로그램 내용, 시연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사후적응 프로그램 시범운영

(1) 운영 고려사항

두드림·해밀 사후적응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운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하였다.

첫째, 시범운영을 위한 청소년 선발 시, 성취목표가 다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즉, 학업복귀 청소년과 사회진입 청소년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둘째, 사후적응 프로그램 시범운영 시 매 회기 종료 즉시 '회기평가 질문지'를 통해 청소년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회기별 평가를 받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셋째,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자에게 운영시간의 적절성, 운영 시 필요한 요소 및 청소년들의 반응에 대한 회기별 평가 및 총평을 받았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에 성공한 청소년들을 선별하여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후 사후관리 중인 청소년을 각각 선별하였다. 특히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두드림·해밀 지원사업을 최소 6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집단 결속력과 동질성을 고려하여, 한 기관은 학업복귀에 성공한 청소년 5명으로 구성하고, 또 다른 기관은 취업 등 사회진입에 성공한 청소년 6명으로 구분하여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대상자는 표 64와 같다.

표 64. 시범운영 대상자 현황

구분	성별	나이	가족관계	현재 상황	중단 시기	이용 기간
1	남	만17세	부모, 남동생 살고 있음	2012년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입시 준비	고1	1년 2개월
2	여	만17세	부모, 언니, 동생과 살고 있음	2013년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입시 준비	고1	6개월
3	남	만17세	아빠와 살고 있음(부모 이혼)	2013년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입시 준비	고1	1년 4개월
4	남	만18세	아빠와 살고 있음(부모 이혼)	2012년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입시 준비	고1	1년 7개월
5	남	만18세	엄마, 남동생과 살고 있음(부모 이혼)	2013년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입시 준비	고2	1년 4개월
6	여	만17세	부모와 남동생, 여동생과 살고 있음	2013년 고졸검정고시 합격	고2	7개월
7	여	만19세	부모님과 함께 거주(재혼가족)-언니1명, 오빠 2명 있음	학업중단, 2013년4월 고졸 검정고시 합격, 취업	2011.9	1년 2개월
8	여	만19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음, 오빠는 학업으로 따로 거주	학업중단, 2013년4월 고졸 검정고시 합격, 취업	2012.4	1년 7개월
9	여	만18세	부모님, 오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음.	학업중단, 2013년4월 고졸 검정고시준비, 취업	2012.3	1년 8개월
10	여	만17세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거주	학업중단, 2012년 4월 고입검정고시 합격, 8월 고졸 검정고시 합격, 인턴십	2011.9	2년 2개월
11	여	만17세	부모님, 오빠와 함께 거주	학업중단, 2013년 8월 고졸검정고시 합격, 취업	2013.2	8개월

(3) 시범운영 평가항목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회기평가 질문지와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질문은 표 65와 같다. 회기평가 질문지는 프로그램 실시 후 즉시적 영향을 측정하여, 참여 청소년들의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도, 흥미도, 운영시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 프로그램

의 수정·보완 사항 등을 평가하였다.

표 65. 시범운영 회기평가 질문지

구분	내용
척도점을 이용한 질문 (5점 리커트 척도)	1. 이번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였다. 2. 이번 프로그램 흥미로웠다. 3. 이번 회기 시간은 적당했다.
개방형 질문	1. 이번 회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즐거웠던 점 또는 도움이 된 점은? 2. 이번 회기 프로그램에서 바꿨으면 하는 것은? 3. 이번 회기 프로그램을 마치며 느낀 점 또는 소감

5. 시범운영 결과

가. 사후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만족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후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66과 같다. 참여 청소년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평균 4.47점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회기별로 살펴보면, ‘행복파티’ 평균이 4.6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2회기 ‘꿈너머’ 4.47점, 3회기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이 4.35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기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에 성공한 청소년이 자신의 성공경험에 대해 축하받고, 자신의 계획에 따른 미션 수행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6. 시범운영 회기별 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회기명	평균
1회기	행복파티	4.61
2회기	꿈너머	4.47
3회기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	4.35
평 균		4.47

나. 사후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질적 평가

(1) 사후적응 프로그램에서 가장 즐거웠던 점 또는 도움이 된 점

① 1회기 : 행복파티

행복파티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자존감이 향상되고 희망찬 미래를 재설계하기 위해 다짐을 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도자와 친구들의 격려와 축하를 주고받은 청소년들의 반응은 대체로 '즐겁다, 행복하다, 힘낼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서로에게 응원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았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영상을 볼 땐 정말 마음이 짠해졌다.' (사례3)

'응원을 받아 더욱 힘이 났고 사람이 더욱 소중했다.' (사례9)

② 2회기 : 꿈너머

꿈너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집단 내 깊은 공감과 이를 통한 라포 형성이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과거 두드림·해밀 기본 프로그램에서 수립한 계획을 검토하며 현재 이뤄낸 학업 복귀 및 사회진출 성과를 검토하고, 다시 새로운 계획의 수립을 통해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며 구체화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유익한 시간이라 평가되었다.

'취업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내가 잘하는 것과 버려야 하는 것, 갖추어야 하는 것을 해보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사례2)

'나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미래를 개척해가는 과정들이 와 닿았다,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니 더 재미있었다.' (사례7)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사례8)

'미래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례9)

③ 3회기 :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여행을 계획하고, 집단원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존과 다르게 청소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미션수행을 스스로 준비한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서를 마무리 하여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으로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많았던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이 계획한 미션이 최대한 수용되고 실제로 반영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평가되었다. 미션수행 과정은 자신의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을 겪으며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알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 계획을 재수립하고,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스스로 수립한 미션을 수행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등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끼리 추억도 많이 쌓고 재미있어서 너무 좋았다.' (사례1)

'어색한 친구들이랑 다같이 계획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실천하니 새로웠다. 계획 짤 때도 일도 많고 너무 현실성 없는 계획만 세웠던 거 같다.' (사례1)

'아이들과 여행갈 생각을 하니깐 좋았고 항상 선생님이 짜 주시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직접 짜보니까 힘들었다.' (사례2)

'여행을 간다는 것, 우리끼리 추억을 만들려 간다는 것이 좋았다.' (사례3)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계획을 세워서 더 즐거웠고,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 (사례8)

'여행을 갈 때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례11)

(2) 사후적응 프로그램에서 바라는 점

청소년들에게 사후적응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많은 청소년들에게 사후적응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다. 반면, 두드림·해밀 기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계획세우기, 갈등 해소하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지루하다, 식상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새롭고 신

선한 자극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새롭고 신선한 자극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렵다면 진행방법,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되는 영상 및 활동지 등의 교구재 개발, 개정을 통한 다양한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은 운영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사례2)

'저번에 했던 것을 또 하는 것 같아 지루한 감이 있었다,' (사례4)

'너무 단시간에 정하는 게 힘들다,' (사례 3, 7)

'학생들끼리 시뮬레이션으로 짧은 상황극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사례 8)

'다들 예산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데 융통성 있게 짤으면 좋겠다,' (사례10)

(3) 사후프로그램을 마치며 느낀 점 또는 소감

① 1회기 : 행복파티

참여 청소년은 행복파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만족감, 행복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의 가치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파티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사례2)

'내 가치를 더 높이고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힘내야겠다,' (사례3)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꿈을 더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9)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사례10)

② 2회기 : 꿈너머

두드림·해밀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 수립한 목표를 점검하며 새로운 목표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動力)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해보고 진로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례 4)

'과거에 내가 목표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어 좋았다.' (사례6)

③ 3회기 :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

청소년 혼자가 아닌, 집단구성원 모두가 함께 미션(목표)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중요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등에 대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미션이 수행되는 과정을 통해 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의견을 많이 반영해줘서 좋았다.' (사례1)

'여행계획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만약 여행을 간다면 좀 더 계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7,10)

'즐겁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도 즐거웠지만 다른 친구들도 축하받으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계획하신대로 이동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견을 맞추고 계획한 것이 뜻 깊은 경험이었다는 것 같다.' (사례5)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꼈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새로운 관점과 팀원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느꼈다.' (사례8)

'계획이 잘 실행된 거 같아서 정말 매우 만족스러웠다. 신선하고 가치 있었음.' (사례11)

다. 사후프로그램 시범운영 지도자 평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사후프로그램을 진행한 운영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긍정적 효과, 제안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운영자들은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에 성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공경험에 대해 함께 축하하고 목표를 달성한 현재 상황 이후의 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응원과 축하의 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다만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한 경우, 청소년의 흥미와 집중도가 낮아짐으로 다양한 교구 활용 및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사후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자 평가 결과는 표 67과 같다.

표 67. 사후적응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

회기	효과적인 부분	보완되어야 할 부분 및 건의사항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파티는 의미 있는 작업 · 성공한 청소년과 준비 중인 청소년과의 만남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축하파티를 위해 참석한 다양한 선생님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 함 · 두드림·해밀 참여 사진부터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사진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정을 보며 즐거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을 통해 케이크, 꽃한송이, 소품 등을 통해 파티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좋을 것 같음 · 주어진 시간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단축됨 · 축하영상 제작 등 사전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다소 번거로움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계획서를 점검하고 다시 미래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이 교육적 효과가 좋음 · 흥미있는 영상물을 통해 갈등상황을 조명하는 것이 좋았음 · 동일한 성공경험을 지닌 동질 집단의 특성상 서로의 경험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스마트법칙 보다는 계획세우는 다른 활동지(ex. 나무위의 아이들)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주 의집중 가능 · 영상 재생 시 필요한 시간을 체크하여 보여주는 것이 많이 번거로움 · 인생극장 진행시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역할극을 경험해보는 것도 필요함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본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갖게 됨 ·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며 의견 충돌이 있으나,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지님 ·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 계획할 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도 삽입하기 위해 고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임 · 계획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음 · 자신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일정을 보며 자존감 향상, 사회성 향상 등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소 막연하고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기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좋음 · 계획 수립 및 의견 조율에 대해 주어진 시간보다 오래 걸림 · 계획 수립을 1차에 마치지 않고, 2~3차에 걸쳐 수립해도 좋을 듯함 · 두드림·해밀 사후적응 프로그램 뿐 아니라 기본과정에서 활용되어도 좋을 것 같음 ·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 사전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음
전체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과정이 아닌 선택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연 2~3회 진행(검정고시 2회, 사회진입 1회)한다면 즐겁고 뜻 깊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입의 목표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음. 참여하고 싶으나 취업 등으로 참여 못할 가능성이 있음

6. 최종 사후적응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의 평가를 고려하여 최종 사후적응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각 회기별 프로그램은 표 68과 같다.

가. 회기별 구성

1회기는 ‘행복파티’로 성공적인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에 대한 축하의식을 가지고 성공경험을 되짚어 봄으로써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1차적인 성공목표 달성에 대해 축하파티를 하며 유능감을 향상시키고, 이때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센터관계자, 가족 및 후원자들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축하의 의미를 고조시킨다. 청소년들의 성공경험담과 함께 나와 또 다른 성공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선배들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노하우를 생생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목표달성 과정에서 궁극한 사항, 어려운 사항 등 유사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성공한 선배들과의 대화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행복파티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응원 메시지를 제공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구성하였으며, 시범운영 평가를 반영하여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사전준비 사항을 제시하였다.

2회기는 ‘꿈너머’로 1차 목표 달성 이후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모색해 보는 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운영 평가를 고려하여 운영자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목표달성에 따른 새로운 중장기 목표의 수립과 그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한다. 즉, 수능준비를 위한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복학이후 선생님과 갈등 발생, 취업이후 직장동료와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여러 구성원들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3회기는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로 참여청소년들이 그간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

여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직접 하고 싶은 미션을 수립하는 회기와 함께 미션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운영 평가를 고려하여, 지도자들이 현실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근거한 자율적, 주도적 미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제하며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된다. 미션활동은 미션계획 수립 후에, 미션일자에 필요한 점검사항 및 미션활동에 대한 평가의 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미션수행 시에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성 있는 대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플러스 드림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고려하여 진로 및 직업체험, 직업훈련, 박람회, 대학탐방, 바우처의 5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보다 다양하게 이용가능한 정보를 추가하여 세부정보도 풍성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이 회기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두드림·해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표 68. 사후적응 프로그램 최종안

구분	회기명	주제	목표 및 내용
1회기	행복 파티	성공적 결과 달성 축하	행복파티 및 성공적 결과달성 축하 -청소년들, 센터관계자, 가족, 지인 및 후원자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학업복귀를 축하
		성공경험 나누기	성공노하우 공유 -목표성취 과정에서의 경험 발표 및 공유, 학업복귀 및 자립의 의지를 새롭게 다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준비청소년 대상 질의응답
		새로운 나를 응원하기	나 축하해주기 -새로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마음가짐 발표 및 참여자들의 응원메세지
2회기	꿈너머	Warm up	몸풀기 게임
		꿈너머	새로운 목표 수립 및 실천계획 발표 -과거의 꿈 점검 -새로운 목표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
		사회적응기술 향상 및 갈등 관리능력배양	인생극장 -목표달성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상황 예측 및 대처방안모색 -재미있는 동영상을 통해 상황 재연
		다짐의 말	최고다! - 아 - 10년 후 나에게 전하는말

구분	회기명	주제	목표 및 내용
3회기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	Warm up	팀웍 다지기
		미션수립 안내	미션가이드 -미션수립을 위한 안내, 미션수립 역할, 예산수립 등 미션가이드 예시 설명
		청소년주도 미션계획 수립	우리가 만드는 미션 -재미있고, 흥미로운 미션 만들기 -졸업여행(소풍, 봉사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미션 수행 -미션계획을 직접 수립해봄으로써 또래와의 의견조율,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 증진
		활동평가	미션 계획 수립 경험 나누기 -미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평가
		미션활동	미션활동 점검 및 평가 -실제적인 미션활동일에 점검해야 할 사항 -미션활동 평가
플러스 드림	진로 및 직업체험	인하대학교항공체험교실, 서울호서예술전문학교 진로체험, 하자센터 직업체험, 상상이룸센터, 상상팡팡센터, 인천문예전문학교, 서강전문학교일일체험학교, 한국영상대 체험캠프	
	직업훈련	취업프로그램, 청년취업 인턴제, 청년창직인턴제(고용노동부)	
	박람회	대한민국전문대학 EXPO대학설명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 서울행복진로직업박람회 전남대학교 전공알림아리 Dream U 광주시진로진학박람회 '행복꿈따세'	
	대학탐방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교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바우처	문화이용권 KSPO 스포츠바우처 나눔티켓(공연나눔-사랑티켓) 여행이용권	

VI.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취약청소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조사, 학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합모형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완성도 높은 통합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사후적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본 통합모형에서는 다음의 그림 9와 같이, 대상, 목표,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도출된 통합모형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모형의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과 지원대상으로 구분되며, 전자에는 만 13~20세의 학업중단청소년, 학업중단 숙려대상 학생, 보호·복지·교정시설 보호 및 퇴소 청소년이 포함된다. 후자에는 CYS-Net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으로서 만 13~24세의 경제적·가정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포함된다.

둘째, 통합모형의 목표는 ‘취약청소년의 학업복귀·사회진입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며, 하위목표는 ‘①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진입을 강화한다’, ‘②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동기를 강화하여 학업복귀를 촉진한다’로 규정하였다.

셋째, 투입요소는 인력, 예산, 시설이 해당된다. 인력은 시기별(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운영기관의 역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실무자 1인당 50명 수준의 적정 사례관리가 유지될 수 있는 인력 수가 필요하다. 예산은 다른 유사 정책사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혜자 1인당 투입비용 100만원의 예산규모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점진적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시설은 시도 모형 300m², 시군구 모형 150m²의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전용공간이 필요하며, 상담실, 학습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활동요소는 직접서비스와 운영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사후관리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교육연수, 자원개발 연계, 홍보, 컨설

팅, 기타 활성화사업이 해당된다.

다섯째, 산출요소는 사례발굴 수, 서비스 수혜인원, 프로그램 참여횟수, 상담건수, 개별지원건수, 사례관리건수를 지표로 하는 직접지원 실적과 자원연계 및 홍보, 교육 횟수, 교육참여 인원수를 지표로 하는 운영지원 실적으로 구분된다.

여섯째, 성과요소는 자립준비 수준 향상, 학업동기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단기성과와 학업복귀, 사회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기성과와 사회진입 또는 학업복귀 후 6개월 이상 적응상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장기성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모형 개발과 함께 부가적으로 사후적응 프로그램(꿈다짐)을 개발하였다. 사후적응 프로그램은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에 성공한 취약청소년의 학업유지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구조화된 3회기의 프로그램과 선택 가능한 여러 체험활동 정보를 소개하였다. 3회기 프로그램은 목표성취에 대한 축하와 성공경험 강화하기(행복파티), 장애물 극복을 위한 대처기술 익히기(꿈너머), 미션수행을 통한 자기주도성 배양하기(우리가 만드는 FOB)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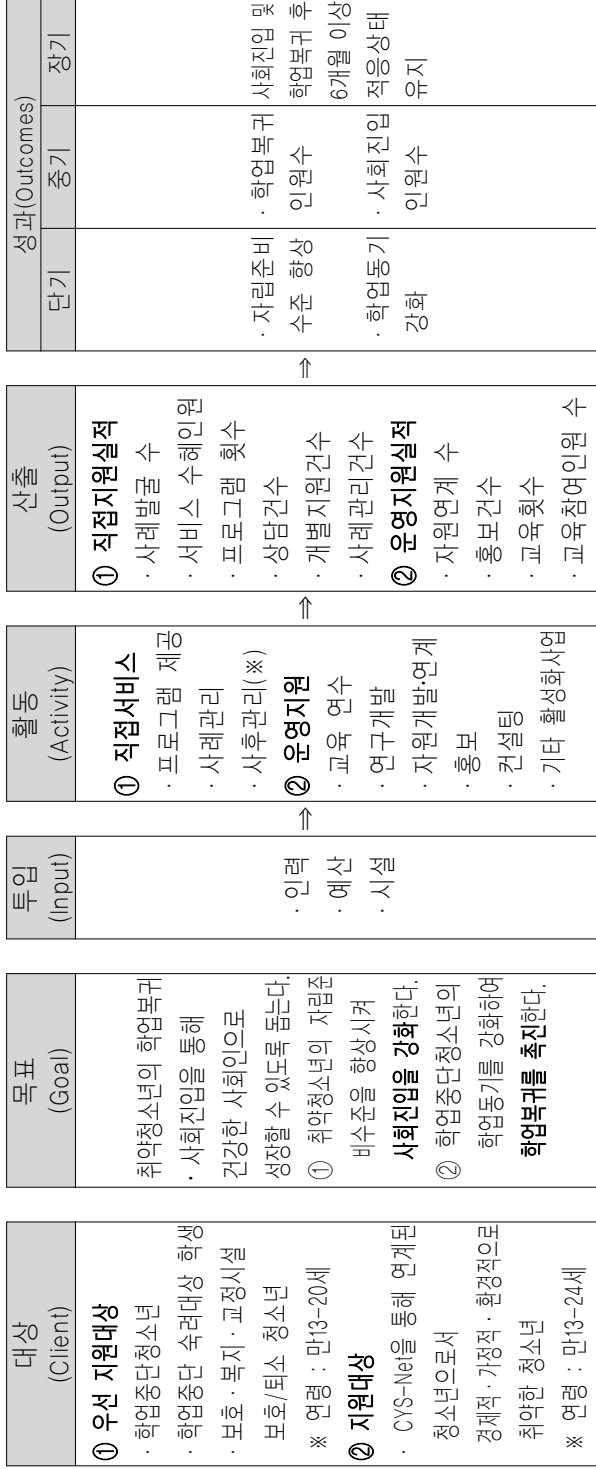


그림 9. 통합모형 논리모델

2. 논의 및 제언

가. 논의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통합모형의 강조점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유의점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예측력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기별(과도기, 도약기, 안정기) 통합모형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예측력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기별 통합모형이 실현되려면 두드림·해밀 운영기관의 확대와 인력 충원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그렇지 못하더라도 본 통합모형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운영기관 확대와 인력 충원이 더딜 경우 과도기 또는 도약기 모형도 장기화될 뿐이다. 사업추진 시 예측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업 수월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즉, 과도기 시도모형에서는 직접서비스의 비중이 커서 해당 지역 청소년의 서비스 제공에 국한된 업무를 지향하면 되지만, 안정기로 발전할 때는 관할 시군구 지역 전반의 서비스 대상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갖추기 어려운 연구개발이나 수퍼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증거기반의 과학적 평가에 유용하다.

본 통합모형 개발의 토대가 된 논리모델은 정책사업의 평가모델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투입에서 평가까지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하여 처음부터 평가를 염두에 두고 본 통합모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증거기반의 과학적 평가가 가능하다. 즉 투입예산 대비 산출, 단기·중기·장기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면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성과관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다 많은 비중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천적 관점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성과관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초에 미리 성과관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다.

본 통합모형의 평가결과는 환류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경우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실천현장에서 프로그램 개선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시간적 여력의 한계로 쉽지 않다. 따라서 시도 모형의 경우, 과도기와 도약기에는 중앙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안정기에는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인프라의 확장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4)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본 통합모형에서는 비용-효과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가능하므로 투입 대비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추진 시 예산 절감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전에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신중하게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통합모형에서는 명확한 대상 선정과 목표 지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도식화된 논리모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현장 실무자 간에 두드림·해밀 사업의 서비스 대상과 목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면 기대차이로 인한 서비스 분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목표에 적합한 대상을 선별하여 개별 목표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인 개입을 할 경우 그만큼 목표성취가 용이할 것이다.

(6) 적정한 사례관리 수를 유지함으로써 실무자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두드림·해밀 전담 실무자의 사례관리 수는 타 유사사업들보다 2배 정도 과다한 편이다. 하지만 매년 계속해서 양적 목표치의 증가가 요구되어 실무자의 업무소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균 근무기간이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취약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두드림·해밀 사업의 특성상 사례관리자의 잦은 교체는 서비

스 대상자들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통합모형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실무자 1인당 적정 사례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고 실무자의 소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사후적용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적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본 통합모형 개발과 함께 부가적으로 개발한 사후적용 프로그램은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에 성공한 청소년들이 예기치 않은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3회기의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선택 체험활동 정보는 현장에서 목표달성 이후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예산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물적 자원과 재능기부 등의 다양한 후원 개발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 많은 옵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제언

본 통합모형이 투입에서 평가까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유익한 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장과 정책분야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활용성 제고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1) 통합모형 내용은 정부 운영지침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통합모형은 두드림·해밀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에서의 실천적 활용성이 강조되는 모형안으로서 정책사업으로 반영되려면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통합모형은 개발과정에서 문헌연구는 물론 현장 실무자와 청소년, 외부 전문가 등이 다수 연구에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높은 타당성을 확보한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지침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원확보가 필수적이겠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무자와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대상으로 통합모형안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짐으로써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과 정책부서의 이해가 다를 때 사업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부처 간 정책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본 통합모형은 사례발견 및 의뢰과정에서 교육부의 학업중단숙려제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산하 교정·복지시설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두드림·해밀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수혜대상은 타 부처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부처 간 정책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본 통합모형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평가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통합모형의 성과 지표는 두드림·해밀 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반적 평가 지표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요 투입요소인 인력, 예산, 시설은 운영기관의 경영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혜 청소년에게 청소년동반자 등 CYS-Net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센터의 평가에 반영될 경우에 통합모형을 추진하는데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센터 운영 성과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통합모형 운영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한다.

통합모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출 및 성과 실적치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활동, 산출, 성과 실적 모두 필요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서비스 수요 예측과 지역자원 정보의 자동발송 기능 등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사업방향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지역별 특성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본 통합모형에서 제시하는 표준 운영체계는 현장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가 지역별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운영체계는 일관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지역사회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융통성이 결여되어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도 모형에서는 지역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군구 모형에서는 시도 모형의 연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영, 양은주, 방나미 (2011).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19(1), 89-125.
- 강순희, 윤석천, 박성준 (2011). **한국의 인적자본투자 성과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2012).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
- 고기홍 (2003). 학업중단청소년 문제와 상담적 개입 방안. **학생생활연구**, 24(1), 117-136.
- 고용노동부 (2012). **고용노동백서**. 서울:고용노동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현황 안내**.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a).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 국민은행연구소. (2002). **20대의 소비 및 금융이용 행태**. 조사보고서. 국민은행연구소.
- 권미화, 이기춘. (2000).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09.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경준, 정익중, 김지혜, 류명화 (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동립, 이삼열 (2011).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개념과 유형화에 관한 소고. **한국정책학회보**, 20(1), 269-374.
- 김미숙 (2009). 일본의 니트(NEET) 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95-211
- 김범구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범구, 조아미(2013).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성기 (2012). 한국과 미국의 학업중단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초등교육연구**, 25(2), 141-160.

- 김성기 (2013). **대안교육의 의의,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2.
- 김순규 (2004). 가족환경 요인이 청소년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43-63.
-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십대 여성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 김지혜 (2004). 논리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 이론 구축 : 브릿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8, 1-33.
- 김지혜 (2005). 가출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207-234.
- 김지혜 (2005b). **가출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정은, 조규필 (2006). **단기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개발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지혜, 안치민 (2006).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17(2), 133-157.
- 김현국, 강명숙, 권기승, 김성기, 이현정, 채효정 (2011).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청.
- 김화순 (2006).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방향. **한국사회정책**, 13, 93-127.
-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경란, 김미정, 변정현, 오성욱, 이효남, 전연진, 조규필 (2008).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노대명, 최병두, 조명래, 류정순 (2006).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대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6), 671-692.
- 노승용 (2006). 텔파이 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연구원, 국토, 299.
- 노 혁 (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 생활 및 자립 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1), 94-117.
- 노 혁 (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06-328.
- 노화준 (2006).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
- 맹영임, 김민 (20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종열 (2007).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성과관리의 연계가능성 연구 -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87-116.
- 박용순 (2001).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및 대책**.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선 (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14, 85-112.
- 박창남, 김희진, 김선엽 (2001). **청소년패널조사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현선 (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 75-104.
- 배영태 (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변숙영, 이수경, 이종범 (2009).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배문조, 전귀연 (2002). 청소년의 가출 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개인, 가족, 학교 환경,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 허영준, 김재호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26(1), 106-133.
- 손순용 (2005).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학력취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 73-96.
- 신현숙, 구분용 (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 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16(3), 121-145.
- 신혜령 (2000). **시설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령 (2001). 시설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1).
-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경희 (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보건 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안현의, 이소영, 권혜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개발연구. **상담학연구**, 8(4), 1657-1675.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오승환 (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21, 181-204.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이정실 (2011). **학업중단청소년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서구, 최은영 (2012). 가출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실무자 지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311-332.
- 유진이 (2009).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심리적 지도방안. **청소년학연구**, 16(11), 229-257.
- 윤철경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윤철경 (2013). **학업중단 학생 종단정책 연구**. 경기도교육청.
- 윤철경, 이해연, 서정아, 윤경원, 김영한, 백혜정, 양미진 (2005).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박창남 (2004). 학업중단 이후 첫 번째 시간제 취업의 참여 실태: 기관 소속 학업중단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논문집**, 545-552.
- 이경상,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석민 (2011). 프로그램 논리모형(Logic Models)의 적용과 사용에 관한 연구 : 간접흡연제로! 서울 평가지표 개발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211-242.

- 이숙영, 남상인 (1997). 학업중단 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기관소속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7(2), 265-289.
- 이시연 (2005). 청소년자활지원관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7(1), 129-140.
- 이시연, 박은미 (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41-159.
- 이용교 (2006). 새터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8(1), 51-67.
- 이의준 (1999). **21세기 한국의 건설탕: 건설턴트 입문의 길라잡이**. 서울: 새로운 제안.
- 이인숙 (2004). 취약계층의 방문간호 서비스 요구 특성. **대한간호학회지**, 34(6), 1025-1034.
-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이혜숙, 서은정 (2010).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전경숙 (2005).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The HRD Review**, 8(3), 112-123.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청소년의 근로실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 연구: 가출경험 학업중단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정경은 (2008). **가출청소년의 가출생활 전환과정 연구: 근거이론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경, 권혜진 (2001). 청소년 가출에 관한 예측모형. **정신간호학회지**, 10(1), 171-198.
- 정진주, 이지영, 임재한 (2008). 일본 도쿄지역 프리스쿨 사례의 시설이용현황 조사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16(2), 53-61.
- 조규필 (2013).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희, 이현진, 황수진(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2011). 보호아동 자립기술평가 : **육구 및 실태조사 결과**.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추병식 (2003). 학교붕괴의 탈근대적 의미. **청소년학연구**, 10(3), 49-64.
- 최순중 (2005).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수입, 지출, 부채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229-255.
- 표갑수 (1993). 중·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청소년학연구**, 1(1), 127-147.
-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2010). 제4회 정책토론회 : **학업중단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정책리포트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허남순, 오정수, 홍순혜, 김혜란, 박은미, 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홍봉선, 남미애 (2010). **청소년복지론(제3판)**. 서울: 공동체.
- 홍은실 (2005). 중·고·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03-121.
- 황선미, 신현숙 (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1), 229-245.
- 황성철(1995).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모형개발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7, 282-304.
- 황순길, 정현주, 김범구, 양대회, 이은경 (2012).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의 기숙형 대안캠프 효과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2), 223-257.
- 황창순 (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2(1), 순천향대학교.
- Aday, L. A. (1993). Indicators and predictors of health services utilization. In S. J. Willams & P. R. Torrens (Eds.), *Introduction to health services* (4th ed., 46-70). Albany, NY: Delmer.
- Baron, S. W., & Hartnagel, T. F. (2002) Street youth and labor market strai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6).

- Barth, R. (1990). On their own: The experiences of youth after foster car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7(5), 419-440.
- Bickman, L. (1987). The functions of program theory.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33: 5-18.
- Burley, M. & Halpern, M. (2001). *Educational Attainment of Foster Youth: Achievement and Graduation Outcomes for Children in State Care*.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Olympia, WA.
- Chen, H. (1990). *Theory-drive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Christie, C. A. & Alkin, M. C. (2003). The user-oriented evaluator's role in formulating a program theory: Using a theory-driven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4(3), 373-385.
- Cook, R. J. (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Prepared for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D: Westat, INC.
- Cooksy, L. J., Gill, P., & Kelly, P. A. (2001). The program logic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a multimetho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4(2), 119-128.
- Donaldson, S. (2003). Theory-driven program evaluation in the new millennium. In S. Donaldson and M. Scriven(eds.). *Evaluating social Programs and Problems: Visions for the New Millennium*.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3.
- Dworsky, A. (2005).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of Wisconsin's former foster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10), 1085-1118.
- Festinger, L. (1983). *The human legacy*. Columbia University Press.
- Franklin, C. (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s youths, *Social Work*, 37(4), 338-343.
- Frechtling, J. (2007). *Logic Modeling Methods in Program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Freundlich, M. & Avery, R. J. (2006). Transitioning from congregate care: Preparation and outcomes. *J Child Fam Stud*, 15, 507-518.

- Good, C. V.(1973). Dictionary of Education, 3rd ed. New York: McGraw-Hill. 198.
- Harris, M. and Bergman, H.(1987). Case management with the chronically mantally ILL: A crinic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296-302.
- Iglehart, A. P. (1994). Adolescents in foster care: Predictio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ren and Youth Review*, 16, 159-169.
- Intagliata, J. and F. Baker.(1983). Factor saffecting case management services for the chronically ill. *Administration in MentalHealth*, 11(2), 75-91.
- Julian, D. A., Jones, A., & Deyo, D. (1995). Open systems evaluation and the logical model: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tool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8(4). 333-341.
- Kaplan, S. and Garrett, E. (2005). The use of logic models by community -based initiative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8, 167-172.
- Kolb, D.A. & Frohman, A. L. (1970), An Organization Development Approach to Consulting. *Sloan Management Review*, 12(1).
- Kubr, Milan (1996), *Management Consultant-A Guide to the Profession*, 3rd ed., International Labor Office.
- Lipsey, M. W. (1993). Theory as method: small theories of treatments. *New Directions for Program Evaluation*, 57. 5-38.
- Maluccio, A., Krieger, R., & Pine, B. (1990). *Adolescents and their preparation for life after foster family care: An overview*. In A. Maluccio, R. Krieger, & B. Pine (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5-17.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Margerison, Charles J. (1988), *Managerial Consulting Skills-A Practical Guide*, Gower Publishing Company.
- Mech, E. V. (1994). Foster youth in transition: Research perspectives on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Children Welfare*, LXXIII(5), 603-623.
- McLaughlin, J. and Jordan, G. (1999). Logic models: A tool for telling your program's performance stor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2, 65-72.
- McLaughlin, J. and Jordan, G. (2004). Using Logic Models. In J. Wholey, H. Harty, and K. Newcomer (eds.).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San

- Francisco, CA: Jossey-Bass.
- Morrow, G. P. (1986). Standing Practice in the Analysis of Dropouts. *Teachers Collage Record*, 87, 342-355.
- Nollan, K. A., Wolf, M., Ansell, M., Burns, J., Barr, L., Copeland, W., & Paddock, G. (2002). Ready or not: Assessing youths'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 Welfare*, 79(2), 159-177.
- Pasztor, E. M., Clarren, J., Timmberlake, E. M., & Bayless, L. (1986). Stepping Out of Foster Care into Independent Living. *Children Today*, (3-4). 32-35.
- Patton, M. Q. (1997).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The new century text*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Pecora, P. J. (2004). **논리모델을 이용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평가**. 한국아동복지학회 제6회 워크숍 자료집.
- Rapp, C.A., & Kirsthardt, W. (1996). *Bridging the gap between principles and practice: Implementing a strengths perspective*, In Rose, S.M., Case Management and Social Work, NY : Longman.
- Renger, R. and Titcomb, A. (2002). A three-step approach to teaching logic models.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3(4), 493-503.
- Rossi, P. H., Freeman, H. E., & Lipsey, M. W. (1999). *Evaluation: A systematic approach* (7th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Rothman, J. C. and Sager, J. S.(1998). *Case Management: Intergrating individual and community practice*. Allyn and Bacon.
- Savas, S. A., Fleming, W. M., & Bolig, E. E. (1998). Program specification: A precursor to program monitoring and quality improvement. A case study from Boysville of Michigan.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25(2). 208-216.
- Shadish, W. (1987). Program micro-and macrotheories: A guide for social change.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33, 93-109.
- Solomon, B. (2002). Accountability in public child welfare: Linking program theory, program specification and program evalu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4(6). 385-407.

- Sweeten, G. (2006). Who will graduate? Disrup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by arrest and court involvement. *Justice Quarterly*, 23(4), 462-480.
- Taylor-Powell, E., Jones, L., & Henert, E. (2003). Enhancing Program Performance with Logic Models. retrieved from <http://www1.uwex.edu/ces/Imcourse/>.
- Trout, A., Hagaman, J., Casey, K., Reid, R., & Epstein, MH. (2008). The academic status of children and youth in out-of-home care: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 979-994.
- Weiss, C. H. (1995). *Nothing as practical as good theory*: Exploring theory-based evaluation for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A. C. Kubich, C. H. Weiss, L. B. Scorr, J. P. Connell (eds). *New approaches to evaluation community initiatives*: Concepts, methods, and contexts. Washington, D.C.
- W. K. Kellogg Foundation (2004). *Logic Model Development Guide*. Bettle Creek, MI: W. K. Kellogg Foundation.
- Woley, J. (2004). Evaluability assessment. In J. Wholey, H. Hatry, and K. Newcomer (eds.).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b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인터넷

- <http://cafe.naver.com/wecan1318/>. 2013년 3월 12일.
- <http://flyyouth.or.kr/>. 2013년 3월 12일.
- <http://www.danyang.chungbuk.kr/dy21/community/inde>. 2013년 3월 12일.
- <http://www.dball.co.kr/>. 2013년 3월 12일.
- <http://www.dobong.go.kr/>. 2013년 3월 12일.
- <http://www.fry.or.kr/>. 2013년 3월 12일.
- <http://www.seosan.go.kr/GetBrdAView.do>. 2013년 3월 12일.
- <http://www.westminster.gov.uk/services/educationandlearning/schoolsandcolleges/schoolsinformation/out-of-school/> 2013년 3월 25일
- <http://www.work.go.kr/pkg/index.do>. 2013년 3월 27일
- <http://www.ei.go.kr/index.jsp>. 2013년 3월 27일
- <http://www.hrdschool.or.kr/>. 2013년 3월 27일

<http://www.dreamstart.kr/>. 2013년 3월 27일
<http://jarip.or.kr/>. 2013년 3월 27일
<https://www.kyci.or.kr/>. 2013년 3월 27일
<http://www.dodream.or.kr/>. 2013년 3월 27일
www.rainbowyouth.or.kr/. 2013년 3월 27일
<http://eduzone.kedi.re.kr/>. 2013년 3월 27일
<http://www.molit.go.kr/portal.do>. 2013년 3월 27일
http://www.lh.or.kr/lh_main.asp. 2013년 3월 27일
www.gg.go.kr/. 2013년 3월 27일
www.yongin.go.kr/. 2013년 3월 27일
www.goyang.go.kr/. 2013년 3월 27일
<http://www.youthbuil.org/>. 2013년 3월 27일
<http://www.jobcorps.com/>. 2013년 3월 27일
[http://www.st.annshome.org/site/Programs/ResidentialPrograms/
AdolescentServices/PAYA/tabid/155/Default.aspx](http://www.st.annshome.org/site/Programs/ResidentialPrograms/AdolescentServices/PAYA/tabid/155/Default.aspx). 2013년 3월 27일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1/contents>. 2013년 3월 27일
<http://www.connexions-direct.com/>. 2013년 3월 27일
<http://www.yobaltimore.org/>. 2013년 3월 27일
[http://www.westminster.gov.uk/services/educationandlearning/schoolsandcolleges/
schoolsinformation/out-of-school/](http://www.westminster.gov.uk/services/educationandlearning/schoolsandcolleges/schoolsinformation/out-of-school/). 2013년 3월 27일

부 록

1. 취약청소년 설문 조사 설문지
2. 취약청소년 설문 조사 결과
3. 취약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4. 전문가 델파이 조사 1,2,3차 설문지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2,3차 결과
6. 실무자 전화인터뷰 내용
7. 사후적응 프로그램 매뉴얼

부록 1. 취약청소년 설문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전문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통해 청소년관련 연구 및 청소년 지원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 되었습니다.

이 설문지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여러분의 개별 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불성실한 응답이나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 연구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업중단대응팀 드림
문의 : 02-2250-3184(박현진)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속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1. 성 별 : ① 남자 () ② 여자 ()

2. 태어난 연도 : _____ 년도 (직접 써 주세요)

3. 현재 어디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① 자기 집 () ② 조부모 집 ()
③ 친척 집 ④ 형제자매 집 ()
⑤ 청소년 쉼터 () ⑥ 그룹 홈 ()
⑦ 아동복지시설(보육원) () ⑧ 소년원 ()
⑨ 미혼모 시설 () ⑩ 자립생활관 ()
⑪ 혼자 지냄 () ⑫ 기타 () _____

4.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① 상 () ② 중 () ③ 하 ()

5. 재학 중인 학년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① 중학교 1학년 () ② 중학교 2학년 () ③ 중학교 3학년 ()
④ 고등학교 1학년 () ⑤ 고등학교 2학년 () ⑥ 고등학교 3학년 ()
⑦ 학교를 그만 둔 상태 () ⇒ 5-1, 5-2, 5-3번 문항으로

- 5-1. (5번 문항의 ⑦번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학교를 그만 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 때 () ② 중학교 1학년 () ③ 중학교 2학년 ()
④ 중학교 3학년 () ⑤ 고등학교 1학년 () ⑥ 고등학교 2학년 ()
⑦ 고등학교 3학년 ()

6-1. (6번 문항의 ②번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처벌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 V표시 하세요)

- ① 폭력() ② 절도(금품갈취)() ③ 성폭행 ()
④ 폭주(무면허) () ⑤ 기타 () _____

6-2. (6번 문항의 ②번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처벌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V표시 하세요)

-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신 감호 위탁 ()
② 수강명령 () ③ 사회봉사명령 ()
④ 단기 보호관찰(1년) () ⑤ 장기 보호관찰(2년) ()
⑥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⑦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⑧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⑨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 ⑩ 장기 소년원 송치(2년) ()
⑪ 기타 (예, 훈방 등) () _____

다음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두드림·해밀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해당 사항에 V표시를 해 주세요.

7. 두드림·해밀 서비스 중 어느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두드림 () ② 해밀 () ③ 두드림·해밀 모두 ()

8.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인터넷을 통해 () ② 홍보물을 통해 ()
③ 친구를 통해 () ④ 전화(1388 등)를 통해 ()
⑤ 부모나 친지를 통해 () ⑥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
⑦ 기관(학교, 쉼터 등)을 통해 ()
⑧ 기타 () _____

9. 현재 두드림·해밀 서비스 외에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모두 V표시 하세요)

- ① 상담서비스() ② 특별지원(의료비, 급식비, 학원비 등) ()
 ③ 청소년동반자 () ④ 기타 () _____

10.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두드림·해밀 서비스 외에 타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모두 V표시 하세요)

- ① 심리·정서적 지원 () ② 공부 방법 지도 ()
 ③ 검정고시 지원 () ④ 학업정보(복학절차, 학원정보 등)제공 ()
 ⑤ 자립정착금 지원 () ⑥ 의료 지원 ()
 ⑦ 주거 지원 () ⑧ 법률 지원 ()
 ⑨ 급식비 지원 () ⑩ 학비 지원 ()
 ⑪ 취업 정보 제공 () ⑫ 직업 훈련 ()
 ⑬ 구직 기술 지원 () ⑭ 기타 _____

11. 앞으로 지원 받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가장 받고 싶은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 ,)

- ① 심리·정서적 지원(상담 등) ② 학업 정보(복학 절차, 학원정보 등) 제공
 ③ 검정고시 지원 ④ 공부 방법 지도
 ⑤ 자립정착금 지원 ⑥ 의료 지원
 ⑦ 주거 지원 ⑧ 법률 지원
 ⑨ 급식비 지원 ⑩ 학비 지원
 ⑪ 취업 정보 제공 ⑫ 직업 훈련
 ⑬ 구직 기술 지원 ⑭ 기타 _____

12.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가장 도움이 된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 ,)

두드림 프로그램	해밀 프로그램
① 개인상담	⑨ 개인상담
② 1과정 (자립동기 강화)	⑩ 학업동기 프로그램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③ 2과정 (직업체험)	⑪ 학습클리닉
④ 2과정 (뽀뽀비즈)	⑫ 학습지도 (인터넷강의, 학습멘토 등)
⑤ 2과정 (진로종합캠프)	⑬ 체험 (문화, 대학 탐방 등)
⑥ 3과정 (직업훈련)	⑭ 검정고시 지원 (학원비, 교재비)
⑦ 3과정 (자격취득 지원)	⑮ 기타 (_____)
⑧ 3과정 (취업)	

13. 두드림·해밀 서비스 중에 축소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두드림 프로그램	해밀 프로그램
① 개인상담 ()	⑨ 개인상담 ()
② 1과정 (자립동기 강화)()	⑩ 학업동기 프로그램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
③ 2과정 (직업체험) ()	⑪ 학습클리닉 ()
④ 2과정 (뽀뽀비즈) ()	⑫ 학습지도(인터넷강의, 학습멘토 등) ()
⑤ 2과정 (진로종합캠프) ()	⑬ 체험(문화, 대학 탐방 등) ()
⑥ 3과정 (직업훈련) ()	⑭ 검정고시 지원(학원비, 교재비) ()
⑦ 3과정(자격취득 지원) ()	⑮ 기타 (_____)
⑧ 3과정 (취업) ()	

14. 두드림·해밀 서비스 중에 좀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자신의 불규칙한 생활 태도를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 ()
- ②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 ()
- ③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 ④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
- ⑤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
- ⑥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
- ⑦ 금연, 금주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 ⑧ 기타 () _____

15. 두드림·해밀 서비스에 참여한 후 자신에게 생긴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 ,)

- ① 학습동기 향상 ② 자립동기 향상
- ③ 가족과의 관계 개선 ④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개선
- ⑤ 미래의 진로 결정 ⑥ 생활습관 개선
- ⑦ 심리·정서적 도움 ⑧ 아르바이트 등 취업
- ⑨ 검정고시 합격 ⑩ 학교 복학
- ⑪ 학교생활 적응 ⑫ 대안학교 입학
- ⑬ 기타 () _____

16. 만약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부에 대한 흥미 () ② 공부에 대한 자신감 ()
- ③ 기억을 잘 하는 방법 () ④ 공부에 대한 집중력 ()
- ⑤ 시험 준비 방법 () ⑥ 자기관리 하는 방법 ()
- ⑦ 시험 불안 극복 방법 () ⑧ 기타 () _____

17. 현재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진로방향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취업 () | ② 검정고시 합격 () |
| ③ 학교로 복귀 () | ④ 대안학교 진학 () |
| ⑤ 취업과 학업 병행 () | ⑥ 직업 훈련 () |
| ⑦ 학교 졸업 () | ⑧ 기타 () _____ |

18. 지금까지 이용했던 두드림·해밀 서비스 과정 중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였
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신청과정이 어렵다 ()
- ② 프로그램 전후 평가 하는 것이 많다 ()
- ③ 참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
- ④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겹다 ()
- ⑤ 진행자 선생님과 대화·상담의 기회가 없었다 ()
- ⑥ 집단으로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
- ⑦ 기타 () _____

19.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경적인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처음에 센터를 찾기가 어려웠다 ()
- ②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좁다 ()
- ③ 센터 주변 소음으로 너무 시끄럽다 ()
- ④ 센터에 오면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다 ()
- ⑤ 기자재가 부족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 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없거나 좁다 ()
- ⑦ 기타 () _____

20.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고 싶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예 () ⇒ 20-1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 20-2번 문항으로
- ③ 모르겠다 ()

20-1. (20번 문항의 ①번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추천해 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추천 이유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 ,)

- 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줘서
- ② 취업에 도움되는 정보와 방법을 알려줘서
- ③ 불규칙했던 생활습관을 고치도록 도와줘서
- ④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 ⑤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 ⑥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 ⑦ 힘들었던 마음을 선생님께 말할 수 있어서
- ⑧ 관심을 가져 주는 선생님이 좋아서
- ⑨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 ⑩ 자립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 ⑪ 꿈과 목표가 생겨서
- ⑫ 직업관련 체험기회가 있어서
- ⑬ 기타 () _____

20-2. (20번 문항의 ②번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추천해 주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추천 이유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 ,)

- ① 프로그램 과정이 지겨워서
- ② 프로그램 실시 장소가 불편해서
- ③ 시간에 맞춰 가기가 힘들어서
- ④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⑤ 프로그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⑥ 또래들이 힘들게 해서
- ⑦ 거리가 멀어서
- ⑧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 ⑨ 지켜야하는 규칙이 많아서
- ⑩ 기타 ()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취약청소년 설문 조사 결과

부록 표 1. 학업중단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건강상의 이유로	19×3=57	2×2=4	0×1=0	61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26×3=78	6×2=12	5×1=5	95
심리적 혹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27×3=81	8×2=16	3×1=3	100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33×3=99	12×2=24	4×1=4	127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	14×3=42	21×2=42	4×1=4	88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6×3=18	10×2=20	3×1=3	41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19×3=57	21×2=42	5×1=5	104
이미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서	10×3=30	12×2=24	7×1=7	61
학교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서	15×3=45	7×2=14	5×1=5	64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2×3=6	6×2=12	5×1=5	23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20×3=60	39×2=78	34×1=34	172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10×3=30	25×2=50	13×1=13	93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15×3=45	19×2=38	43×1=43	126
폭력, 절도 등 비행으로 학교의 징계를 받아서	4×3=12	4×2=8	12×1=12	32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힘들어서	0×3=0	0×2=0	1×1=1	1
돈을 벌고 싶어서	4×3=12	4×2=8	22×1=22	42
범죄 등으로 인한 법적 처분 때문에	4×3=12	1×2=2	6×1=6	20
기타	7×3=21	3×2=6	1×1=1	28

* 가중치 3,2,1 적용

부록 표 2. 처벌받은 내용

구분	남	여	계
폭력	50(15.3%)	32(9.8%)	82(25.2%)
절도(금품갈취)	42(12.9%)	22(6.7%)	64(19.6%)
성폭행	6(1.8%)	1(0.3%)	7(2.1%)
폭주(무면허)	29(8.9%)	5(1.5%)	34(10.4%)
기타	9(2.8%)	7(2.1%)	16(4.9%)

* 중복 응답

부록 표 3. 처벌 유형

구분	남	여	계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신 감호 위탁	26(8.0%)	4(1.2%)	30(9.2%)
수감명령	47(14.4%)	21(6.4%)	68(20.9%)
사회봉사명령	26(8.0%)	10(3.1%)	36(11.0%)
단기 보호관찰(1년)	46(14.1%)	17(5.2%)	63(19.3%)
장기 보호관찰(2년)	19(5.8%)	17(5.2%)	36(11.0%)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1(3.4%)	7(2.1%)	18(5.5%)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3(0.9%)	2(0.6%)	5(1.5%)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8(2.5%)	5(1.5%)	13(4.0%)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4(1.2%)	2(0.6%)	6(1.8%)
장기 소년원 송치(2년)	1(0.3%)	0(0.0%)	1(0.3%)
기타 (예, 훈방 등)	8(2.5%)	3(0.9%)	11(3.4%)

* 중복 응답

부록 표 4. 두드림·해밀 서비스 외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구분	남	여	계
상담서비스	104(40.2%)	63(24.3%)	167(64.5%)
특별지원(의료비, 급식비, 학원비 등)	5(1.9%)	15(5.8%)	20(7.7%)
청소년동반자	24(9.3%)	17(6.6%)	41(15.8%)
기타	14(5.4%)	17(6.6%)	31(12.0%)

* 중복 응답

부록 표 5. 두드림·해밀 서비스 외 타 기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구분	남	여	계
심리·정서적 지원	26(8.0%)	24(7.4%)	50(15.3%)
공부 방법 지도	22(6.7%)	17(5.2%)	39(12.0%)
검정고시 지원	38(11.7%)	38(11.7%)	76(23.3%)
학업정보(복학절차, 학원정보 등) 제공	7(2.1%)	5(1.5%)	12(3.7%)
자립정착금 지원	3(0.9%)	1(0.3%)	4(1.2%)
의료 지원	6(1.8%)	10(3.1%)	16(4.9%)
주거 지원	9(2.8%)	9(2.8%)	18(5.5%)
법률 지원	3(0.9%)	1(0.3%)	4(1.2%)
급식비 지원	4(1.2%)	3(0.9%)	7(2.1%)
학비 지원	3(0.9%)	2(0.6%)	5(1.5%)
취업 정보 제공	24(7.4%)	18(5.5)	42(12.9%)
직업 훈련	14(4.3%)	18(5.5%)	32(9.8%)
구직 기술 지원	11(3.4%)	7(2.2%)	18(5.5%)
기타	10(3.1%)	9(2.8%)	19(5.8%)

* 중복 응답

부록 표 6. 자신에게 생긴 긍정적인 변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학습동기 향상	31x3=93	3x2=6	9x1=9	108
자립동기 향상	28x3=84	20x2=40	7x1=7	131
가족과의 관계 개선	5x3=15	1x2=2	1x1=1	18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개선	4x3=12	5x2=10	4x1=4	26
미래의 진로 결정	36x3=108	34x2=68	13x1=13	189
생활습관 개선	2x3=6	8x2=16	15x1=15	37
심리·정서적 도움	12x3=36	18x2=36	22x1=22	94
아르바이트 등 취업	4x3=12	11x2=22	16x1=16	50
검정고시 합격	4x3=12	3x2=6	6x1=6	24
학교 복학	1x3=3	1x2=2	2x1=2	7
학교생활 적응	1x3=3	3x2=6	4x1=4	13
대안학교 입학	1x3=3	0x2=0	1x1=1	4
기타	7x3=21	1x2=2	2x1=2	25
무응답	15x3=45	43x2=86	49x1=49	180
빈도		151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해 밀	학습동기 향상	28x3=84	5x2=10	6x1=6	100
	자립동기 향상	3x3=9	5x2=10	2x1=2	21
	가족과의 관계 개선	3x3=9	3x2=6	2x1=2	17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개선	2x3=6	2x2=4	1x1=1	11
	미래의 진로 결정	11x3=33	10x2=20	6x1=6	59
	생활습관 개선	4x3=12	8x2=16	8x1=8	36
	심리·정서적 도움	11x3=33	11x2=22	11x1=11	66
	아르바이트 등 취업	0x3=0	4x2=8	3x1=3	11
	검정고시 합격	4x3=12	7x2=14	6x1=6	32
	학교 복학	0x3=0	0x2=0	2x1=2	2
	학교생활 적응	0x3=0	0x2=0	2x1=2	2
	대안학교 입학	0x3=0	0x2=0	0x1=0	0
	기타	2x3=6	0x2=0	2x1=2	8
	무응답	3x3=9	16x2=32	20x1=20	61
	빈도		71		
두 립 드 · 해 밀	학습동기 향상	35x3=105	6x2=12	5x1=5	122
	자립동기 향상	8x3=24	15x2=30	7x1=7	61
	가족과의 관계 개선	6x3=18	3x2=6	3x1=3	27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개선	4x3=12	2x2=4	3x1=3	19
	미래의 진로 결정	13x3=39	21x2=42	13x1=13	94
	생활습관 개선	5x3=15	7x2=14	12x1=12	41
	심리·정서적 도움	8x3=24	21x2=42	18x1=18	84
	아르바이트 등 취업	4x3=12	3x2=6	4x1=4	22
	검정고시 합격	16x3=48	9x2=18	14x1=14	80
	학교 복학	3x3=9	0x2=0	1x1=1	10
	학교생활 적응	0x3=0	1x2=2	0x1=0	2
	대안학교 입학	0x3=0	0x2=0	2x1=2	2
	기타	1x3=3	1x2=2	0x1=0	5
	무응답	1x3=3	15x2=30	21x1=21	54
	빈도		104		

* 가중치 3,2,1 적용

부록 표 7. 자신에게 필요한 것

구분	남	여	계
공부에 대한 흥미	73(22.4%)	47(14.4%)	120(36.8%)
공부에 대한 자신감	14(4.3%)	10(3.1%)	24(7.4%)
기억을 잘 하는 방법	12(3.7%)	21(6.4%)	33(10.1%)
공부에 대한 집중력	36(11.0%)	36(11.0%)	72(22.1%)
시험 준비 방법	7(2.1%)	8(2.5%)	15(4.6%)
자기관리 하는 방법	29(8.9%)	18(5.5%)	47(14.4%)
시험 불안 극복 방법	2(0.6%)	3(0.9%)	5(1.5%)
기타	3(0.9%)	2(0.6%)	5(1.5%)
무응답	5(1.5%)	0(0.0%)	5(1.5%)
소계	181(55.5%)	145(44.5%)	326(100.0%)
χ^2		12.98	

부록 표 8. 진로 방향

구분		남	여	계
두드림	취업	27(17.9%)	16(10.6%)	43(28.5%)
	검정고시 합격	14(9.3%)	17(11.3%)	31(20.5%)
	학교로 복귀	2(1.3%)	9(6.0%)	11(7.3%)
	대안학교 진학	2(1.3%)	2(1.3%)	4(2.6%)
	취업과 학업 병행	4(2.6%)	4(2.6%)	8(5.3%)
	직업 훈련	9(6.0%)	3(2.0%)	12(7.9%)
	학교 졸업	15(9.9%)	12(7.9%)	27(17.9%)
	기타	10(6.6%)	1(0.7%)	11(7.3%)
	무응답	3(2.0%)	1(0.7%)	4(2.6%)
	소계	86	65	151
χ^2		16.66*		
해밀	취업	7(9.9%)	5(7.0%)	12(16.9%)
	검정고시 합격	27(38.0%)	18(25.4%)	45(63.4%)
	학교로 복귀	2(2.8%)	2(2.8%)	4(5.6%)
	대안학교 진학	1(1.4%)	1(1.4%)	2(2.8%)
	취업과 학업 병행	1(1.4%)	1(1.4%)	2(2.8%)
	직업 훈련	2(2.8%)	0(0.0%)	2(2.8%)
	학교 졸업	1(1.4%)	0(0.0%)	1(1.4%)
	기타	2(2.8%)	1(1.4%)	3(4.2%)
	무응답	0(0.0%)	0(0.0%)	0(0.0%)
	소계	43	28	71
χ^2		2.41		
두드림·해밀	취업	11(10.6%)	11(10.6%)	22(21.2%)
	검정고시 합격	18(17.3%)	25(24.0%)	43(41.3%)
	학교로 복귀	4(3.8%)	0(0.0%)	4(3.8%)
	대안학교 진학	1(1.0%)	1(1.0%)	2(1.9%)
	취업과 학업 병행	6(5.8%)	8(7.7%)	14(13.5%)
	직업 훈련	3(2.9%)	2(1.9%)	5(4.8%)
	학교 졸업	3(2.9%)	0(0.0%)	3(2.9%)
	기타	5(4.8%)	5(4.8%)	10(9.6%)
	무응답	1(1.0%)	0(0.0%)	1(1.0%)
	소계	52	52	104
χ^2		9.63		

$p < .05$

부록 표 9. 추천해 주고 싶은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줘서	70×3=21	6×2=12	4×1=4	226
취업에 도움되는 정보와 방법을 알려줘서	64×3=192	24×2=48	7×1=7	247
불규칙했던 생활습관을 고치도록 도와줘서	14×3=42	18×2=36	12×1=12	90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41×3=123	38×2=76	17×1=17	216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1×3=3	7×2=14	3×1=3	20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1×3=3	4×2=8	1×1=1	12
힘들었던 마음을 선생님께 말할 수 있어서	11×3=33	21×2=42	15×1=15	90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좋아서	15×3=45	33×2=66	24×1=24	135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3×3=9	19×2=38	16×1=16	63
자립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12×3=36	28×2=56	21×1=21	113
꿈과 목표가 생겨서	6×3=18	22×2=44	58×1=58	120
직업관련 체험기회가 있어서	3×3=9	8×2=16	42×1=42	67
기타	0×3=0	1×2=2	1×1=1	3

* 가중치 3,2,1 적용

부록 표 10. 추천해 주고 싶지 않은 이유(n=11)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프로그램 과정이 지겨워서	5×3=15	0×2=0	0×1=0	15
프로그램 실시 장소가 불편해서	0×3=0	0×2=0	2×1=2	0
시간에 맞춰 가기가 힘들어서	1×3=3	2×2=4	0×1=0	7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0×3=0	0×2=0	0×1=0	0
프로그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0×3=0	1×2=2	0×1=0	2
또래들이 힘들게 해서	1×3=3	0×2=0	0×1=0	3
거리가 멀어서	2×3=6	0×2=0	1×1=1	7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1×3=3	0×2=0	1×1=1	4
지켜야할 규칙이 많아서	0×3=0	3×2=6	1×1=1	7
기타	1×3=3	1×2=2	2×1=2	7

* 가중치 3,2,1 적용

부록 3. 취약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영역	범주	내용
두드림·해밀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가족이나 친구가 알려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나를 통해 센터를 알게 됨 - 엄마가 진단지를 보고 센터를 찾아가서 알아봐 줌 - 오빠가 두드림·해밀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알게 됨 - 친구가 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해 줌
	기관을 통해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아보라고 권함 - 쉼터에서 센터를 소개해 줌 -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게 됨 - 자립생활관 선생님이 소개시켜 줌 - 청소년수련관의 다른 상담 선생님이 소개시켜 줌 -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센터를 소개시켜 줌 - 보호관찰 받을 때 서비스를 알게 됨
	상담 경험 등을 통해 이미 센터를 알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때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센터를 알고 있음 - 학교 다닐 때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알게 됨
	센터에서 전화가 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 둔 후 센터에서 전화가 옴
두드림·해밀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개인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자신을 보고 뭐하는 짓인가 싫어서 - 요리 시험을 7번 떨어져 누나 볼 면목이 없어서 - 직업에 대해 알고 싶어서 - 진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팡질팡해서 - 검정고시를 혼자서 준비하려니까 힘들어서 - 공부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 고졸학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 검정고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 외로워서 - 상담 받았던 편안한 경험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 싶어서 - 자립심을 길러준다고 해서 - 남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고 해서 - 계속 언제까지 친구와 술을 먹고 놀 수가 없어서 - 친구들은 학교를 가는데 나는 뭐하는가 싫어서 - 교복입고 학교가는 친구들을 보고 정신이 들어서 -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서 -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아야 해서 -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정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나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냐고 다투어서 - 가정 상황이 어려워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 집에 돈을 달라서 하지 못하니까 알아서 돈을 벌고 싶어서 - 집이 어려워 검정고시 학원을 갈 수 없어서

영역	범주	내용
	또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에서는 폭력을 쓰는 애들이 없을 것 같아서 - 서비스를 같이 받는 친구가 있어서 - 비슷한 애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초기 두드림· 해밀 서비스에 대한 느낌과 생각	긍정적 느낌과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서비스를 몰랐는데 한번 와 보고 싶다고 생각함 - 처음 해 본 프로그램이 재미있었음 - 착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재미있겠다 싶었고 많이 설레임 - 뭔가 해보는 것이 좋았음 -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기뻐움 - 처음 받아보고 진짜 좋구나 하고 느낌 - 친구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음 -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었는데 호기심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생김 - 낮을 가리는데 해보고 싶었음 - 쉽게 가르쳐주셔서 좋았음 - 뭔가 하구나 싶음
	부정적 느낌과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해야하나 생각함 - 학교와 배우는 게 비슷하다고 느낌 - 이미 해 본 프로그램은 지겨움 - 학교폭력 가해자가 많아서 기가죽고 불안함 - 아는 애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함 - 이렇게까지 잘 해주고 많이 해주나 의심을 함
초기에 힘들었던 점	대인관계가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사람들끼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싫었음 - 애들과 친하지 않아서 적응이 되지 않음 -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싫고 무서움 -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싫었음 - 사람을 대할 때 낮을 가려서 먼저 말을 붙이기가 힘들었음 - 소극적이어서 아무 말도 못함 - 낮설어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 - 어색한 분위기가 싫었음
	프로그램이 지겹거나 재미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경험한 것 똑같은 것을 하려니까 싫었음 - 하기 싫는데 시키는 게 싫었음 - 게임이 흥미가 없고 지루했음 - 의무도 없고 집에 혼자 있고 싶었음
	검정고시 공부 가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검정고시 공부할 때 어려움이 많았음 - 수학과 영어가 힘들었음
	센터에 오는 것이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센터에 오기가 힘들었음 - 집과 센터가 멀어서 센터에 다니는 것이 힘들었음
	힘든 것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경험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었음

영역	범주	내용
초기에 힘들었지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이유	마음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 이런 게 사회구나 싶고 자신감이 생겨서 - 삶의 과정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으니까 재미가 있어서 -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마음이 커서 - 센터에 오면 상처 받았던 것이 극복되는 것 같아서 - 옛날의 안 좋았던 기억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 오기가 생겨서 - 이대로 포기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 참는 것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해서 -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받아줄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 다음 단계 교육에 뭔가 기대가 생겨서
	센터선생님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선생님이 끈질기게 해보자는 말을 해서 - 센터 선생님이 엄청 챙겨주셔서 - 센터 선생님이 어떤 일이든지 이야기를 다 들어 주셔서 - 센터 선생님이 반겨주었고 잘 해주셔서 - 센터 선생님들이 착하고 재미있어서 - 센터선생님들이 밥을 사주니까 좋아서 - 센터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격려해 주어서
	가족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나에게 미안해서 - 오빠처럼 서비스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또래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가 같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서 -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좋아서 -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 스마트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 나보다 못하는 애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을 보고 - 애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탐이 되고 싶어서 -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을 이수해야 바리스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 자격증 따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공부에 대한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이 만족스럽고 도움이 되어서 - 센터에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센터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치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 소속된 느낌을 받아서 - 학교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느낌을 받아서 - 실제로 참여해 보니까 어려워했던 것보다 괜찮아서

영역	범주	내용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정보 - 적성검사 - 직업체험 - 자격증 공부 - 학습클리닉 - 성장캠프 - 스마트 교실 - 개인상담 - 직업상담 - 뽀뽀비즈
가장 도움이 된 이유	직업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랐던 직업정보를 알게 되어서 -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서 새롭게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직업의 세계가 넓어져서 - 학습멘토들이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진로를 찾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서 -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체험의 폭이 넓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멘토들이 공부와 세상에 대해 가르쳐줘서 - 집이 가난해서 체험을 못했는데 센터에서 시켜주어서 - 재능을 발견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배워서 -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게 많아서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고 살 길을 찾아낸 것 같아서 -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실력향상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선생님들이 일대일로 공부를 가르쳐줘서
	정서적인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애들을 만나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 서로 힘든 것 이야기하니까 위로 받는 것 같아서 - 소심함이 없어진 것 같아서
현재 도움을 받고 싶은 서비스	구체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군인에 대한 정보 - 대학진학에 대한 정보 - 컴퓨터 자격증 따는 정보
	도움이 되는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 지원 - 지속적인 개인상담 - 진로상담 - 대인관계 해결 방법 - 수능준비 지원

영역	범주	내용
서비스 참여 후 생긴 변화	인지적·정서적인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활발해졌음 - 성장하는 느낌 - 자립심과 자존감이 커 가는 느낌 - 자신감이 생김 - 해야되는 것은 꼭 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생김 - 성취감을 느낌 - 어른스러워진 것 같음 - 뭘 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김 -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김 - 철이 든 것 같음 -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느끼게 됨 - 생각이 반듯해진 것 같음 - 스스로 혼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듦
	꿈과 목표가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이 생김 - 목표가 생김 - 대학을 목표로 잡으니까 미래를 더 생각하게 됨
	대인관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생기고 먼저 말을 붙임 - 표현에 적극적이 됨 -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짐 - 예전에는 철없이 놀았는데 친구관계를 더 생각하게 됨 - 형들과 동생들에게 굴욕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음
	생활패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방식을 바꾸고 싶어짐 -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됨 - 인생이 바뀐 것 같음
	검정고시와 자격증을 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와 자격증을 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	자신에게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 도움이 되고 재미있어서 - 서비스가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상담을 받으면 진로에 대해 자신도 생각하고 위로도 받는 것 같아서 - 뭔가 할 게 있다는 것이 좋아서 - 문화체험을 하면서 행복한 느낌을 가져서 -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후련해서
	센터나 센터선생님들의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들이 챙겨주고 이야기해줘서 스트레스가 풀려서 - 선생님들이 좋아서 - 센터가 편하고 우리집 같아서 - 선생님들이 이끌어주고 응원해줘서 - 선생님들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줘서 - 선생님들이 잘 해주는데 배신할 수 없어서

영역	범주	내용
	미래에 대한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 미래의 가장이니까 미래를 위해 힘을 길러야 해서 - 도전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 성인이 되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니까 - 기회가 많이 와서
	대인관계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들과 친해지고 친구가 생겨서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멘토나 조언자,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 - 인생의 선배나 조언자 - 대학에 대한 정보나 대학생활이 힘들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친구 사귀는 것 - 선생님들이 계속 신경 써 주는 것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
	주변상황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상황이 변화하는 것 - 가정의 경제형편이 나아지는 것 - 혜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는 것
	자신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것 - 표현력을 좀 기르는 것 - 자신감을 키우는 것 - 계획적으로 사는 것 -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서비스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	프로그램 진행의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불편함 - 무조건 프로그램만 진행하니까 답답함 - 체험활동 시 너무 짧은 시간에 바쁘게 움직여서 마음을 나눌 시간이 없었음 -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많이 시키는 것 - 아침이나 점심때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귀찮았음 - 게임 프로그램들이 흥미가 떨어짐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의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시설이 부족 - 공부방이 부족 - 교재가 부족 - 기자재가 부족함 - 동아리를 지원해주지 않는 것 - 간식 부족
	센터 위치의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이랑 거리가 먼 것 - 교통문제
	센터 구성원에 대한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들이 너무 바쁨 - 학습멘토들과 공부방법이 맞지 않음

영역	범주	내용
보강되어야 할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유치하지 않는 내용의 프로그램 - 게임이 지겨우니까 좀 바꾸면 좋겠음 -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어색함을 풀 수 있는 내용 - 우리의 현실에 맞는 성공사례를 이야기 해주는 것
	검정고시 합격 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 검정고시 합격 후 취업반이 있으면 좋겠음 - 검정고시 합격 후 수능 보는 애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음 - 프로그램을 할 때 왜 해야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겠음 - 한번 참여했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 프로그램은 장기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음 -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친해지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 - 시작할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친한 애들끼리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음 - 정보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싶은지 이야기 들어주면 좋겠음
만약 센터선생님 이라면	센터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주면 좋겠음 - 교통비, 간식, 점심 등 물질적인 지원 - 공부할 수 있는 환경 - 복학 학교를 만들어줬음 좋겠음 - 애들마다 하고 싶은 꿈을 알려 주는 것 - 직업에 대한 자료를 주면 좋겠음 - 진로나 직업 상담을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음 - 학습 지원해 주는 멘토 - 직업체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것
	정서적 지지를 해 주는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은 친구처럼 대하기 - 선생님이 편하게 해주는 것 - 힘든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구출해 주고 싶음 - 방황하는 것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음 - 아이의 특징을 알아서 그 특징에 맞게 설명해줄 것 같음 -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상담자로서의 조언을 많이 해줌 - 선생님에게 받은 것처럼 똑같이 애들한테 베풀어주고 싶음 - 애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것 - 선생님의 위치에서 유익한 판단을 해주는 것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에 대한 설명 -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천해주고 적극적으로 제공 - 검정고시 합격 요령 가르쳐주기

영역	범주	내용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도와주는 것 - 학원같은 곳 보내주는 것 - 꿈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 - 공부하지 않는 애들 도와줄 것임 - 목표를 잡아주는 것 -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야될지 찾아주는 것 - 자격증 따는데 도움을 주겠음 -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하는 것
목표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 경영 - 직업군인 - 동물 사육사, 약세서리 디자인 쪽에 일하고 싶음 - 미용 쪽 - 연극배우 -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 글쓰는 직업 - 메이크업이나 헤어 이런 미용 쪽
	대학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학과 가는 것 - 대학 나와서 안정적이게 결혼하는 것
	취업과 학업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다가 대학 가고 싶음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과 자격증 - 직업군인 목표에 맞는 아르바이트 - 너무 해이해지지 않는 것 - 자주 센터에 나오는 것 - 생각하는 걸 뚜렷이 해야 함 - 자격증을 더 따도록 노력 - 공부 열심히 하는 것 - 정보를 찾아보고 노력이 필요함 -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는 것
	센터가 노력해야 할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 바리스타과에 대해 알아봐 주면 좋겠음 - 센터에서는 많이 바쁘겠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알아봐 주면 좋겠음 - 뭔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학원 등을 알아봐 주면 좋겠음 -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 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

부록 4. 전문가 델파이 조사 1,2,3차 설문지

델파이 1차 설문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두드림·해밀)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등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학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진출**을 하도록 돕는 사업을 말합니다.

♣ 참여자 인적사항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남 () 여 ()

2. 연령

25세~30세 () 31세~35세 () 36세~40세 ()

41세~45세 () 46세~50세 () 51세~55세 ()

56세~60세 () 61세 이상 ()

3.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석사과정 중 () 대학원 석사졸업 ()

대학원 박사과정 중 () 대학원 박사졸업 ()

4. 전공

교육학 () 심리학 () 사회복지학 () 가족학 ()

아동학 () 청소년학 () 기타 ()

5. 관련 경력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관련 경력은 센터근무 혹은 연구 경력을 표시해 주세요.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 의견 조사」

1. 향후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 가지만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1)

2)

3)

2. 향후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1)

2)

3)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 의견 조사」

3.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1)

2)

3)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임

4. ‘**청소년 자립**’의 개념, 범위, 대상(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할 대상),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쓰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본원에서는 ‘청소년 자립’의 개념을 대부분 성인기로의 자립이행 과정에 있는 십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발달적 관점에서 교육중심의 ‘자립준비’로 보고 있음.

1) 개념

2) 범위

3) 대상

4) 성과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

-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

<p>본 설문은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 을 위하여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기초로 구성되었습니다.</p> <p>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p> <p>각 범주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타 의견' 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전혀 동의 않음	동 의 않 음	보 통 임	동 의 함	매 우 동 의 함
1. 취약청소년 발생 시 등록제를 마련하고,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및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2.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독립된 전문 기관이 필요하며,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	2	3	4	5
3. 취약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과 조직을 청소년부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1	2	3	4	5
4. 부처 간 취약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조율되고 가장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기관이 필요하다.	1	2	3	4	5
5. 취약청소년을 위한 심리, 학업, 경제, 주거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1	2	3	4	5
6. 지역사회 내 중복되는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	1	2	3	4	5
7. 사회진출 지원 부분에서 유사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 및 전략이 필요하다.	1	2	3	4	5
8. 취약청소년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요구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p>● 기타 의견 :</p> 					

청소년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전담인력에 충족여부	인력양성 비율	비용 편의	장기 안정성	매우 중요함
9.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1	2	3	4	5
10.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과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	2	3	4	5
11.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1	2	3	4	5
12. 전담인력의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1	2	3	4	5
13. 인력충원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4. 사례관리자나 멘토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5. 상시 수퍼비전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6.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1	2	3	4	5
17. 두드림과 해밀의 예산이 통합되어야 한다.	1	2	3	4	5
18. 직업훈련 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취약청소년의 안전한 노동권 보장	전담인력에 충족여부	인력양성 비율	비용 편의	장기 안정성	매우 중요함
19.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1	2	3	4	5
20. 청년인턴 제도처럼 청소년 채용 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과 혜택, 관리가 필요하다.	1	2	3	4	5
21.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중앙부처에서 지정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2	3	4	5
22. 지역사회 취업, 아르바이트 네트워크 및 안정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취약청소년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전반적 중요성	의사결 정가능 성	비용 편의성	정책 연계 성	매우 중요 함
23. 취약청소년이 자립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기업 등과의 다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2	3	4	5
24. 학업중단 및 취약청소년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1	2	3	4	5
25.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보를 동의를 득한 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정보 공유를 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26. 1388청소년 지원단 및 CYS-Net 지역연계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1	2	3	4	5
27. 취약청소년의 조기 발견, 예방체계,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28. 학교에서 취약 혹은 학업중단 징후 학생 발견 시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29. 학업중단청소년만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필요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공간 지원 및 시설 확보	전반적 중요성	의사결 정가능 성	비용 편의성	정책 연계 성	매우 중요 함
30.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쉼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1. 공간 및 시설확보에 대한 강제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2	3	4	5
32.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기숙형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3.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집단프로그램,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이 필요하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진학 및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	전혀 안타깝지 않음	약간 안타깝 지 않음	보 통	약 간 안 타 깝 지 않 음	매우 안 타 깝 지 않 음
34.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으로도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2	3	4	5
35. 취약청소년이 학력인정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1	2	3	4	5
36. 전학이나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쉽게 복교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	2	3	4	5
37. 복교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1	2	3	4	5
38. 학교 수업 대체 및 위탁 교육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경제적 지원	전혀 안타깝지 않음	약간 안타깝 지 않음	보 통	약 간 안 타 깝 지 않 음	매우 안 타 깝 지 않 음
39.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곤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40. 취약청소년들에게 기술을 배우거나 대학을 진학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41. 자립을 위한 생활비(전세나 월세보증금)를 무이자로 지원해야 한다.	1	2	3	4	5
42. 검정고시 교재,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43. 공연관람, 문화체험 등 취약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44.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비 지원,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멘토링 서비스 도입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 통	필 요	매우 필 요
45. 자립지원까지 심리적 멘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1	2	3	4	5
46. 대학생 연계 기초학습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1	2	3	4	5
47. 학습 멘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48. 취약청소년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지해주는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1	2	3	4	5
49. 상담능력을 갖춘 멘토-멘티 제도가 필요하다.	1	2	3	4	5
50. 직업인 재능 기부를 통한 멘토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취약청소년에 대한 홍보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 통	필 요	매우 필 요
51.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	1	2	3	4	5
52. 취약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학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스마트 교실 활성화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 통	필 요	매우 필 요
53. 기초학업능력 회복 및 검정고시, 학교 복귀,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한 학업 관련 상담, 학습 지도, 학업 경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1	2	3	4	5
54. YC처럼 찾아가는 1대1형식의 개인별 맞춤형 학업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55. 검정고시 학습관련 교구재를 다양한 레벨에 맞춰 공동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56. 스마트 교실(검정고시)확대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학교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켜야한다.	1	2	3	4	5
57. 스마트 교실의 인력 충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매뉴얼 마련 등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1	2	3	4	5
58. 자격증 취득, 사회진출, 검정고시 합격, 복교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59. 제도권 교과 학습의 보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프로그램을 제공(미디어 교육, 환경교육, 복지교육, 윤리교육, 생활교육 등)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취업프로그램 활성화	전 국 지 역 에 적 용 성	중 대 지 역 에 적 용 성	관 내 지 역 에 적 용 성	지 역 에 적 용 성	구 체 적 적 용 성
60.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직업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1	2	3	4	5
61. 청소년 자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2	3	4	5
62. 생활환경(가정 등)과 지역사회 자원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63.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직업활동 경험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64.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65. 청소년들이 직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 충분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심리 및 부모상담 제공	전 국 지 역 에 적 용 성	중 대 지 역 에 적 용 성	관 내 지 역 에 적 용 성	지 역 에 적 용 성	구 체 적 적 용 성
66. 위기 및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 및 개입, 삶의 태도 및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재정립하기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1	2	3	4	5
67. 가족과의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1	2	3	4	5
68. 학업중단 청소년과 부모가 같이 하는 캠프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69.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	2	3	4	5
70.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제, 부모 교육 이수제가 필요하다.	1	2	3	4	5
71. 자아정체감, 유능성, 동기향상, 자기관리 역량, 또래관계 향상 능력 및 의사소통 훈련 등이 필요하다.	1	2	3	4	5
72. 취약청소년에게 인문학 및 철학 교육,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전인지원 중요성	의사결 정가능	평가 가능	의 향	매우 중요함
73. 학업중단 숙려제의 상담 권고를 강제 사항으로 변경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되기 전 단계에 정책적 개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74. 학업중단 숙려제가 상담프로그램 및 이후 학교 밖 생활적응 프로그램까지 한 세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1	2	3	4	5
75. 현재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화를 마련해야 한다.	1	2	3	4	5
76. 학업중단 숙려제 활성화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시·도 센터의 역할과 기능)	전인지원 중요성	의사결 정가능	평가 가능	의 향	매우 중요함
77.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례 슈퍼비전을 실시한다.	1	2	3	4	5
78. 수요자 요구조사, 학업중단청소년 실태조사,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쉼터퇴소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1	2	3	4	5
79. 시·도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한다.	1	2	3	4	5
80. 시·군·구 센터에 대한 컨설팅, 자문과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2	3	4	5
81. 시·도의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상자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1	2	3	4	5
82. 각 지역에서 협약을 맺기 어려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1	2	3	4	5
83. 중앙과 지역 간 실적이나 성과, 계획 등을 점검하고 통합하여 보고하고 각 지역 간, 중앙과 지역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1	2	3	4	5
84. 시·도는 전체 시군구를 관장하고 시·군·구의 다양한 자원 연계와 예산, 조례,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자문, 지도, 지원을 한다.	1	2	3	4	5
85.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전문지 분야에 맞춤 지원	지역 맞춤 지원	부 담 역 할	관 의 범 위	매 우 의 향
86. 개별 취약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 및 개입을 한다.	1	2	3	4	5
87. 프로그램 활용과 평가를 한다.	1	2	3	4	5
88. 취약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한다.	1	2	3	4	5
89. 지역사회 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인근 센터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한다.	1	2	3	4	5
90. 취약청소년들의 발굴 및 소규모 집단의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1	2	3	4	5
91. 외부로부터 단위사업을 지원받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92.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중점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새로운 현장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1	2	3	4	5
93. 시·도 센터 사업홍보 지원,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 기록 및 발표기회, 프로그램 교구재를 개발한다.	1	2	3	4	5
94. 지역 취약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95. 시·군·구의 특수여건을 시·도 정책 입안에 반영한다.	1	2	3	4	5
96. 사업진행 시 지역사회의 특성, 해당센터의 여건상 지침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보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1	2	3	4	5
97. 지역사회 모형을 지역 내 취약청소년들에게 적용해보고 그 모델을 평가해보는 역할을 감당한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의 차별화)	전문지 분야에 맞춤 지원	지역 맞춤 지원	부 담 역 할	관 의 범 위	매 우 의 향
98.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건이 다르고 현 상황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협력관계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1	2	3	4	5
99. 지역별 서비스 자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모델 운영이 필요하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청소년 자립의 개념	전혀 의의 없음	동 의 없음	보 통 인	동 의 함	매우 동 의 함
100. 자립은 완성적 개념보다는 발달단계 및 성장과업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1	2	3	4	5
101. 기능중심의 직업준비가 아니라, 취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으로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진정한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가치관 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1	2	3	4	5
102. 실제적인 취업보다는 자립 준비 혹은 진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1	2	3	4	5
103. 청소년 자립은 개별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하며 '능력'과 '의지'를 함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1	2	3	4	5
104. 청소년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1	2	3	4	5
105. 청소년 자립은 아동기와 청년기의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청소년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1	2	3	4	5
106.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1	2	3	4	5
107.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삶의 목표와 계획을 갖는 것이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청소년 자립의 범위	전혀 의의 없음	동 의 없음	보 통 인	동 의 함	매우 동 의 함
108. 범위는 일반적 자립의 개념과 동일하되 대상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	2	3	4	5
109. 청소년이 충분히 생각하여 일상생활과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1	2	3	4	5
110.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을 포함한다.	1	2	3	4	5
111.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선택에서의 자율성, 의사결정능력, 직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는 것이다.	1	2	3	4	5
112. 자립 동기 강화와 장애에 닥칠 시련이나 실패에서 당당히 일어 설수 있는 의지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1	2	3	4	5
113. 가치관 확립, 진로상담을 통한 진로동기 및 적성과 소질의 확인, 자립준비 프로그램(두드림), 학업준비 등을 하는 것이다.	1	2	3	4	5
114. 일상생활 기술부터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학업 및 일과관리를 포함한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청소년자립의 대상	정신장애 청소년에게	이웃을 배려하는 청소년	배우 귀족	배우 귀족	배우 귀족
115. 13세에서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116. 9세 이상에서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한다.	1	2	3	4	5
117. 14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으로 한다.	1	2	3	4	5
118. 만 14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119. 만 16세에서 만 22세 청소년으로 한다	1	2	3	4	5
120. 만 13세에서 만 21세까지 청소년으로 한다.	1	2	3	4	5
121. 자립이행 과정에 있는 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122. 학업중단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123. 전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124. 학업중단 청소년 및 경제적, 가정적, 환경적 취약한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125. 중,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3년 이내의 청소년으로서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126. 부모의 지원(부모가 없거나)이 전무하거나 있어도 정상적인 부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127. 청소년복지지원시스템에 들어온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128. 입시교육 위주의 제도권 교육 안에서 학업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	2	3	4	5
<p>● 기타 의견 :</p>					

청소년 자립의 성과	정신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	인생 목표 설정 에 매우 중요	평 범	생 활 의 방 면	매우 중요 함
129. 자격취득, 직업훈련, 취업이 해당된다.	1	2	3	4	5
130. 정규교육 재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대학진학이다.	1	2	3	4	5
131. 취약청소년들이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이다.	1	2	3	4	5
132. 사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후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해 수급급여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가 되는 것이다.	1	2	3	4	5
133. 청소년의 자신감 상승, 만족도, 도전의식, 성취감 등 개인 내적인 것이 성과이다.	1	2	3	4	5
134. 자립 개념 확립, 지역 사회 일꾼으로서 역할 수행과 역량 강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다.	1	2	3	4	5
135. 정신건강의 향상,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것,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하는 것이다.	1	2	3	4	5
136.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 유지, 삶에 대한 선택과 책임성 인식을 갖는 것이다.	1	2	3	4	5
137. 구체적 자립 기술 및 학력을 취하는 것이다.	1	2	3	4	5
138. 진로모색, 자기성찰과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다.	1	2	3	4	5
139. 진로성숙도 향상, 학업동기 향상, 기초직업능력을 습득 하는 것이다.	1	2	3	4	5
140.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과정), 상대방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상태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과이다.	1	2	3	4	5
141. 사전사후 검사 척도, 소감문, 사례관리 기록지 등의 내용들이 성과이다.	1	2	3	4	5
● 기타 의견 :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 모형 개발」

-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

1. 아래의 내용은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개별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의 '평균값'을 제시하였고,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이 몰려 있는 범위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각 항목에 중요도에 V를 해 주세요.
2. 체크하시려는 번호가 음영부분을 벗어난 경우 그 이유를 '의견'란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영부분이 4~5인데 2에 체크할 경우 2에 체크한 이유 기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의견
1	2(√)	3	4	5	'중요하지 않음'에 체크한 이유 기입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취약청소년 발생 시 등록제를 마련하고,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및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4.17	1	2	3	4	5	
2.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독립된 전문 기관이 필요하며,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4.02	1	2	3	4	5	
3. 취약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과 조직을 청소년부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4.02	1	2	3	4	5	
4. 부처 간 취약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조율되고 가장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기관이 필요하다.	4.48	1	2	3	4	5	
5. 취약청소년을 위한 심리, 학업, 경제, 주거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4.71	1	2	3	4	5	
6. 지역사회 내 중복되는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	4.31	1	2	3	4	5	
7. 사회진출 지원 부분에서 유사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 및 전략이 필요하다.	4.17	1	2	3	4	5	
8. 취약청소년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요구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33	1	2	3	4	5	

청소년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9.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4.52	1	2	3	4	5	
10.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과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4.67	1	2	3	4	5	
11.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4.77	1	2	3	4	5	
12. 전담인력의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4.75	1	2	3	4	5	
13. 인력충원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4.35	1	2	3	4	5	
14. 사례관리자나 멘토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52	1	2	3	4	5	
15. 상시 수퍼비전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4.25	1	2	3	4	5	
16.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4.13	1	2	3	4	5	
17. 두드림과 하밀의 예산이 통합되어야 한다	4.25	1	2	3	4	5	
18. 직업훈련 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4.42	1	2	3	4	5	
취약청소년의 안전한 노동권 보장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9.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4.46	1	2	3	4	5	
20. 청년인턴 제도처럼 청소년 채용 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과 혜택, 관리가 필요하다.	4.38	1	2	3	4	5	
21.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중앙부처에서 지정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46	1	2	3	4	5	
22. 지역사회 취업, 아르바이트 네트워크 및 안정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4.58	1	2	3	4	5	

취약청소년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23. 취약청소년이 자립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기업 등과의 다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63	1	2	3	4	5	
24. 학업중단 및 취약청소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4.58	1	2	3	4	5	
25.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보를 동의를 득한 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정보 공유를 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50	1	2	3	4	5	
26. 1388청소년 지원단 및 CYS-Net 지역연계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4.46	1	2	3	4	5	
27. 취약청소년의 조기 발견, 예방체계,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33	1	2	3	4	5	
28. 학교에서 취약 혹은 학업중단 징후 학생 발견 시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58	1	2	3	4	5	
29. 학업중단청소년만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필요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44	1	2	3	4	5	
공간 지원 및 시설 확보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0.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쉼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06	1	2	3	4	5	
31. 공간 및 시설확보에 대한 강제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27	1	2	3	4	5	
32.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기숙형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12	1	2	3	4	5	
33.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집단 프로그램,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이 필요하다.	4.63	1	2	3	4	5	

진학 및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4.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으로도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0	1	2	3	4	5	
35. 취약청소년이 학력인정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3.42	1	2	3	4	5	
36. 전학이나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쉽게 복교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19	1	2	3	4	5	
37. 복교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다.	4.31	1	2	3	4	5	
38. 학교 수업 대체 및 위탁 교육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4.38	1	2	3	4	5	
경제적 지원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39.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곤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04	1	2	3	4	5	
40. 취약청소년들에게 기술을 배우거나 대학을 진학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4.29	1	2	3	4	5	
41. 자립을 위한 생활비(전세나 월세 보증금)를 무이자로 지원해야 한다.	3.75	1	2	3	4	5	
42. 검정고시 교재,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4.27	1	2	3	4	5	
43. 공연관람, 문화체험 등 취약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	4.08	1	2	3	4	5	
44.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비 지원,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3.98	1	2	3	4	5	

멘토링 서비스 도입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45. 자립지원까지 심리적 멘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21	1	2	3	4	5	
46. 대학생 연계 기초학습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4.19	1	2	3	4	5	
47. 학습 멘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4.27	1	2	3	4	5	
48. 취약청소년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지해주는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4.21	1	2	3	4	5	
49. 상담능력을 갖춘 멘토-멘티 제도가 필요하다.	4.27	1	2	3	4	5	
50. 직업인 재능 기부를 통한 멘토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40	1	2	3	4	5	
취약청소년에 대한 홍보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51.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	4.63	1	2	3	4	5	
52. 취약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4.40	1	2	3	4	5	
학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스마트 교실 활성화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53. 기초학업능력 회복 및 검정고시, 학교 복귀,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한 학업 관련 상담, 학습 지도, 학업 경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4.46	1	2	3	4	5	
54. YC처럼 찾아가는 1대1형식의 개인별 맞춤형 학업지원이 필요하다.	3.83	1	2	3	4	5	

55. 검정고시 학습관련 교구재를 다양한 레벨에 맞춰 공동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3.96	1	2	3	4	5	
56. 스마트 교실(검정고시)확대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학교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켜야한다.	4.10	1	2	3	4	5	
57. 스마트 교실의 인력 충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매뉴얼 마련 등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4.17	1	2	3	4	5	
58. 자격증 취득, 사회진출, 검정고시 합격, 복교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35	1	2	3	4	5	
59. 제도권 교과 학습의 보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프로그램을 제공(미디어 교육, 환경교육, 복지교육, 윤리 교육, 생활교육 등)할 필요가 있다.	4.10	1	2	3	4	5	
취업프로그램 활성화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60.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직업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4.46	1	2	3	4	5	
61. 청소년 자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35	1	2	3	4	5	
62. 생활환경(가정 등)과 지역사회 자원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4.29	1	2	3	4	5	
63.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직업활동 경험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4.54	1	2	3	4	5	
64.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4.33	1	2	3	4	5	
65. 청소년들이 직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 충분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4.27	1	2	3	4	5	

심리 및 부모상담 제공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66. 위기 및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 및 개입, 삶의 태도 및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재정립하기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4.48	1	2	3	4	5	
67. 가족과의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4.48	1	2	3	4	5	
68. 학업중단 청소년과 부모가 같이 하는 캠프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4.27	1	2	3	4	5	
69.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50	1	2	3	4	5	
70.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제, 부모교육 이수제가 필요하다.	4.08	1	2	3	4	5	
71. 자아정체감, 유능성, 동기향상, 자기관리 역량, 또래관계 향상 능력 및 의사소통 훈련 등이 필요하다.	4.58	1	2	3	4	5	
72. 취약청소년에게 인문학 및 철학 교육,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4.15	1	2	3	4	5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73. 학업중단 숙려제의 상담 권고를 강제 사항으로 변경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되기 전 단계에 정책적 개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4.29	1	2	3	4	5	
74. 학업중단 숙려제가 상담프로그램 및 이후 학교 밖 생활적응 프로그램까지 한 세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4.31	1	2	3	4	5	
75. 현재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화를 마련해야 한다.	4.52	1	2	3	4	5	
76. 학업중단 숙려제 활성화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4.21	1	2	3	4	5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시·도 센터의 역할과 기능)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77.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례 슈퍼비전을 실시한다.	4.29	1	2	3	4	5	
78. 수요자 요구조사, 학업중단청소년 실태조사,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쉼터퇴소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4.17	1	2	3	4	5	
79. 시·도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한다.	3.98	1	2	3	4	5	
80. 시·군·구 센터에 대한 컨설팅, 자문과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15	1	2	3	4	5	
81. 시·도의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상자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4.40	1	2	3	4	5	
82. 각 지역에서 협약을 맺기 어려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4.42	1	2	3	4	5	
83. 중앙과 지역 간 실적이나 성과, 계획 등을 점검하고 통합하여 보고하고 각 지역 간, 중앙과 지역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4.25	1	2	3	4	5	
84. 시·도는 전체 시군구를 관장하고 시·군·구의 다양한 자원 연계와 예산, 조례,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자문, 지도, 지원을 한다.	4.08	1	2	3	4	5	
85.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4.15	1	2	3	4	5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86. 개별 취약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 및 개입을 한다.	4.40	1	2	3	4	5	
87. 프로그램 활용과 평가를 한다.	4.33	1	2	3	4	5	
88. 취약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한다.	4.38	1	2	3	4	5	
89. 지역사회 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인근 센터들과의 인적, 물질 교류를 한다.	4.40	1	2	3	4	5	
90. 취약청소년들의 발굴 및 소규모 집단의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4.42	1	2	3	4	5	
91. 외부로부터 단위사업을 지원받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25	1	2	3	4	5	
92.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중점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새로운 현장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4.31	1	2	3	4	5	
93. 시·도 센터 사업홍보 지원,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 기록 및 발표기회, 프로그램 교구재를 개발한다.	3.88	1	2	3	4	5	
94. 지역 취약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4.29	1	2	3	4	5	
95. 시·군·구의 특수여건을 시·도 정책 입안에 반영한다.	4.27	1	2	3	4	5	
96. 사업진행 시 지역사회의 특성, 해당 센터의 여건상 지침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보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4.31	1	2	3	4	5	
97. 지역사회 모형을 지역 내 취약청소년들에게 적용해보고 그 모형을 평가해보는 역할을 감당한다.	4.21	1	2	3	4	5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의 차별화)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98.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건이 다르 고 현 상황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협 력관계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2.48	1	2	3	4	5	
99. 지역별 서비스 자원의 차이가 있 으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모델 운영이 필요하다.	3.88	1	2	3	4	5	
청소년 자립의 개념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00. 자립은 완성적 개념보다는 발달 단계 및 성장과업을 중심으로 준비하 는 과정이다.	4.48	1	2	3	4	5	
101. 기능중심의 직업준비가 아니라, 취 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진정한 홀로서기를 위해서 는 기반이 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가치관 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4.44	1	2	3	4	5	
102. 실제적인 취업보다는 자립 준비 혹은 진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4.06	1	2	3	4	5	
103. 청소년 자립은 개별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지켜나가고 발전시 킬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독립 상 태를 의미하며 '능력' 과 '의지' 를 함 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4.42	1	2	3	4	5	
104. 청소년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4.27	1	2	3	4	5	
105. 청소년 자립은 아동기와 청년기 의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청소년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3.35	1	2	3	4	5	

106.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3.94	1	2	3	4	5	
107.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삶의 목표와 계획을 갖는 것이다.	4.29	1	2	3	4	5	
청소년 자립의 범위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08. 범위는 일반적 자립의 개념과 동일하되 대상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25	1	2	3	4	5	
109. 청소년이 충분히 생각하여 일상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3.90	1	2	3	4	5	
110.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을 포함한다.	4.17	1	2	3	4	5	
111.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선택에서의 자율성, 의사결정능력, 직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는 것이다.	4.25	1	2	3	4	5	
112. 자립 동기 강화와 장애에 닥칠 시련이나 실패에서 당당히 일어 설 수 있는 의지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4.17	1	2	3	4	5	
113. 가치관 확립, 진로상담을 통한 진로동기 및 적성과 소질의 확인, 자립준비 프로그램(두드림), 학업준비 등을 하는 것이다.	4.15	1	2	3	4	5	
114. 일상생활 기술부터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학업 및 일과관리를 포함한다.	4.33	1	2	3	4	5	

청소년자립의 대상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15. 13세에서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3.10	1	2	3	4	5	
116. 9세 이상에서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한다.	2.65	1	2	3	4	5	
117. 14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으로 한다.	3.23	1	2	3	4	5	
118. 만 14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3.29	1	2	3	4	5	
119. 만 16세에서 만 22세 청소년으로 한다.	3.00	1	2	3	4	5	
120. 만 13세에서 만 21세까지 청소년으로 한다.	3.17	1	2	3	4	5	
121. 자립이행 과정에 있는 실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48	1	2	3	4	5	
122. 학업중단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75	1	2	3	4	5	
123. 전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한다.	3.44	1	2	3	4	5	
124. 학업중단 청소년 및 경제적, 가정적, 환경적 취약한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83	1	2	3	4	5	
125. 중,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3년 이내의 청소년으로서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54	1	2	3	4	5	
126. 부모의 지원(부모가 없거나)이 전무하거나 있어도 정상적인 부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79	1	2	3	4	5	
127. 청소년복지지원시스템에 들어온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48	1	2	3	4	5	
128. 입시교육 위주의 제도권 교육 안에서 학업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23	1	2	3	4	5	

청소년 자립의 성과	평균	중요도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29. 자격취득, 직업훈련, 취업이 해당된다.	4.08	1	2	3	4	5	
130. 정규교육 재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대학진학이다.	4.06	1	2	3	4	5	
131. 취약청소년들이 목표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이다.	3.96	1	2	3	4	5	
132. 사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후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해 수급 급여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가 되는 것이다.	3.42	1	2	3	4	5	
133. 청소년의 자신감 상승, 만족도, 도전의식, 성취감 등 개인 내적인 것이 성과이다.	4.13	1	2	3	4	5	
134. 자립 개념 확립, 지역 사회 일꾼으로서 역할 수행과 역량 강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다.	4.21	1	2	3	4	5	
135. 정신건강의 향상,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것,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하는 것이다.	4.17	1	2	3	4	5	
136.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 유지, 삶에 대한 선택과 책임성 인식을 갖는 것이다.	4.27	1	2	3	4	5	
137. 구체적 자립 기술 및 학력을 취하는 것이다.	4.10	1	2	3	4	5	
138. 진로모색, 자기성찰과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다.	3.71	1	2	3	4	5	
139. 진로성숙도 향상, 학업동기 향상, 기초직업능력을 습득 하는 것이다.	4.00	1	2	3	4	5	
140.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과정), 상대방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상태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과이다.	4.15	1	2	3	4	5	
141. 사전사후 검사 척도, 소감문, 사례관리 기록지 등의 내용들이 성과이다.	3.54	1	2	3	4	5	

부록 5. 전문가 델파이 2,3차 결과

부록 표 11.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SD
취약청소년 발생 시 등록제를 마련하고,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및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4.17	.86	4.27	.64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한 독립된 전문 기관이 필요하며,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4.02	1.10	3.79	1.01
취약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과 조직을 청소년부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4.02	1.04	3.94	.86
부처 간 취약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조율되고 가장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기관이 필요하다.	4.48	.58	4.60	.49
취약청소년을 위한 심리, 학업, 경제, 주거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4.71	.46	4.75	.44
지역사회 내 중복되는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	4.31	.78	4.54	.58
사회진출 지원 부분에서 유사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 및 전략이 필요하다.	4.17	.78	4.46	.68
취약청소년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요구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33	.69	4.42	.58

부록 표 12. 청소년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4.52	.55	4.42	.54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과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4.67	.52	4.69	.47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4.77	.43	4.94	.24
전담인력의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4.75	.48	4.94	.24
인력충원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4.35	.70	4.46	.62
사례관리자나 멘토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52	.55	4.54	.50
상시 수퍼비전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4.25	.67	4.42	.54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4.13	.82	4.25	.56
두드림과 해밀의 예산이 통합되어야 한다.	4.25	.86	4.46	.58
직업훈련 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4.42	.61	4.50	.62

부록 표 13. 취약청소년의 안전한 노동권 보장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4.46	.58	4.44	.50
청년인턴 제도처럼 청소년 채용 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과 혜택, 관리가 필요하다.	4.38	.70	4.54	.50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중앙부처에서 지정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46	.71	4.63	.53
지역사회 취업, 아르바이트 네트워크 및 안정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4.58	.58	4.60	.49

부록 표 14. 취약청소년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취약청소년이 자립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기업 등과의 다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63	.49	4.73	.45
학업중단 및 취약청소년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4.58	.58	4.67	.48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보를 동의를 득한 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정보 공유를 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50	.74	4.65	.53
1388청소년 지원단 및 CYS-Net 지역연계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4.46	.68	4.54	.58
취약청소년의 조기 발견, 예방체계,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33	.69	4.52	.58
학교에서 취약 혹은 학업중단 징후 학생 발견 시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58	.71	4.73	.49
학업중단청소년만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필요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44	.71	4.48	.65

부록 표 15. 공간 지원 및 시설 확보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쉼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06	.91	3.96	.87
공간 및 시설확보에 대한 강제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27	.87	4.42	.61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기숙형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12	.94	4.29	.74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집단프로그램,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이 필요하다.	4.63	.64	4.71	.46

부록 표 16. 진학 및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으로도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0	1.15	3.08	.87
취약청소년이 학력인정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3.42	1.11	3.23	.78
전학이나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쉽게 복교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19	.87	4.40	.74
복교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4.31	.69	4.60	.54
학교 수업 대체 및 위탁 교육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4.38	.76	4.44	.65

부록 표 17. 경제적 지원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곤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04	.87	3.73	.79
취약청소년들에게 기술을 배우거나 대학을 진학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4.29	.65	4.27	.54
자립을 위한 생활비(전세나 월세보증금)를 무이자로 지원해야 한다.	3.75	1.00	3.42	.68
검정고시 교재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4.27	.71	4.33	.60
공연관람, 문화체험 등 취약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	4.08	.82	4.29	.58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비 지원,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3.98	.96	4.02	.89

부록 표 18. 멘토링 서비스 도입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립지원까지 심리적 멘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21	.71	4.35	.56
대학생 연계 기초학습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4.19	.73	4.25	.56
학습 멘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4.27	.64	4.33	.56
취약청소년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지해주는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4.21	.77	4.38	.53
상담능력을 갖춘 멘토-멘티 제도가 필요하다.	4.27	.54	4.46	.50
직업인 재능 기부를 통한 멘토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40	.71	4.42	.50

부록 표 19. 취약청소년에 대한 홍보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	4.63	.76	4.65	.70
취약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4.40	.84	4.52	.58

부록 표 20. 학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스마트 교실 활성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기초학업능력 회복 및 검정고시, 학교 복귀,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한 학업 관련 상담, 학습 지도, 학업 경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4.46	.62	4.44	.54
YC처럼 찾아가는 1대1형식의 개인별 맞춤형 학업지원이 필요하다.	3.83	.91	3.56	.77
검정고시 학습관련 교구재를 다양한 레벨에 맞춰 공동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3.96	.97	3.73	.87
스마트 교실(검정고시)확대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학교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켜야한다.	4.10	.86	4.21	.68
스마트 교실의 인력 충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매뉴얼 마련 등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4.17	.75	4.29	.50
자격증 취득, 사회진출, 검정고시 합격, 복교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35	.76	4.35	.53
제도권 교과 학습의 보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프로그램을 제공(미디어 교육, 환경교육, 복지교육, 윤리교육, 생활교육 등)할 필요가 있다.	4.10	.93	4.04	.77

부록 표 21.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직업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4.46	.58	4.50	.51
청소년 자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35	.67	4.44	.54
생활환경가정 등과 지역사회 지원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4.29	.68	4.40	.64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직업활동 경험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4.54	.58	4.54	.50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4.33	.69	4.56	.50
청소년들이 직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 충분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4.27	.68	4.54	.54

부록 표 23. 심리 및 부모상담 제공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위기 및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 및 개입, 삶의 태도 및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재정립하기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4.48	.65	4.58	.50
가족과의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4.48	.55	4.56	.50
학업중단 청소년과 부모가 같이 하는 캠프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4.27	.82	4.33	.56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50	.62	4.50	.51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제, 부모교육 이수제가 필요하다.	4.08	.96	3.90	.88
자아정체감, 유능성, 동기향상, 자기관리 역량, 또래관계 향상 능력 및 의사소통 훈련 등이 필요하다.	4.58	.58	4.54	.50
취약청소년에게 인문학 및 철학 교육,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4.15	.83	4.21	.54

부록 표 24.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업중단 숙려제의 상담 권고를 강제 사항으로 변경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되기 전 단계에 정책적 개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4.29	.90	4.65	.48
학업중단 숙려제가 상담프로그램 및 이후 학교 밖 생활적응 프로그램까지 한 세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4.31	.85	4.50	.65
현재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화를 마련해야 한다.	4.52	.55	4.77	.42
학업중단 숙려제 활성화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4.21	.97	4.19	.84

부록 표 25.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시·도센터의 역할과 기능)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례 수퍼비전을 실시한다.	4.29	.58	4.58	.50
수요자 요구조사, 학업중단청소년 실태조사,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쉼터퇴소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4.17	.72	4.46	.54
시·도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한다.	3.98	.73	3.63	.79
시·군·구 센터에 대한 컨설팅, 자문과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15	.83	4.27	.74
시·도의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상자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4.40	.61	4.50	.51
각 지역에서 협약을 맺기 어려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일 자리를 제공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4.42	.68	4.54	.50
중앙과 지역 간 실적이나 성과, 계획 등을 점검하고 통합하여 보고하고 각 지역 간, 중앙과 지역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4.25	.73	4.35	.64
시·도는 전체 시군구를 관장하고 시·군·구의 다양한 자원 연계와 예산, 조례,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자문, 지도, 지원을 한다.	4.08	.92	4.27	.61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4.15	.77	4.33	.52

부록 표 26.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별 취약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 및 개입을 한다.	4.40	.64	4.56	.54
프로그램 활용과 평가를 한다.	4.33	.56	4.42	.54
취약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한다.	4.38	.57	4.58	.54
지역사회 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인근 센터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한다.	4.40	.64	4.48	.50
취약청소년들의 발굴 및 소규모 집단의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4.42	.65	4.54	.50
외부로부터 단위사업을 지원받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25	.73	4.31	.59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중점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새로운 현장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4.31	.75	4.46	.50
시·도 센터 사업홍보 지원,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 기록 및 발표기회, 프로그램 교구재를 개발한다.	3.88	.94	3.52	.68
지역 취약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4.29	.65	4.38	.49
시·군·구의 특수여건을 시·도 정책 입안에 반영한다.	4.27	.61	4.33	.56
사업진행 시 지역사회의 특성, 해당센터의 여건상 지침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보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4.31	.59	4.56	.50
지역사회 모형을 지역 내 취약청소년들에게 적용해보고 그 모델을 평가해보는 역할을 감당한다.	4.21	.58	4.35	.53

부록 표 27.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의 차별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건이 다르고 현 상황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협력관계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2.48	1.13	2.63	.79
지역별 서비스 자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모델 운영이 필요하다.	3.88	1.10	4.06	.78

부록 표 28. 청소년 자립의 개념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립은 완성적 개념보다는 발달단계 및 성장과업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4.48	.71	4.50	.77
기능중심의 직업준비가 아니라, 취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으로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진정한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가치관 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4.44	.68	4.63	.53
실제적인 취업보다는 자립 준비 혹은 진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4.06	.84	4.21	.82
청소년 자립은 개별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하며 '능력' 과 '의지' 를 함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4.42	.74	4.50	.68
청소년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4.27	.68	4.31	.59
청소년 자립은 아동기와 청년기의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청소년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3.35	1.12	3.35	.70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3.94	.89	3.77	.75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삶의 목표와 계획을 갖는 것이다.	4.29	.54	4.44	.50

부록 표 29. 청소년 자립의 범위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범위는 일반적 자립의 개념과 동일하되 대상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25	.64	4.33	.52
청소년이 충분히 생각하여 일상생활과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3.90	.75	3.81	.49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을 포함한다.	4.17	.78	4.38	.57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선택에서의 자율성, 의사결정능력, 직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는 것이다.	4.25	.64	4.50	.55
자립 동기 강화와 장애에 닥칠 시련이나 실패에서 당당히 일어 설수 있는 의지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4.17	.63	4.33	.52
가치관 확립, 진로상담을 통한 진로동기 및 적성과 소질의 확인, 자립준비 프로그램(두드림), 학업준비 등을 하는 것이다.	4.15	.68	4.38	.49
일상생활 기술부터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학업 및 일 과관리를 포함한다.	4.33	.60	4.48	.55

부록 표 30. 청소년 자립의 대상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3세에서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3.10	1.10	2.92	.92
9세 이상에서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한다.	2.65	1.10	2.17	.60
14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으로 한다.	3.23	1.12	3.17	.91
만 14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3.29	1.07	3.33	.83
만 16세에서 만 22세 청소년으로 한다.	3.00	1.13	2.96	.87
만 13세에서 만 21세까지 청소년으로 한다.	3.17	1.12	2.90	.78
자립이행 과정에 있는 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48	.88	3.48	.62
학업중단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75	.91	3.69	.62
전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한다.	3.44	1.22	3.04	.71
학업중단 청소년 및 경제적, 가정적, 환경적 취약한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83	1.02	3.98	.93
중,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3년 이내의 청소년으로서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54	.82	3.44	.65
부모의 지원(부모가 없거나)이 전무하거나 있어도 정상적인 부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79	1.01	3.46	.65
청소년복지지원시스템에 들어온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48	1.09	3.35	.84
입시교육 위주의 제도권 교육 안에서 학업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23	1.15	3.31	.80

부록 표 31. 청소년 자립의 성과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격취득, 직업훈련, 취업이 해당된다.	4.08	.71	4.33	.60
정규교육 재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대학진학이다.	4.06	.78	4.33	.56
취약청소년들이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이다.	3.96	.97	3.75	.86
사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후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해 수급급여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가 되는 것이다.	3.42	1.09	3.42	.68
청소년의 자신감 상승, 만족도, 도전의식, 성취감 등 개인 내적인 것이 성과이다.	4.13	.87	4.33	.63
자립 개념 확립, 지역 사회 일꾼으로서 역할 수행과 역량 강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다.	4.21	.65	4.23	.56
정신건강의 향상,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것,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하는 것이다.	4.17	.75	4.44	.54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 유지, 삶에 대한 선택과 책임성 인식을 갖는 것이다.	4.27	.64	4.52	.55
구체적 자립 기술 및 학력을 취하는 것이다.	4.10	.72	4.29	.54
진로모색, 자기성찰과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다.	3.71	.85	3.58	.61
진로성숙도 향상, 학업동기 향상, 기초직업능력을 습득 하는 것이다.	4.00	.83	4.06	.63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과정), 상대방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상태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과이다.	4.15	.74	4.38	.57
사전사후 검사 척도, 소감문, 사례관리 기록지 등의 내용들이 성과이다.	3.54	1.03	3.56	.68

부록 6. 실무자 전화인터뷰 내용

전화 인터뷰 내용

검정고시 합격 이후 무엇을 해야할 지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새로운 목표관리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제공 필요

사전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 특성상 단체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음. 또한, 모인다 하더라도 집단프로그램의 성격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사후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검정고시 합격이후 아이들이 센터에 잘 오지않는 경향이 있어 사후관리가 어려움

사후적응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이나 대학 탐방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단순한 체험활동에 그쳐, 좀 더 목표나 진로와 관련된 정교한 사후적응 프로그램 필요

11월 경 전체 참여청소년을 대상으로 졸업식과 같은 축하파티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반응이 매우 좋으므로, 이를 계기로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됨. 또한 후원자 초청을 통해 지역 내 관심 유도 및 홍보 효과가 높음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진학지도를 원하는 청소년이 많아 두드림해밀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대학에 대한 자료검색 노하우(Know-How) 제공 필요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나, 적은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실무자가 검정고시 이후에 수월하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공 요구

사후적응 프로그램 (꿈다짐)

- 1회기. 행복파티
- 2회기. 꿈 너머
- 3회기.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
- 플러스 드림

1 회 기					
회기 주제	행복파티	운영 방법	소집단	운영 시간	90분
전개	형태	구조화 프로그램			
	조직	진행자 1명,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청소년 5명 내외, 성공준비 청소년 취업처(인턴쉽) 담당자 등			
	활동 목표	1. 성공적인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을 축하한다. 2. 성공경험의 공유를 통해 유능감을 향상시킨다. 3. 새로운 미래준비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낙관적 자아상을 확립한다.			
	활동 내용	1) 행복파티 소개 - 행복파티 소개 - 사후적응 프로그램 소개 2) 성공적 결과달성 축하 3) 성공준비 청소년들과의 질의응답 4) 나 축하해 주기	준비물	노트북, 빔 프로젝트, 동영상, 명찰, 싸인펜, 플랭카드, 편안하고 밝은 음악, 간식, 케익, A4용지, 활동지 1-1	
유의점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성취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축하 플랭카드, 케익 등을 준비하며 충분히 축하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도록 한다. ■ 파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관리의 수월성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차 시 예 고	꿈너머			

① 회기 : 행복파티

I. 목 표

첫째, 성공적인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축하한다.

둘째, 성공경험을 되짚어봄으로써, 유능감을 향상시킨다.

셋째, 새로운 미래준비에 대한 계획 및 낙관적 자아상을 확립한다.


II. 준비사항

1. 준비물 : 노트북, 빔 프로젝트, 동영상, 명찰, 싸인펜, 편안하고 밝은 음악, 간식, 플래카드, 케익, A4용지
2. 자리배열 : ‘ㄱ’자로 성공적인 결과 도출 청소년, 지도자, 예비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청소년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한다.

III. 이 시간의 의미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이 어려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들에게 성공적인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의 목표 달성을 축하하고, 성공준비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IV. 진행과정

 도입활동 [소개자료](10분)

- ① 지도자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후 참여자를 환영하는 이야기를 한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입니다. ‘행복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목표를 수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는 파티의 자리이며, 성공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선배들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를 들어보고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응원을 하는 자리입니다.”

- ② 사후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자료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는 1~3회기까지의 프로그램의 목표, 총회기, 일정, 내용에 대해 소개하여 흥미를 돋울 수 있도록 한다.

■ 참여 청소년 선정하기

- * 프로그램 전, 참여청소년들을 사전에 선정하고 일정을 수립한다.
- * 행복파티 대상이 충분하다면, 검정고시 학력취득, 복학 등 성공적인 학업 복귀 대상 및 직업훈련·자격증 취득·취업 등 청소년의 동질성을 고려한 청소년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 * 바리스타 등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에게는 행복파티에서 커피를 제조해서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유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방법이다.

■ 소품 준비하기

- * 케익, 꽃, 소품 등 파티분위기를 조성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한다.

지도자 Tip

지도자는 사전에 참여청소년의 명찰을 제작하고, 향후 프로그램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활동 (60분)

■ 성공적 결과 달성 축하(30분)

- ① 지도자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한 청소년들을 한명 한명씩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뒤, 그간 두드림·해밀에서 겪었던 history와 함께 성공적인 결과달성을 축하하여, 유능감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는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2012년 10월에 센터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에는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었지만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해보자’라고 합의했어요. 그 이후, ○○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스마트 교실에서 고졸 검정고시반을 준비하며 노력한 결과 금년 1회 검정고시에 4과목 부분합격을 했습니다. 부분합격 이후 자신감을 얻고, 금년 2회 검정고시에서 전과목 합격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 ② 소개가 다 끝난 후,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나와 촛불을 끄는 축하의식을 한 후, 케익 커팅을 하면서 행복파티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지도자 Tip

- 지도자는 사전에 성공목표를 달성한 청소년들의 기존 프로그램 참여사진 등을 사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축하 멘트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다.
- 취업처 사장, 청소년 후원자 등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결과 달성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대한 인터뷰 영상을 사전에 취합하여 상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성공경험 나누기(30분)

- ① 지도자는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들의 성공경험을 나누는 시간임을 알려준다. 다함께 자리에 앉아,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한 청소년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명 한명씩 발표하면서 성공경험에 대해 나누도록 한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한 청소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공경험 나누기

- * 자기소개 하기
- * 두드림·해밀에 처음 왔을 때 나의 목표는?
- * 두드림·해밀에 처음 왔을 때 마음가짐은?
- *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이룬 성공요인은?
- * 목표달성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 * 어려움을 극복한 계기는?
- * 선생님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② 센터 내 성공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성공한 선배들에게 성공을 위한 노력, 과정 등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우리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모였는데요.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한 선배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면 멋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노하우를 알려주면 좋겠네요”

■ 성공준비 청소년 질문예시

- *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성취했나요?
- *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 *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 * 목표달성 이후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 검정고시에 전과목 합격한 비법은 무엇인가요?

♡ 지도자 Tip

지도자는 사전에 성공준비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준비해 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질문이 나오지 않을시, 위의 질문예시를 참고하여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다.

♡ 나누기

■ 나 축하해 주기(20분)

- ① 지도자는 성공한 청소년들이 미래의 모습에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 및 각오를 한 명씩 발표하도록 안내하고 발표하는 청소년에게 <활동지 1-1>을 이용하여, 다른 참여청소년들이 응원메세지를 작성하도록 하게 한다.

“자, 여러분은 오늘 정말 행복한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화창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수능준비, 복교, 직장적용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한명씩 발표해 보고 발표한 청소년들에게 응원메세지를 작성해서 주기로 합니다.”

- ② 2회기 활동에 대해 안내한다.

“2회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성공한 목표를 달성한 후에,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 지도자 Tip

<활동지 1-1>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응원한 친구들의 기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쁜 종이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를 위한 응원메세지

2 회 기

회기 주제	꿈 너머	운영 방법	소집단	시간	90분
전개	형태	구조화 프로그램			
	조직	진행자 1명,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청소년 5명 내외			
	활동 목표	1. 1회기의 성공적 결과 달성에 이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중, 장기 목표 실천 계획 및 적응계획을 수립한다 2. 인생극장 : 목표 실현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 및 장애물을 미리 설정해봄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탐색해보고, 대처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활동 내용	1. 워밍업(5분) 2. 꿈 너머 (20분) - 새로운 계획 세우기(과거와 비교) - 목표달성에 필요한 실천계획 세우기 3. 인생극장(50분) - 동영상 시청 - 나의 감정 및 대응방식 탐색 - 선택에 따른 결과 - 긍정적 해결 방법 찾기 - 상황재연 또는 역할극 시연하기 4. 최고다!~~~야(10분) - 목표성취를 위해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보고 나에게 다짐하기 5. 마무리(5분) - 소감 발표 후 마무리	준비물	노트북(인터넷연결), 빔프로젝트, 동영상, 활동지2-1, 활동지2-2, 활동지2-3, 활동지2-4, 활동지2-5, 활동지2-6, 볼펜, 싸인펜 등 필기도구, 간식	
유의점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갈등유발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연습해보도록 한다. 			
	차시 예고	FOB			

② 회기 : 꿈 너머

I. 목 표

첫째, 1회기의 성공적 결과 달성에 이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중, 장기 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목표 실현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 및 장애물을 미리 설정해보고 자신의 대처방안과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긍정적 결과도출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 지에 대해 논의해본다.

II. 준비사항

1. 준비물 : 노트북(인터넷연결), 빔 프로젝트, 활동지, 볼펜, 싸인펜, 간식
2. 자리배열 : 5명 내외의 청소년이 자유롭게 앉아 지도자를 볼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한다.

지도자 Tip

- 본 회기는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학업복귀를 원하는 청소년일 경우나 자립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경우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참여청소년 수 등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업복귀 혹은 자립준비를 하는 청소년을 합쳐서 진행할 수도 있다.
-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구성원 및 동영상 이용에 있어 융통성 있게 진행가능하다.

III. 이 시간의 의미

검정고시 합격 또는 자립(직업학교 입학, 취업준비, 취업)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적응계획을 세워본다. 그리고 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제 발생 가능한 방해요인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통해 갈등 해소 및 장애물 극복방안을 점검해보고, 가상으로 연습해봄으로써 갈등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내심과 대처능력을 기른다.

IV. 진행과정

도입활동(5분)

- 몸풀기게임 : 간단한 몸풀기 게임(앉아서 배드민턴 치기, 제로게임 등)으로 분위기 도모

본 활동 (80분)

■ 꿈 너머(20분)

- 준비물 : 활동지 2-1, 싸인펜, 볼펜 등 필기도구
- 이번 활동은 1차 목표 성취 후 새롭고 구체적인 2차 목표수립에 있으므로 과거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목표를 계획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 ① 지도자는 본 회기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소개한 후 계획 활동지를 작성해보도록 한다(계획 활동지 2-1).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축하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성공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활동지를 보면서 과거의 목표, 그 목표를 위해 필요했던 노력, 비용 등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시기별로 목표성취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적어보고 예상되는 결과도 작성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겠어요.”

- ② 완성된 계획 활동지를 보면서 각자의 목표와 실천계획을 발표해본다.

- 자격증 취득 후 어떤 일을 할지, 경력을 쌓고 직장에 잘 적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경우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뭐가 있을지 구성원들과 함께 찾아보고 공란이 있다면 같이 작성해보도록 한다.

- ③ 각 구성원의 목표와 계획을 들어본 후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예시 1〉 멋진 카페 사장이 꿈인 청소년

	목표	실천계획 ①	실천계획 ②	실천계획 ③	실천계획 ④	결과
과거의 나	검정고시 합격하기	스마트교실 다니기				검정고시 합격
현재 나는	내년수능준비/바리스타자격증따기(취미)	입시설명회 가보기	대학정하기	아르바이트하며 용돈벌기	바리스타 자격증 프로그램수강	
앞으로 6개월 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수업 빠지지않기	커피전문점에 서아르바이트하기			
앞으로 1년 후	대학 합격!!	수시대학 및 학과알아보기	나의진로 탐색하기			
앞으로 3년 후	멋진대학생 되기	수업 빠지지않기	한달에 한번 1박2일여행다니기	아르바이트로 매달50만원씩 저축하기	제과제빵 기술 배우기	
앞으로 10년 후	멋진카페 사장되기					

 지도자 Tip

- 지도자는 두드림 기본프로그램 1회기와 특성화 프로그램 1영역(SMART 법칙 포함)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미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과거 계획했던 것의 결과와 현재를 비교해 보고 계획이 바뀐 경우 새로운 1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한다.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우 좀 더 명확한 계획과 직장 적응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기존에 계획수립훈련이 충분히 되어있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경험에 의거하여, 다른 계획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다
 - 나의 인생시계(도서 : 아프니까 청춘이다 참고) 그려보기(활동지 2-1 참고)
 1. 나의 인생시계에 시침 표시하기(준비물 : 싸인펜)
 2. 시간대별로 나의 인생목표 또는 꿈을 생각해보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 나의 욕구, 강점, 필요한 것
 - 나의 욕구 들여다보기, 강점 찾아보기, 내게 필요한 것 탐색하기

■ 인생극장 (50분)

- 준비물 : 노트북(인터넷 연결), 빔프로젝트, 활동지 2-2(인원수의 5배수로 준비), 2-3, 2-4, 2-5, 볼펜 등 필기도구

대학진학이나, 복학, 직업훈련기관 입학, 취업 후 직장적응 등 각각의 목표나 단계마다 발생 가능한 갈등상황에 대해 동영상 시청하면서 서로의 감정과 대응방식을 알아보고, 상대방은 나의 대응에 어떻게 느끼는지도 살펴보면서 좀 더 유용하고, 긍정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 ① 구성원의 성향에 맞는 상황을 3~5개 정도 선택하여, 동영상<활동지 2-3>을 시청한다.

동영상	프로그램명	내용
Scene 1	학교 2013	복학 또는 전학 후 급우들의 호칭, 선입견, 시비를 거는 모습
Scene 2	너의 목소리가 들려	국선변호사 면접 장면 - 검정고시 본 이유
Scene 3	너의 목소리가 들려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이보영과 함께 계획을 짜는 장면
Scene 4	최고다! 이순신	대학졸업 후 취직이 되지 않아 호텔 서빙으로 취업 후 가족의 무시
Scene 5	제빵왕 김탁구	갖은 모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빵 기술을 배우는 김탁구
Scene 6	못난이주의보	미용실에서 유학파에게 비교당하는 모습
Scene 7	못난이주의보	주인공이 동대문 옷가게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님에게 레모네이드를 타주며 응대하는 모습

 지도자 Tip

-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필요한 영상을 선별해서 이용하며,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필요할 경우, 제시된 예시 이외의 다양한 영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산이 맞지 않자, 의심하는 사장님
 -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의심이나 동정의 눈빛으로 보는 장면
 -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장면 등
- 활동지 2-5 를 통해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다.
- 제공된 영상시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계없는 장면이나 지루한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한다.
- 영상은 인터넷에서 활용 가능하다.

② 하나의 Scene에 자신이 어떻게 대처할 지 얘기해 본 후 <활동지 2-2>를 나누어주고, 다른 대처행동을 하였을 때 결과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이 각각의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본다. 만약 답변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는 제시된 예문을 통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활동지 2-4).

-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 제시
- 나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나라면 기분이 어떨까?
- 내가 저런 말을 들으면 어떤 행동을 할까?
-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도자 Tip**

- 두드림 특성화 활동자료 9.1.1.A (다양한 감정표정)를 참고로 자신의 감정표현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도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역할극을 시연해도 무방하다. 동영상 시청 후 서로 배역을 정해 해당 상황에서 각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연해본다.

<예시>

상황 1	내 이름을 막 부르거나, 형 대접을 안 해 줄 때	
동영상	1. 학교 2013 4회 - 급우들이 전학생(복학생)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수군거리고, 시비를 거는 장면	
	선택 1	선택 2
나의 기분	화 또는 짜증이 난다	서운하고, 답답하다
선택행동	때리거나 욕을 한다 맞짱판다	말을 트기로 함 자기 소개를 통해 이해를 구함
행동에 따른 예측결과	폭력행사로 경찰서에 감 학교를 그만두게 됨	급우들과 친해짐 무사히 학교를 마칩


- ③ <활동지 2-5>를 통해 더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며 목표에 맞는 결과 도출을 위해 필요한 행동양식을 점검해보도록 한다.

■ **최고다! ~~~야!** (10분)

- ① <활동지 2-6>을 나누어준다.
- ② 자신에게 최고라고 얘기해 주면서, 내가 잘하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정리해본다.
- ③ 맨 아래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적어보고, 모두 발표한다.
- ④ 박수로 격려해주며 마무리한다.

 **지도자 Tip**

· 최고다 ~~~야 대신 롤링페이퍼 양식으로 구성하여도 무방하다,

 **나누기** (5분)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느낌에 대해 한마디씩 소감을 들은 후 다음 회기(FOB)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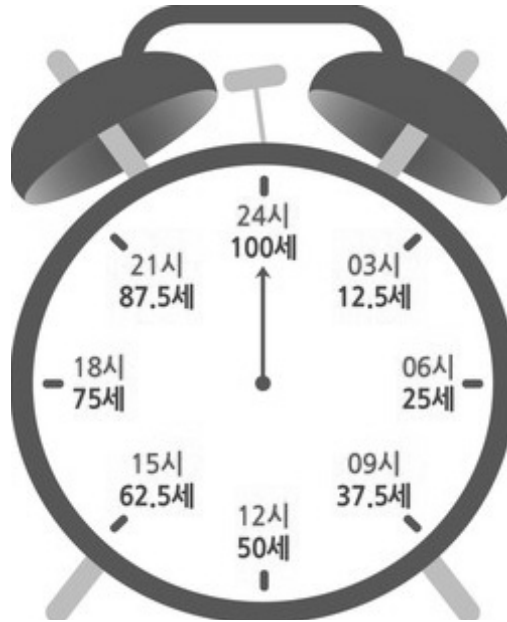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미션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같이 가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것을 정해서 계획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워보는거예요. 각자 하나씩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어요.”

[활동지 2-1]

	목표	실천계획 ①	실천계획 ②	실천계획 ③	실천계획 ④	결과
과거의 나						
현재 나는						
앞으로 6개월 후						
앞으로 1년 후						
앞으로 3년 후						
앞으로 10년 후						

< 나의 인생 시계 >

1. 나의 인생시계에 시침 표시하기



2. 시간대별(나이)로 나의 인생목표 또는 꿈을 생각해보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시간대는 각자 기입)

시간대	나의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
예시) 3:00		
6:00		
9:00		
12:00		
15:00		
18:00		
21:00		
24:00		

< 나의 욕구, 강점 들여다보기 >

나의 욕구 들여다보기	하고 싶은 것	▪ ▪ ▪
	갖고 싶은 것	▪ ▪ ▪
	되고 싶은 것	▪ ▪ ▪
나의 강점 찾아보기	내가 잘하는 것	▪ ▪ ▪
	내가 좋아하는 것	▪ ▪ ▪
	타인에게 칭찬 받는 것	▪ ▪ ▪
내게 필요한 것 탐색하기	내 생각에 보완되길 바라는 것	▪ ▪ ▪
	남들이 내게 바라는 것	▪ ▪ ▪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 ▪ ▪

[활동지 2-2]

상황 1		
	선택 1	선택 2
나의 기분		
선택 행동		
행동에 따른 예측 및 결과		

	동영상	회차	방영시간대	상황설명			
KBS	학교 2013	4회	상황1	5:43	-수업시간에 전학생이 유급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아이들이 수근거림	KBS DRAMA 유튜브 이용	
				8:30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수근거림		
			http://www.youtube.com/watch?v=VT3mceSFwfw&list=PLNRMbzisIOD6IMtbfNzljBggmTcOVOald 학교 2013 : School 2013 EP04 # 002				
			상황2	10:09~12:40	전학생에게 기존 학생이 식당에서 시비거는 장면		
				http://www.youtube.com/watch?v=3_32-ZoeGOg&list=PLNRMbzisIOD6IMtbfNzljBggmTcOVOald 학교 2013 : School 2013 EP04 # 003			
			상황3	18:12	빵셔틀 상황에서 아이들이 다시 수근거림		
	http://www.youtube.com/watch?v=OcavxN0JftY&list=PLNRMbzisIOD6IMtbfNzljBggmTcOVOald 학교 2013 : School 2013 EP04 # 004						
	최고다! 이순신	1회		대학 졸업 후 취직이 되지 않아 호텔 서빙직으로 취업한 후 받는 가족의 무시			
			상황1	4:00~5:00	순신의 면접낙방		
				http://www.youtube.com/watch?v=EFMfNCp9yCg&list=PLA7-otOEKcl1CMoukEaWHZ4ajOFIO93kZ 최고다 이순신 : The Best Yi Sunshin EP01 # 001			
			상황2	18:30~19:30	할머니의 타박		
				http://www.youtube.com/watch?v=8aKNbkyfxl4&list=PLA7-otOEKcl1CMoukEaWHZ4ajOFIO93kZ 최고다 이순신 : The Best Yi Sunshin EP01 # 004			
상황3			20:30~21:30	호텔알바 합격 후 무시당함			
	http://www.youtube.com/watch?v=m-thDZLy7X0&list=PLA7-otOEKcl1CMoukEaWHZ4ajOFIO93kZ 최고다 이순신 : The Best Yi Sunshin EP01 # 005						
제빵왕 김탁구	12회	상황1	15:30~17:30	빵을 배우게 해달라고 영감에게 부탁			
			http://www.youtube.com/watch?v=AWA5q5cKmmY&list=PL9D8A09BC832B8EB6				
			17:30~21:40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동영상	회차	방영시간대	상황설명			
			33:30~37:30	탁구와 이영아의 대화			
			37:30~41:20	열심히 하는 모습			
		13회	32:00~40:00 ~44:00	눈을 다쳤지만 빵을 만드는 모습			
		14회	상황2	5:10~8:00		제빵왕이 목표라고 말하는 탁구, 최선을 다하겠다는 탁구	
				8:00~11:30		열심히 빵을 배우는 탁구	
				http://www.youtube.com/watch?v=EWC-d-rArLU&list=PL9D8A09BC832B8EB6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1회	상황1	15:12	국선변호사 면접장면 중 검정고시 보게 된 이유	SBS 공식 유튜브브 이용	
				http://www.youtube.com/watch?v=fUahkY7sP9A&list=PLPik6UL1gQ6dPFKLovx8Qpeg0LcsX0Tu3 SBS [너의목소리가들려] - 5일(수) ep1-4			
		11회	상황2	32:30, 41:44	박수아가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장혜성이 필요한 사항을 포스트잇에 적어 냉장고에 붙인 것을 박수아가 하나씩 실천해나가면서 떼냄		
				http://www.youtube.com/watch?v=1BpLOJz3fYc 너의 목소리가 들려 11회 다시보기 #1(8)			
		13회	상황3	17:00	경찰대 팸플릿을 챙김		
				http://www.youtube.com/watch?v=gVqtijV6UB8 너의 목소리가 들려 13회 다시보기 #1(4)			
			상황4	31:00	검정고시 시험장면. 이후 잘 봤는지.. 경찰대 진학에 대해 수아와 장혜성이 함께 이야기함		
		http://www.youtube.com/watch?v=LWlvylxLZpg 너의 목소리가 들려 13회 다시보기 #1(6)					
		못난이 주의보	7회	상황1	11:58~13:00		동네 번두리 미용실 출신이라며 무시 당함
					http://www.youtube.com/watch?v=JgrR2GCHqRw 못난이 주의보 7회 #3		
9회	상황2		7:10~8:12	VVIP 고객들에게 유학파직원과 비교 당하는 짧은 상황			
		http://www.youtube.com/watch?v=t14R-Z2IDEA					

	동영상	회차	방영시간대	상황설명
			못난이 주의보 9회 #2	
		12회	상황3	6:20~7:10 수고비대신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
				10:15~10:40 일을 도와주다 취직됨
				http://www.youtube.com/watch?v=lwW8Bj1REVO 못난이 주의보 12회 #2
			상황4	24:30~25:40 손님에게 레몬에이드 타주는 등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
				http://www.youtube.com/watch?v=VgLO8Y_8RTU 못난이 주의보 12회 #5
			상황5	30:40~31:10 취직이 허락됨
		http://www.youtube.com/watch?v=Fd-8cf4lzcc 못난이 주의보 12회 #6		

<예상 갈등 상황 및 나의 대응 및 해결방식 예시문>

예상 갈등상황	나의 감정은	나의 대응방식	예측되는 결과	적절한 대응방식
	울컥 화가 난다	화를 낸다	학교생활을 잘한다	화를 참는다
	짜증이 난다	짜증을 낸다	학교를 그만둔다	웃는다
	억울하다	소리를 지른다	회사생활을 잘한다	
	슬프다	눈물을 흘린다	다른직장을 구한다	
	기분이 나쁘다	때린다	친한친구를 만든다	
	서운하다	애기를 한다	동료들과 친해진다	
	기쁘다	막 웃는다		
	답답하다	벽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뭉가를 친다		
	당황스럽다	폴짝폴짝 뛴다		
	황당하다	잠을 잔다		
	피곤하다	뭉가를 먹는다		
	잘 모르겠다	욕을 한다		
	놀랍다	컴퓨터 게임을 한다		
	쑥스럽다	돌아다닌다		
	즐겁다	쇼핑을 한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뺏는다		
		친구와 얘기한다 (문자, 카톡포함)		

○ 성공적인 학업복귀 대상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구분	예상 갈등상황	해결방안 예시
검정고시 합격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세 - 수능 준비 또는 복학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마음가짐 정립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찾아보기 - 최적의 학습 환경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해되는 물건 찾아보기: TV, 휴대폰 · 집중되는 장소 찾아보기: 도서관, 집 · 공부환경 찾아보기: 책상, 조명밝기 · 집중력: 짧은 시간 간격으로 집중하기 등
	검정고시를 합격했으나, 향후 목표가 명확해지지 않았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 증진을 위해 자기의 능력,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해 올바른 이해 필요 -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필요 -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탐색 및 활용능력의 배양 필요 - 편견배제, 부모의 요구 배제, 친구의 권유, 다른 외적인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증진 - 진학을 할 것인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의 부족
	전공선택에 대해 어려울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 증진을 위해 자기의 능력,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해 올바른 이해 필요 - 커리어넷을 활용한 자신의 적성 재확인, 전공과의 비전 등 확인
	나의 점수에 따른 진학 가능대학을 알고 싶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BS, 교통방송 등 9월 이후 각 단체에서 대학진학과 관련된 정보 안내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거나, 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벽주의로 인한 진로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향으로 결정하지 못하거나, 미루는 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부족 등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자신감이 없어 쉽게 결정하는 못하는 특성이 있으며, 언제든지 수정가능하다는 생각 필요 - 불안으로 인한 진로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불안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특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결정들도 하지 못하며 완벽주의로 인한 진로미결정 보다 심각한 특성이며, 불안에 대한 치료 필요

구분	예상 갈등상황	해결방안 예시
복학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자세 - 반드시 졸업하여, 실패경험을 다시 경험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가짐 	
	선생님과의 갈등 발생 - 복학생을 주의 깊게 보고, 복교생을 비하하는 특성나타남	- 작은 노력으로 복교생에 대한 선생님의 의식이 변화됨 - 오히려, 복교생이기에 적응을 잘하면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의 어려움(후배동급생들과의 어려움)	- 나이차에 대해 인식하지 않음 - 또래의식을 가짐 - 반말수용 및 수용이후 친구관계 확장 - 후배에게 반말투를 권함 - 친구이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먼저 함 - 후배에게 먼저 다가감 - 다른 반 복교생보다 학급의 후배동급생들과 어울리려고 함 -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자존심 굽힘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 학습보다는 친구, 선생님, 교칙준수 등 학교적응을 하는데 있어 우선시
	탈습관화의 어려움 ① 이른 기상과 등교 ② 흡연	- 체벌에 반발하기보다, 체벌을 안 당하기 위해 노력 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형성 ② 최소한 학교 내에서 금연
	학교시스템 불만 - 심한체벌 - 강제적 보충/야간 학습	- 학교규칙에 순응하기
	복교 후 스트레스	- 센터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해소

○ 직업훈련 과정에 입학했거나, 취업된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구분	세부상황	해결방안 예시
자립할 경우 아르바이트(직업훈련) 또는 취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자세 -자립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사항 정립 	
	① 아르바이트(직업훈련)나 직장이 너무 힘들거나 하기 싫을 때 ② 지각할 경우	① 하기 싫은 이유나 지각을 하는 이유 점검해보기 - 목표와의 일치성 확인 및 생활패턴 점검 - 어떤 경우에 일하기 싫은 생각이 드는지 적어보기 - 언제 지각을 하는지 점검해보기 - 정말 원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확인해보기 - 일에 있어 힘든 요소 파악하기 · 내 체력에 비해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가 · 친구들에게 내세우기 어려워져 · 자존심이 상해서(사장이나 동료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지) ② 나의 생활습관 점검해보기

구분	세부상황	해결방안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기상이 힘들어서 자꾸 지각을 하는 경우 · 알람맞추기(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 · 시간대를 옮겨 생활리듬에 맞는 일 찾기 ·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내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훈련을 해보기
	<p>■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p> <p>① 상사나 동료에게 지적당하거나 혼 날 경우</p> <p>② 일보다 사람이 힘들게 할 때</p> <p>③ 화가 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 파악하기 ① 나의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녹음해서 들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에게 말할 때 · 동료나 선임에게 말할 때 · 예의에 벗어나거나 상대방이 듣기에 거슬리는 말투인지 점검해보기 ·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말과 똑같이 말하게 해서, 어투가 어떻게 들리는지. 기분이 어떤지 서로 얘기해보기 ② 기본예의범절에 대해 얘기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자에게 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대를 쓰면서, 공격적인 말투를 쓰지 말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표정으로 부드럽고 빠르지 않은 중간높이의 톤으로 얘기하기 · 선임에게 존댓말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보다 어리다고 반말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지 않기 - 인사는 크고 명랑하게 하기 ③ 화가 나는 이유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기 · 화가 나도 욕이나, 폭력이 나가는 것을 일단 참고, 상대방이 자신한테 화나는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기
	<p>아르바이트(직업훈련)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고 싶을 때</p> <p>① 이유 확인</p> <p>② 진로 점검</p> <p>③ 퇴사시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만두고 싶은 이유를 적어보고 이유가 합당한지 생각해보기 ① 이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하기 싫으면 그 이유를 찾아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을 내린 후 고용주에게 사유를 최소 1개월 또는 2주 전에 명시하여, 새로운 직원을 뽑고 인수인계 시간을 제공해야 함 ·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일자리를 자주 옮기는 것은 고용주에게 불성실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무작정 그만두기 보다는 내게 잘 맞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유리 · 지금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니면서의 장·단점과 다니지 않을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구분	세부상황	해결방안 예시
		<p>우선순위를 정해보기</p> <p>②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p> <p>③ 퇴사시 유의점 :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켜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경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유리함을 인지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음 · 4대 보험 가입시, 7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결정전에 근무일수(180일 이상, 주말 제외) 확인

최고다! _____ **!**

야, 너는

①

②

③

를 참 잘하는구나~

만약,

①

②

③

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①

②

③

를 갖춘다면 너는 정말 완벽할 거야!!

나는 내가 인정하는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후에는

하는 사람이 될 거야 ! 파이팅 !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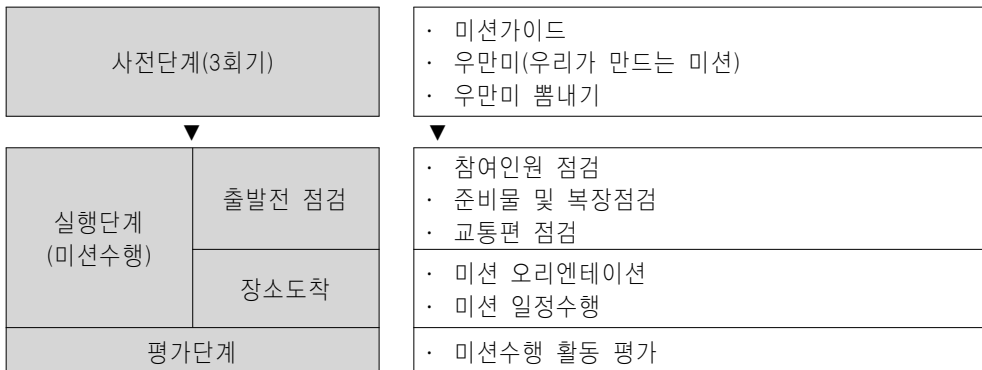
서 명 : _____

(인) 

3 회 기

회기 주제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	운영 방법	소집단	운영 시간	90분
전개	형태	구조화 프로그램			
	조직	진행자 1명, 2회기 참여청소년			
	활동 목표	1. 청소년의 자율적· 주도적 미션 수립을 통해 동기를 강화하고 참여율을 제고한다. 2. 또래와의 미션 수립 과정에서 자신을 의견을 조율하고 통제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한다.			
	활동 내용	1. 워밍업 - 위로 아래로 2. 미션가이드 3. 우만미(우리가 만드는 미션) 4. 우만미 뽐내기 5. 나누기	준비물	노트북(인터넷 연결), 빔 프로젝트, 편안하고 밝은 음악, 펜, 간식, 활동지 3-1, 활동지 3-2	
유의점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프로그램에 대해 칭찬하고, 프로그램 운영 문제(예산·현실가능성 등)에 대해 '미션가이드' 시간에 언급하여, 수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청소년들의 계획수립에 따른 기대감 형성 및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션 종료 이후, 정례적인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 예고	미션활동			

〈프로그램 구조〉



③ 회기 : 우리가 만드는 미션 FOB (For the youth Of the youth By the youth)

I. 목 표

첫째, 청소년의 자율적·주도적 미션 수립을 통해 동기를 강화하고 참여율을 제고한다.
둘째, 또래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제하며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한다.


II. 준비사항

1. 준비물 : 노트북(인터넷 연결), 빔 프로젝트, 편안하고 밝은 음악, 펜, 간식, 활동지 3-1, 3-2,
2. 자리배열 : 5명 내외의 청소년이 함께 미션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III. 이 시간의 의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미션’을 직접 청소년 자신들이 만들어봄으로써 성취감을 강화하고, 유능감을 증진시키며 자조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진다.

IV. 진행과정

 도입활동(10분)

① 팀웍 다지기

- 위로 아래로

- * 지도자는 참여청소년들을 2명씩 짝짓게 한다.
- * 주먹을 각 청소년들끼리 엇갈리게 위로 아래로 놓는다.
- * 지도자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션을 제공한다. 하나의 미션으로 '위로'를 외치면, 제일 아래의 주먹이 제일 위로 오도록 한다. 두 개의 미션으로 '위로, 아래로'를 외치면, 제일 아래의 주먹이 제일 위로 올리고, 아래로를 외치면 제일 위의 주먹을 제일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 * 이러한 형태로 미션을 2~4개까지 다양하게 주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맞춘 팀이 승자가 되게 한다. 청소년들이 미션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시, 승자가 미션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 활동(70분)

■ 미션가이드(10분)

① 지도자는 미션활동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소개한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껏 경험해 본 것과 달리 여러분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미션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② 미션에 대해 설명하기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을 위한 미션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미션을 만들 때에, 여행이나 영화보기 등 주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려하여 미션을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지도자 Tip

- 미션의 주제는 다양할 수 있다.
예시) 여행, 낚시, 영화관람, 봉사활동, 캠프, 둘레길 탐방 등
- 미션활동 예산, 운영여건 등을 고려해 미션수행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한 예산 또는 주제를 사전에 정해 주어 청소년이 작성하는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 ※ 두드림 2과정의 뽀뽀비즈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활용하여 미션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예산계획은 청소년이 수립하나, 예산집행은 실무자가 청소년과 함께 함을 알린다.
- 부모님과 함께 하는 문화 체험 등 가족들이 함께 하는 미션을 계획해 보는 것도 가족관계향상, 청소년이 두드림·해밀에서의 생활 이해 등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예시: 가족동반 소풍, 가족캠프 등)

③ 지도자는 <활동지 3-1, 3-2>를 참고하여 미션활동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한다.

- <활동지 3-1>은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미션에 대해 아래를 참고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도록 한다.
- <활동지 3-2>는 우만미의 샘플이며, 이러한 형태로 작성하도록 한다.

- 미션가이드

- * 미션주제 : 여행, 봉사활동, 요리활동 등 미션을 대표할 만한 활동주제를 작성한다.
- * 미션명 : 해당 미션에 적합한 명칭을 작성한다.
- * 미션계획자 : 미션수립에 참여한 청소년 명단 모두를 넣는다.
- * 미션수행일시 : 미션수행 일시를 정합니다. 이때, 계획에 따라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2가지 안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 미션 목표: 왜?, 무엇을?, 어떻게? 를 고려하여 미션의 목표를 작성한다.
- * 장소 및 가는 길 : 여행, 봉사활동 등 센터 외의 장소를 가는 계획을 세웠다면 센터에서 출발해 가는 길, 소요시간, 교통편을 작성한다.
- * 일정 및 내용 : 미션에 따른 일정 및 일정에 따른 내용을 작성한다.
- * 준비물 및 담당자 :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을 정하고, 누가 준비할 것인지 를 작성한다.
- * 소요예산 : 미션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예산을 작성합니다. 단,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 미션규칙 : 미션활동시, 지켜야 할 규칙을 작성한다.
- * 금일 미션수립일, 미션계획 수립 시 담당했던 업무와 담당자를 작성하도록 한다.
- * 미션계획자 : 미션계획을 함께 수립한 청소년들의 명단 및 미션계획에서의 역할을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 서명을 한다.
- * 승인자 : 미션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자가 승인하도록 한다.
- * 미션가이드에 대한 팀장을 정하고, 미션을 작성할 사람, 발표할 사람을 정한다.
- * 미션계획은 상황에 따라 한 번에 수립될 수 있고, 2~3회에 걸쳐 수립될 수도 있다. 운영자가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한다.

♡ 지도자 Tip

- 활동지 양식 및 구성항목은 센터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아래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며, 활동주제에 따라 복장, 작업도구 등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필수사항 : 여행 목표, 장소, 교통편, 이동시간, 역할분담, 일정, 예산, 프로그램 계획자 서명, 평가 설문지(5문항)
- 미션활동 계획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예측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한다.

예시)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등

■ 우만미(우리가 만드는 미션)(50분)

청소년들이 우만미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지도자는 관찰자로서 우만미에 적합한 미션을 수립하는지 관찰하도록 한다.

지도자 Tip

- 청소년들이 계획하고, 청소년들이 만드는 미션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사전에 제한시간을 두는 것이 좋으나, 미션계획 수립이 오래걸릴 경우 시간을 더 제공할 수 있다.

■ 우만미 뽑내기(10분)

청소년들이 작성한 우만미를 뽑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여러분들 모두 우만미를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션을 정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작성한 우만미에 대한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항목 및 작성이유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Tip

- 우만미를 작성하면서 적합성 결여, 목표달성 가능 여부, 예산문제 등 발생하는 사항이 있으면 발표 후에 청소년들과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또한, 야외로 나갈 경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하도록 한다.
- 미션수행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은 2~3회차에 걸쳐 준비모임을 가진다. 미션의 종류에 따라 1회로 완료될 수도 있고, 2~3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준비할 수도 있다.
- 상황

나누기(10분)

자리에 둘러앉아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 아래의 평가 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지도자가 미션수행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우만미를 통해 경험했던 의결조율, 문제해결방법, 정보습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해요.”

- 평가활동

- * 미션을 수립하고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은 어떻게 했는지?
- * 작성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 * 모르는 정보는 어떻게 찾았는지?
- * 우만미가 완성된 소감은 어떠한지?

🌸 지도자 Tip(미션 수행 활동일)

- 미션 수행일에 역할별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나, 지도자는 모든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하도록 한다.
- 지도자는 미션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청소년	지도자
	출발전 점검	· 참여인원 점검 · 준비물 및 복장점검 · 교통편 점검
장소 도착	· 미션 오리엔테이션 · 미션 일정 및 과제수행	· 계획대비 운영 적절성 · 청소년의 담당역할 수행도 · 흥미도
평가 단계	· 뒷정리 및 물품정리 · 미션수행 활동 평가 (활동지 3-3)	· 미션활동 전체 평가

- 평가자료는 향후 우만미 프로그램 실시 시, 고려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활동지 3-1]

미션주제	미션주제를 정하도록 합니다.		미션명	해당미션에 적합한 미션이름을 작성합니다.
미션 계획자	프로그램 계획에 참석한 청소년 모두를 넣습니다.		수행일시	미션수행일시를 넣습니다.
미션 목표	우만미 프로그램의 목표를 넣습니다.			
미션장소 및 가는 길	미션활동 장소 및 가는 길을 찾아서 넣습니다.			
미션일정 및 내용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출발부터 시작해서 센터로 도착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일정을 넣습니다.		
준비물 및 담당자	준비물			
	준비내용	담당자	준비내용	담당자
	▪ 간식	▪ 홍길동	▪ 평가지	▪ 가나다
	▪ 레크레이션	▪ 홍길동	▪ 예산담당	▪ 김일박
	▪ 도시락 준비	▪ 김일박		
▪ 평가설문지제작	▪ 가나다			
소요예산 (안)	구분	세부내역		
	간식비	2,000*5명=10,000원		
	점심식대	6,000*6명=30,000원		
	교통비	1,250원*5명*2회(왕복)=12,500원		
	자유이용권	30,000*5명=150,000원		
미션규칙	· 미션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년 월 일
(우만미 작성한 일자를 넣습니다.)

○ 미션 계획자

성명	담당업무
○○○	
○○○	

계획과정에서 함께한 청소년들의 이름과 작성과정에서의 담당업무를 작성하도록 한다.
참여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받도록 한다

승인자 : 김○○ 상담원 (서명)

[활동지 3-2]

미션명	희망찬 미래를 위한 각오 다지기		미션주제	여행
미션계획자	홍길동, 가나다, 김나비, 김선비, 김일박		여행일시	2013년 10월 25일
미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경험 청소년들의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즐거운 여행 준비 여행을 통한 대인관계역량 강화 및 사후 정기적 지속모임 추진 			
미션 장소 및 가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랜드 교통편: 을지로 3가(3호선) → 충무로 환승(4호선) → 서울랜드 도착(소요 시간:1시간) 			
미션일정 및 내용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10시	▪ 센터 집합		홍길동 사전 물품 준비
	10시-11시	▪ 이동		김선비
	11시-12시	▪ 레크레이션		홍길동
	12시-13시	▪ 점심시간		김일박
	13시-14시	▪ 희망찬 미래찾기		가나다
	14시 -17시	▪ 놀이기구(바이킹, 급류타기, 스카이엑스)		김나비
	17시	▪ 소감나누기 및 프로그램 평가		김일박
17시 20분	▪ 센터로 출발			
역할분담	준비물			
	준비내용	담당자	준비내용	담당자
	▪ 간식	▪ 홍길동	▪ 평가지	▪ 가나다
	▪ 레크레이션	▪ 홍길동		
	▪ 도시락 준비	▪ 김일박		
	▪ 평가설문지 준비	▪ 가나다		
소요예산 (안)	구분	세부내역		
	간식비	2,000*5명=10,000원		
	점심식대	6,000*6명=30,000원		
	교통비	1,250원*5명*2회(왕복)=12,500원		
	자유이용권	30,000*5명=150,000원		
미션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활동일에 결석, 지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맡은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온다.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2013년 10월 20일				
○ 미션 계획자(계획수립과정에서의 역할)				
성명	담당업무			
홍길동	프로그램 계획 팀장			
가나다	자료조사			
홍길동(서명), 가나다(서명), 김나비(서명), 김선비(서명), 김일박(서명)				
승인자 : 김○○ 상담원 (서명)				

우리가 만드는 미션(FOB) 평가서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미션활동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2.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3. 미션활동을 통해 동료애가 생겼다.					
4. 미션활동은 흥미로웠다.					
5. 미션활동은 우리가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이었다.					
<p>■ 미션수행을 통해 배운 점은?</p> <p>■ 미션수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p> <p>■ 우만미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는?</p>					

플러스드림(+ Dream)

권역별	프로그램 종류				
	I. 진로 및 직업체험	II. 직업훈련	III. 박람회	IV. 대학탐방	V. 바우처
서울·경기	1.한국잡월드 2.인하대학교항공체험교실 3.서울호서예술전문학교진로체험 4.하자센터 직업체험 5.상상이룸센터 6.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상상팡팡센터 7.인천문예전문학교 8.서강전문학교일일체험학교	1.경기도평생학습e-배움터훈련 2.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1.대한민국전문대학 EXPO 대학설명회 2.한국대학교육협의회수시대학 입학정보박람회 3.서울행복진로직업박람회	1.서울대학교 2.고려대학교 3.성균관대학교	
강원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충청도	한국영상대 체험캠프			교원대학교	
경상도				부산대학교	
전라도			1.전남대학교전공알림아리 Dream U 2.광주시진로진학박람회 '행복꿈따세'	전북대학교	
공통	취업프로그램(고용노동부)	1. 청년 취업 인턴제(고용노동부) 2. 청년창업인턴제(고용노동부)			1.문화이용권 2.KSPO스포츠 바우처 3.나눔티켓 (공연나눔-사랑티켓) 4.여행이용권

I. 진로 및 직업체험

I-1. 한국 잡월드

한국 잡월드	
목적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꿈을 실현한 직업인-코칭 스태프 쇼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주제 영상관 청소년체험관 : 다양한 직업군으로 거리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짐.
특징	직업세계관, 청소년체험관, 어린이체험관, 진로설계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진로 멘토링도 가능함
참여절차	http://www.koreajobworld.or.kr/ 온라인 및 현장 발권을 통해 입장 및 전시관람가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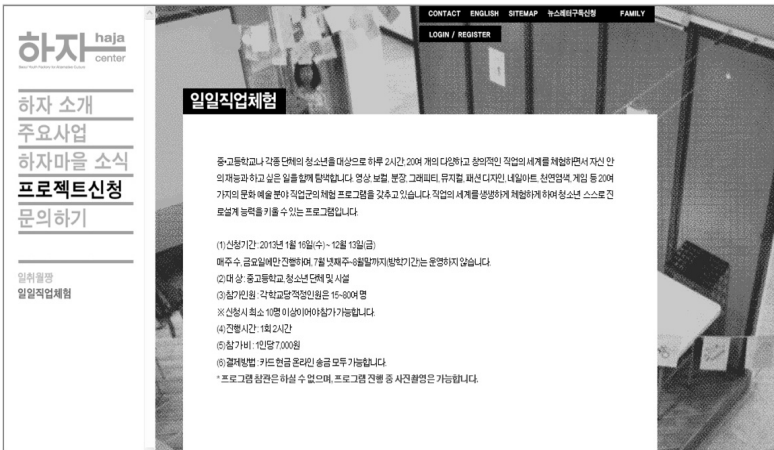
1-2. 인하대학교 항공체험교실

인하대학교 항공체험교실	
목적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항공조종사, 항공승무원, 항공정비사에 대한 기초지식과 직업의 특성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특징	하계방학 중 3일간 실시 및 주말 체험교실 교육장소 :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항공실습실
참여절차	http://www.bluecollege.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032-777-7470
사진	 <p>인하대학교 항공 체험교실</p> <p>진로선택이 왜 중요할까?</p> <p>사진정보 보기</p>

1-3. 서울 호서예술전문학교 진로체험

서울 호서예술전문학교 진로체험	
목적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실용음악, 영상제작, 음향제작, 연기예술, 개그연기, 액션연기, 공연제작, 모델예술, 실용무용, 스포츠건강관리 등 총 12개 계열에서 1일 진로적성 체험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참가자가 원하면 무료로 본인의 진로적성을 알아볼 수 있음
특징	오픈캠퍼스 실시 : 본교 합격생 및 합격생 친구, 원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학과 전공 체험실습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학과별 전공체험 및 교수와의 만남진행
참여절차	매년 하계방학 중 실시 서울호서예술전문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www.koreaart.ac.kr/life/exSchool.asp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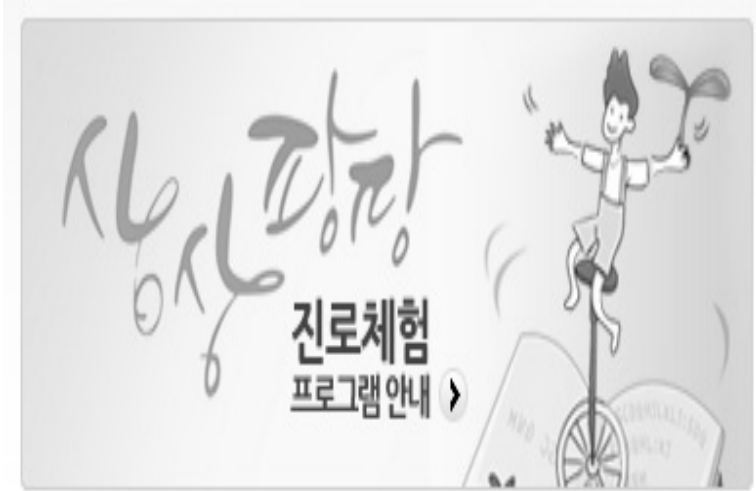
1-4. 하자센터 직업체험

하자센터(서울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 직업체험	
목적	중·고등학교나 각종 단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탐색
대상	중고등학교, 청소년 단체 및 시설
프로그램 내용	<p>일일직업체험: 영상, 보컬, 분장, 그래피티, 뮤지컬, 패션디자인, 네일아트, 천연염색, 게임 등 20여가지의 문화예술분야 직업군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춘, 직업의 세계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여 청소년 스스로 진로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p> <p>직업체험캠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각 직업의 현장 전문가들, 멘토들을 만나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세밀히 관찰해 볼 수 있는 단기체험 프로그램.</p>
특징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본인이 몸으로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참여절차	<p>참가인원 : 각 그룹당 적정인원은 15~80여 명 ※ 신청시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참가 가능</p> <p>진행시간 : 1회 2시간</p> <p>신청방법 : http://2010.haja.net/apply/oneday 매주 수, 금요일에만 진행하며, 7월 넷째주~8월말까지(방학기간)는 운영하지 않음</p> <p>참가비 : 1인당 7,000원</p>
사진	


I -5. 상상이룸센터

상상이룸센터	
목적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을 돕고자 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상상 프로그램 :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특강, 일일직업체험, 진로상담, 진로준비프로그램 등 직업체험 : 지역 내 직업체험 일터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일의 세계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받는 체험활동
특징	일과 놀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 직업에 대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움
참여절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sangsangirum.net/ss_program/sat_enroll 문의전화 02-936-3326
사진	 <p>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Sangsangirum Center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center's logo and name. Below that, there are several menu items including '우리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이용', '상상프로그램', '상상이룸공간', '직업체험(청진기)', '외국어', and '실무자 마당'.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photograph of a group of people participating in an activity. To the right of the photo is a '백문메뉴' (FAQ menu) with four sticky notes containing text: '디지털 라이브러리 방문하기', '프로그램 신청 방법', '상상이룸 일정 보기', and '공간 이용신청 방법'. At the bottom of the photo, there is a caption: '상상이룸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Sangsangir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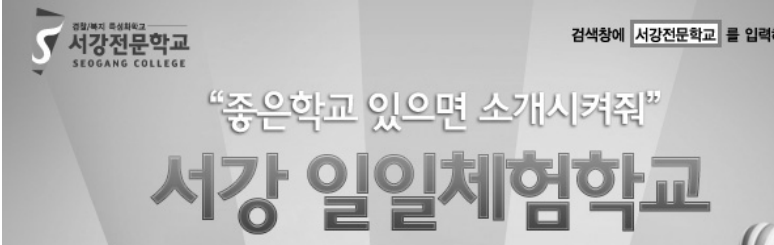
1-6. 강동 진로직업체험 상상팡팡센터

강동 진로직업체험 상상팡팡센터	
목적	청소년들의 '쉼터' 를 제공하고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지원
대상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진로학습 상담실, 직업현장 체험, 잡월드 체험, 직업탐구 기자단, 친구의 생일파티에 놀러와, 직업인 특강 콘서트, 진로 포트폴리오, 도전 직업 & 학과 골든벨 퀴즈 대회
특징	학생들이 자유롭게 방문·이용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허브역할 진로상담과 직업체험을 통해 꿈을 찾고 학습동기 제고 진로관련 진학 학습에 관한 상담지원,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참여절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3388.gd.go.kr/ 문의전화 02-481-7088
사진	

1-7. 인천문예전문학교

인천문예전문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이색직업체험	
목적	청소년들의 체험활동과 미래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
대상	서울 수도권 소재 교육기관 및 기타 해당기관 학생, 청소년 단체만 신청 가능 (20인 이상 40인 이하)
프로그램 내용	푸드스타일리스트, 파티플래너, 커피바리스타, 파티셰(제과제빵), 셰프(요리사), 플로리스트, 와인소믈리에, 뷰티플래너, 웨딩플래너, 아동요리지도사 등을 체험해볼 수 있음
특징	장소: 인천문예전문학교 내 실습 스튜디오 체험시간: 3시간, 체험비용: 1인당 12,000원 일일 이색직업체험 수료증을 발급해줌.
참여절차	http://www.icac.ac.kr 커뮤니티->창의적체험활동에서 신청 032-623-5790
사진	 <p>창의적체험활동 미래산업의 유망직종인 '생활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p> <p>국내 최초 생활문화예술 특성화 학교인 인천문예전문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체험활동과 미래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산업의 유망직종인 생활문화예술분야의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p> <p>인천문예전문학교 교학부 032.623.5790</p>

I-8. 서강전문학교-일일체험학교


서강전문학교-일일체험학교	
목적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대상	서울/경기권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IT학과, 사회복지학과, 실용음악학과, 경찰경호학과, 미용예술학과, 아동보육학과, 광고디자인학과, 경찰행정학과 별로 체험프로그램 제공.
특징	일시: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장소: 서강전문학교 본관
참여절차	온라인 신청: http://sg.ac.kr 입학안내->일일 체험학교 신청 문의전화: 02-2637-7774
사진	 <p>서강전문학교 SEOGANG COLLEGE “좋은학교 있으면 소개시켜줘” 서강 일일체험학교</p>

II. 직업훈련

II-1.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목적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취업 및 학업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기회의 확대
대상	경기도민 전체
프로그램 내용	외국어, 자격증, 교양, 정보화, 경영/리더십 등 5개 분야 총 400여 개의 교육과정과 최신 트렌드 지식 및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 무료 제공
특징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교육비 전액 무료 개인별 맞춤형 e-러닝 서비스 - 분기별 콘텐츠 교체를 통한 학습욕구에 맞는 과정 제공 생애주기별 학습모델 - 국내 최초 도민 기초역량 및 평생학습 선호도검사시스템 구축 -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및 기간간 연계 강화
참여절차	http://www.homelearn.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학습 콘텐츠 신청 후 수강
사진	<p>The screenshot shows the HomeLearn website homepag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로그인' (Login) and '회원가입' (Sign Up) buttons. The main header features the '교육신청' (Course Application) section with a sub-header '경기도민의 역량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청하세요.' Below this, there are several featured course categories: '1. 외국어' (Foreign Language), '2. 자격증' (Certification), '3. 경영/리더십' (Business/Leadership), '4. 정보화' (IT), and '5. 기타' (Others). Each category has a brief description and a '신청하기' (Apply) button. The bottom of the page has a '학습유기단' (Learning Unit) section with a '신청하기' button.</p>

II-2.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취업&자립 사업	
목적	멘토링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직업 훈련 일자리 제공 및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연계
대상	위기청소년(비행, 일탈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프리더 미래스케치: 진로선택을 위한 자기 이해 및 자기탐색 활동 · 카페보스코: 바리스타 양성 과정 · 내 맘대로 클릭!: ITQ, 프레지, 블로그 및 페이스북 활용법 컴퓨터 교육 · 네일아트: 네일아티스트 2급 양성과정 · Dream 인턴제도: 센터 내 일자리(아르바이트) 마련을 통해 사회적 응력 증진과 함께 직업훈련 수료 청소년이 현장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 · 꿈꾸는 Dream 카페: 직업훈련을 수료한 청소년이 직접 카페 운영 및 모의창업 실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연중실시 - 거의 무료이나 일부 프로그램(자격증반, 카페 보스코)는 참가비 있음
참여절차	전화문의 및 신청 02-2051-8600
사진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margin: 10px 0;">꿈 / 희 / 망 / 제 / 작 / 방</p> <p style="font-size: 14px; margin: 0;">One-Stop 시스템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최초의 청소년 종합서비스 기관임</p>

III. 박람회

III-1.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대학박람회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대학 박람회	
목적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대학 홍보
대상	전문대학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매년 7,8월 중 실시 대학홍보관, 직업체험관, 무대공연 세부추진 및 진행사항 안내 주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특징	대학별 홍보관 외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관이 준비되어 있음
참여절차	Tel : 02-364-1601/ Fax: 02-364-1584 e-mail: expo@kcce.or.kr 이메일로 참가 신청받음
사진	

III-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대학입학정보 박람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대학입학정보 박람회	
목적	수시 입학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
대상	대학 수시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
프로그램 내용	매년 7월 말에 3일 정도 개최 전국대학 수시입학에 대한 정보 제공 장소 : 서울 COEX 주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BS
특징	대학별로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각 대학 홍보 담당자가 수시입학에 대한 정보 제공
참여절차	실시 기간 중 현장입장 가능
사진	 <p>2014 학년도 2014 KCUE UNIVERSITY FAIR</p> <p>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p> <p>2013. 7. 25(목)~7.28(일) COEX(코엑스) 3층 C홀</p> <p>주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준비위원회 주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BS교육방송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입장료 1,000원(고교단체입장 무료) 고교단체관람신청 univ.kcue.or.kr</p> <p>문의전화 02)6000-1575~6</p> <p>입학사정관 전체 univ.kcue.or.kr</p> <p>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p> <p>EBS</p>

III-3. 서울 행복진로직업 박람회


서울 행복진로직업 박람회	
목적	전환기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인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설계 역량 강화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다양한 진로 직업 소개 프로그램
특징	전시관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진로, 직업 소개 명사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콘서트 실시 매년 7~8월 중 1번 실시
참여절차	http://www.seoulcareer.kr/index.asp
사진	

IV. 대학탐방

IV-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목적	대학의 정보제공과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매달15일 오후 9시 정각 서울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250명을 모집 (실내 프로그램, 서울대 투어)
특징	대학별로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각 대학 홍보 담당자가 수시입학에 대한 정보 제공 연간 5만여 명 방문하는 인기 대학탐방코스
참여절차	http://tour.snu.ac.kr/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가능
사진	

IV-2.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목적	대학의 정보제공과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매달 1회 정기견학 실시 대학 생활 안내, 학교소개 지망학과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캠퍼스 투어 함께하는 응원문화 체험 및 레크레이션
특징	대학별로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각 대학 홍보 담당자가 수시입학에 대한 정보 제공 연간 5만여 명 방문하는 인기 대학탐방코스
참여절차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 홈페이지에서 견학 신청 단체 견학 : 20인 이상의 단체만 신청할 수 있는 단체 투어 프로그램. 정기 견학 : 한 달에 한번 지정된 날짜에 실시하는 정기투어 프로그램. 개인이나 20인 이하 소규모 단체만 신청가능 http://tour.korea.ac.kr/common.main.ko 통해 신청
사진	 <p>The screenshot shows the 'tour' page of the Korea University Student Ambassador website. It features a header with navigation links like '로그인', '회원가입', 'SITEMAP', '여울소개', '캠퍼스 안내', '견학신청', '커뮤니티', and '멘토링'.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a large photo of three ambassadors in white uniforms, a 'tour' section with a list of dates and times for tours, and a 'KOREA UNIVERSITY STUDENT AMBASSADOR FOR KOREA UNIVERSITY STUDENT' banner at the bottom. There are also some statistics or counts in the bottom right corner, such as '60' for '캠퍼스 견학신청 바로가기' and '후기게시판'.</p>

IV-3.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목적	대학의 정보제공과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함
대상	청소년, 일반인
프로그램 내용	20명이하(인문사회과학캠퍼스) / 50명이하(자연과학캠퍼스)의 개인 및 소규모 단체만 신청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캠퍼스투어를 비롯하여 실내에서 학교소개, 대학생활안내, 레크리에이션, 멘토링까지 제공하고 있음 각 분기마다(3개월마다) 한 번 열림 신청인원 : 20명 이하만 신청 가능
특징	초등학생 및 유아 동반할 경우 신청 불가
참여절차	신청인원 : 20명 이하만 가능 대학입학처 홈페이지 : 010-3451-1398(인문사회과학캠퍼스 투어팀장) 010-3455-1398(자연과학캠퍼스 투어팀장)
사진	

강원


IV. 대학탐방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목적	대학의 캠퍼스 투어를 통해 진로 선택의 도움을 주고자 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p>단체견학 : 중, 고등학교나 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 대상 최소 25명 ~100명이하의 단체를 학생홍보대사가 진행하는 견학 프로그램/ 60분또는 90분짜리 프로그램 선택</p> <p>월~금 10시, 12시, 14시, 16시 총 4번(학교 행사 기간, 법정 공휴일 제외)</p> <p>정기견학: 개인적으로 학교를 견학하고 싶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 학생홍보대사와 2시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짐. 일정은 매월 초에 공지됨</p>
특징	학생홍보대사와 함께 하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견학 프로그램임
참여절차	http://www.yonsei.ac.kr/contents/intro/tourapply_2.html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사진	

총 청

1. 진로 및 직업체험
한국영상대 체험캠프

한국영상대 체험캠프	
목적	대학의 정보제공과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2박3일간 대학체험캠프 개최 대학생활 체험,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특징	참가학생 중 이벤트 연출과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이벤트 연출과의 원서비 면제와 자원봉사시간 부여,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짐
참여절차	http://www3.pro.ac.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진	

IV. 대학탐방
교원대학교

교원대학교	
목적	대학의 캠퍼스 투어를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홍보동영상 : 대학의 전반적 학교소개 동영상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대학입시관련 질의·응답 : 방문한 학생들과 입시관계자의 상세한 질의·응답시간 교육박물관 : 국내 최대 교육 전문 박물관 도서관 : 대학의 요람인 도서관 견학
특징	외딴 곳에 나무가 우거진 캠퍼스로서, 미래의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
참여절차	http://www.knue.ac.kr/icons/app/cms/?html=/home/int_c2.html&hell=/index_shell:43 홈페이지에서 신청 담당부서 : 한국교원대학교 기획처 대외협력과 연락처 : 전화) 043-230-3411, Fax) 043-233-2207, E-mail) knue3400@knue.ac.kr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
사진	

경상도

IV. 대학탐방

IV-1.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목적	대학의 정보제공과 전공 선택을 돕기 위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신청인원 : 선착순 30명 투어일시 :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0:00 (투어 희망일 일주일전까지 신청 마감) 집결장소 : 부산대학교 본관 301호 투어시간 : 2시간
특징	부산대학교 홍보담당자가 투어 진행
참여절차	자세한 프로그램은 캠퍼스투어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usan.ac.kr/KOR_PNUS/html/06_pr/pr_06_02.asp 연락처 : 051-510-1299, 1209 [홍보실 투어담당자]
사진	

전라도

Ⅲ. 박람회

Ⅲ-1. 전남대학교 전공알림아리 Dream U

전남대학교 전공 알림아리 Dream U	
목적	청소년의 진로, 진학 선택을 돕기 위함
대상	대학진학을 앞둔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8월에 이틀 간 광주 캠퍼스에서 개최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학과 상담, 단과대학 체험활동 전공과 직업 특강, 진학상담, 입학사정관제 종합평가 체험 등
특징	세부적인 전공의 특성을 알고 체험해볼 수 있음
참여절차	http://www.jnu.ac.kr/jnumain.aspx
사진	

III -2. 광주시 진로진학 박람회 ‘행복꿈따세’

광주시 진로진학 박람회 ‘행복꿈따세’	
목적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 및 탐색을 돕기 위함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12개 유관기관 및 51개 대학교가 참여 직업체험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길찾기’ 영역, 진로체험 및 탐색, 공연 및 전시가 진행되는 ‘꿈꾸기 영역’, 저명한 강사의 강연 및 대학별 입시 설명회가 이어지는 ‘꿈과의 만남’
특징	7,8월 중 3일간 실시 2013. 7. 19(금) ~ 21(일), 10:00~17:00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함
참여절차	http://www.jinhak2013.co.kr 에서 신청
사진	


IV. 대학탐방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목적	캠퍼스 투어를 통해 대학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게 함
대상	청소년, 일반인
프로그램 내용	대학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A코스, B코스 중 참가자가 선택하여 대학 홍보대사와 함께 투어를 진행함
특징	대학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캠퍼스 투어
참여절차	http://www.jbnu.ac.kr/contents/1about/1about07/1about0701/1about0701.php?pageKey=73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사진	 <p>The screenshot shows the 'About CBNU'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banner with a tiger statue and a building, with the text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About CBNU'. Below the banner, there are two main sections: '대학정보' (About CBNU) and '코스안내' (Campus Tour Course). The '대학정보' section has a list of links: '총강실', '대학소개', '대학연혁', '대학조직', '대학상징', '학칙 및 규경', and '캠퍼스투어'. The '코스안내' section has a sub-section '코스안내 Campus Tour Course' with the text: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홍보대사와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즐겁습니다. 투어 문의전화: (063)270-4383'. There are two buttons: 'A코스 보기' and 'B코스 보기'. To the right, there is a map of the campus with various points of interest marked.</p>

공 통

1. 진로 및 직업체험

1-1. 취업프로그램(고용노동부)

취업프로그램	
목적	직장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탐색 및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프로그램 내용	직업체험(현장체험, 대학학과 및 전공체험, 취약계층 직업체험), 강소기업 탐방, 취업캠프
특징	직업체험-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강소기업탐방-지방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 취업캠프-최근 구직동향 및 취업정보제공, 구직스킬 역량제고
참여절차	http://www.work.go.kr/experi/intro/empProgram.do 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후 신청
사진	

II. 직업훈련

II-1. 청년 취업 인턴제

청년 취업 인턴제	
목적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정규직 전환 등)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프로그램 내용	중소기업 인턴으로 채용
특징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
참여절차	<p>http://www.work.go.kr/inter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2px;">1 개인 인턴 신청 (온라인, 전화 등) <li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2px;">2 인턴 자격 심사 <li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2px;">3 인턴 취업 매칭 및 취업 상담 <li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2px;">4 사전 직무 교육 (2일 14시간) <li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2px;">5 인턴 근무
사진	

II-2. 청년 창직 인턴제


청년 창직 인턴제	
목적	창직,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실무경험과 교육을 제공
대상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창직, 창업 희망자
프로그램 내용	기업 및 전문가와의 인턴 기회 제공, 창직·창업으로 연계지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 근무(정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농수산업 인턴은 6개월)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하는 창직인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의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 기본 근로 조건(임금, 연수·근무 시간 등)은 연수 시행자와 인턴 참여자의 협의 후 결정 - 창직·창업 성공을 위해 훈련 계획서 작성 및 주당 4시간 이상 교육훈련 전용 시간 편성
참여절차	<p>http://www.work.go.kr/intern</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 창직 인턴 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2 알선 및 채용 (운영기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3 약정체결 (기업-인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4 창직 업무 개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5 지원금 신청 및 (매월)</div> </div>
사진	

V. 바우처




V-1. 문화 이용권

문화 이용권	
목적	문화생활 혜택을 통한 사회적 및 삶의 질 향상
대상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프로그램 내용	지원대상자 문화카드 지급(연간5만원), 가구카드 1매,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만 10~19세) 공연, 전시, 영화, 문화예술 축제 등 관람, 음반, DVD, 도서 구입, 온·오프라인의 문화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이용
특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주관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주관
참여절차	http://www.cvoucher.kr/ 또는 http://www.문화이용권.kr/ 홈페이지 신청 주민센터 신청 가능
사진	

V-2. KSPO 스포츠바우처

KSPO 스포츠 바우처	
목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5세~만 19세 청소년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동일 연령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능)
프로그램 내용	스포츠강좌 바우처카드 : 스포츠바우처가 가능한 시설의 스포츠강좌를 월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해줌. 시군구에서 부여한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스포츠관람 바우처카드 : 가구당 연 최대 20만원 지원해줌.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음
특징	시군구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함
참여절차	http://www.svoucher.or.kr/front/course/apply_search_period.do 에서 신청 시군구에서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후 스포츠 이용원 회원가입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해당 시군구에서 작성 후 공단으로 송부
사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p>○ 지원대상</p>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만5세~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1994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지원가능한 차상위 계층의 범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자활근로대상자/장애인/한부모가족) ▪ 조기 혹은 지체 입학자: 시군구에서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후 스포츠이용원 회원가입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해당 시군구에서 작성 후 공단으로 송부  </div>

V-3. 나눔 티켓 (공연나눔-사랑티켓)

나눔 티켓 (공연나눔-사랑티켓)	
목적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문화 감수성,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함
대상	문화카드 소지자, 초, 중, 고교생 및 교사, 나눔 티켓 참여단체 소속근무자, 사회복지사 등
프로그램 내용	나눔티켓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 50~8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전시 관람을 지원하는 공공제도 나눔티켓은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가 진행되며, 관람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좌석이 지정됨
특징	나눔티켓은 본인 회원 외 양도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차액이 부가됨 이용범위: 나눔회원인 경우 월2회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 배움회원 또는 나눔회원은 50~80%의 티켓을 할인 받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음
참여절차	http://www.nanumticket.or.kr/Home/GiveTicketInfo/GiveTicket.aspx 에서 신청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행복해지는 문화나눔 나눔티켓</p> </div> <div style="width: 65%;"> <p>나눔티켓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초·중·고교생의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문화 감수성,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입니다.</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30%;"> <p>이용대상</p>  <p>문화카드 소지자 초·중·고교생 및 교사(교직원 포함), 나눔티켓 참여단체 소속근무자, 사회복지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는 회원가입을 통하여 나눔티켓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div> <div style="width: 30%;"> <p>이용방법</p>  <p>① 나눔티켓은 미판매 예정 좌석을 기부받아 50~8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전시 관람을 지원하는 공공제도입니다. ② 나눔티켓은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가 진행되며, 관람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좌석이 지정됩니다.</p> </div> <div style="width: 30%;"> <p>CI/Corporate Identity Concept</p>  <p>CONCEPT 티켓을 모티브로 하여 티켓을 분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점선모양의 재단선을 이용하여 나눔과 티켓을 나누는 구간을 디자인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고딕체의 글자를 이용하여 네모난 티켓에 힘을 더 실어주었습니다.</p> </div> </div>

V-4. 여행 이용권

여행 이용권	
목적	검정고시 이후 문화생활 혜택을 통한 사회적응 및 삶의 질 향상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이나 기관, 단체 등
프로그램 내용	개별여행 : 한 가족에 2인으로 30만원까지 지원(동반가족 1인을 추가신청 할 수 있음) 복지시설단체 지원 : 1인당 15만원까지는 동일, 가족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특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운영 선정된 수혜자가 본인이 원하는 여행상품 선택, 실시 여행사 상품 및 교통, 숙박, 입장권 등 사용가능
참여절차	http://www.cvoucher.kr/ 홈페이지 신청 주민센터 신청 가능
사진	

Abstract

Vulnerable Adolescents Self-reliance and Study Support Integrated Model Development

Adolescents who are one third of the Korea's population have a potential possibility that can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our society, and it is a crucial key to raise adolescent well for preparing the future society. However, there are approximate 700,000 vulnerable adolescents who are having trouble adjusting to the school and society through lack of family's care.

Therefore, it needs an obvious definition for vulnerable adolescents as the policy object and a method of support to solve thousands of vulnerable adolescents' problem.

By this time,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adolescents in Korea has two methods aimed at self-reliance. One is a method for vocational career and the other is for an academic career. Although each method is crucial for developing the vulnerable teenagers' self-sufficiency and academic ability, integrated systematic support model is needed.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developed the effective integrated support model and this model integrates with existing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 support service(Haemil) and the vulnerable adolescent self-reliance service(Do dream).

The study particularly suggests a practice model that has a definite methodology based on a program theory and logic model through an object selection, an input, a practice, and an output for the field application.

Furthermore, the research developed a post-adaption program for vulnerable adolescent's follow up managemen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field.

The integration model development will pave the way the existing service that are divided on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 support service(Haemil) and the vulnerable adolescent self-reliance service(Do dream) to be more consistent and systematic.

It is anticipated that vulnerable adolescents such as the school drop-out can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getting back their study or entering into society through the integration model development.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the post-adaption program is used as a useful method for adolescents who achieve an individual goal to be an successful experience consistently.

<도움을 주신 현장전문가>

문명순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박경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배영태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선미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은주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대일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연숙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은정 (창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구보고 2013-26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

2013년 12월 12일 인쇄

2013년 12월 16일 발행

발행인 : 조운선

발행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전화 / 02-2075-4500(代)

인쇄처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화 / 02-2263-38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427-01

